교사

용연초등학교 50년사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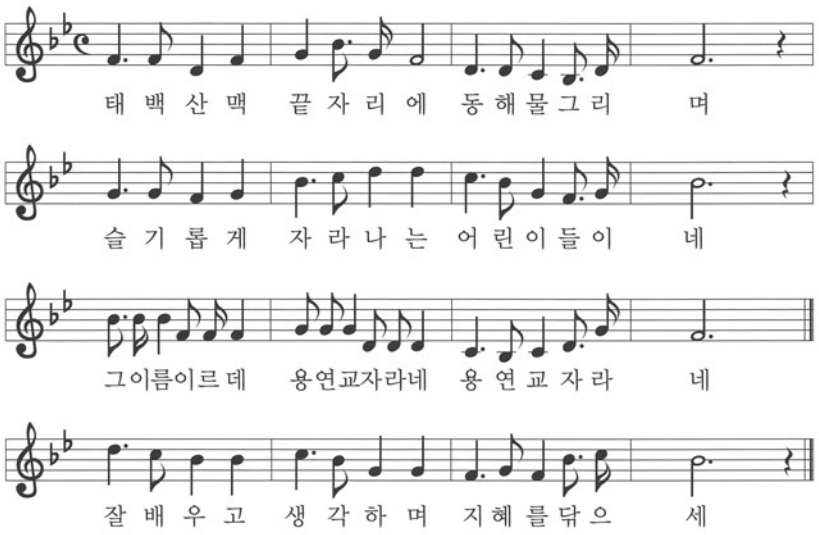
울산

옹연초등학교 50년사

옹연초등학교총동창회

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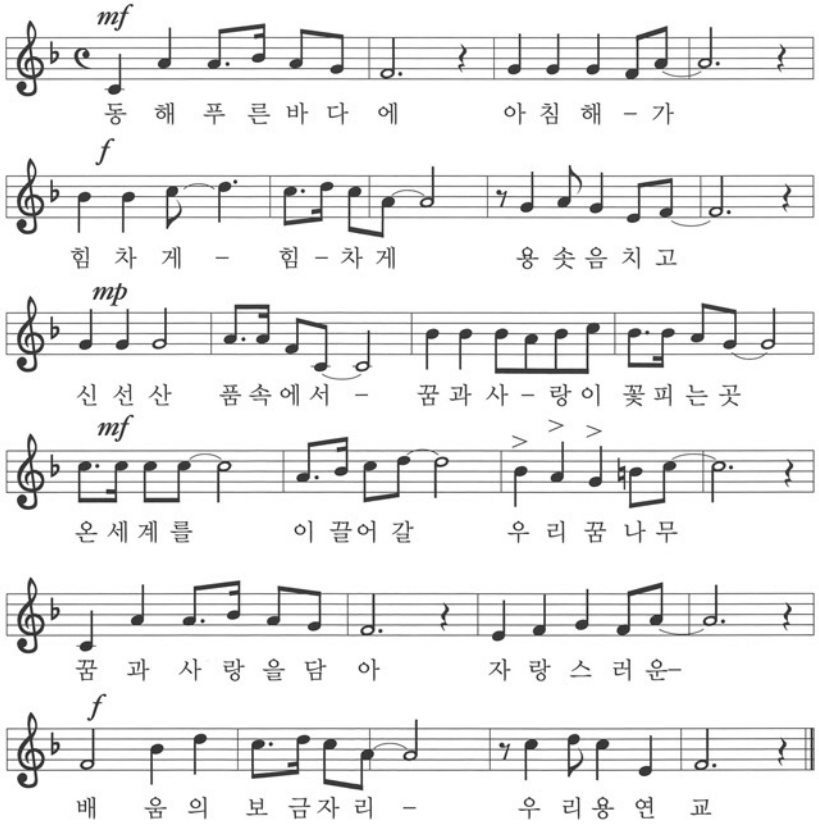
舊_



新_

밝고 힘차게

정용원 작사 / **김진덕** 작곡



교기



(구)



(신)

교표

용연이라 학교 이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미래를 향하고 있는 아이들과의 희망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싱싱한 생명력으로 상징하는 초록색이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색이 진취적인 학교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캐릭터 | 오름이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는 힘 있는 모습을 우리말로 '용오름'이라고 하는데, '용오름'에서 '오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름이'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친다는 힘찬 기상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교화 | 동백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 하여 붙은 이름인 동백(冬柏)은 겸손, 신중, 침착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목 | 주목

유난히도 푸른 주목의 잎은 푸른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하는 정진의 자세와 사시사철 늘 푸른 하나의 모습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굳은 의지와 변하지 않는 절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기



"용연(龍淵)"이라는 지명의 유래

옛 용연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용연 가리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리지(加里池)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역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못의 둘레가 약 3km 정도였다.

이곳의 주민들은 가리못을 용연이라 하며 또한 용시내라고도 한다. 용시내란 말은 용(龍)이 살았다는 못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못의 물줄기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모양을 하면서 조구제와 제하(堤下)를 거쳐서 송계(松溪)를 지나 마을을 가로질러 개운포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시내라고 부른다.

사진으로 보는

용연초등학교



❶ 옛 용연초등학교 교문(1970)
❷~❸ 옛 용연초등학교 북쪽 교사 현관 전경
❹ 옛 용연초등학교 서쪽 교사 전경
❺ 옛 용연초등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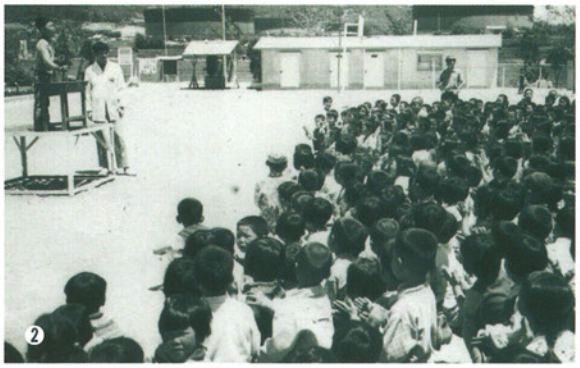




























❶ 아침조회
❷ 웅변대회
❸~❹
1973년 5월 8일
제1회 어버이날 학예발표회
❺ 80년 5월 16일 학예발표회
❻ 82년 5월 28일 스카웃 발대식
❼~❿
1985년 19회 학예발표회



❶ 1985년 19회 학예발표회
❷~❸ 1988년 22회 학예발표회
❹ 1973년 가을운동회(어머니들 참여)
❺ 1973년 가을운동회
❻ 1978년 가을운동회 2,3학년(15,16회)
❼ 1980년 10월 가을운동회(16회 4학년 때)
❽ 1981년 가을운동회























❶ 1982년 가을운동회
(16회 6학년 때)
❷~❻ 1982년 가을운동회






❶


❷


❸


❹


❺


❻

❶~❸ 1982년 가을운동회
❹~❼ 1985년 19회 가을운동회
❽ 1988년 22회 운동회


❼


❽















❶~❷ 1988년 22회 운동회
❸~❼
1992년 26회 가을운동회













❶ 1970년 8회 2학년 봄소풍
❷ 1974년 8회 가을소풍(성지곡수원지)
❸ 1973년 봉대산 봄소풍(왼쪽부터 12회 이상애, 11회 김미옥, 박재우, 8회 이경애, 김소옥, 김미희)
❹ 15회 3학년 봄소풍
❺ 15회 세죽 뒷산 소풍
❻ 1977년 16회 1학년 소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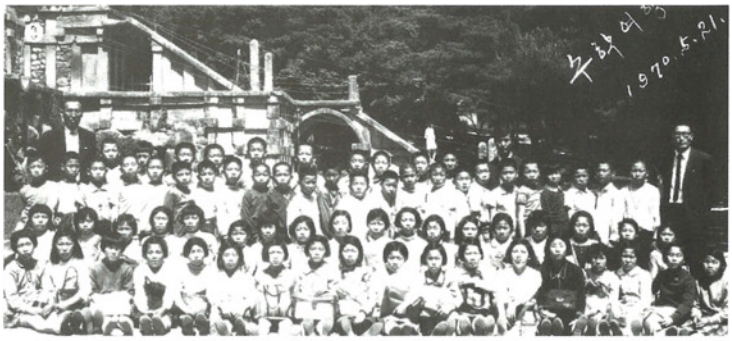




❶ 1978년 16회 3학년 가을소풍
❷ 13회 5학년 때 봄소풍
❸~❹ 21회 소풍
❺ 22회 봄소풍
❻ 28회 2학년 소풍









❶ 1회 수학여행(불국사)
❷ 1회 수학여행(분황사)
❸ 4회 수학여행(불국사)
❹ 5회 1반 수학여행
❺ 7회 수학여행(대구 달성공원)
❻ 7회 수학여행(불국사)





















❶ 8회 수학여행(석굴암)
❷ 8회 수학여행(분황사)
❸ 8회 수학여행(불국사)
❹ 9회 수학여행(대구 달성공원)
❺~❻ 21회 수학여행
❻~❼ 22회 수학여행
❽ 23회 수학여행















❶~❸ 5회 졸업식 때
❹~❻ 8회 졸업식 때
❼ 9회 졸업식 때 미끄럼들
❽ 9회 졸업식 때 본관 앞
❾ 11회 이봉걸 졸업식 때
동네 동생들과..






❶


❷


❸


❹


❺


❻

❶~❻ 16회 졸업 때
❼~❽ 16회 체육 시간


❼


❽


❶


❷


❸


❹


❺


❻

❶~❹ 16회 수업 전경
❺~⓬ 1990년 11월 18일 동창회


❼


❽


❾


❿


⓫


⓬





2004년 5월 6일
용연초등학교
복교기념식












경
일시 : 2004. 5. 6 (목)
장소 : 용연초등학교 체육관
용연초등학교 복교 기념식
용연초등학교
축
축 용연초등학교 복교




'03 복교기념식수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2004. 05. 06







사진으로 보는

현 용연초등학교





❶~❸ 현 용연초등학교 전경
❹ 교장선생님 집무 모습
❺ 교감선생님 집무 모습















학교 시설

❶ 도서관
❷ 컴퓨터실
❸ 의무실
❹~❻ 급식소













공부하는 모습

❶ 1학년
❷ 2학년
❸ 3학년
❹ 4학년
❺ 5학년
❻ 6학년













방과 후 학습

❶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❷ 방과 후 영어
❸ 방과 후 컴퓨터
❹ 보육 교실







학습 활동

❺~❻ 제1회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
(2004. 5. 18~20)
❻ 119 동요 경연대회









❶ 가을대운동회
❷ 학예큰잔치
❸ 입학식(2005. 3. 2)
❹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 말씀 (2005. 3. 2)
❺~❻ 봄 현장 학습(2005. 4.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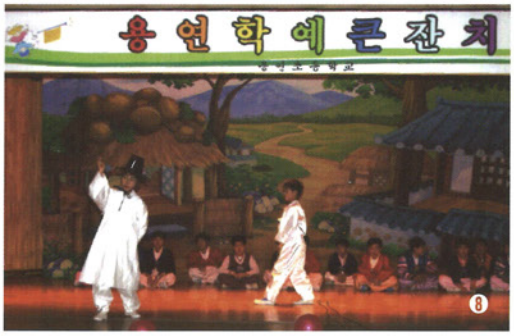




❶~❷ 체육회(2005. 5. 4)
❸~❹ 수련회(2005. 6. 24~25)
❺~❻ 도서관 개관식
(2005. 9. 30)
❼ 수학여행(2005. 10. 4~5)
❽~❾ 학예큰잔치(2005. 11. 4)

























❶~❷ 입학식(2006. 3. 3)
❸~❹ 봄 현장 학습
(2006. 4. 13~14)
❺~❻ 체육회(2006. 5. 4)
❼~❽ 신선산 등반(2006. 6.)
❾~❿ 전국소년체전 참가





















❶~❷ 전교 어린이회 선거 (2006. 3)
❸~❹ 수학여행 (2006. 9. 21~22)
❺~❻ 입학식(2007. 3. 3)
❼~❽ 과학행사(2007. 4)
❾ 환경정화활동(2007. 5)
❿ 수련활동(2007. 6)

















❶ 수련활동(2007. 6)
❷~❸ 아나바다 알뜰시장(2007. 6. 26)
❹ 신체능력검사(2007. 10. 4~5)
❺~❻ 입학식(2008. 3. 3)
❼ 전교회장 선거(2008. 3. 9)
❽~❾ 봄 현장학습(2008. 4. 18)
❿~⓫ 용연체육회(2009.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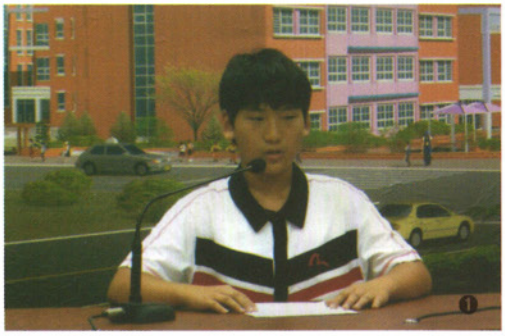




❶ 아나바다 알뜰장터(2008. 5. 28)
❷~❸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학예대회(2008. 6. 3)
❹ 2008 수련활동(2008. 7. 9~10)
❺~❻ 2009학년도 입학식(3. 2)
❼~❽ 봄 현장학습(2009. 4. 18)
❾ 제13회 교육감기 육상대회(2009. 3. 20~21)
❿~⓫ 과학동산 운영(2009. 7. 20~21)















❶ 2학기 전교 임원 선출(전교회장 후보자 연설)
❷ 2학기 전교 임원 후보자
❸ 2학기 개학식(2010. 9)
❹ 강남 초등학생 울산자랑 탐구보고서대회 동상
❺ 강남 초등학생 영어로생각겨루기토론대회 은상, 장려상
❻ 강남교육청 초등학생 영어듣기쓰기대회/울산사이버창의대회
❼ 울산창의력경진대회
❽ 바다사랑 그림그리기대회
❾ 교육감배 바둑대회
❿ 강남과학행사 수상자
⓫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❶ 굿네이버스 편지쓰기대회
❷ 우주정보소년단 글라이더
❸ 로봇올림피아드
❹ 전국학생세금 글짓기
❺ 과학탐구실험대회
❻ 새마을문고 독후감 경진대회
❼ 수련활동(2010. 7. 19~21)
❽ 영어교실 개관식(2010. 9. 7)
❾ 독서 골든벨(2010. 9. 18)
❿ 용연학예회(2010. 11. 6)
⓫ 다문화 체험(2010. 7. 12)
⓬ 수학여행(2010. 5. 3~4)















❶ 2011학년도 입학식(3. 2)
❷ 학급 및 전교 임원 임명장 수여(2011. 3. 15)
❸ 봄 현장체험학습(2011. 4. 5)
❹ 용연체육회(2011. 5. 7)
❺ 수학여행(2011. 5. 18~20)
❻ 용연학예회(2011. 11. 4)





교과서 변천사※

● 1960년대



1962년 발행 1966년 발행 1965년 발행 1968년 발행 1969년 발행 1967년 발행





●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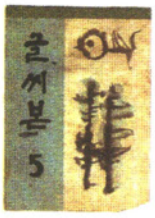
1973년 발행 1976년 발행



1969년 발행



1976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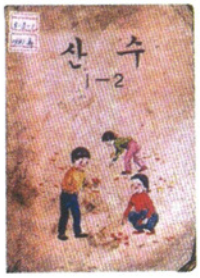
1976년 발행 1978년 발행



1976년 발행 1972년 발행

※ 교과서 변천사 자료는 「남목초등학교100년사」(2008) 화보에서 발췌했음을 밝혀 둔다.(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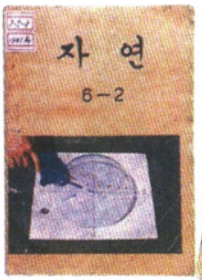
● 1980년대



1981년 발행



1981년 발행



1981년 발행



1980년 발행



1980년 발행



1981년 발행



1981년 발행



●1990년대 이후


과학
실험 관찰
체육 5
음악 5
실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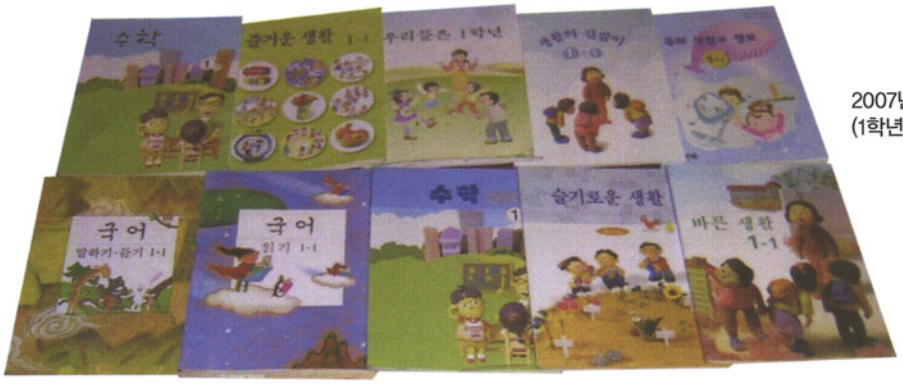

수 학
1-가
교 사용
수 학
교사용 1-가
교 사용
바른 생활
1-1
생활의 길잡이
교 사용
즐거운 생활 1-1
정보 생활


도 덕
5
국 어
읽기 5-1
수 학
5-가
사 회 5-1
사회과 탐구
5-1


도 덕
3-1
생활의 길잡이
3-1
국 어
국 어
수 학
3-가
수 학
3-가


국 어
국 어
국 어
수 학
1-가
교 사용
바른 생활
1-1
슬기로운 생활
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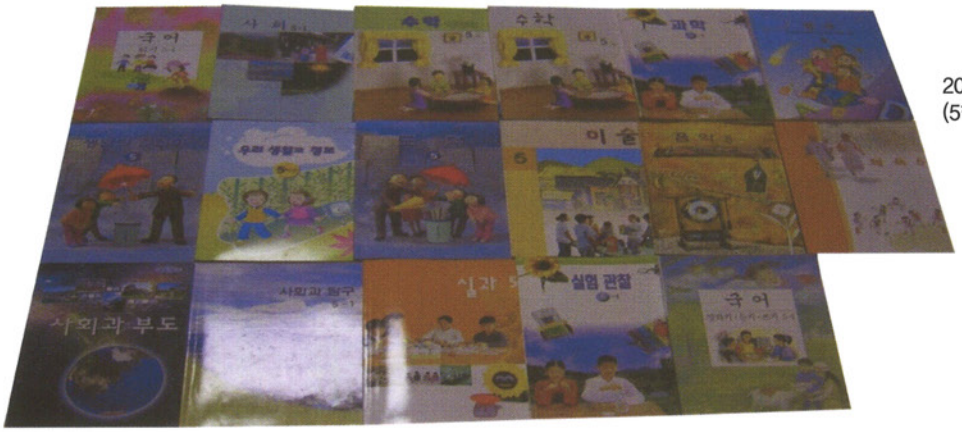
● 2000년대(7차 교육과정)



2007년 발행
(1학년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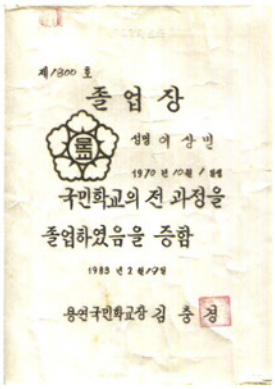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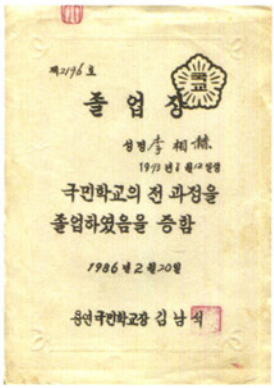
2007년 발행
(3학년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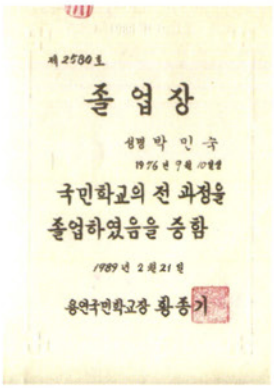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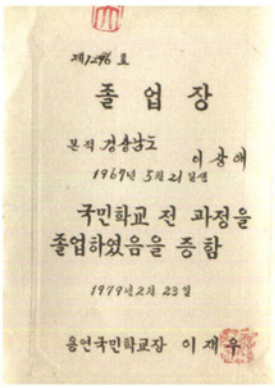
2007년 발행
(5학년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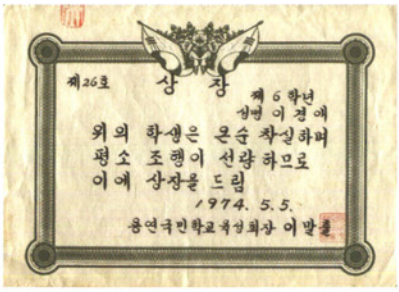
〈옛 용연초등학교 당시 각종 졸업장·표창장·임명장·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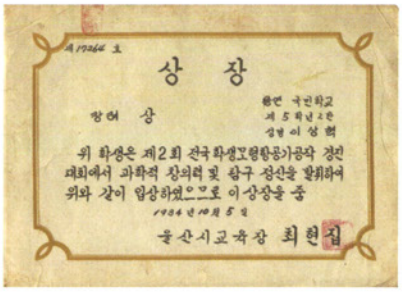

제1800호
졸업장
성명 여 상 빌
1970년 10월 1일생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함
1983년 2월17일
용연국민학교장 김 충 정


제2176호
졸업장
성명 李 相 鎭
1973년 1월 1일생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함
1986년 2월 20일
용연국민학교장 김 남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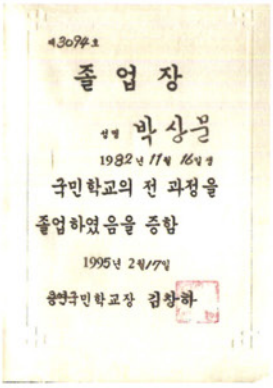

제2580호
졸업장
성명 박 민 숙
1976년 7월 10일생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함
1989년 2월 21일
용연국민학교장 황 종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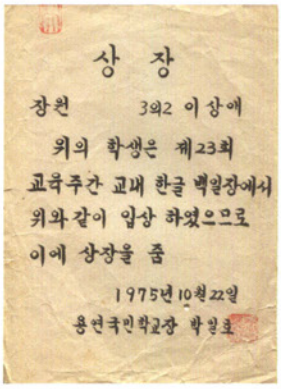

제1296호
졸업장
본적 경상남도
이 상 애
1967년 5월 21일생
국민학교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함
1979년 2월 23일
용연국민학교장 이 재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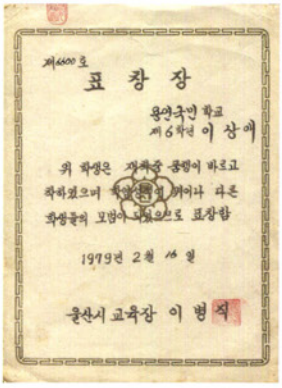

제26호
상장
제 6 학년
성명 이 정 애
위의 학생은 몸을 착실하며
평소 조행이 선량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림
1974. 5. 5.
용연국민학교 학생회장 이 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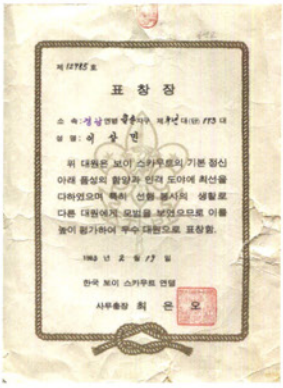

제172호
상장
장려 상
용연 국민학교
제 5학년 2반
성명 이 성 혁
위 학생은 제2회 전국학생오림합품가공작 경진
대회에서 과학적 창의력 및 탐구 정신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상장을 줌
1984년 10월 5일
울산시교육장 최 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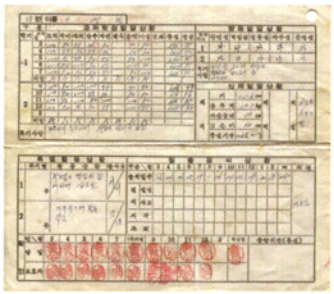

상장
제588호 제 4 학년
이 상 애
위의학생은 고내일제고사
에서 성적이우수하였
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1976년 12월 25일
용연국민학교장 이 재 우


제3078호
졸업장
성명 박 상 물
1982년 11월 16일생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함
1995년 2월17일
용연국민학교장 김 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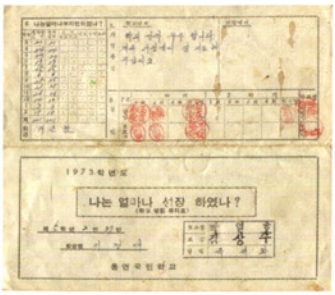

상장
장원 3의2 이 상 애
위의 학생은 제23회
교육주간 교내 한글 백일장에서
위와 같이 입상 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줌
1975년 10월 22일
용연국민학교장 박 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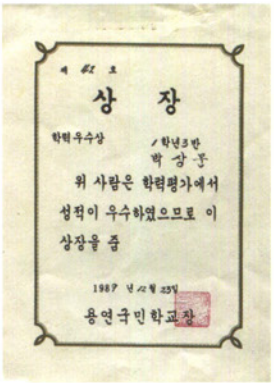

제4600호
표창장
용연국민학교
제 6학년 이 상 애
위 학생은 자육중 공명이 바르고
착하였으며 특히 [illegible]
화랑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표창함
1979년 2월 16일
울산시교육장 이 병 직


제12715호
표창장
소속: 정상면 중동리 제3구 대(통) 173 대
성명: 석 우 빈
위 대원은 보이 스카우트의 기본 정신
아래 품성의 함양과 인격 도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선행 봉사의 생활로
다른 대원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를
높이 평가하여 우수 대원으로 표창함.
1983년 2월 17일
한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최 은 오




1974학년도
성 활 통 신 표
국민학교


1973학년도
나는 얼마나 성장 하였나?
(학교 생활 부터)
성 명 김 상 주
용연국민학교



제 8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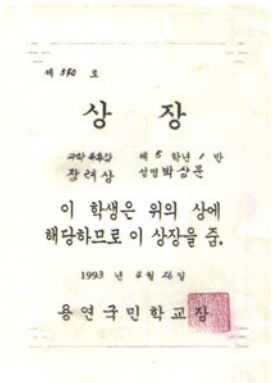
상 장

학력우수상 1학년3반 박 상 문

위 사람은 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1987 년 12월 23일

용연국민학교장



제 150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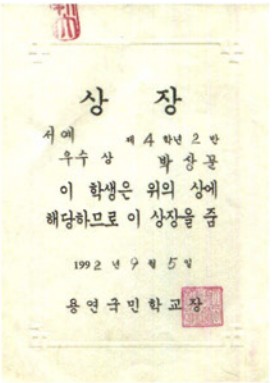
과학우등상 제 5 학년 1 반 심명박상문

장려상

이 학생은 위의 상에 해당하므로 이 상장을 줌.

1993 년 6월 25일

용연국민학교장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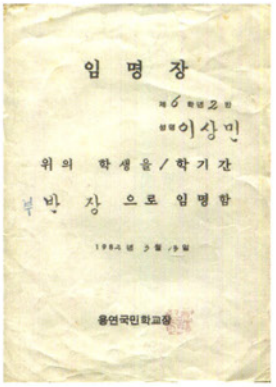
서예 제 4 학년 2 반

우수상 박 상 문

이 학생은 위의 상에 해당하므로 이 상장을 줌

1992 년 9 월 5 일

용연국민학교장



임 명 장

제 6 학년 2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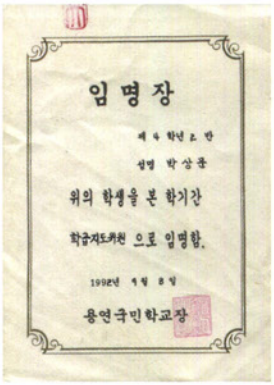
성명 이 상 민

위의 학생을 1 학기간

부반장 으로 임명함

1984년 3월 1일

용연국민학교장



임 명 장

제 4 학년 2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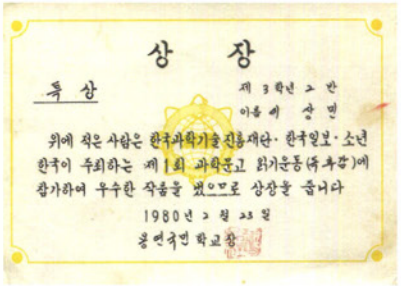
성명 박 상 문

위의 학생을 본 학기간

학급자치회 으로 임명함.

1992년 4월 8일

용연국민학교장



상 장

독 상 제 3 학년 2 반

이름에 상 민

위에 적은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한국일보·소년한국이 주최하는 제 1 회 과학문고 읽기운동(독후감)에 참가하여 우수한 작품을 냈으므로 상장을 줍니다

1980년 2 월 23 일

용연국민학교장



제 35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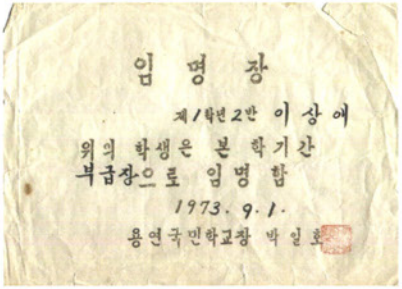
제 4 학년 이 경 에

학업우수 품행방정 하였으므로

이에 이를 포상함

1973년 2 월 24 일

용연국민학교장



임 명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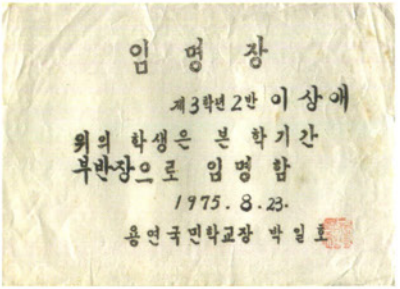
제 1 학년 2 반 이 상 에

위의 학생은 본 학기간

복급장으로 임명함

1973. 9. 1.

용연국민학교장 박 일 호



임 명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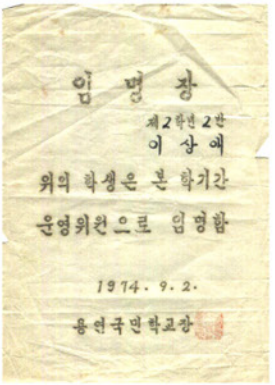
제 3 학년 2 반 이 상 에

위의 학생은 본 학기간

부반장으로 임명함

1975. 8. 23.

용연국민학교장 박 일 호



임 명 장

제 2 학년 2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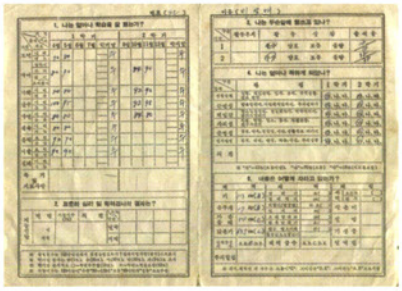
이 상 에

위의 학생은 본 학기간

운영위원으로 임명함

1974. 9. 2.

용연국민학교장





상 장

서강화 용연국민학교

초등부 제 3 학년

임 선 성명 이 상 애

귀 사랑은 본사주최 제 9 회 성남제원 이동 실기대회에 참가하여 위의 성적을 얻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림

1975년 5월 13 일

성남제일신문사 사장 경 복 원



제 //2 호

수 료 증

1978 학년도

학 교 생 활 통 지 표

용 연 국 민 학 교

용연초등학교 학급별 급훈

1학년 1반 : 봉사하고 사랑하며 책 읽는 자기 주도적인 어린이
2반 : 남을 배려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어린이
3반 : 규칙을 잘 지키며 즐겁게 공부하고 발표를 잘하는 어린이
4반 :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며 친구를 배려하는 어린이

2학년 1반 : 동시 쓰기를 통해 생각 넓히기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2반 : 책으로 세상을 열고 꿈을 키워 가는 어린이
3반 : 책임을 다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어린이
4반 : 서로 돕고 사랑하며 독서를 좋아하는 어린이

3학년 1반 : 서로 돕는 행복한 교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2반 : 긍정적인 마음과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어린이
3반 : 독서를 통한 생각 넓히기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4반 : 일기 쓰기와 책 읽기로 생각을 키우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4학년 1반 : 바른 생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실천을
2반 : 바른 습관을 익히며 꿈을 향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어린이
3반 : 꾸준한 독서와 협동 줄넘기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4반 : 약속한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우리반
5반 :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어린이

5학년 1반 : 긍정적인 생각과 자주적인 생활 습관으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2반 : 작은 배려로 큰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어린이
3반 : 독서와 체험을 통한 꿈을 키우는 건강한 어린이
4반 : 배려를 실천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6학년 1반 :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2반 : 마인드업과 복습일기로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3반 :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린이
4반 : 학습 준비를 스스로 하고 기본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어린이
5반 :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어린이





김 석 하 (4회)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장

산을 오르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저 가파른 능선을, 저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아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개교 50년의 역사 속에 폐교와 복교를 겪은 그 시간들과 50년사 발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1962년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으로 개교를 하였고, 1963년 2월 28일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용연초등학교를 신축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해안 마을은 농어촌이 어우러져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신석기시대의 황성동 세죽패총, 신라시대 처용설화의 처용암, 조선시대에는 성암의 개운포성 등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을마다 특별한 지명을 가진 곳곳에는 오랜 시간 어울려 살면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 곳에 우리의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바다에서, 산에서, 그리고 들판을 누비며 뛰놀다가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자 집으로 향하곤 했던 그 시절, 동네에서는 친구요, 학교에 가면 선후배가 되고 졸업 후에는 형님과 아우가 되어 정겹게 살아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편 1962년 울산시가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그늘은 우리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공장 굴뚝에 연기가 짙어지면서 공해에 시달렸고 공단부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학교는 1998년 2월 28일 폐교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용연초등학교, 공해, 폐교라는 이미지가 연결되었고,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향도, 학교도 사라졌고 이웃은 흩어져 떠났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동창들은 뜻을 모아 교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종찬 초대 동창회장님과 제10대 최해수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

장단과 동창 여러분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결국 2004년 3월 1일 현재의 용연초등학교에 복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용연초등학교5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과거에 머물러 한탄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써 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잊혀지기 전에 낱낱이 정리하여 기록에 남겨 단절되었던 우리의 역사가 살아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용연초등학교50년사』는 우리 학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의 이야기와 울산광역시의 공업화 50년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다시는 굴곡진 역사가 없고 희망찬 미래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동창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고 잊어져 가는 자료를 모우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폐교로 단절되었던 기간으로 인해 자료를 어렵게 구하게 되거나 또한 결국 구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백판덕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도움과 동창 여러분이 각 기수별로 자료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윤대헌 님, 오랜 기억을 더듬어 구술해 주신 선배님들,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정리해 준 이수우 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으로 자료 수집, 정리, 편집으로 애써 준 김진곤 편집위원장, 이경애, 김용석, 박혜선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창 여러분, 훗날에 고향이 그립고, 그 시절 우리들의 모습이 보고 싶으면 이 책을 펼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의 전통을 계승한 용연초등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백 판 덕
용연초등학교장

울산시의 역사와 함께 하는『용연초등학교50년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석하 총동창회장님과 김진곤 편집위원장님, 이경애, 박혜선, 김용석 편집위원님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본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난 2월에 제40회 졸업을 하여 졸업생들이 4,900여명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복교하여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폐교 이후 복교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 자리에 복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노력하셨던 최해수 동창회장님과 이수우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복교해서 학교의 기틀을 잡아주신 권두호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용연초등학교와 비교하면 지금의 이 자리는 환경, 시설 등이 훨씬 우수하지만 교육단지에 세워져서 마주보고 있는 신선여고와 같이 생활함으로써 오는 불편함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체육관과 급식소는 신선여고 소속이라 우리 초등학교가 빌려 쓰는 형태가 되어 아동들의 체육활동(주 2회만 체육관 사용)과 학교행사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운동장은 초등학교 소속이지만 같이 사용함으로 운동장 조회나 체육회 등이 여고의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에 서로가 불편함이 많습니다.

총동창회와 본교가 교육청, 정치계에 애로 사항인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건의하여 왔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용연초등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인성 좋고 실력 있는 용연인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연초 동문회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최 만 규
제4대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회가 새롭습니다.

1978년 3월, 용연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던 그 당시에는 12학급이었습니다. 울산에 살았어도, 목도와, 처용암에는 수차례 갔었지만, 용연초등학교는 처음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모래가 많았고, 교사는 반듯하게 세워져 깨끗하였습니다.

당시 이재우 교장 선생님은 인자하시고, 교육열이 대단하였고, 대현면에서 태어난 분이셨고, 선생님도 다들 젊으시고, 패기가 있어 교육열이 대단하였습니다. 어촌 마을이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하였습니다.

만선이 되면 생선회와 술을 교무실에 가져와 선생님들의 사기를 도와 주셨고 자식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어촌 마을의 소박한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었습니다. 이에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의 정성과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학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지도한 결과 울산시내 학력 우수학교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운동회 때 개교 이래 학교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대한 한마당 축제를 이루게 되었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유공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학교 설립부터 노력하신 이말출 님, 박해식 님, 박연모 님, 김순규 님 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첫 교감으로 부임하여 온 정열을 바쳐 주민들과 어울려 학력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울산 공업도시의 확장과 어촌 인구의 감소로 학부형들의 진정과 동창생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998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는 폐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4년 제가 교육감 재직 중에 김종찬 님, 최해수 님, 이수우 님 등 용연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찾아와 모교가 없는 동창생들의 설움과 한을 풀어 달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폐교가 된 용연초등학교를 6년 만에 당시 야음동에 지역민들 품에 다시 복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치하합니다.

폐교가 되었다가 복교가 된 역사가 울산 땅에서는 처음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울산 시민과 용연초등학교동창회가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울산과 더불어 용연인 여러분들의 영광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멸의 작품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 길 원
전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먼저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졸업한 모교를 떠올리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뛰놀던 추억 속의 아름다웠던 교정과 그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늘 마음의 고향처럼 따뜻하고 그리운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교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어느 날 폐교가 되어 흔적 없이 사라진다면 마치 거대한 댐으로 수몰된 마을 주민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울산 지역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 공해로 인해 1988년 2월 28일 폐교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용연초등학교는 더욱이 작은 시골 어촌 마을에 있었던 관계로 그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민들의 애정이 깊었을 것이며, 또한 동창생들의 모교 사랑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픔을 딛고 용연초등학교 교명을 이어갈 복교운동이 한참 전개 될 당시 저가 강남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2004년 3월 1일자로 마침 야음 교육 단지에 초등학교 1개 교가 설립되기로 되어 있어서 이 학교의 교명을 공모하고 있었던 때인지라 우선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 폐교된 용연초등학교를 부활시키기로 뜻을 모은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 학교 인근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게 되어서 폐교된 지 6년 만인 2004년 3월 1일자로 용연초등학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아 『용연초등학교5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용연초등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이 수 룡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의 『용연초등학교5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우리나라 공업화의 산실이 되는 과정에서 폐교의 아픔과 복교의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 개교 50주년을 맞아 이렇게 책으로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니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확신컨대 『용연초등학교50년사』는 용연초등학교가 지금까지 변모해 온 발자취와 더불어 앞으로 변화할 모습도 그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폐교 후 복교를 위해 애쓰셨던 복교추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복교 후 학교의 기틀을 잘 다듬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끊임없이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용연초등학교의 모든 동창회원님들께도 교육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교육단지를 조성하면서 복교하였던 지금의 용연초등학교는 교통과 시설이 편리할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더 나은 학교 풍토를 계승하기 위하여 바른 인성, 튼튼한 학력,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소와 체육관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동창회원들의 관심과 전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울산에서 앞서가는 교육으로 좋은 소문이 늘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교 당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교정을 기억하는 동창회원들은 복교 후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에서 미래의 꿈을 다져가는 지금의 후배들을 생각하며 용연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용연초등학교5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용연초등학교 동창회원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이 수 우 (3회)
복교 초대 학교운영위원장

태백산맥 내리뻗은 무룡산 끝자락 검푸른 동해 바다의 영롱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올라 온 누리를 밝힌 6월의 푸르름 아래, 이곳 신선산의 정기가 서린 교육단지 내, 새롭게 터전을 잡은 용연초등학교의 복교를 맞아 학교 운영을 맡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빌어 글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 합니다.

예로부터 이곳 야음이란 지명은 마을 뒷산이 이끼 야(也) 자(字)와 같이 생겨서 부른 이름이라 전해오며, 선암은 마을 뒤 신선암산에서 신선들이 놀았다는 전설에 의해 선암이라 불리어 왔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신령스런 길지인 학교 앞산에는 신선들이 놀고, 용연에는 잠룡이 막 하늘로 승천하려는 웅혼한 기상을 펼쳐나갈 유서 깊은 곳에 또 다시 용연초등학교의 배움의 터를 이어 갈 우리의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연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배움의 길이란? 촌음이 따로 없습니다. 배움의 길은 눈을 뜨면서 시작이고, 일생을 다하는 날까지 갈고 닦아야 할 머나먼 자기 완성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배운 것을 날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말만하고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한갓 글이나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라는 학이 편 첫 장에 군자의 3가지 즐거움이란? 곧 배우고 제 때에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학문을 같이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들이 나의 학문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했으며, 또 같은 편 4장에서 증자는,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노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실되지 아니하였는가? 벗과 사귐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

였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날마다 자신의 행실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움과 반성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시고 베풀어 주실 우리 용연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나라 이 겨레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큰 꿈과 희망을 키울 인재들의 산실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또, 우리 용연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덕과 인품이 높으신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용연교를 빛낼 이 나라의 큰 동량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용연초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며...

허 주 혁
2013학년도 1학기 전교 어린이회장

먼저 자랑스러운 용연초등학교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연초등학교 1학기 전교 회장이었던 6학년 허주혁입니다. 용연초등학교 개교 50주년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학생 대표로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선배님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용연초등학교는 1998년 폐교의 아픔을 딛고 2004년 다시 복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지금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학교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받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선배님들의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여 재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자랑스러운 용연인이 되기 위해 지난 1학기에 전교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느낀 것은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격려와 배려로 힘들지 않고 보람찬 한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우리 학교가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인품은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친절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며 고민이 있을 경우 상담도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깊은 관심도 가져 주십니다.

가끔 학교 밖에서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은 참 예의가 바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기분이 참 좋아서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 학교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하고 생

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전교 회장으로서가 아닌 용연초등학교의 학생으로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축사를 쓰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6학년이고 정들었던 우리 학교에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되더라도 우리 용연초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친구들과의 우정, 유대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 등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현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앞선 교육, 으뜸 용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글의 의미를 항상 마음 속에 새기며 자랑스런 용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미래는 보다 밝고 찬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학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하며, 용연초등학교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 창 형

2013학년도 2학기 전교 어린이회장

자랑스러운 우리 용연초등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2년 개교하여 1998년에 폐교되었고 2004년에 다시 복교하면서 제가 사는 곳에 용연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다시 복교된 이유는 선배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학교에 대한 애정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용연초등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참으로 뿌듯합니다. 우리 학교는 '참되고 슬기로우며 꿈을 키우는 어린이' 라는 교훈 아래 학교 시설은 모두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바르고 성실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선배님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닐까요? 저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성실하구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용연인으로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2학기 전교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친구들과 선생님, 후배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면 옆에서 쓴 소리로 타일러 주고 혹은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우리 용연초등학교 친구들은 참으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 뿐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저는 용연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용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에 제가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연초등학교의 가르침이 밑바탕이 되어 꼭 필요한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연초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빛나는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상 해
전 학성초등학교장
(1969년 3월 1일에 용연초등학교에 부임하여 3년 동안 근무)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3년 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학교를 거치고 천여 명의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정이 들고 마음이 끌리는 학교와 제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용연초등학교와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정년 퇴임을 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가끔은 소식이 궁금하고 한 번쯤은 만나 봤으면 하는 나만의 욕심도 들었답니다.

지금은 산 좋고 물 맑은 대운산 아래 서창에서 늙은 촌로로 흙일을 하며 여생을 보람 있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고희를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에 회고사를 부탁받으니 고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며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재직 중 즐거웠고 보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적어 볼까 합니다.

1969년 3월 1일에 본교에 부임하여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학교 생활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첫해는 6학년 1반(4회 졸업생) 남학생 담임을 맡고 학교 전체의 생활 지도와 체육 지도를 맡아 교기로 배구부(남학생)를 창단하여 울산시 대표 팀으로 육성시켰고, 이듬해는 여학생을 지도하며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체육관을 두어 좋은 환경에서 전문 코치를 두고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찢기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비올 때는 교실에서 책, 걸상을 뒤로 밀고 연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은 불평 없이 열심히 훈련하여 울산시 대표 팀으로 선발되어 우승컵을 탔을 때 당시 황기상 교장 선생님은 우승컵으로 대포잔처럼 술을 따라 마시고 용연장터까지 시가 행진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봄 가을이면 전교생이 손에 손잡고 소풍을 갔고, 가을이면 온종일 운동장에서 만국기 펄럭

이며 청백군으로 나눠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남학생은 기마전, 덤블링으로 묘기를 자랑하였고, 여학생은 마스게임과 고전무용으로 부모님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사라졌지만, 좋은 추억거리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여 이를 학교마다 실천시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시범 학교를 선정하여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용연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성외마을을 실천 대상 마을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학교는 대통령표창, 학교장은 국무총리상을 받으셨고 실무자인 본인은 상록수 우량 공무원상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연이은 6학년 담임을 맡아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교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젊음으로 열성을 다해 솔선 실천하였고 자연과 우수학교를 지정 받기에 힘을 기울여 학생들에게는 창의력과 관찰력을 놓이고 자연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교정에 모형 동물원을 설치해서 호랑이며 사자, 기린, 코끼리 등의 각가지 동물들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놓았더니 흡사 살아 있는 동물처럼 보였고 학생들과 마을 어린아이들은 만지고 올라타며 즐기기도 한 놀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연초등학교가 공단 확장으로 마을을 잃고 실향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학교는 폐교의 운명을 안게 되었지요. 다행이도 모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문들과 고향 잃은 실향민들의 참된 뜻으로 지금의 모교로 이전하고 교명을 이어가게 되고 대학 캠퍼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울산 교육의 요람지로 자리 잡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창들은 협심 단결하여 뜨거운 학연을 이어가고 모교의 발전을 도우며 애향심을 북돋우고 자랑스런 용연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동창회가 더욱 더 발전해 가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나의 초임지 용연초등학교

옥 재 화
온양초등학교장
(1972. 3. 1~1976. 2. 28까지 4년 동안 용연초등학교 근무)

첫,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또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들이 있다. 첫 차를 놓치면 하루 일을 그르치고, 첫 봉급은 일원 단위까지 기억하게 되며, 첫 직장에서 퇴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인상이 평생을 끌기도 하고, 첫사랑은 오랫동안 그립고 아쉽다. 처음 교단에 섰던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서부 경남 산골 마을에서만 자란 내가 바닷가 용연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가 1972년 2월 하순이었다. 엽서로 날아온 인사 발령통지서를 들고 당시 울산역 근처에 있던 목조로 된 2층 교육청 청사로 갔었다, 거기서 발령장을 받을 때 담당 장학사님은 초임지 학교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도록 하려는 배려에서인지 초임 치고 좋은 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하셨다. 위치부터 물었더니 남쪽을 가리키며 저 산쪽으로 가면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면서 시내버스 정류소를 안내해 주었다. 얼마 안 가서 도착할거라고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도 않았다. 달동 비포장도로를 지나 울산정유공장을 지나갈 때까지는 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웬걸 산등성이를 넘고 넘어서야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동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학교가 보였다. 무려 출발지에서 40분가량 걸리는 먼 거리였다. '공업도시 울산이 과연 넓기는 넓은가 보다. 여기도 울산시에 속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6군 6시에 첫 발령을 받으면 잘 받는다고 희망을 걸고 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괜히 울산을 희망했다는 후회와 고향 학교를 희망할 걸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나의 초임지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숙직실에 있으면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갯내음은 향수를 더 느끼게 했다. 하숙집을 찾으니 어촌 일로 바쁜지라 밥해 줄 집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방을 하나 구해서 잠은 그곳에서 자고 밥은 음식점에서 사 먹으면서 12학급 규모에 620여 명의 학생과 나의 초임지 교사생활이 시작되었다. 함께 초임 발령을 받은 K선생님과 4학년 같은 학년을 맡았으며 교실은 교무실에서 둘러 둘러 가야 하는 제일 먼 곳 별관에 배치되었다. 뒤에 교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초도순시

차 나왔던 학무과장께서 초임 발령의 처녀 총각을 한적한 별관 교실에, 그것도 인접 교실에 배치했다고 염려를 하더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4학년 1, 2반 담임으로서 오로지 갓 나온 사관생도처럼 원리 원칙(?)에 준하여 교단의 첫해를 열어 갔다.

8회 졸업생들과의 인연도 첫 학교에서 숙련되지는 않지만 열정이 있었던 나의 첫 교직의 성과 중 하나이다. 학교의 제일 막내로서 선배 선생님에 비해 경험과 지도 요령은 부족했지만 그럭저럭 아이들과 정도 들고 하숙집도 생겼으며 억센 울산 사투리도 익숙해 갔다. 1년만 있다가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5, 6학년 담임을 연달아 하고 4년이나 있다가 시내 학교로 나왔다. 이때 졸업한 제자들이 8회 졸업생들이다. 그 곳에서의 제자들이 어느 다른 학교에서의 제자들 보다 정이 더 가고 잊을 수 없는데 이제 50대 초반 중년이 되어 가끔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H군과 Y시를 거쳐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니 이곳 제자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 나는 별로 해 준 게 없는데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남녀 1팀씩 꼭 찾아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참 대견스럽다.

한 번은 자정이 넘은 자고 있는 시간에 휴대폰 벨이 울렸다. 얼른 받아보니 8회 졸업생들이 동창회를 하다가 걸어 온 전화였다. 한 명이 통화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릴레이식으로 바꿔가며 3-4명과 반가운 대화를 나누었다. 전화를 끊고는 '요것들이 겁도 없이 늦은 시간에.....' 혼자 중얼거렸지만 기쁜 마음이 앞섰다. 그래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격의 없이 걸어온 전화이기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집이 가까웠더라면 동석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40여 년 전 세월로 되돌아가 즐거운 회상에 잠기게 했으니 참 인정 많고 의리 있는 자랑스런 제자들이다.

나의 첫 업무도 잊지 못한다. 부임 첫해 육상부를 맡아 지도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업무는 내가 가장 맡기 싫은 분야였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아무 지도 요령도 없이 그저 수업 끝나면 육상부 학생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 용연 동네까지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몸을 풀고는 나름대로 꾸준히 육상부를 이끌고 나갔다.

울산 공설운동장에서 종합 체육대회가 있던 날, 트랙경기에서는 성적이 부진했지만 필드경기에서 여학생들이 넓이뛰기, 높이뛰기, 던지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시상식 때 여학생 종합 3위 용연학교를 호명했는데 방송을 듣긴 들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대표선수를 보내지 않다가 3번이나 독촉 방송을 듣고 상장과 트로피를 받아 왔다. 남자 던지기에서 6학년 남학생(7회 졸업생 이상도)이 시에서 1등을 하여 경남도 대회에 나가 3위 입상도 하였다.

이런 것을 두고 지도교사는 시원찮아도 좋은 학생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 선생님(박일호)과 육성회장(이말출 씨) 님이 트로피에 술을 가득 부어 축배를 들 때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초임지의 폐교와 복교를 지켜보며 졸업생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용연초등학교의 복교에 함께 기뻐했다. 요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격감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정이 들대로 든 나의 초임지도 공해 때문에 98년에 폐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임지 학교가 없어진 것에 대해 모교를 잃은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쉬운데 졸업생들은 얼마나 쓰릴까. 아니나 다를까 그 학교 졸업생들이 '남구에 새로 초등학교를 세울 경우 학교 이름을 용연이라 지어 달라'고 어느 신문에 호소를 했다던데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되어 야음 교육단지 내에 복교가 되어 용연초등학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보통 복교를 할 경우 학교가 없어진 그 지역에 세우는데 용연학교는 그 전 위치와 좀 떨어진 곳에 세우면서 복교를 이루어낸 것을 보면, 용연, 황암, 성외, 세죽, 성암 등 용연 학구내 거주하다 주로 다운동으로 이주를 했다던데 이들 지역민과 동창생들의 똘똘 뭉친 단합된 힘이 컸으리라 여기면서 찬사를 보내드린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용(龍) 자(字) 달린 지명과 인연이 깊은 것 같다. 고향 마을 이름이 용동(龍洞)이고, 양산시 내원사 입구에 가면 한자 이름도 똑 같은 양산 용연초(龍淵初)가 있는데, 두 학교를 다 근무해 보았으니 말이다. 용연학교는 뒤로는 봉대산이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마을로 선경공장이 들어서기 전의 성외 마을 들판은 제법 넓어 반농반어 마을로 아담하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었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들의 아픔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그래도 복교를 이루어냈으니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언젠가 '내 고장 이해 교육' 연수가 있어 성암동의 개운포성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세죽 횟집들도 간 곳이 없었고, 꼬시래기 배 띄우면서 오가던 동백섬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산업 도로가 새로 나서 어디로 가야 학교가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에는 폐교된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에는 게양대에 국기가 펄럭이고 넓은 운동장에서 갯바람을 쐬우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때 그 모습대로의 나의 초임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종 찬

초대 동창회장

1962년 모교는 용잠국민학교 용연분교로 시작되었는데, 남녀 학생 각각 1반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용연분교는 용연마을 창고 두 곳을 임시 교실로 이용했습니다. 그곳은 지붕이 함석이라, 비가 오는 날에는 시끄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해 봄, 교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천정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교실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물린 친구는 없었습니다.

1963년 그 교실에서 500 미터 떨어진 바닷가 언덕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각각 두 반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유공장에 매입되어 1km 떨어진 황성마을에 있는 논을 다져 만든 새 학교로 옮겼습니다. 3학년부터 운동장을 조성하고 담벼락에 측백나무를 학생들 1번부터 이름을 붙여 전교생 전체가 심었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측백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저는 4년 동안 고생하고 1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1984년에 여러 동창들과 함께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초대 동창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용연초등학교는 1962년 설립되어 1998년 2월 28일 31회 졸업한 후 정부의 환경오염 이주사업으로 폐교가 되고, 학적부는 대현초등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폐교 이후에 동문들은 학교 이름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동문회장으로서 현재의 개운초등, 동백초등, 도산초등을 용연초등학교로 교명을 계승하기 위해 탄원서를 계속해서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남구 대현동의 가칭 야음2초등을 용연초등학교 교명 살리기에 성공했습니다.

동문여러분! 뭉치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교 기념사업 동문들의 후원금 일천만 원 중 일백만 원과 도서관 책 모금에 이백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또 1회 김건치 동기가 일백만 원, 전정도 5회 동문이 5백만 원 상당의 피아노를 기증하는 등 학교 발전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용연초등학교가 동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거듭나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복교에 정성을 다하신 1회 김한태 동기(전 경향신문 기자)와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신 김석하 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용연초등학교50년사』 편집위원장인 김진곤 8회 동문과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연초등학교 역대 학교장 명단

순서	성 명	재임 기간	근무 연수	비 고
초대	朴一浩	1963. 2. 8~1965. 9. 19	2. 7. 12	
2대	李在萬	1965. 9. 20~1968. 11. 15	3. 1. 16	
3대	黃基庠	1968. 12. 11~1972. 3. 24	3. 3. 14	
4대	朴一浩	1972. 3. 25~1976. 8. 31	4. 5. 7	
5대	李載雨	1976. 9. 1~1981. 8. 31	5. 0. 0	
6대	金忠經	1981. 9. 1~1983. 2. 28	2. 6. 0	
7대	朴榮碩	1983. 3. 1~1985. 2. 28	2. 0. 0	
8대	김남석	1985. 3. 1~1986. 8. 31	1. 6. 0	
9대	鄭禹永	1986. 9. 1~1988. 8. 31	2. 0. 0	
10대	황종기	1988. 9. 1~1989. 8. 31	1. 0. 0	
11대	황신영	1989. 9. 1~1991. 2. 28	1. 6. 0	
12대	金正浩	1991. 3. 1~1992. 2. 28	1. 0. 0	
13대	李康基	1992. 3. 1~1993. 2. 28	1. 0. 0	
14대	김태현	1993. 3. 1~1994. 2. 28	1. 0. 0	
15대	金昌河	1994. 3. 1~1995. 2. 28	1. 0. 0	
16대	鄭道根	1995. 3. 1~1996. 8. 31	1. 6. 0	
17대	김대홍	1996. 9. 1~1997. 6. 3	0. 9. 3	
18대	白承孝	1997. 7. 7~1998. 2. 28	0. 7. 22	1998. 3. 1 폐교
복교초대(통산19대)	權斗鎬	2004. 3. 1~2007. 8. 31	3. 6	2004. 3. 1 복교
2대	김옥명	2007. 9. 1~2008. 8. 31	1. 6	
3대	심외수	2009. 3. 1~2011. 8. 31	2. 6	
4대	백판덕	2011. 9. 1~현재		

현 용연초등학교 교직원 명단

번호	직 명	성 명	담당 업무
1	교장	백판덕	통할
2	교감	정남순	관리
3	1학년 1반	정민자	과학영재부장, 아람단
4	1학년 2반	김민정	방과후교육부장, 컵스카웃트
5	1학년 3반	류정순	인성·예절
6	1학년 4반	김지오	부진아지도
7	2학년 1반	홍해용	생활환경부장
8	2학년 2반	성희숙	교육과정부장, 해양소년단
9	2학년 3반	최윤희	교원단체
10	2학년 4반	박은주	동아리·연수, 아람단
11	3학년 1반	장미연	교실수업개선부장
12	3학년 2반	정경희	학부모회
13	3학년 3반	김미경	독서교육
14	3학년 4반	이영주	안전교육
15	4학년 1반	정의수	정보교육부장, 아람단
16	4학년 2반	조은원	학생평가
17	4학년 3반	허정민	영재교육
18	4학년 4반	김민정	방과후회계
19	4학년 5반	김소영	교과연구회
20	5학년 1반	임미숙	교무기획부장, 해양소년단
21	5학년 2반	김시현	홍보·학예
22	5학년 3반	최지현	neis·정보공시, 컵스카우트
23	5학년 4반	이진영	진로·상담
24	6학년 1반	박경현	학교정책부장, 아람단
25	6학년 2반	신수연	특수교육, RCY
26	6학년 3반	김가람	창의인성교육
27	6학년 4반	김현홍	홈페이지·교육정보화, 해양소년단
28	6학년 5반	임현숙	환경·경제
29	3,6영어 3,5도덕	김소연	방송교육
30	4,5영어 4,6도덕	정선영	영어교육·유네스코

31	영어회화 교사	박영미	영어교육
32	원어민 교사	에린졸리	영어교육
33	3,6 체육	염한상	평생체육부장
34	4,5 체육	하정무	교기·평생교육
35	스포츠강사	이윤기	체육관·학교스포츠클럽
36	3,6 음악	박성선	학습자료
37	4,5 음악	정윤경	수업정보지원실
38	5,6 실과	김화덕	도서실
39	보건교사	박홍숙	보건교육
40	보육교사	권명주	보육교실
41	행정실장	이순희	행정업무 총괄
42	행정업무	김윤아	행정업무
43	사무원	박미경	행정업무보조
44	조무원	최석환	학교시설
45	과학보조	김순원	과학업무보조
46	특수보조	변은옥	특수교육보조
47	급식보조	김종선	급식업무보조
48	교무보조	신근혜	교무업무보조
49	영양사	허 미	급식업무
50	조리사	양미선	급식업무
51	배움터지킴이	윤남정	학교순찰
52	배움터지킴이	정형모	학교순찰
53	방과후코디네이트	김지은	방과후학교 업무보조

용연초등학교 50년 약사(略史)

1961. 11. 24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 2학급 인가
1962. 03. 05	용연 분교장 2학급 개교 (남 70명, 여 55명, 계 125명)
1963. 02. 08	용연초등학교 개교
1968. 02. 04	제1회 졸업
1998. 02. 20	제31회 졸업
1998. 02. 28	폐교
2004. 03. 01	용연초등학교 복교, 27학급 편성
2006. 02. 16	제33회(복교 제2회) 졸업
2006. 03. 01	33학급 편성
2007. 02. 15	제34회(복교 제3회) 졸업
2007. 09. 01	김옥명 교장 부임
2008. 02. 19	제35회(복교 제4회) 졸업
2008. 03. 01	31학급 편성
2009. 02. 20	제36회(복교 제5회) 졸업
2009. 03. 01	심외수 교장 부임
2009. 03. 01	29학급 편성
2009. 03. 0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실 수업 방법 개선 정책연구학교(2009~2010)
2010. 02. 17	제37회(복교 제6회) 졸업
2010. 03. 01	30학급 편성
2011. 02. 19	제38회(복교 제7회) 졸업
2011. 03. 01	29학급 편성
2011. 09. 01	백판덕 교장 부임
2012. 02. 17	제39회(복교 제8회) 졸업
2012. 03. 01	28학급 편성
2013. 02. 21	제40회(복교 제9회) 졸업
2013. 03. 01	26학급 편성

일러두기

1. 이 책에 수록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62년 3월 5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정하는 날짜가 지나더라도 발간일 이전에 조사한 확실한 자료는 신기로 하였다.

2. 기수별로는 1968년 2월에 졸업한 1회부터 2013년 2월에 졸업한 40회까지로 한정하였다.

3. 수록한 내용들의 비중은 옛 학교와 현 학교 고루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4. 이 책의 발간 부수는 1,000부로 정하였다.

5. 편찬위원은 인원에 관계없이 각 기수별 회장들과 총무들이 모두 맡기로 하였다.

6. 편집위원은 실무에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연초등학교 교감은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선임하였다.

7. 옛 학교 졸업생 명단이 한자로 수록되어 있는데, 한글을 먼저 싣고 한자를 병기(倂記)하였다.

8. 발간비 협찬자는 기수와 금액을 불문하고 입금한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차례

발간사 김석하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41
축사 백판덕 용연초등학교장 43
축사 최만규 제4대 울산광역시 교육감 44
회고사 안길원 전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46
축사 이수룡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47
축사 이수우 복교 초대 학교운영위원장 48
축사 허주혁 2013학년도 1학기 전교 어린이회장 50
축사 이창형 2013학년도 2학기 전교 어린이회장 52
회고사 이상해 전 학성초등학교장 53
회고사 옥재화 온양초등학교장 55
회고사 김종찬 초대 동창회장 58

○ 용연초등학교 역대 학교장 명단 60

○ 현 용연초등학교 교직원 명단 61

○ 용연초등학교 50년 약사(略史) 63

○ 용연초등학교 50년사를 시작하며 68

제1부 용연초등학교사

1. 용연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지리 · 역사적 배경 73
2. 용연초등학교 전신, 용잠초등학교 연혁 79
3. 1962년 개교, 용연초등학교 발전 36년(1962년~1998년) 82
4.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교, 복교를 위한 몸부림 6년(1998년~2004년) 91
5. 새 용연초등학교 재도약(2004년~2013년) 95

제2부 용연초등학교동창회

1.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회칙 135
2.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연혁 140

3. 제15대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조직도 141
4. 용연초등학교 졸업생 현황 142

제3부 용연초등학교 육성회 활동

1. 옛 용연초등학교 육성회 245
2. 용연초등학교 역대 육성회장 명단과 재임 기간 248
3. 현 용연초등학교 역대 운영위원회 명단 248

제4부 용연초등학생들의 수상 사례 251

제5부 용연초등학생들의 수상 작품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278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297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8년) 321

제6부 신문 자료로 보는 용연초등학교50년사 333

제7부 연표로 보는 용연초등학교50년사

1. 용연초등학교 개교 이전의 연혁 378
2. 옛 용연초등학교 연혁 378
3. 용연초등학교 폐교 시기 연혁 384
4. 현 용연초등학교 연혁 386

제8부 사라져 버린 그리운 내 고향

1. 그리운 내 고향 '성암' **김진곤**(8회) 393
2. 그리운 내 고향 '세죽' **정헌태**(9회) 397
3. 그리운 내 고향 '성외' **박윤호**(9회) 400
4. 그리운 내 고향 '황암 1' **이수우**(3회) 402
5. 그리운 내 고향 '황암 2' **신정관**(8회) 404
6. 그리운 내 고향 '용연 **김종찬**(1회) 409

부록

Ⅰ. 옛 용연초등학교 인근 마을의 사진 자료 416

Ⅱ.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문화유산

1. 신선산(神仙山) · 신선바우(神仙巖) 423
2. 처용암(處容巖) 425
3.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 426
4. 세죽패총(細竹貝塚) 428
5. 성암동패총(城岩洞貝塚) 428
6. 가리봉수대(加里烽燧臺) 429
7. 개운포성지(開雲浦城址) 430
8. 제승정(制勝亭) 432
9. 체오정(掣鰲亭) 434
10. 월성이종만공덕기념비(月城李鍾萬功德記念碑) 435

Ⅲ.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지명 이야기

1. 대현동 437
2. 성암동 444
3. 황성동 469
4. 용연동 491

Ⅳ. 울산시의회 옛 용연초등학교 관련 본회의 회의록 504

Ⅴ. 발간비 협찬자 명단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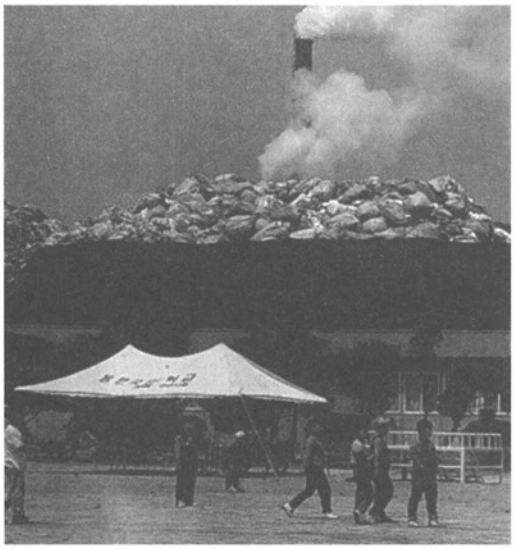
참고문헌 535

편집후기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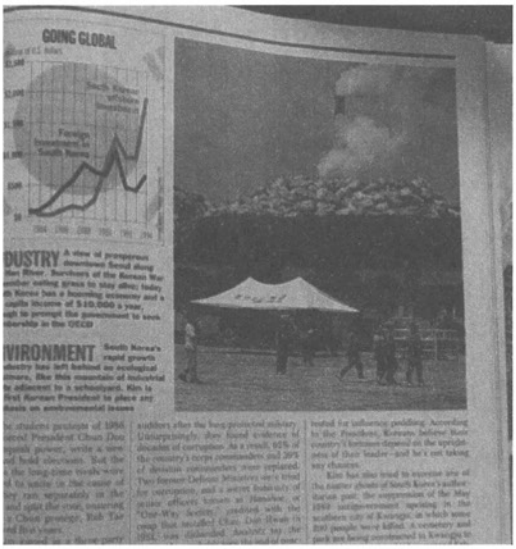
편찬위원회 명단 540

『용연초등학교50년사』를 시작하며

용연초등학교는 1962년 3월 5일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1월 27일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가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용연초등학교와 울산의 공업화가 함께 출발한 악연은 1995년 6월 26일 미국 시사지 「타임」지에 실릴 정도로 치명적인 공해로 1998년 2월 28일 폐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 타임지에 실린 울산 용연초등학교 모습(1995. 6. 26)



미국 타임지 기사 내용

이듬해 1963년 2월 8일 용연분교가 분리 인가되어 정식으로 용연초등학교가 출발했다. 그 후 1968년 남학생 66명, 여학생 52명 등 모두 118명이 제1회 졸업했다. 한때 15회 경우처럼 152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졸업했다. 1회부터 26회까지 졸업생은 100명 안팎이었는데, 27회부터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폐교 직전의 마지막 졸업생인 31회는 12명뿐이었다. 결국 용연초등학교는 남학생 1,656명, 여학생 1,529명 등 3,18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울산의 교육사에서 사라졌다.

폐교의 아픔을 겪은 동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각 고향 마을마저 모두 집단 이주를 한 상태여서 동문들의 공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동문들은 교명 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신설되었던 현재의 개운초등학교와 도산초등학교, 그리고 동백초등학교를 '용연'이라는 교명을 살려 달라고 탄원서를 차례로 제출했지만 교명 살리기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2야음초등학교(가칭) 교명을 용연초등학교로 선정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세 번이나 좌절을 겪고 성공한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다.

2004년 5월 6일 당시 최만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안길원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등 내외 귀빈들과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복교식을 거행했다.

그 후 용연초등학교는 2013년 제40회 졸업식까지 그 동안의 옛 학교를 비롯한 4,897명을 배출하면서 빠르게 발전해 왔다. 현재 백판덕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어린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어린이, 스스로 뜻을 세우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를 교육 목표로 정하고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용연초등학교동창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폐교의 아픔과 복교의 기쁨을 기록한 『용연초등학교50년사』를 발간하기로 하고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을 구성하였다. 폐교와 인근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용연초등학교동창회에서는 울산 현대사를 빼닮은 이 책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1부

용연초등학교사

1. 용연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지리 · 역사적 배경

2. 용연초등학교 전신, 용잠초등학교 연혁

3. 1962년 개교, 용연초등학교 발전 36년(1962년~1998년)

4.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교, 복교를 위한 몸부림 6년(1998년~2004년)

5. 새 용연초등학교 재도약(2004년~2013년)

1. 용연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지리·역사적 배경

1) 울산의 형국

울산의 조산(祖山)은 가지산으로 그 내룡(來龍)을 따라 정족산 아래 남암산에서 꿈틀거려 문수산의 문수암으로 이어간다. 문수산은 울산의 진산으로 왕생이들을 우측으로 백호인 신선산이 있고, 맞은편 좌측에는 청룡인 함월산이 있다. 울산의 혈자리는 예로부터 은월혈과 한림혈, 그리고 왕생이혈이라 불렸다. 다시 내룡은 신선산과 돋질산을 따라 큰 고갯마루를 지나 태백준령의 끝자리인 대현면 가리산에 내리 달려 머문다. 가리산은 태화강을 건너 무리룡산과 얼굴을 마주하며 낙동정맥을 다한 무리룡은 울산시 동구의 낙화암과 남구의 처용암을 오가면서 산룡(山龍)과 잠룡(潛龍)을 교번하며 여의주를 농하고 있다.

울산 지방의 풍수사들은 예로부터 울산의 진산으로 '무룡산이다', '함월산이다', 또는 '문수산이다'라고 제각각 부르고 있다. 본래 진산이란 조선시대 풍수가 난분할 때 지방 고을의 공교육 기관인 향교의 안위를 지켜주던 산을 진산이라 칭했다. 풍수학에서 주산(主山)인 진산은 내용맥절(來龍脈節) 중에 높게 솟은 산을 칭하는 것으로 대개의 고을이나 마을민들의 안녕을 빌어주던 산을 진산(鎭山)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라 말 도선국사가 터 잡은 울산은 태화강과 동천강이 합수하는 학성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함월산이 진산이 된다. 그러나 무룡산의 내용을 따라서 낙동정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선 함월산의 내룡은 치술령을 비롯하고, 북으로는 경주 토함산 아래 양남의 조항산을 오르고, 서로는 천마산을 올라 백운산을 아우르고 고헌산으로 치달린다. 또한 치술령에서 북을 향한 내용은 조항산을 따라, 하나의 용은 동남해로 문무암으로 입수하고, 또 하나의 용은 동으로 무룡산을 따라 댕바위 낙화암으로 잠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울산의 진산은 무룡산이라 부르면 되는 것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신증국여지승람〉 산천 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형국은 물줄기를 보는 수룡 체계에서 본 것으로 이는 산룡 체계에서도 영향을 준다. 낙동정맥은 (낙수의 동편인 산줄기를 지칭한 것으로 곧 낙동강의 동쪽 정맥을 이름한다.) 낙동 향리 중에서 부산, 양산, 울산 등은 산룡 체계인 낙동정맥에 걸린다. 수룡은 밀양, 창녕, 의령, 진양, 합천을 감싸 흐른다.

2) 울산 대현면 (용연동/황성동)의 변천 과정

기원전 10,000년경 시베리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고아시아족들이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주해 오면서 한반도도 신석기문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울산의 신석기인들은 물과 식량 자원이 풍부한 강이나 바닷가에 자리잡고 살면서 황성동 세죽 패총, 옥현 원형의 주거지와, 검단리 무덤 등의 유적을 남겼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유적은 황성동 세죽패총에서 공장 부지를 확장할 때 출토된 화살촉이 박힌 고래 뼈가 발견되었다. 추정 결과 약 6.000년 전에 이미 이곳에 선사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패총유적지에서 주로 해양성 낚시도구, 그물추, 불에 탄 도토리, 갈돌과 갈판, 돌도끼, 석촉 등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의 생업의 일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패총이 울산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 묘사된 다양한 고래의 그림들이나,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의 선사인들의 그림 내용은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삼한시대 진한에 예속

고대의 지형상으로는 조선시대에 개운포진(開雲浦鎭)에 좌도수군절도사영(左道水軍節度使營) 수군만호를 두었다. 그 후 동래현의 부산포(釜山浦)로 옮겼다. 처용암(處容巖) 개운포(開雲浦) 바다 속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처용이 바위 밑에서 나왔다 하는데, 자세한 것은 경주월명항(慶州月明巷) 조에 있다. 개운포는 고을 남쪽 25리에 있다.

신라 헌강왕이 학성(鶴城)에서 놀다가 해포(海浦)에 이르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는데, 해신에게 빌었더니 구름이 열렸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경상도좌수영이 있던 지금의 선소 마을은 깊은 내만이 해안으로 접하는 곳에 해당된다. 가리산(加里山) 봉수대는 개운포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하산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천내에 응하며, 북쪽으로는 경주부 대점에 응한다.

• 신라시대 ~ 고려시대까지 개운리 통칭

처용은 동해 용왕의 일곱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체는 알 수 없고 학자 간의 의견도 구구하다. '처용가'가 처용희(處容戱)로 불리었다는 점에서 처용은 작자라기보다 처용의 역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인지도 모른다.

처용암에 대해서는『경상도지리지』는「영이지적(靈異之跡)」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을 남쪽 37리에 있는데, 개운포가 있어 이를 처용암이라 한다. 신라 때 사람이 그 바위 위에서 나왔는데 용모가 기괴하여 사람들이 처용옹이라 하였다. 지금도 향악에 처용희가 있다," 『동국여지승람』 울산군 고적 조를 보면, "세상에 전하기를 처용이 바위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위는 처용설화와 관련 있는 돌섬이다.

『동국여지승람』「신라본기 권 제11 헌강왕 조」를 보면, "…3월에 왕이 국동의 주군을 순행할 새, 어디서 온지 모르는 네 사람이 어가 앞에 나타나 가무를 하였는데, 그 모양이 해괴하고 의관이 괴이하여 시인이 산해의 정령이라 하였다.(고기〈古記〉에는 '왕즉위년'이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경주부 고적 월명항」을 보면, "금성 남쪽에 있다. 신라 헌강왕이 학성에 유람하고 개운포에 이르니, 홀연히 한 사람이 기이한 형상과 괴상한 의복으로 임금의 앞에 나아가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임금의 덕을 찬미하였다. 임금을 따라 서울에 들어와서 스스로 처용이라 이름을 짓고 밤마다 시가에서 노래하고 춤추었으나 마침내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하였고 그가 가무하던 곳을 뒤 사람들이 월명항이라 이름하였다. 인하여 처용가와 처용무를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연출하였다."

• 조선 초기에는 대현면 해안 마을 뒷산을 가리봉수대라 칭함

조선 태종 13년(1413년)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비로소「울산」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게 되었고, 올해로 꼭 정명 6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본디 울산군(蔚山郡)은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신라 파사왕(婆娑王)이 현(縣)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이름을 하곡(河曲)으로 고치고(혹은 하서(河西)라고도 한다.) 임관군(臨關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울주군(蔚州郡)으로 고쳐, 현종 무오년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었고,(김부식이 이르기를, "경덕왕이 우화현(于火縣)을 우풍현(虞風縣)으로 고치

고, 율포현(栗浦縣)을 동진현(東津縣)으로 고쳤는데, 지금 고쳐서 울주(蔚州)에 합속(合屬)시켰다." 하였다.) 본조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兵馬使)로써 지주사(知州事)를 겸하게 하였는데, 태종 13년 계사에 진(鎭)을 폐지하고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로 고치고, 을미년에 좌도병마도절제사영(左道兵馬都節制使營)을 군(郡) 북쪽 거마곡(巨磨谷)으로 옮겼다가, 금상(今上) 8년 병오에 영(營)을 폐지하고 다시 진(鎭)을 두어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서 지군사(知郡事)를 겸하게 하였다.(3품은 첨절제사(僉節制使)라 일컫고, 4품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라 일컫는다.) 별호(別號)는 공화(恭化), 또는 학성(鶴城)이다.(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본군(本郡)의 정(呈)에 일컫기를, "본디 계변성(戒邊城)인데, 신라 말기에 학(鶴)이 와서 울기 때문에 신학성(神鶴城)이라 고쳤고, 고려 태조 때에 고을 사람 박윤웅(朴允雄)이 큰 공이 있어서, 하곡(河曲)·동진(東津)·우풍(虞風) 등의 현(縣)을 병합하여 흥려부(興麗府)를 설치하였는데, 뒤에 낮추어서 공화현(恭化縣)이라 하고, 또 고쳐서 지울주사(知蔚州事)로 하였다."고 하나, 《삼국사(三國史)》와 《고려실록(高麗實錄)》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옳고 그름을 자세히 알 수 없다.

• 영조 (1765) 대현면 황암리로 칭함

황암이란 지명의 유래는 예로부터 진씨, 김씨, 이씨, 박씨, 이씨 등 다섯 명이 마을 뒷산 가리못 아래에 살았는데, 마을 앞 바닷가에 풍부한 해산물 찾아 점점 해변으로 정착하였고 마을 앞 바닷가에 누런 바위가 많다고 하여 황바우라고 불렀다고 전함 .

- 영조 대현면 용연리 / 용소리 변경
- 영조 용연리 / 제하리 병칭
-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1895년)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
- 조선 고종 때 용연동 / 용해동 병칭

1896년 경상남도가 탄생하여 도청을 진주에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칙령 95호(1895년 5월 26일)에 의거하여 전국의 팔도제를 없애고 23부제로 개혁하여 부에는 관찰사를 두고 종전의 부, 목, 군, 현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경남에 진주부와 동래부를 두고 밀양군과 창녕군은 대구부에 속하였다. 8월 4일에 칙령 96호에 의거하여 전년도에 실시한 23

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전국을 13도제로 시행하여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이어 경상도를 경상남북도로 분리하고 경상도의 도청 소재지는 진주로 정하여 1부(동래부)와 29개 군으로 첫 출발을 하였다.

• 1897년(광무 원년) 왕을 황제로, 연호를 광무로 건원하고 10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불렀다. 행정의 말단 조직인 방면을 면으로 개칭했다.

1905년(광무 9년) 경주부의 외남면이 울산군에 편입되어 두북면이 되었다. 1906년 9월 24일에 칙령 제48호에 의거해서 울주군 남쪽의 온남면 일부와 구남 9개 동으로 되어 있던 외남면을 양산군으로 이속시켜 양산군 외동면으로 하였고 웅상면도 양산군으로 그 관할을 변경하였다. 그 후 다시 외동면이 서생면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 1907년 통 폐합을 거쳐 1910년 9월 면제(面制)가 시행되었다.
• 1911년 황암동이라 칭함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하여 전국 317개 군을 218군으로 하고 4,351면을 2,517면으로 하는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도 2개 부에 19개 군으로 재편하였다. 울산군은 언양군을 병합하여 부내면, 또는 상부내면이라 해 오던 지역에, 내현면의 태화강 이남 지역인 삼산동, 달동, 옥동을 합하는 한편, 범서면에 속했던 난곡, 말정을 흡수하여 울산면이라 개칭하였다. 또 하부면과 내상면을 합하여 하상면으로, 현남면과 현북면을 합하여 대현면이라 재편.

• 1914년 황암의 '황'과 성외의 '성'을 합하여 황성리라 칭함
• 1931년 4월 1일 면제 개정으로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
• 1934년 울산 동면을 방어진읍으로 승격
• 1944년 1월 1일 대현면을 울산읍에 편입하여 출장소 개설

대현(大峴)이라는 말은 (구)대현중학교에서 (현)한국동서발전처로 가는 길목에 큰 산마루가 있었는데 이곳 촌로들은 '고살빈다리'라고 부른다. 한자말로 큰 산마루가 바로 대현(大

峴)이라는 지명이다.

- 1946년 1월 1일 울산읍의 대현면이 다시 울주구에 편입.
- 1962년 2월 울산시 승격(용연동/황성동 개칭)

※용연이란 촌로들은 용연은 용시내라 부른다. 그 속뜻은 용이 못에 의거한다는 의미이지만 시내라는 뜻은 용이 구불구불하는 듯한 지형을 가졌다는 지명이다.

- 1962년 6월 1일 울산군의 공업지구 설정에 따라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청량면, 범서면, 농소면의 일부를 울산시로 신설하고 나머지 전역을 울주군으로 개편
- 1962년 11월 울주군의 서생면을 동래군으로 이속
- 1963년~ 1998년 용연초등학교 개교와 폐교
-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
- 1998년 3월 1일 동구 염포동을 북구에 편입
- 2002년 8월 30일 남구 무거동 일부를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부를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하였다.
- 옛 용연초등학교 소재지인 용연/황성동은 2004년 울산 신항만 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울산광역시 행정동으로 선암동으로 이동되었다가 지금은 울산시 남구 대현동 소재로 편입

2. 용연초등학교 전신, 용잠초등학교 연혁

- 1938년 3월 30일 용잠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 1938년 3월 30일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용잠공립보통학교를 용잠심상소학교[1] 로 개칭함
- 1938년 4월 1일 용잠공립보통학교 개교(6년제) 4실 3학급
- 1939년 1월 31일 울산군 대현면 용잠리 출신 이종만(李鍾萬) 선생 특지(特志)로 4교실 신축
- 1939년 10월 15일 일요일 동아일보 기사

울산이 낳은 광산왕이며 교육가 이종만 씨 단독 설립 소교인 대현면 용잠소교에서 오는 1939년 10월 15일 용잠소교 신축 낙성을 겸한 첫 운동회를 성대히 개최코자 만반 준비 중 금번 경성에 있는 이종만(李鍾萬) 씨, 이영조(李永兆) 씨조차 공무다단으로 來蔚치 못하게 되어 부득불 낙성식 겸 운동회를 중지케 되었다는 바 일반 면민들은 자못 섭섭함을 못 잊고 있다 하며 1차 이종만 씨의 歸蔚을 절망한다고 함

- 1942년 5월 30일 월성이종만공덕기념비 건립
- 1942년 4월 1일 조선교육령 제3차 국민학교령 공포로 용잠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함
- 1943년 4월 1일 제4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창씨 개명함
- 1944년 3월 24일 용잠초등학교 제1회 졸업
- 1945년 2월 24일 용잠초등학교 제2회 졸업
- 1945년 9월 17일 미군정 일반명령 제4호 울산군 내 31개 공립초등학교 재개함(우리말

1) 용잠초등학교 설립 인가 및 개교에 대한 졸업생들은 아래와 같은 구술도 있다.
- 1939년 1월 31일 용잠 공립심상소학교(龍岑 公立尋常小學校) 설립 인가
- 1939년 4월 25일 용잠 공립심상소학교(龍岑 公立尋常小學校) 개교

교육 장려, 일제 황국사상 불식, 민주주의 교육 이념 보급 및 교사 재교육, 학교 제도 민주화, 문맹 퇴치) 지시함

- 1945년 9월 22일 국민학교 교과목 편제 발표(공민, 국어, 지리, 역사, 산수, 이과, 음악, 체육)
- 1946년 1월 26일 전국 초등교육 의무교육 실시(6세~12세)
- 1946년 3월 31일 장생포초등학교 재개교(대현공립국민학교 장생포분교)
- 1947년 초등교육 수업료 징수 폐지
- 1947년 9월 1일 용잠국민학교로 개칭
- 1947년 경상남도 학무국 개편(경상남도 울산군청 학무계 배치)
- 1948년 10월 9일 한글 기념 추기 대운동회
- 1949년 12월 31일 문교부 교육기본법 법률 제86호 제정 공포함(국민학교 6년제)
- 1950년 3월 10일 문교부 교육기본법 법률 제86호 국회 통과함(국민학교 6년제)
- 1951년 12월 1일 법률 제228호에 의거 국민학교 교육비 전액 국고 보조
-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 1952년 5월 24일 시 구 면의원이 시 구 교육위원 간접선거 실시
- 1952년 6월 4일 시 구 교육위원회 발족
- 1953년 초 사친회 운영규약과 감독규정 제정
- 1955년 문교부 국정교과서 편찬(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미술, 도의, 음악)
- 1955년 1월 22일 국민학교 학적부에서 생활기록부로 개정
- 1961년 5월 22일 문교부훈령 제77호에 의거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
- 1961년 10월 6일 지방행정기구 개편 각령 제233호에 의거 시 구 교육위원회 폐지
- 1961년 11월 24일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 설립인가
- 1962년 3월 1일 용연 분교장 설치 2학급

--용잠국민학교 등교 학생 수용 과다(내해, 용잠, 남화, 용연, 황암, 천곡, 성외, 세죽, 성암)

- 1963년 2월 28일 용연분교 용연국민학교로 분립

- 용연동 및 황성동 거주 학생(용연, 황암, 천곡, 성외, 세죽, 성암)

- 1962년 1월 1일 교육자치제 폐지로 울산군수 산하 교육과 편입
- 1962년 1월 6일 법률 제955호 교육자치제 정지 확정(교육감제 폐지)
- 1962년 2월 말 사친회 운영규약과 감독규정 폐지

• 1963년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합의제 집행기관)
• 1963년 문교부 국정교과서 편찬(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 1963년 1월 14일 문교부훈령 제104호 기성회 준칙 제정
• 1963년 이후 육성회 설치(수익자 부담 원칙)
• 1971년 7월 9일 개축 교실 준공 7교실
• 1971년 2월 10일 월성 이종만 선생 사망(1886년 1월 14일~1971년 2월 10일)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금광을 개발하여 재산가가 된 이종만은 고향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용잠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기부체납해서 이 고장의 후배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다.

• 1977년 2월 21일 제34회 졸업생
• 1977년 용잠초등학교 폐교
-동해전력(현 울산화력) 공해로 인한 학교 아동 학습 장애
• 용잠초등학교 1939년 개교해 2,3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77년 문을 닫음
• 1977년 1월 17일~ 1986년 공덕비 해체 장생포초등학교로 이전 설립
• 2002년 10월 27일 현재 옛 학교 부근(현 SK GAS 앞 도로변)에 공덕비 재이건함

3. 1962년, 개교, 용연초등학교 발전 36년 (1962년~1998년)

1) 옛 용연초등학교 개관



옛 용연초등학교는 1962년 용잠초등학교 분교로 출발하여 1963년 용연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출발했다. 초대 박일호 교장 선생님부터 폐고 되기 직전의 18대 백승효 교장 선생님까지 36년 동안 초등교육의 산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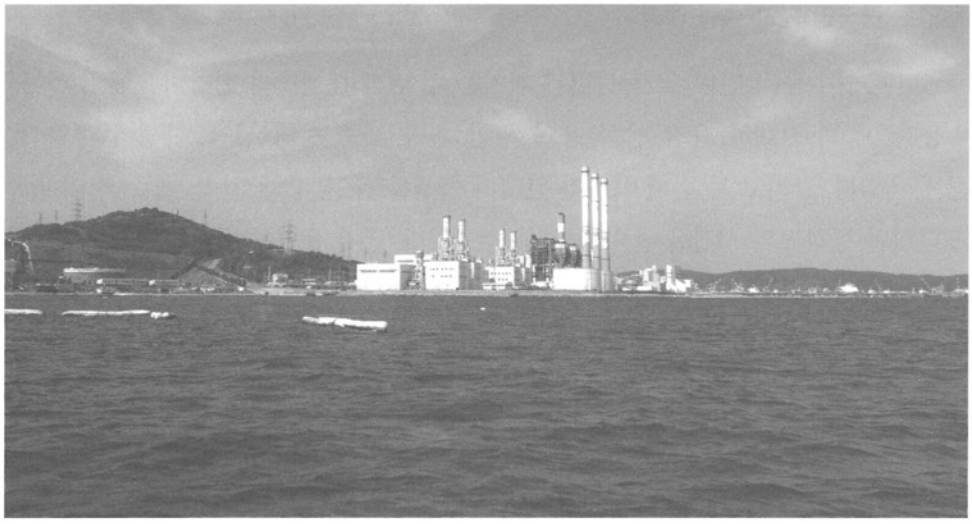
이 학교는 1968년에 남학생 66명, 여학생 52명 등 모두 118명의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1998년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등 모두 12명의 제 3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녀갔지만, 우선 『용연초등학교50년사』에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현재 백판덕 용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복교 과정에 일등공신이었던 최만규 제4대 교육감이 용연초등학교에 부임했던 인연은 참으로 놀랍다.

용연초등학교의 최고의 두 가지 경사는 단연코 '복교'와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이다. 그 중심에 두 분의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 용연초등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용연초등학교 개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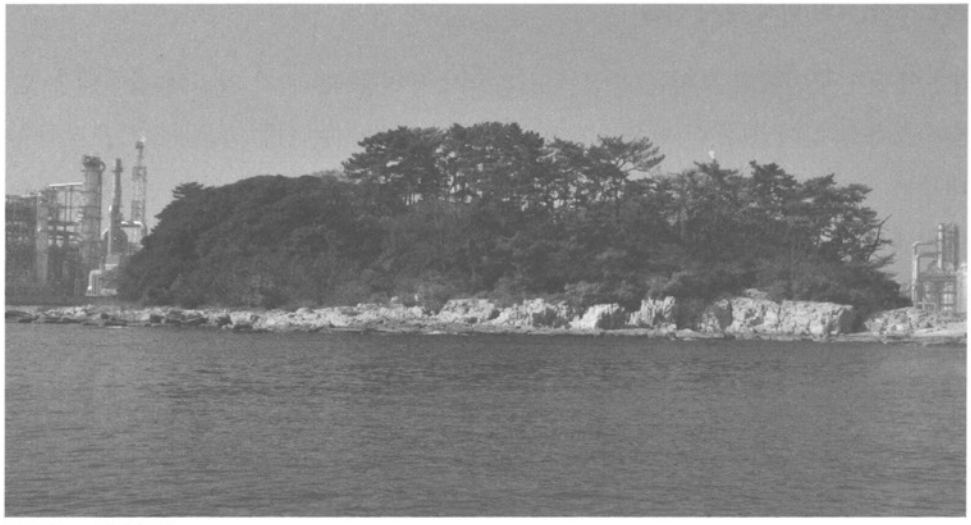
(1) 용연초등(국민)학교 지리적 배경

용연초등학교 부지는 울산시 대현면에서 용연동과 황성동으로 어우러진 자연 마을로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풍요로운 아늑한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혜의 바다를 가진 부유한 어촌이었다. 그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멀리 보이는 봉대산에 조선시대 해안 방어선의 경계와 통신 수단의 하나로 쓰였던 가리봉수대가 있었다.



가리산봉수대와 한국전력(옛 동해전력)

남쪽으로는 오대양 육대주로 통하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서쪽에는 선수마을로 조선시대 수군통제사를 둔 개운포영성이 있었으며 또한 대형의 전선을 건조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울산 항만에 세계 굴지의 현대중공업이 들어서서 그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신라 제49대 헌강왕의 처용설화의 본거지인 세죽마을의 처용암, 그리고 울주 목도 상록수림이 공원화 되어 한때 해마다 상춘객들을 불러들였다.



울주 목도 상록수림

(2) 용연초등(국민)학교 설립 배경

1963년 용연초등(국민)학교가 설립된 취지는 첫 번째 대현면의 현남마을에 주민이 늘어나서 용잠초등학교(내해, 용잠, 남화, 용연, 황암, 천곡, 세죽, 성외, 성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 큰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원거리 학생들(용연, 황암, 천곡, 세죽, 성외, 성암)의 등교 편의와 등하교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용연동과 황성동의 어린 자녀들이 인근 초등학교였던 용잠초등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약 25리(10km) 정도여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기에는 먼 거리였다. 이것이 용연초등(국민)학교를 탄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설립 배경이었다.

그래서 설립 당시 가칭 용연초등(국민)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초대 이대유 육성회장이 맡았고, 그 후 제2대 육성회장이던 김학수가 부회장을 맡아 많은 용연동과 황성동 유지들의 뜻을 모아 가칭 용연초등(국민)학교설립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961년 11월 24일에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가 허가 설립되었으나 학교 교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나중에 제 1, 2회 졸업생이었던 학생들은 인근의 용연장터 옆 야간재건학교와 황암동 회관을 전전하면서 배움의 길을 열었다.

참고로 황암문화관은 지역사회 개발지원 자금으로 1962년도에 건축하였다. 이후에 지역사회개발지원처는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었다고 한다. 황암문화관의 건립한 건축물 책임 관리자는 이말출 당시 지역사회계발 계장이었다.

(3) 용연초등(국민)학교 부지 선정

최초의 용연국민학교 부지는 경상남도 울산시 용연동 424번지 일원에 김건일을 포함한 14명이 소유한 땅이었다. 이 땅을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는 1명, 답은 12명, 도로가 1명으로 대부분 문전옥답인 농토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학교 부지로의 최초 변경은 1963년 11월 19일에 지목이 학교 부지로 변경되었고, 소유권의 이전 날짜 변동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본 지번의 소유권은 1963년 11월 19일에 울산시교육청 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용연초등(국민)학교 부지에 동의해 준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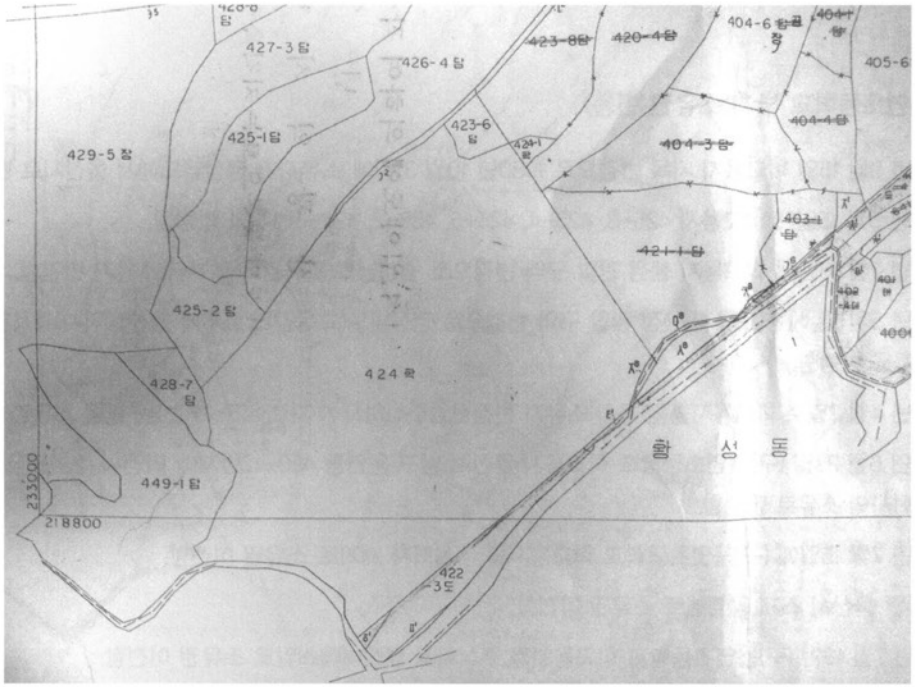
순서	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단위:평)	이전 날짜
1	김철호(金哲昊)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3-4	답	444평	1963. 11. 19
2	조인제(趙仁濟)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2-2	대	161평	1963. 12. 16
3	이종익(李鐘翊)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0-2	답	27평	1964. 12. 10
4	이말출(李末出)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3-6	답	50평	1965. 1. 30
5	박봉길(朴奉吉)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1-3	답	422평	1964. 12. 5
6	이종수(李鍾蓚)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3-3	답	404평	1964. 2. 27
7	김건일(金健一)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2-1	답	530평	1964. 2. 28
8	조봉식(趙鳳植)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6-2	답	14평	1981. 4. 6
9	김종준(金鍾俊)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5-3	답	108평	1980. 12. 9
10	이상기(李相耆)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5-2	답	178평	1972. 5. 1
11	김종준(金鍾俊)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5-	답	191평	1980. 12. 9
12	김건일(金健一)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2-3	도로	151평	1964. 2. 28
13	이차랑(李次郎)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3-1	답	312평	1974. 5. 23
14	송도업(宋道業)	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4	답	456평	1964. 12. 2

〈옛 용연초등학교 부지 소유권 변동〉

- 1978년 9월 15일 학교용지 지목 변경으로 1980년 10월 31일에 소유자가 경상남도에서 울산시로 변동됨.
- 1984년 5월 15일에 학교용지 425-3, 425-4, 425-5, 426-2, 426-3번지와 합병됨.
- 1985년 7월 15일에 학교용지 행정 관할 구역 변경으로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소유자 변경함.
- 1987년 5월 1일에 학교용지 행정 관할 구역 변경으로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소유자를 변경함.
- 1992년 4월 3일로 학교용지를 경주시 소유자 한강산업주식회사 부지로 615-3지번을 합병 소유권 이전함.
- 1994년 5월 23일 (구)용연초등학교 학교용지 울산시 남구 용연동 490-12번지에 티엔씨 수출포장물류 주식회사의 소유로 변경함.
- 1997년 7월 15일에 (구)용연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주식회사 재기로 소유권 이전함.
- 2009년 울산시 소재 강경애로 소유권 이전함.
- 2011년 7월 19일 (구)용연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주식회사 명진티에스알로 소유권 이전함.
- 2013년 7월 31일(구)용연초등학교 학교용지를 대림엔지니어링이 소유권 이전함.



용연초등(국민)학교 부지 도면



용연초등(국민)학교 부지 정리 후 도면

(4) 용연초등(국민)학교 교명 선정 동기

용연초등(국민)학교의 행정 소재지는 황성동 황암마을이다. 그런데 학교 이름은 용연초등(국민)학교였다. 이러한 교명 선정에는 학교가 들어선 땅의 지주들 가운데 14인 가운데 11명이 용연동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행정 구역상으로는 황암동에 편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다를 나눌 때 육지에서 뻗어나간 암초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구역상으로는 황암이었다.

이러한 논쟁으로 격론을 벌이다가 최종 교명에 대한 결정은 용연국민(초등)학교가 탄생된 것이다. 특히 용연동양조장 사장이었던 용연초등학교 초대 이대유 육성회장, 그리고 용연에서 대형 어장을 경영했던 김학수 사장, 그리고 후에 3대 육성회장을 지낸 이말출을 비롯한 용연동과 황성동 유지들이 최종 의사결정으로 난산 끝에 교명이 선정되었다고 양 동민들은 지금도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황암 주민들의 양보가 없었다면 교명 선정에 많은 수난을 겪었을 것이다.

(5) 용연초등(국민)학교 취학생 범위

용연초등학교 취학 학생의 범위는 용연동과 황성동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었다. 참고로 용연동은 단일 동명이었고, 황성동은 황암과 성외가 합해서 이루어 진 동명으로 황암, 천곡, 성외, 세죽, 성암의 5개 자연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3) 용연초등학교 배구부

용연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5학년(1966년) 때 축구부와 씨름부가 창설되어 오영숙 선생이 지도 감독을 맡았다. 그는 고향이 제주도로 신체가 야무지고 혈기 왕성한 선생님이었다. 용연초등학교에서 운동 선수를 했던 동문들은 단 한마디로 스파르타식 체육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약관 21세에 용연초등학교에 첫 부임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열과 신체 발달을 가장 우선했던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용연초등학교는 오영숙 선생님이 지도 감독으로 부임(1966년)한 동시에 축구부 창립 몇 달 후에 5학년(1회 졸업)으로 구성된 축구부와 용잠초등학교 6학년(24회 졸업)의 축구 평가전을 할 정도로 운동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 결과는 용연초등학교 5학년들이 자책골로 0 : 1로 패했다.



제2기 축구 선수들(구 제일중학교 뒤뜰).
뒷줄 왼쪽부터 김장원 감독, 오기환(성외 6), 박만우(성외 5), 이채량(성외 6), 이수우(황암 5), 박수경(용연 6),
아랫줄 왼쪽 김영택(용연 5), 김성환(성외 6), 이근수(성외 6), 홍성희(성외 6), 김문도(용연 6), 김일호(용연 6)

그리고 축구에 대한 학생들의 소질을 발견하지 못한 오영숙 선생님은 축구 대신에 배구부를 창설하면서 축구부 감독은 그 당시 용연동에 거주했던 김장원 코치가 맡았다. 그 이듬해 제2기 축구 선수들이 1967년 울산시 초등학교 춘계 축구대회에 출전했다. 출전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축구부는 이듬해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축구부 감독을 그만두고 1967년 가을에 배구부를 창설하여 축구부의 감독이었던 오영숙 선생이 지도를 맡았다. 그리고 반학기 사이에 학교에서 키가 큰 학생들을 선발하여 배구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아니 가혹했다. 어떨 땐 어린이 운동용으로 설치된 늑목대를 뽑아서 몽둥이질을 했다. 일부 어린 선수들은 훈련에 못 이겨 탈락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원성도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훈련이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듬해 1967년 울산시 춘계 체육대회에서 그 당시 배구를 제일 잘 했던 병영초등학교의 3년 승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배구 우승의 성과는 창단 1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당시는 학교에서 울산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서 해안선 방어를 위해 주둔 중이던 해병대 군용 트럭을 빌려 타고 운동 선수들과 학부모 응원단들이 이동했다.

그리고 연이어 울산시 조선일보사 대항 초등학교 춘계 배구대회와 울산시 추계 종합 체육대회에서도 용연초등학교 배구부가 우승을 했다. 그래서 울산시 대표로 경상남도 체육대회에 초등부 배구부로 출전했다. 그해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열렸던 제4회 경상남도 도민체전에 출전했다.

용연초등학교는 결승전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의 밀성초등학교와 시소 경기를 벌려 엎치락뒤치락하며 피를 말리는 경기 끝에 창단 1년 만에 초등부 우승을 했다. 당시 우승에 기쁨을



1968년 용연초등 1회 배구부 경남도대회 출전

만끽했던 이상종(2회) 선수의 기억을 따르면 "경남도체에서 우승하고 오던 중 용연초등학교로 가는 버스가 끊어져 학교 급식 배달 빵차를 타고 우승기와 컵을 들고 맹호부대 군가와 교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도민체전 우승이 있기까지 이말출(이수우(3회) 동창 부친) 어르신의 헌신적인 관심과 물질적 도움 잊지 못합니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시면서 배구 선수들에게 운동 마치면 피로회복제인 왕눈깔(왕다마) 사탕을 선수들에게 일일이 손에 쥐어주시던 기억과 방학 때 합숙 훈련을 하면 그 당시 일 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소고기국밥을 마당에서 가마솥에 끓여 배불리 먹게 해주시었던 그 힘으로 3년 연속 우승의 영광과 배구의 명문 용연초등학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해 전국 체전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으나 학교의 재정이 열악하여 여러 번 학부모들의 토의 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그 당시 배구부 감독이셨던 오영숙 선생님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학교 앞에 있던 이말출의 집에 찾아와서 울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운동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결국 도민체전에서 준우승한 밀성초등학교가 출전하여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

당시 초대 배구 선수는 이상용(용연), 이상호(용연), 김춘일(용연), 김사원(용연), 이성준(성암), 이정우(황암), 최해수(천곡), 이상종(용연), 김정구(용연)였다.

그러나 용연초등학교의 배구부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제2기 배구 선수들도 울산시 조선일보사 대항 배구대회와 울산시 춘계 체육대회에서도 배구부 우승을 했

다. 춘계 체육대회에서는 병영초등학교와 결승전 경기에서 다 졌던 경기에 최해수 선수가 일명 'sky service'로 연거푸 9점을 넣어 역전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시 추계 종합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제2기 용연초등학교 운동 선수들은 이정우(황암), 이상종(용연), 최해수(천곡), 김문일(황암), 최수복(황암), 박갑출(황암), 이상근(황암) 등이었다.

그러나 울산시 배구대회에서 연거푸 우승을 하게 되자, 인근의 학교에서도 합숙 훈련 및 연습 경기를 하려고 병영초등학교와 장생포초등학교 배구부들이 방학을 맞아서 원정 오기도 했다. 이 훈련 과정에서 병영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용연초등학교 남자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져서 학교 앞 바닷가에 모두 들어가는 고초를 당했다고 당시 이상종 선수가 전했다. 또한 용연초등학교 배구부도 부산의 배구 명문 아미초등학교로 원정 합숙하며 경기력을 익혔다. 위와 같은 실력으로 용연초등학교 제2기 배구부 선수들은 그 당시 대현중학교에 모두 배구 특기 장학생으로 전원이 선발 기회가 있었으나 불가항력으로 일부 선수들만 배구부 특기 장학생으로 진학하기도 했다.

제3기 용연초등학교 제3회 졸업생 김일철(용연), 이창홍(용연), 이수우(황암), 박만우(성외), 박정국(세죽), 이대호(성외), 이상찬(세죽) 등도 울산시의 초등학교 배구부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각종 대회의 우승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울산시 춘계 체육대회와 매년 열리는 조선일보사 대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3년 연속 배구부 우승을 했다. 그 당시는 3년 우승을 하면 우승 학교에서 우승기를 영구 보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이후에 배구부도 계속 명맥은 이어 갔으나 우승의 승전보는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 배구가 힘을 잃어 가자, 초등학교 여자 배구가 또한 전성기를 이어갔다.

그러한 용연초등학교 배구부의 명성이 한 지도자의 열정과 패기로 한때 울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를 제패했다. 그러나 세월이 반백년을 지난 오늘 그 피와 땀과 투혼이 배인 용연초등학교 배구부의 우승기가 폐교되기까지 교무실에 진열되어 있었으나 폐교할 때 관리를 못한 학교 당국과 졸업생들의 무관심으로 영구 보관되어 왔던 조선일보사 우승기와 수많은 우승컵들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다.

4.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교, 복교를 위한 몸부림 6년 (1998년~2004년)

용연초등학교는 1998년 2월 20일 3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때 졸업생은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모두 12명이었다. 이것이 심각한 공해로 인하여 폐교를 앞둔 옛 용연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었다. 그러나 공식 폐교일은 1998년 2월 28일이다.

이 학교는 1회부터 31회까지 남학생 1,656명, 여학생 1,529명 등 모두 3,185명이 졸업했다.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학생들은 1998년 3월부터 폐교된 모교 정문 앞에서 대현초등학교로 등교할 임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옛 용연초등학교는 폐교된 1998년 2월 28일부터 복교 전날인 2004년 2월 28일까지 6년 동안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복교가 되었기에 '휴교'란 말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폐교'라는 말로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다. 현재 용연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용연초등학교 오십년사』발간도 물론 기획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학교 동문들은 벌써 10년 전인 1988년부터 진행된 울산공단 환경오염 지구 이주 사업에 편입되어 거의 이주한 상태에서 모교의 폐교에 대한 상실감과 공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용연초등학교 동문들은 용연초등학교복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복교 추진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용연초등학교 교명(校名)살리기 건〉이라는 제목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1998년 3월 1일 신설될 개운초등학교를 용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다시 〈용연초등학교 학적부의 동백초등학교 계승 건〉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2002년 3월 2일 개교한 동백초등학교에 용연초등학교 학적부를 이관하고 교명도 용연초등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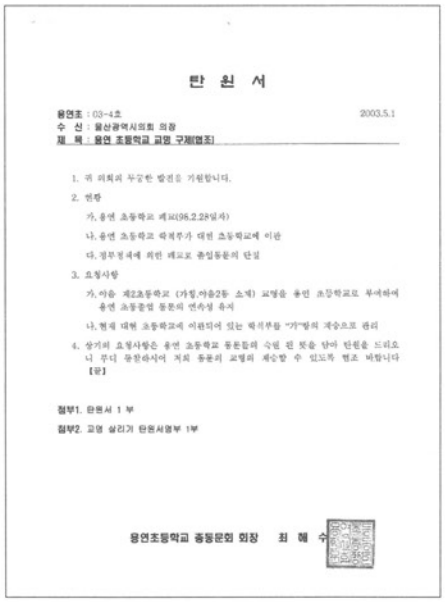
거듭 복교 추진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추진위원회는 다시 〈용연초등학교 학적부의 (가칭) 야음제2초등학교 계승 건 및 교명을 용연초등학교 선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또 다시 성사되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용연

초등학교 교명 구제(협조)〉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내용은 앞의 교육감에 제출한 탄원서와 같았다.

(가칭)야음제2초등학교에 공모된 교명으로 옛 용연초등학교 교명을 살리기 위해 용연초등학교, 신선산 아래에 위치하여 향토성을 반영하고, 신선처럼 고고한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신선초등학교, 지역의 자연환경을 반영해 운포(雲浦)초등학교, 옛 지명인 대암산이 인근에 위치한다고 하여 대암(大岩)초등학교, 크게 길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대길(大吉)초등학교, 별처럼 빛날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샛별초등학교, 넓은 시야의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한터초등학교, 넓은 마음의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뜻으로 대연(大淵)초등학교, 밝은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양지(陽地)초등학교 등이다.

복교추진위원회에서는 신선초등학교라는 교명이 용연초등학교와 최종 선정에서 경쟁할 것을 예상해서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신선산은 야음동의 뒷산으로 울산의 전 시민이 알고 있는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선이란 명칭은 잘못 이해하면 먹고 노는 것처럼 신선놀음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의 이름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동창회는 이어 '수암(秀岩)'이라는 교명이 적절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어 할 수 없으니 '용연'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러한 복교의 노력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탄원서의 답변은 용연초등학교의 동문들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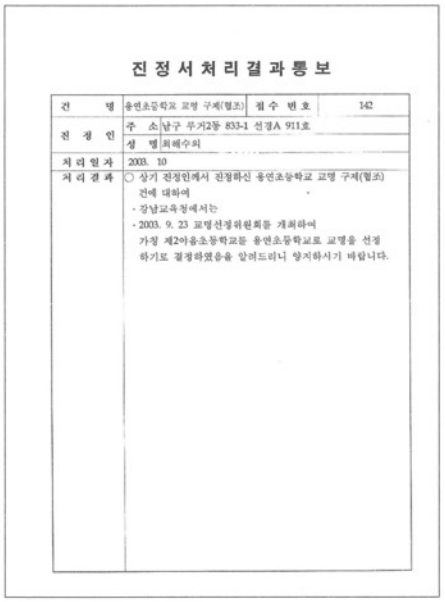
탄 원 서

용연초 : 03-4호 2003.5.1
수 신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용연 초등학교 교명 구제(협조)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혁
가. 용연 초등학교 폐교(96.2.28일자)
나. 용연 초등학교 학적부가 대현 초등학교에 이관
다. 정부청사에 위한 폐교로 존립등문의 단일
3. 요청사항
가. 아음 제2초등학교 (가칭,아음2동 소재) 교명을 용연 초등학교로 부여하여 용연 초등졸업 동문의 연속성 유지
나. 현재 대현 초등학교에 이관되어 있는 학적부를 "가"항의 계승으로 관리
4. 상기의 요청사항은 용연 초등학교 동문들의 수년 된 뜻을 담아 탄원을 드리오니 부디 유념하시어 지역 동문의 교명의 계승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끝】

첨부1. 탄원서 1 부
첨부2. 교명 살리기 탄원서명부 1부

용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최 혜 수



진 정 서 처 리 결 과 통 보

건 명	용연초등학교 교명 구제(협조)	접 수 번 호	142
진 정 인	주 소 남구 무거2동 833-1 선경A 911호 성 명 최혜수외		
처리일자	2003. 10		
처리결과	○ 상기 진정인께서 진정하신 용연초등학교 교명 구제(협조) 건에 대하여 · 장남교육청에서는 · 2003. 9. 23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칭 제2아음초등학교를 용연초등학교로 교명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

강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9월 23일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칭 제2야음초등학교를 용연초등학교로 교명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교명선정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이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정찬모,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대호, 무거초등학교 교장 최익림, 옥현중학교 교장 김영윤, 남구청 문화공보계장 김동학, 울주군청 문화공보계장 변갑섭, 개운초등학교 교사 이성태, 언양여자중학교 교사 이복만이었다. 간사에 강남교육청 기획관리과장 안효석, 서기는 강남교육청 관리 담당 이상만이었다.


일시 : 2004. 5. 6 (목)
장소 : 용인초등학교 체육관
용연초등학교 복교 기념식
용인초등학교









5. 새 용연초등학교 재도약(2004년~2013년)

1) 용연초등학교 복교

공해로 인해 폐교됐던 용연초등학교가 울산이 공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시기에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자리를 옮겨 구 용연초등학교와 신설 용연초등학교의 합병에 관하여 권두호 당시 용연초등학교 교장과 최해수 당시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장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대현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던 옛 용연초등학교의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유치원 생활기록부, 교사사령원부, 재산대장, 수상대장, 임명대장 등 관련 서류를 신설한 용연초등학교에서 인수했다. 용연초등학교는 2004년 3월 1일 야음교육단지에서 27학급을 편성하여 복교했다. 이어서 5월 6일 10시 30분 용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주관으로 화려한 복교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초청장에서 권두호 용연초등학교장, 이수우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장, 강영숙 용연초등학교학부모회장, 최해수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장은 〈모시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푸르름이 한층 더 짙어가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용연초등학교가 폐교의 아픔을 딛고 지난 3월 1일 복교하여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알차게 거듭 나기 위한 기념식을 갖고자 합니다.

새롭게 웅지를 펴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들의 소중한 정성을 담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최해수 용연초등학교동창회장의 인사와 권두호 용연초등학교장의 기념사가 진행되었다. 또 최만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격려사와 안길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복교 기념식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졸업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 복교식 인사 말

(1)경과 보고

본교는 1962년 3월 5일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으로 개교하여 새싹들의 교육에 힘써 오다가, 1970년 동해화력 설립으로 주민들이 야음동으로 집단 이주하였으며, 그 후 울산 신항만 부지 조성 공사로 인하여 제31회, 3,185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1998년 2월 28일자로 폐교가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폐교 후 용연초등학교 동문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의 활발한 복교 노력과 최만규 교육감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위원님들의 협조로 울산 최초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동시에 위치한 교육단지 내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2002년 10월 18일에 기공, 2004년 2월 19일에 준공하여 일반 교실 24실과 어학실, 방송실, 미술실,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실과실 등 특별실 10실, 관리실 12실 등 총 46실과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이곳 체육관(강당)과 운동장을 신선여고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2004년 3월 1일 전교생 920명으로 27학급을 편성 개교를 하게 되었으며, 권두호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하여 '참되고 슬기로우며 꿈을 키우는 어린이'라는 바라는 인간상을 설정하고, 총동창회와 학교 명, 학교 연혁, 학적, 졸업 기수, 교가, 교화 등 학교 관련 제반 사항을 합병하기로 합의,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오늘 복교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현황, 시설 현황, 본교 특색 등은 '2004학년도 학교 요람' 리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연초등학교 폐교 이후부터 오늘 복교 기념식을 갖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동창회장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복교 전 용연초등학교를 제2회 졸업한 동문회장 최해수라고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오월의 푸르름 아래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초등학교의 복교식에 참석하신 교육청 최만규 교육감님을 위시하여 본교 권두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용연초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을 반갑게 맞이할 본교 재학생 여러분! 오늘 본인은 본교 동문회 회장으로서 용연초등학교 복교식을 맞아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용연초등학교는 지금부터 1962년 개교 이래 37년 간 31회에 걸쳐 약 3,185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7여 년 전 1998년에 울산 신항만 부지공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화의 희생양이 되어 폐교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꿈과 희망을 키우던 용연초등학교를 잊지 아니하고 용연초등학교 복교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헌신적이고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복교의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동문회가 일치단결하여 힘을 기울였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용연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오늘 본인은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을 비롯한 본교 동문회가 일치단결하여 미래 큰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학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까 합니다. 이는 동문 선배들이 베풀어 주는 더없이 소중한 보람으로 선후배들 간의 작은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연초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는 울산에서도 유서 깊은 초등학교였으며 걸출한 선배님들은 어릴 적 여러분들과 같이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아래 졸업을 통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동문 선배님들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이 나라의 큰 재목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까 합니다.

끝으로 용연초등학교 복교와 복교식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협력을 다해 주신 최만규 교육감님과 복교 추진위원들님,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5. 6.

용연초등학교 동문회장 최해수

(3)기념사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좋은 날을 잡아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전통이 빛나는 용연초등학교의 복교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우리 900여 재학생, 3,200여 졸업생 용연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거교적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부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용연초등학교의 역사도 1963년 개교하여 1998년 폐교될 때까지 총31회에 걸쳐 3,18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것은 역사의 도도함과 동창들의 뜨거운 애교심의 발로라고 여겨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오신 최만규 교육감님, 안길원 교육장님, 권오필 교육과학 연구원장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본교 복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본교 최해수 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인근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단의 선후배 여러 선생님, 특히 본교 복교 준비를 빠짐없이 해 주신 인근 남부초등학교 이원채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를 지어주신 대지개발진흥주식회사 정윤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함 사의를 표합니다. 교가를 작사해 주신 정용원 교장 선생님, 작곡해 주신 김진덕 선생님, 교표 도안을 해 주신 황연숙 선생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복교한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번영과 인재 양성의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느끼면서 비록 폐교의 아픔을 맛보긴 했지만 빛나는 전통과 아름다운 교풍을 이어 받아 잘 다음어진 학교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훈육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행히 952명의 어린이들이 푸른 꿈을 가진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나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과 신설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교 동문들의 학교를 지원하려는 뜨거운 열의, 본교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교육관이 있기에 꿈과 사랑이 넘치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학교 건설은 틀림없이 이뤄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용연초등학교의 복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6.

용연초등학교장 권두호

(4)격려사

눈이 부시도록 푸르름이 만연한 싱그러운 5월입니다. 세계를 향해 푸른 꿈을 갈고 닦을 새싹들이 다시 모인 용연초등학교 복교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용연초등학교는 1962년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으로 개교하여 35여 년 간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다가 울산 공업도시의 상징인 울산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면서 1998년 폐교되어 그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동문들과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에 힘입어 용연초등학교가 폐교된 지 6년 만에 복교되어 여러 내빈과 교육가족을 모신 가운데 본교 어린이,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많은 동문과 함께 뜻 깊은 복교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런 훌륭한 학교를 건축하신 대지개발진흥주식회사 정윤삼 대표이사님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축 학교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복교 준비와 학생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권두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과 복교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도와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용연초등학교가 다시 복교됨으로써 이 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한 학부모와 교직원, 모교에 대한 그리움이 담뿍 담겨 있는 3,200여 명의 본교 동문들, 그리고 930명의 샛별 같은 어린이들이 모인 이상적인 교육 구성체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용연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학교가 될 것은 물론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명문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역할과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과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과 열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좋은 교육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최신 시설과 환경 속에서 7차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직원 여러분께서 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용연초등학교 복교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의 복교 기념식을 갖게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3,200여 동문님께 감사드리며, 40여 년 전통을 이어받아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

(5)축사

오늘 지역 사회의 유지를 비롯하여 학부모님, 동문님,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용연초등학교의 복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복교식을 갖은 본교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교육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 시설로 개교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며, 교육의 뒷받침 없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선진 조국 창조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이며, 그 바램은 교육의 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국민은 교육 투자에 최대의 힘을 경주하고 그에 대한 지원과 성원을 보내며 큰 관심을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3월에 개교를 한 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합심 단결하여 새 학교를 꾸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의 주인이며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나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학교를 가꾸고 다듬어 나간다면 그 어느 학교보다도 훌륭한 교풍과 전통이 세워질 것입니다. 항상 새롭고 더 높게 자신을 가꾸어 여러분의 꿈을 소중히 키워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큰 꿈을 가꾸어 나가며 또한 기초와 기본 교육을 충실히 익힐 배움터인 이 학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 대처하는 신지식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다 채워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며 올바른 산교육을 위해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수한 시설 못지않게 훌륭하고 나라의 기둥이 될 푸른 새싹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는 우리가 그들의 소질을 조기에 발굴하고 자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며 보람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며 자기 연찬(硏鑽)을 위한 일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복교식을 갖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동문님들과 학부모님, 지역 사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교가 훌륭한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애써 주신 권두호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이수우 위원장님, 학부모회 강영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새 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가는데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연초등학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2004. 5. 6.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안길원

용인초등학교

3) 복교의 기쁨을 만끽하며

(1) 꿈의 실현을 위하여 – 김종찬(1회)

(2) 행단을 거닐며(자작시) – 이수우(3회)

(3) 아들아! 네가 있어 기쁘다 – 김일철(3회)

(4) 이제는 춥다 – 이호우(3회)

(5) 소중하게 만난 후배들에게 – 김석하(4회)

(6) 꿈을 가집시다 – 박형오(4회)

(7) 교지 발간에 즈음하여 – 이제근(5회)

(8) 남을 배려하는 마음 – 황태준(6회)

(9) 추억을 되새기며 – 이상옥(7회)

(10) 故鄕 – 정세연(7회)

(11) 이스터 섬과 신선산 – 김진곤(8회)

(12) 늘 꿈을 바라보는 자는 그 꿈을 닮아 버린다 – 박경태(9회)

이 글은 현재의 용연초등학교에서 2005년 2월에 간행한 교지인 〈용연〉 창간호에 실린 것을 보완하여 재수록하였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당시의 기준으로 쓴 것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1) 꿈의 실현을 위하여

김종찬(1회)

저는 용연초등학교 총동문회 1대, 4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총동문회 고문과 1회 동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형님들은 국졸이 2명, 중졸 1명이며 동생은 고졸입니다.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간략하게 나열하였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통나무집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산시 남구 용연동 121번지 송계 마을이라는 약 20가구의 조그만 마을에서 7남 중 5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형제도 5남 중 막내로 학문은 무학이며 재산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저의 형님들은 국졸이 2명, 중졸 1명이며 동생은 고졸입니다.

대현중학교 합격증을 어머님께 보여 드렸더니 한숨만 쉬어…중학교 입학은 우리 가정으로서는 무리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4,5학년 때는 우등상을 받았는데, 6학년 때는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셔서 공부를 소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등상은 못 받고 체육진흥회장상(학교운영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는 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은 어려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학교는 반드시 가야했기에 시내 중학교는 못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대현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어머님께 보여 드렸더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의 병환이 위독하여 병원비 마련도 힘든 형편이기에 중학교 입학은 우리 가정으로서는 무리였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농사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소먹이는 일과 농사일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형님들은 부산으로 기술을 배우러 떠나고 모든 농사는 제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농사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소먹이는 일과 농사일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전교 10등 내외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상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지만 불합격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학교로는 1위인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동성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고 전교 13등으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이 악화되시면서 돌아가셨고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방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신경만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경야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생각했고 서울 상위 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했고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유공직업훈련원 6개월 과정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취직은 못하고 영남화학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1980년 11월에 결혼을 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꿈 실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 과정에 편입 시험을 봐서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정말 주경야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동아대 경영대학원 공업경영학과를 수료하였습니다.

영남화학이 동부화학으로 인수되면서 저는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SK(주)에 입사했습니다. 대졸 모집이 없고 전문대 모집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공업경영과를 수료하면서 곧바로 대학원 박사과정(공대) 시험을 봤으나 불합격했고, 동국대학교 경주분교에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회사에서 교대 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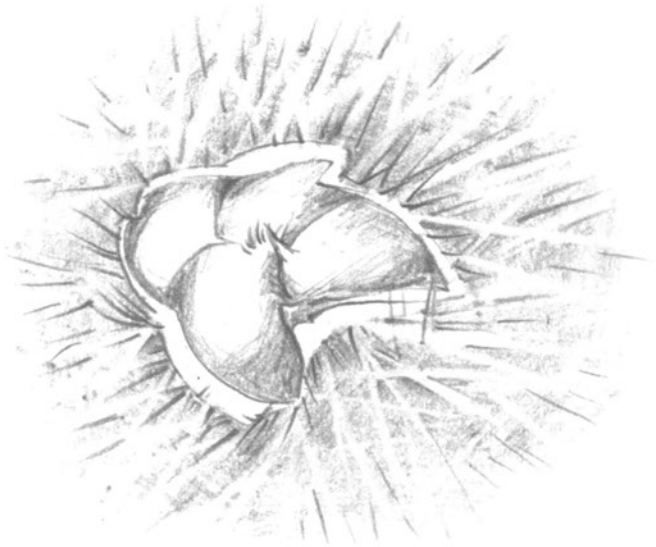
속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난 후 동아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품질관리 전공 박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현재는 영어, 전공 시험, 학점 모두 이수하고 박사 6년차로 논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 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도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처해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2) 행단을 거닐며 - 자작시

이수우(3회)

1

大成殿[1] 孔門十哲[2] 받들어 뫼시옵고
만백성 인재 이뤄 아름다운 풍속 골라
仁學[3]을 온 누리 펼쳐 대쪽 같이 일어라

2

明倫堂[4]벼슬길을 봄바람 열어 가면
老巨樹[5] 杏壇[6] 아래 나래 접은 뭇 새들
大鵬[7]을 꿈꾸어 오를 하늘 날을 그린다

3

尊經閣[8] 글밭 속에 청아한 매암 울음
혼돈의 어둠 뚫고 혜안의 허울 벗어
옛 선비 책 읽는 소리 音律[9] 따라 우는가

4

丕闡堂[10] 흙담 타고 霜降[11]이 다그치니
큰 뜻을 영글어다 한 해살이 갈무리
꼿꼿한 成均[12]의 기개 養賢齋[13]를 넘는다.

〈뜻 풀이〉

1) **大成殿(대성전)** : 문묘의 正殿(정전)으로서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건각이다. 공자를 중앙 정위에 모시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사성을 좌우로 合侍(합시)하고 있다.

2) **孔門十哲(공문십철)** : 공자 문하의 열 분의 철인으로 閔損(민손), 雍(염옹), 端木賜(단목사), 仲油(중유), 卜商(복상), 耕(염경), 宰予(재여), 求(염구), 言偃(언언), 孫師(전손사)이다.

3) **仁學(인학)** :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을 배우는 학문으로 공자의 가르침의 근본 개념

4) **明倫堂(명륜당)** : 조선 때 성균관 안에 설치되어 유학을 강의하던 집.

5) **老巨樹(노거수)** : 오래된 나무.

6) **杏壇(행단)** : 학문을 닦는 곳. 공자가 은행나무단 위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나 온 말

7) **大鵬(대붕)** : 붕새로 등의 크기가 수천 리,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고 한 번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고 하는 상상의 새.

8) **尊經閣(존경각)** : 성균관의 도서관으로서 성균관 내에 있다. 성종 6년(1475) 한명회가 성균관 안에 장서각을 세울 것을 건의하여, 성종이 명륜당 북쪽에 각을 건립하고 각명을 존경이라고 명명하였다. 존경각의 기본 장서는 사서오경 제자백가 각종의 역사서와 성리학 중심의 유가 도서였지만, 불교 도가와 기타 잡류의 도서와 기술 서적은 소장하지 않았다.

9) **音律(음률)** : 오음과 육률을 말하며, 오음은 궁상각치우의 다섯 가지 음과 육률은 십이율 (十二律) 중 양성(陽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고리, 곧 황종태주고선유빈이칙무역이다.

10) **丕闡堂(비천당)** : 대과 및 소과 시험 때 제 2과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제 1과장은 명륜당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내의 명륜동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에 협실이 있다. 현종 5년(1664) 민정중(閔鼎重)의 건의로 건립하였고, 이원(승방)을 헐어 세웠으므로 주희가 말한 "큰 도를 밝힌다.(비천대유(丕闡大猷))"라는 뜻을 따서 명명한 것이 다.

11) **霜降(상강)** : 이십사절기의 열여덟째, 한로와 입동 사이로 양력 10월 23일이나 24일에 든다. 대체로 이때부터 서리가 오기 시작한다.

12) **成均(성균)** : 성균관은 조선 때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이나 그 어원은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성'은 '成人材之未'의 구절에서, '균'은' 勻風俗之不齊'의 구절에서, 그리고 '관'은 欽材館(흠재관) 또는 接士館(접사관) 등의 公館(공관)이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즉 成(성)은 인재를 이룬다는 뜻이며, 均(균)은 풍속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13) **養賢齋(양현재)** : 나라의 어진 선비를 길러내는 집.

(3) 아들아! 네가 있어 기쁘다

김일철(3회)

아들아,
너를 바라보며 아빠는 욕심을 부려본다.

아들아,
훗날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너희 몫을 다할 줄 아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 말이다.

지금은 괜히 학원에 가기 싫더라도
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뚜렷한 목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아들아,
너를 바라보면 아빠는 6학년 시절로 돌아가곤 한단다.

도시락에 밥한 덩이와 김치 한 조각 고추장 한 숟갈 넣으면 그만이었지
가끔 생일이나 소풍가는 날이면 달걀프라이를 하여 너희 할머님이
도시락에 넣어 주시곤 하셨단다.

이 세상에 그런 맛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달걀프라이만 특식인 줄 알고
아빠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

지금 어떠냐?
치킨에다 햄버거, 피자 등등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는

너희들 세대를 바라보는 아빠는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아들아,
너의 눈을 가끔씩 너 몰래 바라보며 기쁨으로 잠기곤 한단다.
입에 노래를 문 새 들이 찾아와 짹짹 축가를 불러주고
파란 하늘마저 걸터앉아 차향으로 마중하니
아빠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지.

너는 지금 6학년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
너무 어른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세상 흉내를 내어서는 더욱 안 된단다.

아빠처럼 돌아가고픈
6학년을 만들어보렴.
아들이 아빠가 되었을 적 아련히 찾아드는 추억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알게다

아들아,
6학년 마지막 겨울 방학을 신나게 뛰어 놀고 뜻있게 보내렴.

(4) 이제는 춥다

이호우(3회)

22:30 춥다 겨울이다.
01:00 넘 춥다 겨울을 느낀다.
06:00 넘넘넘 춥다 겨울이 실감 난다. 이제는…….

(작가의 시 이야기)
옛날 어린 시절 초가집은?
대부분 담장이 없거나 흙담 또는 돌담 아니면 대나무 울타리로 집을 감싼다.
겨울은 밤이 너무 길고 해는 엄청 짧다.
해거름이면 집집마다 방구들을 지핀다.
저녁을 먹고 나면 겨울 얘기 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겨울밤 문풍지를 떨어 간 황소바람은 무지 춥다.

22:30 춥다 겨울이다
(황소바람 소리에 찬 겨울을 느낀다)
01:00 넘 춥다 겨울을 느낀다.
(방구들이 싸늘해진다)
06:00 넘넘넘 추운 것이다. 겨울을 실감 한다. 이제는…….
(꽁꽁꽁 넘 추워 밤새 떨다가 동트는 아침이다.)

마지막의 "이제는……." 에서는
춥다고 그냥 집에 있다가는 언 동태가 될 터라는 생각에, 춥지만 개울가로 나가 친구들과 얼음지치기를 하려 했던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5) 소중하게 만난 후배들에게

김석하(4회)

이맘때면 초가집은 이엉을 이고, 전통 가옥(한옥)의 방문은 하얀 창호지로 깨끗이 단장하고…민속촌의 풍경이 아니고 30여 년쯤 전에 선배들이 용연초등학교 다닐 때의 겨울 준비하는 풍경이었다.

산에도 들에도 도시의 가로수에도 온통 울긋불긋 물들었던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는 겨울 준비를 벌써 끝내고 씩씩하게 서 있다. 이맘때면 초가집은 이엉을 이고, 전통 가옥(한옥)의 방문은 하얀 창호지로 깨끗이 단장하고 어머니의 손은 김장하시느라 바빠지고, 아버지는 수확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두랴, 땔감을 장만하랴 바쁜 날들이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바쁜 일손을 돕기도 하지만 마음 속으론 겨울 방학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민속촌의 풍경이 아니고 30여 년쯤 전에 선배들이 용연초등학교 다닐 때의 겨울 준비하는 풍경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배들을 만나고 보니 그때의 모습들이 생각난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부탁하고 싶은 말도 많아진다.

우리 반 모두가 토끼몰이를 간 기억도 있고 전교생이 솔방울을 따러 간 기억도 있다.…솔방울은 난로의 땔감으로 쓰기도 했거든

우선 옛 이야기부터 말하여 보자.

선배들이 다녔던 용연초등학교는 용연, 황암, 천곡, 성외, 세죽, 성암 등의 마을 어린이가 모여 공부했던 곳이며, 뒤로는 산과 들판이 있고 앞으로는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단다. 세죽은 처용설화가 전해오는 처용암이 있으며, 울산의 중요한 문화제인 처용문화제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산에서는 추억을 더듬어보면 4학년 때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반 모두가 토끼몰이를 간 기억도 있고 전교생이 솔방울을 따러 간 기억도 있다. 보자기에 솔방울을 가득 채우려 애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솔방울 던지기 장난만 치다가 꾸중 듣는 친구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어린 시절은 비슷한 것 같지?) 등등… 지나고 보니 재미있는 추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물자가 풍부하지 못했던 기억도 있다. (솔방울은 난로의 땔감으로 쓰기도 했거든) 어쨌든, 생각해 보니 요즈음 경험하기 어려운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바닷가에서는 낚시를 잘하는 친구는 고기를 낚아 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바위틈에서는 게를 잡느라고 바쁘고, 또 다른 친구는 바위에 붙어 있는 갖가지 조개류, 해조류를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으면 짓궂은 파도는 바위에 철썩 한바탕 짠물을 뿌린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바닷물은 푸르기 보단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고, 넓은 바다는 한 덩어리가 되어 넘실거리고, 바다 저편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친구들이 어깨동무하여 몰려오는 듯 참으로 신기하기도 했단다.

동네 주변으로 공장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이사)를 해야 했다…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런가 하면 파도의 저편에는 돛단 고기배가 한가로이 떠 있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통배가 통통거리며 오가는 모습도 기억이 난다. 저녁때가 되면 유난히 크게 들리어 동네까지 들리곤 했다. 그러다가 동력선이 나오더니 넓은 바다를 휘젓고 다녔다.

이 동력선의 편리함은 산업의 발전을 의미했고 결국은 동네 주변으로 공장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이사)를 해야 했다. 어린 시절에 산으로 바다로 그리고 들판을 가로지르던 아름다운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말이야. 그 아쉬운 마음이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 후배 여러분을 만나니 이제야 위안이 되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서 손 붙잡고 이야기하듯이, 이 소중한 만남을 자꾸 자꾸 이야기 하고 싶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 중에는 너무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는 많다

그 다음은 부탁의 말인데, 초등학교 때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에 많이많이 해 보거라.

혹 너희들 중에 누구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으냐?

부모님의 간섭 없이 컴퓨터를 마음껏 하고 싶으냐?

또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숙제도 없고 방학이 아주 아주 길었으면 좋겠느냐?

용돈을 많이 얻어서 갖고 싶은 것 몽땅 다 사고 싶으냐?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구나.

컴퓨터 게임 중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것이 제일 재미있는지 잘 알고 있느냐? 어떤 사탕은 달콤하고 어떤 음료수가 맛이 좋고 어떤 튀김과자가 고소한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채송화, 민들레, 개나리, 장미꽃은 언제 피고 무슨 색깔이며, 국화의 향기는 어떠한지 알고 있느냐?

산딸기며, 뽕나무며, 여름날에 샘물(우물)에 씻어 먹는 앵두의 맛은 어떠하겠는가?

들판에 일하는 소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토끼의 똥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 중에는 너무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이다. 한 곳에만 빠져 있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갇혀 버려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여름엔 일찍 일어나 이슬을 머금고 있는 풀잎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눈 내린 밤은 왜 더욱 고요한지도 느껴 보거라.

그럼 또 이야기 해볼까?

개구리가 알을 낳아 놓은 곳에서 올챙이들이 생겨 나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며 노니는 모습을 본적이 있느냐?

누구는(이 선배의 친구들) 올챙이는 앞다리가 먼저 생겨 나온다 하고, 누구는 뒷다리가 먼저 생겨나온다고 서로 우긴 기억도 있다.

개미들이 줄지어 길게 바쁘게 움직이는 행렬을 본적이 있는가?

어떤 친구는 개미가 이사 간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먹이를 나른다고 하면서 티격태격한 기억도 있다.

또 이러한 것들도 느껴 보거라.

비온 뒤 갠 날엔 무지개의 일곱 색깔도 살펴보고, 여름엔 일찍 일어나 이슬을 머금고 있는 풀잎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눈 내린 밤은 왜 더욱 고요한지도 느껴 보거라.

졸업하면서 헤어지는 친구들끼리는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약속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지금은 초등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넘겨 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꿈들을 키워 가려무나. 그러고 보니 책 펴놓고 공부하는 얘기는 빼먹었네. 그건 말이야. 굳이 말을 안 해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 사실은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 그 만큼 더 많이 보인단다.

하물며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선후배로 만났으니 우리는 서로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겠는가?…후배들이여!!

후배들이여! 나중에라도 춥지 않은 밤이면 밤하늘을 한번 보거라.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달나라엔 토끼가 방아 찧는 이야기도 있고,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던 이야기도 있단다.

나의 별은 이 별이고 너의 별은 저 별이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 보거라. 이 지구의 반대편에도 내 또래의 친구가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어느 책의 이야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다가 이 지구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수백억 년만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란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물며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선후배로 만났으니 우리는 서로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후배들이여!!

(6) 꿈을 가집시다

박형오(4회)

이 글을 통하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의 빛나는 눈망울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태백산맥이 힘차게 뻗어 내리고, 돌고래가 신나게 노래하는 푸른 동해가 펼쳐지는 아늑한 보금자리 신선산 품속에서,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꿈과 사랑과 희망을 듬뿍 담아 『교지』를 발간한다고 하니 선배인 저로서도 기쁘고 가슴이 설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을』이란 '시'를 울산 어린이 문집 창간호에 실은 일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글은 마음의 표현이자 희망을 향한 아름다운 몸짓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지』에 제가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통하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의 빛나는 눈망울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날고 싶다는 것이 조나단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권두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 학교생활을 씩씩하게, 즐겁고 알차게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후배 여러분에게 꿈, 즉, 이상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처드바크가 지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나단입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입니다.

"높이 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인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높이 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어."

다른 갈매기들은 모두들 먹이를 찾고,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날고 싶다는 것이 조나단의 꿈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갈매기보다도 더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조나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되었습니다.

나처럼 개그맨이 되든 다른 꿈을 이루는 도전 정신은 중요한 것 같다.…항상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된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갈매기 조나단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야 하겠습니다. 높은 이상을 향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조나단처럼 날개를 활짝 펼치십시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전정신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장철규 씨를 아시지요?

요즈음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블랑카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개그맨 말입니다.

그 개그맨이 며칠 전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특강에서 "나처럼 개그맨이 되든 다른 꿈을 이루는 도전 정신은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똑같은 학생이라도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블랑카처럼 자기 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10살 소녀였던 그는 백악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리고는 국무장관까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콘돌리자 라이스』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같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을 구경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이기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살 소녀였던 그는 백악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국무장관까지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교 4-5학년 때 생각했던 꿈이 어른이 되어서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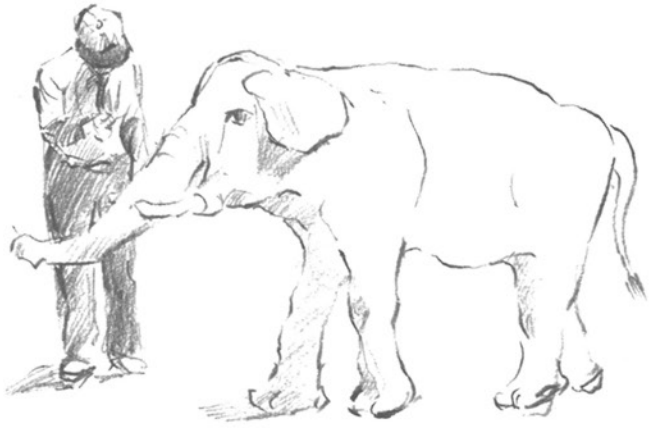
레오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힘차게 용솟음치듯 나만의 꿈을 키워 갑시다.

아직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바로 이 순간, 멋지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여러분도 꿈의 나래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은 자기가 부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불러줄 때 더욱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용연교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 더욱더 빛나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어둠을 밝혀 주는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푸른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힘차게 용솟음치듯 나만의 꿈을 키워 갑시다.

끝으로, 교지 편집을 위해 애쓰시는 편집위원 여러분과 지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7) 교지 발간에 즈음하여

이제근(5회)

모친의 손을 잡고 입학이라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교실도 부족하여 인근의 황암 마을에 있는 동민회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

먼저 용연초등학교 동문들과 재학생 교직원 모두 함께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용연초등학교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져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어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 뿌듯함과 소중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내가 처음 돌아가신 모친의 손을 잡고 입학이라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출석을 부르며 학생의 신분으로 명찰을 달았던 곳이기도 해서 …….

용연초등학교, 그 당시엔 용연국민학교였지요.

신설된 초등학교라서 교실도 부족하여 인근의 황암 마을에 있는 동민회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시절 나는 꽤 개구쟁이라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는 시간에도 번잡스러워 혼이 나기도 한 것 같아서 지금은 쑥스럽기도 하지요.

비만 오면 유난히도 운동장이 질퍽거려서 매번 수업을 중단하고 용연동과 황암을 갈라놓은 도랑을 넘나들며 두 사람씩 한 조가 되어 들것에 모래를 가득 담아 낑낑대며 학교 운동장을 오가는 모습이 그려져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추억들이 끊어져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동문들의 합심과 노고로 꿈나무들의 요람으로 길이 빛나는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이제는 그때의 동창들,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들 모두 모두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 사회의 어디에서나 이름만 얘기해도 알아주는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 되기도, 공무원이나 기술자, 또는 개인 사업가로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가정에서 미래의 꿈인 우리 가족

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내조자로서 삶의 역군이 되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 용연초등학교의 기억이 이러할 진데 그 추억들이 끊어져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우리 동문들의 합심과 노고로 다시금 후배들의 책 읽는 소리와 함께 꿈나무들의 요람으로 길이 빛나는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우리 용연초등학교 동량들의 일취월장하는 모습이 먼 후일 커다란 무지개 꽃으로 찬란히 펼치는 날을 생각하며

내가 찾은 모교는 옛날의 낡고 초라함에서 벗어나 당당하고도 잘 정돈된 우아함을 겸비한 최신 건물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정보화 시험학교' 라는 현대산업의 중추적 역할교육 방식에 편승하는 간판에다 첨단시설의 교육환경이 다시 한번 내가 이 학교의 선배임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 훌륭한 시설과 정돈된 환경 속에서 우리 용연초등학교 동량들의 일취월장하는 모습이 먼 후일 커다란 무지개 꽃으로 찬란히 펼치는 날을 생각하며, 이제 용연초등학교의 발전과 번창함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동량들의 요람을 넘어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산실이 되기를 기원 또 기원합니다.

모교여! 영원히 찬란하게 길이 빛나라.

(8) 남을 배려하는 마음

황태준(6회)

조금은 겁도 났고 떨리는 가슴으로 러시아에 출장을 갔었다.…러시아 말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몇 년 전 나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장을 간적이 있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러시아 연방으로 태어난 나라였다. 조금은 겁도 났고 떨리는 가슴으로 출장을 갔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들어오던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였고 우리 나라의 6.25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을 돕던 나라였기에 더 그랬는지도 몰랐다. 더구나 나는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러시아에 도착해서 보니 공항이나 건물들 모두가 낡아 보였다. 첫눈에 참 가난한가 보다 하고 여겨졌다. 호텔에 도착하고서 나는 다시 한 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 정문에 서 있는 수위가 기관단총을 허리에 맨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긴장한 채로 하루를 보냈다.

한 아주머니가 내가 타야할 지하철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나는 연신 '스파시빠(감사합니다)'를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음날 우리 회사 러시아 직원들을 만나서 업무를 보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긴장감이 조금은 가셔졌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도 호의적이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호텔에서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약간은 긴장이 풀어질 무렵 나는 모스크바 시내를 혼자서 구경을 나가게 되었다.

호텔에서 지도를 구하고 내가 돌아와야 할 지하철역을 표시하고 역 이름을 그려서 종이에 간단한 메모를 한 후 그걸 믿고 나갔다. 사건은 크레블린 궁전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돌아오기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역에서 환승을 해야 했는데, 나는 그때 그만 환승해야 하는 방향을 잊어 버린 것이었다. 우왕좌왕하며 역을 찾으려 했으나 도

무지 글자를 몰라 헤매기만 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불어로 영어를 잘 몰라서인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내가 가야 할 역 이름이 적힌 지도와 메모장을 보여 주었다.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을 받아 든 아주머니는 자기를 따라 오라고 하더니만 역시 내가 타야할 지하철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때 환승해야 할 통로를 잘못 들어가 버린 것을 그때야 알았다. 연신 '스파시빠(감사합니다)'를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지하철에 올랐다.

경로석이 비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고…우리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남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열차가 많이 비좁았지만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었다. 경로석이 비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고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다음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더니만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많은 지하철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간혹 보는 광경이지만 경로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러시아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시금 출장 중 있었던 기억들을 돌이켜보았다.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친절하게도 애써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데려다 주신 분이나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경로석이 비워 있음에도 앉지 않은 러시아 젊은이들의 마음씨를 볼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해 오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남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먼 나라 출장 중 이방인에게 길을 안내해 준 러시아인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도 다시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곰곰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추억을 되새기며

이상옥(7회)

가슴이 아프고 고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휑하니 뚫린 듯 쓰라렸다.…용연초등학교로 새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

유년의 추억이 깃든 나의 첫 모교 용연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 아팠고, 폐교의 잔재들을 대현초등학교로 옮겨 왔다. 각종 서류들과 생활기록부 등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고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휑하니 뚫린 듯 쓰라렸다. 몇 년 후 내가 현재 다니는 직장 앞에 용연초등학교로 새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

맨바닥에 앉아서 몽당연필에 침 묻혀 가면서 공부를 했다.…그때는 학원 갈 필요도 없었고, 학습지에 매달린 적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성대한 복교행사를 치르고 다시 찾은 '용연초등학교'를 보면서 내 어릴 적 시절을 추억해 본다. 입학하자마자 우리는 부족한 교실 때문에 동사무소 공간에서 책상도 없이 간이 의자에 앉거나, 그것도 없으면 맨바닥에 앉아서 몽당연필에 침 묻혀 가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도 난생 처음 해 보는 공부라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재미있고 눈망울을 반짝이며 들었다. 또 교실이 생기면서 고르지 못한 운동장 탓에 매일 세숫대야에 자갈과 모래를 이고 다니면서 운동장을 매웠고, 겨울이면 땔감을 구하러 학교 뒷산으로 가 솔방울도 줍고 썩은 나무 밑둥도 줍고, 토끼몰이를 한다고 온 산을 뛰어 다녔다.

봄이면 보리밭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데 짓궂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줄행랑을 치고, 여름이면 우리들 대다수가 바닷가에 살았기에 모두 검둥이가 되었다.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멱도 감고, 각종 바다풀도 따고 고둥, 성게, 조개 등 풍성한 먹거리로 간식하고 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엄마의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집으로 향했다.

가을이면 바닷가 넓은 곳에 널어둔 멸치를 집어 먹으며 학교로 갔고, 겨울이면 난롯가에 도시락이랑 고구마를 구워 먹었던 기억들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자치기, 숨바꼭질, 돌차기, 공기놀이 등 우리들의 놀잇감은 무궁무진했고 그때는 학원 갈 필요도 없었고, 학습지에 매달린 적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부족함이 뭔지 불편함이 뭔지도 잘 몰랐고 마냥 즐겁기만 했던 기억뿐이다.…얼마 전 가본 용연초등학교는 정말 훌륭한 학교였다.

요즘처럼 흔한 TV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우리는 잠들 때까지 심심할 사이도 없었고 모두 같이 잘 어울려 놀았다.

이제 30년도 훌쩍 지난 사십대 중반의 우리 친구들은 동기회, 동창회를 만들어 1년에 두어 번 서로의 늙어 가는 모습도 확인하고, 어릴 적 선생님께 매 맞던 이야기, 친구들과 싸웠던 이야기 각종 서리 이야기 등으로 추억을 곱씹어 본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학용품도 부족했지만 별 불편을 모르고 지냈고, 부족함이 뭔지 불편함이 뭔지도 잘 몰랐고 마냥 즐겁기만 했던 기억뿐이다.

얼마 전 가 본 용연초등학교는 초현대식 건물에 깨끗하고 너무도 잘 갖추어진, 옛날 우리들의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훌륭한 학교였다.

이런 곳에서 다시 한 번 공부해 봤으면…….

사랑스런 나의 후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먼 훗날 어릴 적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사이좋게 지내고 항상 매진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10) 故鄕

정세연(7회)

내가 태어난 번득마을, 장터, 학교 자리 등을 정리 없이 내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아픈 가슴을 추스르기에는 턱없는 공허함만 대신할 뿐이다.

보따리 책가방, 양은 도시락, 급식 빵, 비오는 소풍날, 코스모스길, 방앗간 집 황소, 너나없이 선생님이 무서웠고 어디서든 선생님을 보면 의례히 숨어 버려야 했던 것이 초등학교 학창 시절 내가 기억하는 추억 들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용연동 번득마을 이었고, 지명으로 같은 동이지만 새각단, 조구재, 용신, 배나무진 등으로 각 고유 이름으로 구전되어 있었다.

비오는 날이면 패인 소발자국에서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었고, 대나무 붕어낚시, 새집털이, 조개잡이 등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산 따라 들 따라 휘청 굽이친 강줄기 따라 마을 구석구석을 까닭 없이 뛰어다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황량한 풀밭 위에 옛터비만 덩그러니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내 고향, 그 옛터비를 터 잡아 내가 태어난 번득마을, 장터, 학교 자리 등을 정리 없이 내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아픈 가슴을 추스르기에는 턱없는 공허함만 대신할 뿐이다.

태어난 곳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찾아 산란과 동시에 죽음에 이른다는 연어.…신비함보다는 감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태어난 곳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찾아 산란과 동시에 죽음에 이른다는 연어.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기억할 수 있으며, 꼭 그곳이어야만 하는지 지금도 의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의 일생은 한편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고 신비함보다는 감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혹이 된 지금은 마음의 향수를 그리면서 지나간 추억을 되돌아보며 잠시라고 쉬어가고 싶다.

우리는 어떤가?

그래도 영장류 중의 으뜸이 아닌가.

잠시 찾은 내 고향의 황량함에 한숨 쉬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또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온갖 시름에 하루하루를 헤엄치듯 살고 있지 않은가?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불혹이 된 지금은 마음의 향수를 그리면서 지나간 추억을 되돌아보며 잠시라고 쉬어가고 싶다.



(11) 이스터 섬과 신선산

김진곤(8회)

최고 13톤이나 되는 붉은 돌 모자를 석상 머리 위에 얹은 기술은 더욱 놀랍다.…이스터 섬 주민들의 지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스터 섬은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서 3,700㎞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섬의 전성기 때에는 평균 6m 높이의 거대한 석상 600여 개를 만들어 세웠는데. 최고 13톤이나 되는 붉은 돌 모자를 석상 머리 위에 얹은 기술은 더욱 놀랍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석조대를 세웠는데, 하지, 동지, 춘분, 추분에 맞추어 고도의 복잡한 천문학적 배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울창한 산림을 끊임없이 베어…나무가 없어 집을 짓지 못해서 동굴에서 원시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카누를 만들지 못해 고기잡이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폴리네시아 여러 종족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갑자기 야만스런 미개인으로 변한 것은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울창한 산림을 끊임없이 베어다가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롤러로 삼기도 하고 집을 짓고 카누를 만들었다. 그 섬에서 나무가 사라지자, 땅의 영양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식량이 부족해졌다. 평화롭던 이스터 섬은 부족들 사이에 식량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약 7,000명이던 인구가 약 3,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나아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나무가 없어 집을 짓지 못해서 동굴에서 원시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카누를 만들지 못해 고기잡이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이스터 섬의 주민들은 나무를 지키지 못해서 야만스런 원시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스터 섬의 역사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쉽게 예감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나무를 많이 심어 신선바위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울산 사람들이 편안해졌다고 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새 용연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선산에 전해 오는 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선산의 산신령이 신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잡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신선바위의 모습을 호랑이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또 신선들의 모습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숲을 가꾸어 무성하게 가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내어 호랑이를 닮은 신선바위의 모습이 훤하게 보이자, 그때부터 울산에 돌림병이 생기고 재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많이 심어 신선바위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울산 사람들이 편안해졌다고 전한다.

우리 모두 신선산에 올라 신선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나무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이처럼 우리 울산의 옛 조상들은 호랑이 모습의 신선바위를 파괴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 가림으로써 이스터 섬의 주민들과는 대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지혜를 찾아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사랑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환경 운동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 신선산에 올라 신선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보현사에 들러 찬물 한잔 마시면서 주위의 나무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12) 늘 꿈을 바라보는 자는 그 꿈을 닮아 버린다

박경태(9회)

추억 어린 교정은 이제 선배 동문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시절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한 없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사랑하는 재학생 후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선후배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품에 안고 신나고 즐겁게 뛰어 놀았던 추억 어린 교정은 이제 선배 동문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움의 터전은 달랐지만 새로운 교정에서 용연초등학교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가족과 같은 끈끈한 동문들의 정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등학교 시절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한 없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부모가 되어 버린 그리운 얼굴들을 일 년에 한두 번씩 동기들의 정기 모임에서 마주하곤 합니다. 어렴풋이 남아 있는 유년 시절의 모습에서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갈 수록 초등학교 동문이란 울타리가 우리를 더욱더 긴밀히 엮어 주고 천진난만 했던 초등학교 때 기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분 좋은 청량제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신 용연초등학교 재학생 후배님,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은사님, 선후배 동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만이 최선…용연초등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재학생 후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서 운명을 변화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승자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다가서는 법'을 배우고 패

자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직접 감을 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우연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릴 적 즐겨 읽는 위인 전기에서 보았듯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늘 꿈을 바라보는 자는 그 꿈을 모두 닮아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그 꿈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 용연초등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동문들의 커다란 힘을 모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제2부

용연초등학교 동창회

1.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회칙
2.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연혁
3. 제15대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조직도
4. 용연초등학교 졸업생 현황

1.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동호회 활성화)
2.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용연초등학교 입학, 졸업자하고, 중퇴한 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이사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2. 수석부회장 : 1 명
3. 부회장 : 약간 명 (5명 이내)
4. 사무국장 : 1 명
   사무국장 : 2 명
   재무차장 : 2 명
5. 운영위원 : 약간 명
6. 감 사 : 2 명
7. 고 문 :
8. 자문위원 : 약간 명

제7조(이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를 둔다.

1. 이사 (각 기수 회장단)
2. 각 기수 회장단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3. 부회장은 5명 이내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4.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6.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당연직으로 한다.
7.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및 이사)

임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이사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위임된 회의를 의결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행사의 진행, 준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행정 및 재정, 기획을 총괄한다.
7. 사무차장, 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재무 섭외를 담당한다.
8. 운영위원은 본회의 특정한 사항 처리나 심의를 담당한다.
9.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제4장 회의 및 구성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과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및 이사 $\frac{2}{3}$이상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회칙의 개, 제정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1. 이사회는 임원,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사업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의 심의
3.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회칙 이외 규정의 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 및 기수별 분담금, 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1. 임원 분담금(年)
   1) 회 장 : 일금 3,000,000원
   2) 수석부회장 : 일금 500,000원
   3) 부회장 : 일금 200,000원
2. 기수 분담금 : 일금 500,000원
3. 단, 신규 가입 기수는 최초 가입 연도를 기준하여 2년 간 300,000원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각 기수분담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0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1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회칙은 2013년 6월 1부터 시행한다.

1. 개정내용
1) **제3조 1항**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제6조 3항** 부회장 : 약간 명 (5명 이내)
3) **제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를 둔다. (제6조 임원에서 분리)
4) **제11조 1항**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4항 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추가)
제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한다.

2.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연혁

1984. 5. 1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김종찬(제1회) 선출
1985. 5. 1	제1차 정기총회 개최	
1986. 5. 1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제2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1987. 5. 1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8. 5. 1	제4차 정기총회 개최	제3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1989. 5. 1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90. 5. 1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제4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1991. 5. 1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2. 5. 1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제5대회장 : 이상종(제2회) 선출
1993. 5. 1	제9차 정기총회 개최	
1994. 5. 1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제6대회장 : 김종찬(제1회) 선출
1995. 5. 1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6. 5. 1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제7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1997. 5. 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8. 5. 1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제8대회장 : 이평우(제1회) 선출
1999. 5. 1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회칙 제정
2000. 5. 1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제9대회장 : 김종찬(제1회) 선출
2001. 5. 1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2. 5. 1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제10대회장 : 최해수(제2회) 선출
2003. 5. 1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4. 3. 1	모교 복교	
2004. 5. 1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제11대회장 : 김종찬(제1회) 선출
2005. 5. 1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2006. 5. 1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제12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2007. 5. 1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2008. 5. 1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제13대회장 : 김종찬(제1회) 유임
2009. 5. 1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0. 5. 1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제14대회장 : 이수우(제3회) 선출
2011. 5. 1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2012.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제15대회장 : 김석하(제4회) 선출 / 개교 50주년 행사
2013. 5. 26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3. 제15대 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조직도

(50년사 발행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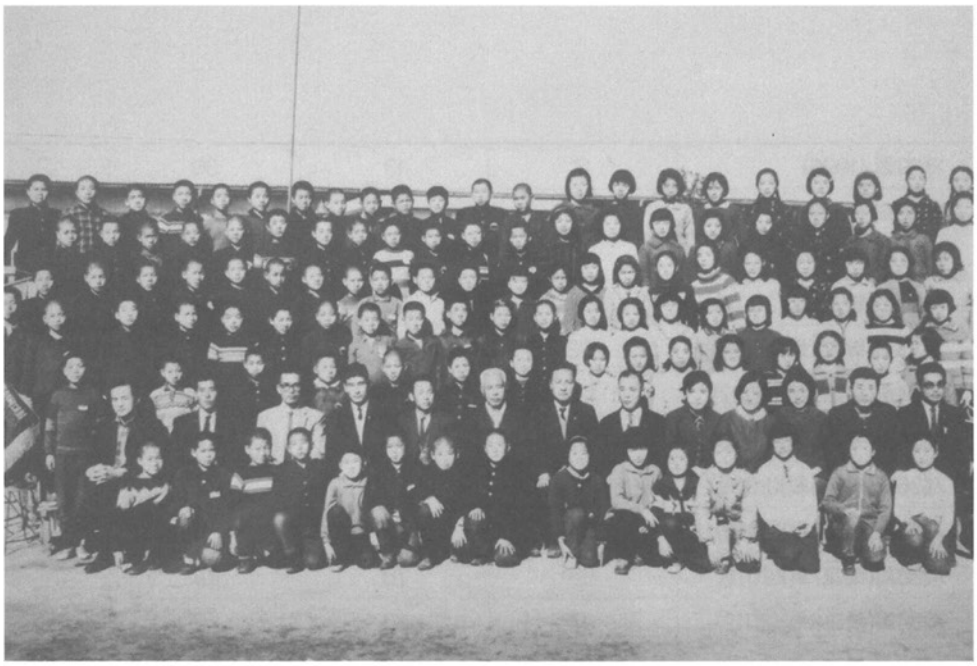
4. 용연초등학교 졸업생 현황

졸업 회수/연도	남/명	여/명	계/명	비 고
제1회 (1968)	66	52	118	
제2회 (1969)	51	57	108	
제3회 (1970)	51	56	107	
제4회 (1971)	44	47	91	
제5회 (1972)	52	51	103	
제6회 (1973)	64	55	119	
제7회 (1974)	64	43	107	
제8회 (1975)	58	45	103	
제9회 (1976)	69	46	115	
제10회 (1977)	44	58	102	
제11회 (1978)	50	66	116	
제12회 (1979)	58	61	119	
제13회 (1980)	71	67	138	
제14회 (1981)	88	59	147	
제15회 (1982)	76	76	152	
제16회 (1983)	66	60	126	
제17회 (1984)	74	71	145	
제18회 (1985)	64	62	126	
제19회 (1986)	72	55	127	
제20회 (1987)	53	66	119	
제21회 (1988)	48	48	96	
제22회 (1989)	57	50	107	
제23회 (1990)	55	43	98	
제24회 (1991)	59	41	100	
제25회 (1992)	46	44	90	
제26회 (1993)	52	44	96	
제27회 (1994)	34	42	76	
제28회 (1995)	34	25	59	

제29회 (1996)	17	13	30	
제30회 (1997)	12	21	33	
제31회 (1998)	7	5	12	
제32회(복교1회)(2005)	89	99	188	
제33회(복교2회)(2006)	123	93	216	
제34회(복교3회)(2007)	121	89	210	
제35회(복교4회)(2008)	109	98	207	
제36회(복교5회)(2009)	98	90	188	
제37회(복교6회)(2010)	87	98	185	
제38회(복교7회)(2011)	89	78	167	
제39회(복교8회)(2012)	97	80	177	
제40회(복교9회)(2013)	91	83	174	
계	2560	2337	4897	

제1회 졸업생(1968)

남 66명, 여 52명, 계 118명



1회 전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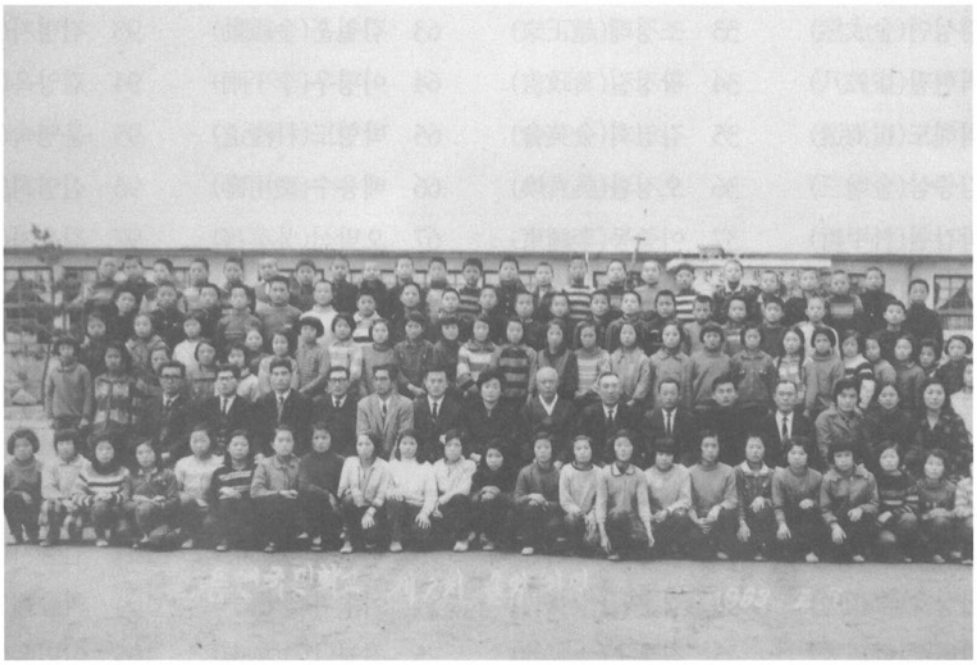


1회 2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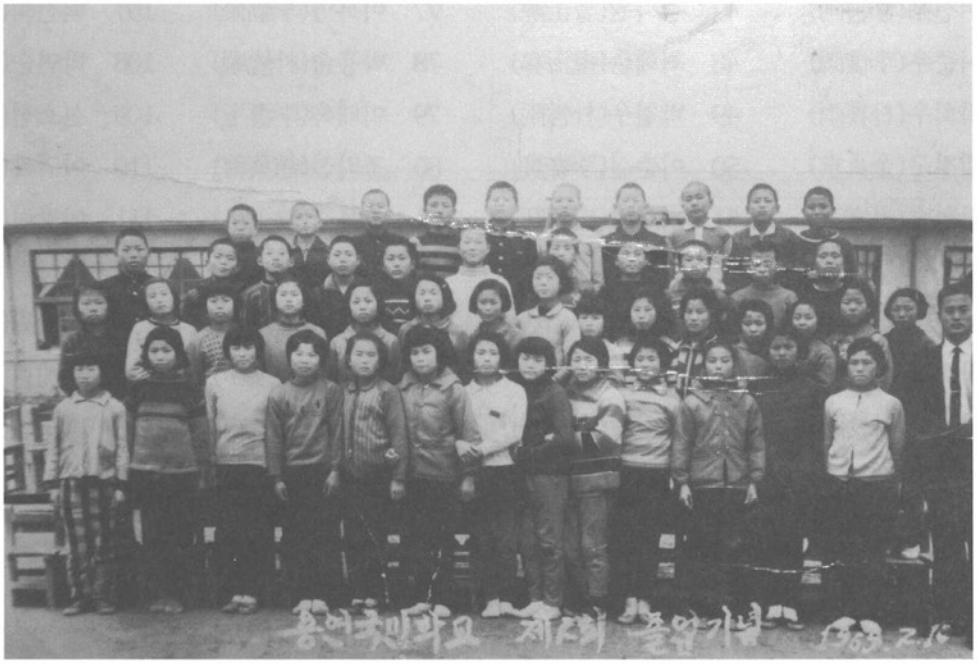
1 박진복(朴鎭福)
2 이봉우(李鳳宇)
3 김성연(金成然)
4 최현팔(崔鉉八)
5 최해도(崔海道)
6 김증삼(金增三)
7 박갑철(朴甲哲)
8 박광복(朴光福)
9 이명수(李明守)
10 김성일(金成一)
11 이관우(李寬雨)
12 김종찬(金鍾讚)
13 김두식(金斗植)
14 이상호(李相虎)
15 박헌수(朴憲秀)
16 이완우(李完雨)
17 이선우(李善雨)
18 이준우(李俊雨)
19 박희우(朴喜雨)
20 김정구(金貞求)
21 박형수(朴瀅洙)
22 황유만(黃有萬)
23 서영달(徐榮達)
24 장희복(張喜福)
25 박장국(朴長國)
26 김상만(金相萬)
27 김수봉(金秀俸)
28 박의윤(朴義玧)
29 이장우(李璋雨)
30 이상룡(李相龍)
31 이명조(李明祚)
32 박기복(朴基福)
33 조정래(趙正來)
34 황정길(黃政吉)
35 김영회(金英會)
36 오정환(吳貞煥)
37 이종동(李鍾東)
38 박수보(朴洙輔)
39 김상중(金尙中)
40 강종한(姜鍾漢)
41 김준태(金準泰)
42 황용철(黃龍鐵)
43 윤병률(尹炳栗)
44 김춘일(金春一)
45 김복조(金福祚)
46 김건치(金建治)
47 김사원(金士源)
48 최해춘(崔海春)
49 박철우(朴哲雨)
50 이춘실(李春實)
51 최해왕(崔海旺)
52 조원수(趙元守)
53 이상호(李相浩)
54 이성준(李成俊)
55 김일수(金一秀)
56 김정식(金正植)
57 김한태(金翰泰)
58 오대환(吳大煥)
59 김기철(金基鐵)
60 이중걸(李重杰)
61 박의완(朴義琓)
62 김성규(金成奎)
63 김철훈(金鐵勳)
64 이평우(李平雨)
65 박형도(朴瀅道)
66 배용수(裵用壽)
67 오막선(吳莫善)
68 장덕자(張德子)
69 조필남(趙必南)
70 박경숙(朴景淑)
71 김희자(金熙子)
72 박명자(朴明子)
73 이선희(李仙姬)
74 이수자(李樹子)
75 최영남(崔英南)
76 박용희(朴龍熙)
77 이복영(李福榮)
78 박용순(朴龍順)
79 이태옥(李泰玉)
80 조막선(趙莫善)
81 한옥경(韓玉京)
82 이광순(李光順)
83 조도녀(趙慶女)
84 박늠이(朴凜伊)
85 김귀화(金貴花)
86 김영란(金永蘭)
87 김영필(金英必)
88 전영분(全英粉)
89 박금선(朴今先)
90 우옥선(禹玉善)
91 이옥순(李玉順)
92 최옥숙(崔玉淑)
93 김명자(金明子)
94 김양옥(金良玉)
95 문영숙(文榮淑)
96 신영희(申榮嬉)
97 김윤자(金潤子)
98 박복선(朴福先)
99 김미화(金美花)
100 류봉남(柳鳳南)
101 김차선(金且善)
102 조판선(趙判善)
103 김홍자(金弘子)
104 최송례(崔松禮)
105 이귀옥(李貴玉)
106 박미화(朴美花)
107 백선희(白善熙)
108 박연순(朴連順)
109 신소선(辛小善)
110 이귀복(李貴福)
111 이말련(李末連)
112 이상련(李相連)
113 장막필(張莫必)
114 박애희(朴愛喜)
115 박명화(朴明花)
116 오귀옥(吳貴玉)
117 황유금(黃有金)
118 윤외복(尹外福)

제2회 졸업생(1969)

남 51명, 여 57명, 계 108명



2회 전교생



2회 2반

119 김도곤(金道坤)
120 김화식(金和植)
121 박형수(朴형琇)
122 최해종(崔海宗)
123 이채량(李埰良)
124 윤정수(尹正守)
125 김광줄(金光茁)
126 이완우(李完雨)
127 조경철(趙慶哲)
128 김재원(金在原)
129 김종원(金鐘元)
130 김헌태(金憲泰)
131 박갑출(朴甲出)
132 양보성(梁普星)
133 오귀환(吳貴煥)
134 황정윤(黃正潤)
135 김종헌(金鐘憲)
136 김후규(金後圭)
137 이정우(李正雨)
138 장이식(張利息)
139 박종혁(朴鐘赫)
140 김근식(金根植)
141 최성근(崔成根)
142 김인출(金仁出)
143 김증식(金增植)
144 이성자(李成子)
145 손필우(孫弼雨)
146 홍만련(洪萬連)
147 김숙희(金淑熙)
148 김필숙(金必淑)
149 박선옥(朴善玉)
150 최순란(崔順蘭)
151 이말옥(李末玉)
152 김순복(金順福)
153 장연희(張蓮姬)
154 이경숙(李慶淑)
155 박봉희(朴鳳姬)
156 이옥자(李玉子)
157 최윤순(崔潤順)
158 장영필(張英必)
159 김말란(金末蘭)
160 김소자(金小子)
161 황양애(黃良愛)
162 장연자(張連子)
163 차말자(車末子)
164 이해선(李海善)
165 임영애(任永愛)
166 이옥이(李玉伊)
167 이옥련(李玉蓮)
168 강막필(姜莫必)
169 박재필(朴在必)
170 김정의(金貞義)
171 유선례(劉先禮)
172 박순희(朴順姬)
173 이상근(李相根)
174 이상종(李相宗)
175 김성환(金成煥)
176 곽상조(郭相祚)
177 이세우(李細雨)
178 최정헌(崔正憲)
179 고인경(高仁京)
180 박수경(朴秀慶)
181 박경우(朴景雨)
182 이영준(李永俊)
183 천연수(千連洙)
184 이종호(李鐘浩)
185 김창훈(金昌勳)
186 최해복(崔海福)
187 이능우(李能雨)
188 이경환(李璟煥)
189 김문일(金汶日)
190 김문도(金文道)
191 이창희(李昌熙)
192 김일호(金日昊)
193 조수복(趙壽福)
194 이건수(李鍵守)
195 강덕한(姜德漢)
196 이상근(李相根)
197 김영욱(金榮昱)
198 이귀선(李貴善)
199 이말자(李末子)
200 박말자(朴末子)
201 김희자(金熙子)
202 이연옥(李連玉)
203 김필애(金必愛)
204 김경자(金京子)
205 김순련(金順連)
206 조말필(趙末必)
207 김선필(金善必)
208 윤금자(尹今子)
209 최명화(崔明花)
210 윤향숙(尹香淑)
211 김순옥(金順玉)
212 이칠순(李七順)
213 이상순(李相順)
214 최선자(崔仙子)
215 조복희(趙福姬)
216 이차줄(李且茁)
217 김형금(金亨錦)
218 김계숙(金桂淑)
219 김말순(金末順)
220 김정숙(金貞淑)
221 김문열(金文烈)
222 이명자(李明子)
223 김순례(金順禮)
224 조경년(趙慶年)
225 이복금(李福今)
226 홍성의(洪性儀

제3회 졸업생(1970)

남 51명, 여 56명, 계 107명



3회 전교생



3회 1반

227 김영택(金永澤)
228 김대호(金大虎)
229 조준태(趙俊太)
230 윤영칠(尹永七)
231 황정출(黃正出)
232 이창렬(李昌烈)
233 이상준(李相俊)
234 이한우(李漢雨)
235 이수우(李樹雨)
236 박용식(朴龍植)
237 장수대(張洙大)
238 차상렬(車相烈)
239 이상찬(李相贊)
240 최해복(崔海福)
241 박성근(朴成根)
242 이동욱(李東旭)
243 박만우(朴萬佑)
244 최근호(崔根昊)
245 박정국(朴正國)
246 박정도(朴正道)
247 이명우(李明雨)
248 이상철(李相哲)
249 이순우(李舜雨)
250 김만종(金萬鐘)
251 김양진(金良鎭)
252 김연태(金連泰)
253 고인배(高仁培)
254 김유태(金有泰)
255 이광렬(李光烈)
256 김일철(金一徹)
257 조경문(趙慶文)
258 오부환(吳富煥)
259 박윤석(朴潤錫)
260 이창홍(李昌洪)
261 이호우(李浩雨)
262 김영수(金永守)
263 윤병수(尹炳洙)
264 박갑조(朴甲祚)
265 오학윤(吳學允)
266 윤정태(尹正泰)
267 이진우(李鎭雨)
268 윤병환(尹炳煥)
269 장성권(張成權)
270 김종욱(金鍾旭)
271 김수환(金秀煥)
272 황부조(黃富祚)
273 임성호(任成昊)
274 황채현(黃埰玹)
275 김현택(金賢澤)
276 이상록(李相祿)
277 이길재(李吉宰)
278 석복남(石福南)
279 김옥이(金玉伊)
280 박순열(朴順烈)
281 우복선(禹福先)
282 박순옥(朴順玉)
283 장말례(張末禮)
284 박영숙(朴英淑)
285 박춘희(朴春喜)
286 김정숙(金貞淑)
287 황선자(黃先子)
288 최영옥(崔英玉)
289 김말선(金末先)
290 이정례(李貞禮)
291 김진남(金鎭南)
292 김말자(金末子)
293 이순자(李順子)
294 이마자(李麻子)
295 황춘옥(黃春玉)
296 이옥남(李玉南)
297 전숙자(全淑子)
298 박정애(朴貞愛)
299 지금순(池今順)
300 박영선(朴永善)
301 박정매(朴貞梅)
302 김수미(金殊美)
303 박희숙(朴熙淑)
304 이애선(李愛善)
305 김연옥(金連玉)
306 박인자(朴仁子)
307 박영화(朴永花)
308 이명옥(李明玉)
309 한애경(韓愛慶)
310 서영옥(徐永玉)
311 강경희(姜敬姬)
312 김근옥(金根玉)
313 박정영(朴貞英)
314 박정옥(朴貞玉)
315 정미자(鄭美子)
316 장영희(張英姬)
317 박연숙(朴連淑)
318 김경자(金慶子)
319 황복희(黃福姬)
320 이복덕(李福德)
321 김춘례(金春禮)
322 윤순임(尹順任)
323 오귀선(吳貴善)
324 이자희(李子姬)
325 이수옥(李樹玉)
326 박영희(朴英姬)
327 박영애(朴英愛)
328 최순열(崔順烈)
329 최수옥(崔修玉)
330 이은련(李銀蓮)
331 김현분(金鉉粉)
332 이진옥(李珍玉)
333 김애화(金娭花)

제4회 졸업생(1971)

남 44명, 여 47명, 계 91명



4회 전교생



4회 1반



4회 2반

334 이광우(李光雨)
335 이정우(李正雨)
336 이성태(李星泰)
337 이태수(李泰守)
338 임영구(任永求)
339 이연기(李連基)
340 김응일(金應日)
341 신진식(辛鎭植)
342 최광식(崔光植)
343 김동준(金東俊)
344 이상운(李相雲)
345 최춘근(崔春根)
346 김성태(金成泰)
347 이상조(李尙祚)
348 김태호(金泰浩)
349 김종열(金鍾烈)
350 김금태(金錦泰)
351 오정복(吳貞福)
352 이준구(李俊求)
353 이완석(李完錫)
354 장성환(張成煥)
355 박의철(朴義哲)
356 김덕조(金德祚)
357 조광래(趙光來)
358 김기환(金基煥)
359 김석하(金錫河)
360 박경도(朴敬道)
361 오학철(吳鶴哲)
362 박성표(朴盛杓)
363 최종림(崔鍾林)
364 이말철(李末哲)
365 박형오(朴瀅旿)
366 박수열(朴秀烈)
367 황광조(黃光祚)
368 김철구(金哲求)
369 이상규(李相奎)
370 오정윤(吳貞潤)
371 김득권(金得權)
372 이상율(李相律)
373 손영석(孫永碩)
374 황용배(黃龍培)
375 김광배(金光培)
376 이상조(李相祚)
377 김삭불(金朔佛)
378 이임숙(李任淑)
379 김옥희(金玉姬)
380 곽연순(郭連順)
381 김영화(金英花)
382 조선옥(趙仙玉)
383 서송화(徐松花)
384 최희자(崔姬子)
385 이경자(李敬子)
386 박정미(朴貞美)
387 김미화(金美花)
388 류귀남(柳貴南)
389 조복례(趙福禮)
390 최정분(崔貞粉)
391 이외자(李外子)
392 이선금(李先今)
393 이후금(李後今)
394 김영화(金泳和)
395 김애리(金愛利)
396 유명순(劉明順)
397 강양금(姜良金)
398 이광숙(李光淑)
399 윤막순(尹莫順)
400 박애자(朴愛子)
401 최순남(崔順南)
402 김두인(金斗仁)
403 김춘옥(金春玉)
404 허명숙(許明淑)
405 백춘희(白春姬)
406 황미옥(黃美玉)
407 윤선희(尹仙姬)
408 조경숙(趙慶淑)
409 김숙이(金淑伊)
410 박정숙(朴貞淑)
411 장선례(張先禮)
412 박삼필(朴三必)
413 김송화(金松花)
414 김귀순(金貴順)
415 박필숙(朴必淑)
416 김종분(金鍾粉)
417 조경희(趙慶姬)
418 이우순(李雨順)
419 김말련(金末連)
420 박인숙(朴仁淑)
421 박미희(朴美姬)
422 최순희(崔順姬)
423 조경자(趙慶子)
424 김춘옥(金春玉)

제5회 졸업생(1972)

남 52명, 여 51명, 계 103명



5회 전교생

425 서종수(徐鍾守)
426 박윤구(朴允求)
427 전만복(全萬福)
428 이상부(李相富)
429 전정도(全情道)
430 이상갑(李相甲)
431 김수배(金秀倍)
432 김종진(金宗鎭)
433 이달우(李達雨)
434 박성준(朴聖俊)
435 최해우(崔海佑)
436 박봉현(朴俸賢)
437 김광수(金光洙)
438 신정봉(辛正棒)
439 박희조(朴喜祚)
440 박성재(朴聖財)
441 이현수(李鉉守)
442 김일태(金壹泰)
443 박일권(朴一權)
444 이제근(李弟根)
445 홍영복(洪英福)
446 이상구(李相球)
447 이익우(李益雨)
448 박치훈(朴致勳)
449 조승래(趙勝來)
450 조상래(趙常來)
451 최상칠(崔相七)
452 김태균(金泰均)
453 김대용(金大用)
454 탁윤조(卓潤祚)
455 이상일(李相日)
456 오성환(吳星煥)
457 정해경(鄭海京)
458 조정현(曺貞鉉)
459 김구식(金球植)
460 김상섭(金相燮)
461 유종문(劉鍾汶)
462 조신래(趙信來)
463 조경래(趙敬來)
464 김경화(金敬和)
465 김광일(金光日)
466 김말진(金末鎭)
467 이광우(李光雨)
468 황호식(黃浩植)
469 김성식(金成植)
470 임성문(任成文)
471 장이득(張利得)
472 박수철(朴秀哲)

473 김경춘(金景春)
474 김성윤(金聲輪)
475 박의정(朴義政)
476 박준복(朴俊福)
477 이옥순(李玉順)
478 김송자(金松子)
479 박말순(朴末順)
480 김애남(金愛南)
481 박정례(朴貞禮)
482 김미전(金美田)
483 이양희(李良姬)
484 황양희(黃良姬)
485 김숙자(金淑子)
486 이인자(李仁子)
487 신성애(申聖愛)
488 김양애(金良愛)
489 김정옥(金貞玉)
490 박월금(朴月今)
491 김형연(金亨燕)
492 조정희(趙貞姬)
493 김창금(金昌今)
494 박필란(朴必蘭)
495 이영옥(李永玉)
496 이미향(李美香)
497 박해선(朴海先)
498 황옥희(黃玉姬)
499 김윤옥(金潤玉)
500 한미경(韓美鏡)
501 양연순(梁連順)
502 황복덕(黃福德)
503 윤선미(尹鮮美)
504 이경애(李京愛)
505 최명자(崔明子)
506 김말순(金末順)
507 김정미(金正美)
508 장경희(張庚姬)
509 오귀화(吳貴花)
510 박정미(朴貞美)
511 김경희(金景姬)
512 윤영선(尹永善)
513 박막례(朴莫禮)
514 이명희(李明姬)
515 이근선(李根善)
516 박만애(朴萬愛)
517 유귀숙(劉貴淑)
518 김철옥(金喆玉)
519 최길자(崔吉子)
520 김성회(金聲澮)
521 김미화(金美花)
522 최인숙(崔仁淑)
523 박복선(朴福善)
524 박금례(朴琴禮)
525 김정희(金正姬)
526 윤성자(尹星子)
527 김양숙(金良淑)

제6회 졸업생(1973)

남 64명, 여 55명, 계 119명



6회 전교생

528 이채룡(李彩龍)
529 이상훈(李相勳)
530 김금출(金今出)
531 천광수(川光守)
532 이덕우(李德雨)
533 이지우(李知雨)
534 최해송(崔海松)
535 이맹철(李孟哲)
536 장성실(張成實)
537 최재식(崔再植)
538 이재희(李宰熙)
539 김종태(金鍾太)
540 조경국(趙璥局)
541 이완수(李完守)
542 박석훈(朴碩勳)
543 지태운(池泰雲)
544 이재우(李在雨)
545 유용욱(劉鎔郁)
546 이연우(李淵雨)
547 박형록(朴瀅錄)
548 김무관(金武寬)
549 조경작(趙璥均)
550 윤병길(尹炳吉)
551 박환룡(朴煥龍)
552 김정대(金正大)
553 김정기(金貞基)
554 장만수(張萬守)
555 한윤갑(韓潤甲)
556 김영조(金榮祚)
557 차상문(車相文)
558 박시복(朴時福)
559 황정운(黃正雲)
560 윤성찬(尹成讚)
561 윤해익(尹海益)
562 이동훈(李東勳)
563 박근수(朴根守)
564 김태국(金泰局)
565 이진석(李振錫)
566 최병일(崔炳一)
567 이상규(李相奎)
568 이은우(李恩雨)
569 정주원(鄭柱元)
570 손창렬(孫昌烈)
571 윤승칠(尹承七)
572 황태준(黃泰俊)
573 김재원(金在源)
574 오광보(吳廣輔)
575 박중렬(朴重烈)

576 이상붕(李相朋)
577 박갑률(朴甲律)
578 장경환(張庚煥)
579 이장우(李璋雨)
580 이상도(李相道)
581 장성대(張成大)
582 최경림(崔慶林)
583 김종근(金鍾根)
584 이광석(李光錫)
585 박일룡(朴一龍)
586 김판종(金判鍾)
587 김맹수(金孟洙)
588 김주봉(金柱鳳)
589 박영경(朴英璟)
590 김정철(金正哲)
591 박한업(朴瀚業)
592 조순이(趙順伊)
593 최영순(崔映順)
594 박금옥(朴今玉)
595 김맹옥(金孟玉)
596 조정례(趙貞禮)
597 윤복순(尹福順)
598 허명옥(許明玉)
599 신정숙(辛貞淑)
600 이종순(李鍾順)
601 김순일(金順一)
602 최차화(崔次花)
603 이말숙(李末淑)
604 김향옥(金香玉)
605 고인숙(高仁淑)
606 김경자(金庚子)
607 이잠선(李潛先)
608 장영임(張榮任)
609 장덕선(張德善)
610 황금자(黃今子)
611 박용희(朴用熙)
612 김정숙(金正淑)
613 문성희(文聲姬)
614 김성남(金成男)
615 박귀화(朴貴花)
616 김경선(金敬善)
617 김말순(金末順)
618 이연옥(李連玉)
619 이선희(李善熙)
620 이춘미(李春美)
621 이명자(李明子)
622 손경자(孫景子)
623 이홍자(李洪子)
624 이문희(李文嬉)
625 오귀선(吳貴善)
626 김영례(金榮禮)
627 이미숙(李美淑)
628 이양희(李良姬)
629 조복자(趙福子)
630 박수득(朴守得)
631 김복희(金福姬)
632 최명자(崔明子)
633 최성례(崔成禮)
634 김종선(金鍾善)
635 김윤선(金潤先)
636 김말숙(金末淑)
637 김광렬(金光烈)
638 김영옥(金榮玉)
639 조미화(趙美花)
640 백연희(白連熙)
641 김종숙(金鍾淑)
642 김잠선(金潛善)
643 정경자(鄭慶子)
644 황정순(黃貞順)
645 김정숙(金貞淑)
646 조윤선(趙潤善)

제7회 졸업생(1974)

남 64명, 여 43명, 계 107명



7회 전교생



7회 1반



7회 2반

647 황원만(黃元晩)
648 허화열(許化烈)
649 문부암(文富巖)
650 조종태(趙鍾泰)
651 구자민(具滋珉)
652 황정덕(黃政德)
653 김성호(金成虎)
654 이지우(李芝雨)
655 류중수(柳重洙)
656 강종원(姜鍾元)
657 이상득(李相得)
658 허영선(許寧善)
659 김대석(金大石)
660 곽광조(郭光祚)
661 김성룡(金成龍)
662 김소룡(金少龍)
663 김광식(金光植)
664 이광호(李光浩)
665 장용권(張龍權)
666 이춘걸(李春杰)
667 이말우(李末雨)
668 정세연(鄭世然)
669 이재용(李在勇)
670 조흥래(趙興來)
671 이상준(李相俊)
672 박상엽(朴相葉)
673 이온우(李溫雨)
674 김경우(金敬?)
675 김경복(金景福)
676 조홍래(趙弘來)
677 황장조(黃章祚)
678 김광석(金光錫)
679 김기태(金基泰)
680 윤원주(尹元柱)
681 양갑용(梁甲容)
682 이태현(李泰鉉)
683 김용국(金龍國)
684 김철호(金哲浩)
685 탁덕조(卓德祚)
686 이성우(李星雨)
687 박범수(朴範秀)
688 박봉욱(朴俸旭)
689 김용억(金龍億)
690 탁기준(卓基準)
691 김희태(金熙泰)
692 조정태(趙貞泰)
693 조윤태(趙允泰)
694 김근수(金根洙)
695 송봉호(宋俸浩)
696 박인범(朴寅範)
697 이근우(李根雨)
698 김문섭(金文燮)
699 이건일(李鍵一)
700 강창구(姜昌求)
701 최용식(崔用植)
702 임성인(任成仁)
703 이청걸(李淸杰)
704 김광준(金光俊)
705 황태진(黃太鎭)
706 김정복(金正福)
707 윤병기(尹炳起)
708 박의환(朴義煥)
709 김진수(金珍洙)
710 한성덕(韓成德)
711 김영자(金英子)
712 김경임(金敬任)
713 정경화(鄭京華)
714 이정선(李貞善)
715 서금옥(徐今玉)
716 김성미(金成美)
717 탁춘옥(卓春玉)
718 김은숙(金恩淑)
719 강재춘(姜在春)
720 박연희(朴妍熙)
721 강춘자(姜春子)
722 이미숙(李美淑)
723 박경옥(朴京玉)
724 박애금(朴愛今)
725 이덕영(李德迎)
726 이미영(李美英)
727 김미숙(金美淑)
728 박미숙(朴美淑)
729 최준심(崔俊心)
730 윤경자(尹敬子)
731 김선희(金善喜)
732 김덕선(金德先)
733 오애순(吳愛順)
734 이옥희(李玉喜)
735 김정남(金貞南)
736 김길자(金吉子)
737 서미옥(徐美玉)
738 김정희(金正姬)
739 유혜경(劉惠京)
740 서미자(徐美子)
741 이말선(李末善)
742 이복희(李福姬)
743 이상옥(李相玉)
744 최현자(崔賢子)
745 박해숙(朴海淑)
746 이춘희(李春姬)
747 황양화(黃良和)
748 박정희(朴貞姬)
749 이영림(李瑛琳)
750 박금미(朴琴美)
751 박선미(朴仙美)
752 박미숙(朴美淑)
753 조정미(趙貞美)

제8회 졸업생(1975)

남 58명, 여 45명, 계 103명



8회 전교생



8회 1반



8회 2반

754 손영구(孫永九)
755 이민우(李敏雨)
756 이상국(李相國)
757 이상훈(李相勳)
758 정관호(鄭寬鎬)
759 조연덕(趙淵德)
760 이상인(李相仁)
761 김상덕(金相德)
762 박신복(朴信福)
763 권영기(權寧基)
764 고형근(高亨根)
765 이상순(李相淳)
766 김관식(金寬植)
767 최해윤(崔海允)
768 김명록(金明祿)
769 박성복(朴聖福)
770 홍설만(洪卨萬)
771 조현엽(趙顯曄)
772 박일광(朴一光)
773 이인우(李寅雨)
774 김재규(金載圭)
775 김진곤(金振坤)
776 이진희(李震熙)
777 박형보(朴瀅保)
778 박은남(朴銀男)
779 박진수(朴鎭洙)
780 이명국(李明局)
781 박윤곤(朴允坤)
782 김명식(金明植)
783 이광웅(李光雄)
784 문상철(文相哲)
785 황정득(黃正得)
786 장만복(張萬福)
787 조원일(趙元一)
788 윤정칠(尹正七)
789 윤해상(尹海尙)
790 서찬수(徐燦洙)
791 이윤철(李潤哲)
792 이상은(李相殷)
793 김행조(金行造)
794 남형우(南亨祐)
795 임근수(林根守)
796 신정관(辛正觀)
797 김노상(金魯尙)
798 박정일(朴正一)
799 유종을(劉鍾乙)
800 김법수(金法洙)
801 최해만(崔海晩)
802 조종현(曺鍾鉉)
803 박명득(朴命得)
804 황광식(黃光植)
805 이안윤(李岸尹)
806 이상은(李尙殷)
807 이상일(李相一)
808 김정삼(金正三)
809 김영실(金永實)
810 차용환(車龍煥)
811 조효제(趙孝濟)
812 김영화(金永花)
813 최미옥(崔美玉)
814 안용애(安勇愛)
815 구정은(具靜殷)
816 김종향(金鍾香)
817 김미성(金美成)
818 유옥희(劉玉姬)
819 오경순(吳慶順)
820 이근희(李根姬)
821 김정미(金貞美)
822 김정숙(金貞淑)
823 이미희(李美熙)
824 박정림(朴靜林)
825 오향희(吳香姬)
826 김홍자(金紅子)
827 조숙자(趙淑子)
828 황정화(黃貞花)
829 김애경(金愛境)
830 최영자(崔英子)
831 박광련(朴光連)
832 윤덕하(尹德夏)
833 정경숙(鄭京淑)
834 박미정(朴美貞)
835 김금옥(金錦玉)
836 이상화(李相花)
837 김유정(金有貞)
838 김소옥(金小玉)
839 황말복(黃末福)
840 김필련(金弼連)
841 김석자(金石子)
842 신은희(申銀姬)
843 이영희(李英姬)
844 윤해경(尹海京)
845 김순화(金順花)
846 조경선(趙慶善)
847 이경애(李慶愛)
848 안경선(安慶善)
849 김미희(金美嬉)
850 김용옥(金容玉)
851 이혜영(李惠英)
852 김명숙(金明淑)
853 강경숙(姜璟淑)
854 김미자(金美子)
855 반명숙(潘明淑)
856 안해경(安海景)

제9회 졸업생(1976)

남 69명, 여 46명, 계 115명



9회 전교생



9회 1반



9회 2반

857 조성태(趙成泰)
858 최경근(崔景根)
859 김지철(金智哲)
860 황봉렬(黃奉烈)
861 이길우(李吉雨)
862 박성철(朴聖哲)
863 박수영(朴琇永)
864 신재응(辛在應)
865 강동한(姜東漢)
866 박부홍(朴富洪)
867 김익수(金翼洙)
868 이우일(李雨一)
869 최병헌(崔丙憲)
870 이완국(李完國)
871 이상웅(李相雄)
872 조현철(趙顯喆)
873 박수철(朴洙喆)
874 정헌태(鄭憲泰)
875 박윤호(朴允浩)
876 윤 준(尹 準)
877 박경태(朴慶泰)
878 정광섭(鄭光燮)
879 이동우(李東雨)
880 이채호(李埰浩)
881 김수용(金洙龍)
882 한차갑(韓次甲)
883 김정일(金貞壹)
884 장영환(張英煥)
885 이인재(李仁載)
886 정인호(鄭仁鎬)
887 김석호(金錫鎬)
888 윤병욱(尹炳旭)
889 이상창(李相彰)
890 김철이(金哲伊)
891 박일선(朴一先)
892 김철관(金哲寬)
893 오 현(吳 鉉)
894 이현자(李賢子)
895 박정숙(朴正淑)
896 이옥자(李玉子)
897 김기선(金琦先)
898 이상숙(李尙淑)
899 배문정(裵文靜)
900 이옥희(李玉姬)
901 박미희(朴美姬)
902 황정희(黃貞姬)
903 김금렬(金今烈)
904 최영희(崔英姬)
905 이윤금(李允今)
906 최혜숙(崔惠淑)
907 김미화(金美和)
908 김순란(金順蘭)
909 김막선(金莫善)
910 김말필(金末必)
911 이명희(李明姬)
912 박향숙(朴香淑)
913 박소임(朴昭任)
914 황경순(黃敬順)
915 장말필(張末必)
916 김맹식(金孟植)
917 윤병학(尹炳學)
918 김외생(金外生)
919 김종수(金鍾洙)
920 김상철(金相哲)
921 김계성(金桂星)
922 이상헌(李相憲)
923 배상희(裵相熙)
924 김상조(金相祚)
925 우일수(禹一壽)
926 장영철(張永哲)
927 이성범(李性範)
928 박지현(朴芝賢)
929 윤은주(尹銀柱)
930 김증팔(金增八)
931 박수명(朴秀明)
932 김정화(金正華)
933 김문수(金文守)
934 최해종(崔海宗)
935 김말태(金末泰)
936 김경수(金景壽)
937 이상일(李相逸)
938 윤정일(尹正一)
939 최해정(崔海亭)
940 이상도(李相道)
941 이용우(李龍雨)
942 박형훈(朴瀅勛)
943 박종우(朴鍾佑)
944 조종래(趙鍾來)
945 김순철(金洵哲)
946 김상은(金相殷)
947 김영호(金榮好)
948 박송순(朴松順)
949 김선금(金善今)
950 이현순(李賢淳)
951 이옥경(李玉慶)
952 김영이(金英伊)
953 윤미화(尹美花)
954 김혜란(金惠欄)
955 박정애(朴貞愛)
956 김정숙(金貞淑)
957 김영미(金英美)
958 김말숙(金末淑)
959 김미자(金美子)
960 조경남(趙慶南)
961 김미순(金美順)
962 김미영(金美英)
963 김미숙(金美淑)
964 정정란(鄭貞蘭)
965 박향선(朴香善)
966 윤득경(尹得慶)
967 황필안(黃必安)
968 이미례(李美禮)
969 손경옥(孫景玉)
970 최군자(崔君子)
971 박설련(朴雪蓮)

제10회 졸업생(1977)

남 44명, 여 58명, 계 102명



10회 전교생

972	신현일(申鉉一)	984	박광수(朴光秀)	996	최미희(崔美姬)	1,008	박막숙(朴莫淑)
973	허광렬(許光烈)	985	홍성민(洪性敏)	997	임순출(林順出)	1,009	김미영(金美英)
974	김영두(金永斗)	986	조경준(趙慶俊)	998	박순옥(朴順玉)	1,010	윤순남(尹順南)
975	김영조(金永祚)	987	이상일(李相一)	999	이연희(李連熙)	1,011	김영미(金英美)
976	조경욱(趙慶郁)	988	정차연(鄭次然)	1,000	김복녀(金福女)	1,012	이경숙(李敬淑)
977	김광종(金光鍾)	989	조성래(趙聖來)	1,001	이선희(李善熙)	1,013	이옥화(李玉花)
978	이상길(李相吉)	990	이민우(李民雨)	1,002	김외금(金外今)	1,014	황양화(黃良花)
979	박성숙(朴聲淑)	991	김주식(金柱植)	1,003	정금순(鄭錦順)	1,015	황순득(黃順得)
980	고동완(高東完)	992	도기태(都基泰)	1,004	박수영(朴穗英)	1,016	류옥남(柳玉南)
981	오덕환(吳德煥)	993	최광복(崔光福)	1,005	이호금(李好今)	1,017	김현숙(金賢淑)
982	김영호(金英浩)	994	박홍가(朴弘珂)	1,006	이정숙(李貞淑)	1,018	김명선(金明善)
983	이상륜(李相侖)	995	조미자(趙美子)	1,007	박 향(朴 香)	1,019	김영숙(金永淑)

1,020 김경련(金敬連)
1,021 박미경(朴美景)
1,022 김희숙(金姬淑)
1,023 김정옥(金正玉)
1,024 김선희(金仙姬)
1,025 천맹수(千盟洙)
1,026 김막철(金莫鐵)
1,027 한수석(韓洙碩)
1,028 이상완(李相完)
1,029 김태수(金太洙)
1,030 최정익(崔正翼)
1,031 허필욱(許弼郁)
1,032 이채원(李棌元)
1,033 김노식(金魯植)
1,034 구자홍(具滋弘)
1,035 김황영(金黃泳)
1,036 조종식(趙鍾植)
1,037 박일승(朴一承)
1,038 오수천(吳壽千)
1,039 김영춘(金永春)
1,040 박진용(朴鎭龍)
1,041 이재형(李在炯)
1,042 이건봉(李鍵奉)
1,043 장대권(張大權)
1,044 김광환(金光煥)
1,045 이용민(李鎔民)
1,046 반희숙(潘姬淑)
1,047 유미숙(兪美淑)
1,048 조말례(趙末禮)
1,049 황영애(黃永愛)
1,050 황정애(黃貞愛)
1,051 이명희(李明熙)
1,052 이지현(李智昡)
1,053 유옥봉(劉玉峰)
1,054 박지영(朴智榮)
1,055 김막숙(金莫淑)
1,056 전경자(全京子)
1,057 김용필(金容弼)
1,058 이윤경(李允京)
1,059 박선순(朴先順)
1,060 김순자(金順子)
1,061 지명순(池明順)
1,062 이홍애(李洪愛)
1,063 김윤금(金潤今)
1,064 김갑숙(金甲淑)
1,065 이미숙(李美淑)
1,066 이상란(李相蘭)
1,067 장연화(張連花)
1,068 조 희(趙 嬉)
1,069 조정식(趙貞植)
1,070 김연희(金連姬)
1,071 조선자(趙善子)
1,072 김부권(金富權)
1,073 정외순(鄭外順)

제11회 졸업생(1978)

남 50명, 여 66명, 계 116명



11회 전교생

1,074 김정진(金正鎭)
1,075 조용래(趙龍來)
1,076 박희복(朴喜福)
1,077 오세익(吳世益)
1,078 김동렬(金東烈)
1,079 이봉걸(李鳳杰)
1,080 김맹호(金孟昊)
1,081 반원근(潘元根)
1,082 김흥만(金興萬)
1,083 양천용(梁天容)
1,084 이장우(李璋雨)
1,085 박세규(朴世圭)
1,086 장인호(張仁浩)
1,087 장정일(張丁日)
1,088 고동석(高東錫)
1,089 임성혁(任成赫)
1,090 이대형(李大炯)
1,091 박재우(朴宰佑)
1,092 손창근(孫昌根)
1,093 강영규(姜永奎)
1,094 이상민(李相珉)
1,095 허홍렬(許洪烈)
1,096 장영출(張永出)
1,097 김문종(金文終)
1,098 고형순(高亨順)
1,099 김화선(金花仙)
1,100 박미숙(朴美淑)
1,101 이영이(李暎伊)
1,102 정연화(鄭蓮花)
1,103 박희숙(朴熙淑)
1,104 김양미(金良美)
1,105 최순출(崔順出)
1,106 박정순(朴貞順)
1,107 김필렴(金弼廉)
1,108 강부춘(姜富春)
1,109 황영선(黃瑛鮮)
1,110 최금렬(崔琴烈)
1,111 안경미(安慶美)
1,112 황차복(黃且福)
1,113 박복동(朴福東)
1,114 권인자(權仁子)
1,115 정헌미(鄭憲美)
1,116 김미옥(金美玉)
1,117 이화자(李和子)
1,118 조미자(趙美子)
1,119 조연옥(趙連玉)
1,120 홍미경(洪美慶)
1,121 김계봉(金桂奉)

1,122 김경중(金慶中)
1,123 추상수(秋相守)
1,124 박미애(朴美愛)
1,125 박영미(朴靈美)
1,126 김순화(金順和)
1,127 김현숙(金玄淑)
1,128 김순옥(金順玉)
1,129 정용선(鄭容先)
1,130 박원섭(朴遠燮)
1,131 김수근(金秀根)
1,132 최영식(崔永植)
1,133 조연태(趙連泰)
1,134 이정걸(李正杰)
1,135 김정용(金正用)
1,136 김추봉(金秋鳳)
1,137 김철웅(金哲雄)
1,138 김태형(金泰亨)
1,139 윤진혁(尹振赫)
1,140 차효환(車孝煥)
1,141 반선근(潘先根)
1,142 이환우(李芄雨)
1,143 김대업(金大業)
1,144 한상갑(韓相甲)
1,145 송명호(宋命鎬)
1,146 김대종(金大鍾)
1,147 김대한(金大韓)
1,148 황선일(黃善一)
1,149 박인오(朴仁五)
1,150 박한주(朴瀚柱)
1,151 이종철(李鍾鐵)
1,152 조양제(趙陽濟)
1,153 신진수(辛鎭守)
1,154 김정환(金正煥)
1,155 최우칠(崔宇七)
1,156 이선이(李善伊)
1,157 김신숙(金信淑)
1,158 황장미(黃薔薇)
1,159 차숙희(車淑姬)
1,160 최윤희(崔允姬)
1,161 서순련(徐順連)
1,162 김정례(金廷禮)
1,163 이경아(李敬娥)
1,164 황복득(黃福得)
1,165 김숙경(金淑京)
1,166 윤미자(尹美子)
1,167 김창순(金昌順)
1,168 이상선(李相善)
1,169 신은희(申恩姬)
1,170 이은주(李恩周)
1,171 김정숙(金貞淑)
1,172 윤선례(尹仙禮)
1,173 황정옥(黃貞玉)
1,174 박미숙(朴美淑)
1,175 김명자(金明子)
1,176 박향선(朴香善)
1,177 김은숙(金銀淑)
1,178 박은경(朴銀京)
1,179 이춘희(李春姬)
1,180 강희자(姜喜子)
1,181 김규인(金奎仁)
1,182 신향숙(辛香淑)
1,183 김구학(金九學)
1,184 임완수(林完洙)
1,185 이상순(李相順)
1,186 안정주(安貞珠)
1,187 이춘희(李春姬)
1,188 이경옥(李景玉)
1,189 박숙이(朴淑伊)

제12회 졸업생(1979)

남 58명, 여 60명, 계 118명



12회 전교생



12회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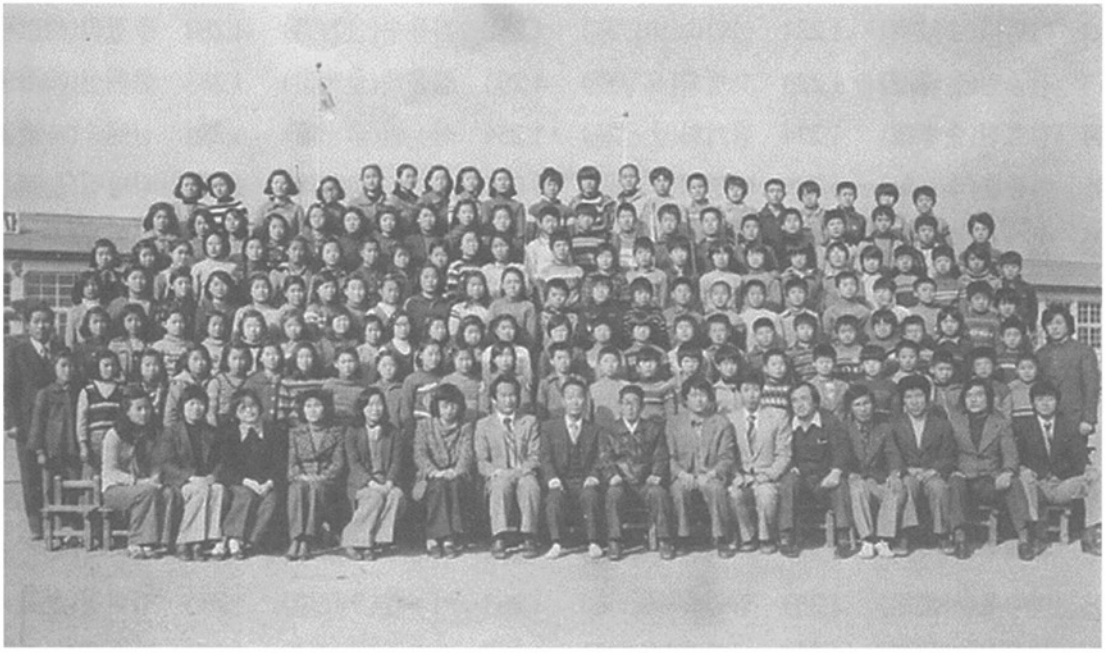


12회 2반

1,190 김권우(金權雨)
1,191 정명진(丁明鎭)
1,192 이현태(李鉉泰)
1,193 김종원(金鍾源)
1,194 김효진(金孝鎭)
1,195 이동훈(李東勳)
1,196 이상윤(李相潤)
1,197 신현수(申鉉洙)
1,198 박종일(朴鍾一)
1,199 박병천(朴炳天)
1,200 권명기(權明基)
1,201 추정민(秋政旻)
1,202 유대혁(劉大赫)
1,203 박종욱(朴鍾旭)
1,204 이상철(李相哲)
1,205 김영철(金永哲)
1,206 김성현(金成鉉)
1,207 최동희(崔東熙)
1,208 김태희(金泰希)
1,209 정재욱(鄭宰旭)
1,210 박진술(朴珍術)
1,211 이충우(李忠雨)
1,212 박일관(朴一官)
1,213 노몽균(盧夢均)
1,214 이재동(李載東)
1,215 장태석(張泰錫)
1,216 봉남수(奉南水)
1,217 장성익(張成翼)
1,218 김도련(金道連)
1,219 원종국(元鍾國)
1,220 김난아(김난아)
1,221 최막희(崔莫姬)
1,222 신인숙(申仁淑)
1,223 고형희(高亨熙)
1,224 김기화(金己花)
1,225 이경희(李慶姬)
1,226 홍은희(洪恩姬)
1,227 김연희(金連姬)
1,228 한선미(韓善美)
1,229 조경희(趙慶姬)
1,230 이미영(李美英)
1,231 양경애(梁敬愛)
1,232 이경미(李敬美)
1,233 임인숙(林仁淑)
1,234 이영희(李榮姬)
1,235 이미정(李美貞)
1,236 김정하(金貞河)
1,237 김혜정(金惠貞)
1,238 최영실(崔英悉)
1,239 황은영(黃恩永)
1,240 장숙희(張淑姬)
1,241 김길자(金吉子)
1,242 박소영(朴昭映)
1,243 김현주(金賢珠)
1,244 김선화(金善花)
1,245 이호심(李好心)
1,246 윤미련(尹美蓮)
1,247 전은경(全檼景)
1,248 장일란(張一蘭)
1,249 김귀안(金貴安)
1,250 최종문(崔鍾文)
1,251 박창식(朴昌植)
1,252 김용수(金容秀)
1,253 김응태(金應泰)
1,254 신 권(辛 權)
1,255 김기수(金起洙)
1,256 최해열(崔海列)
1,257 허운욱(許雲旭)
1,258 윤 희(尹 熙)
1,259 김상국(金相國)
1,260 유현수(劉鉉洙)
1,261 지명하(池明夏)
1,262 이경수(李京守)
1,263 이상환(李相煥)
1,264 오도현(吳道鉉)
1,265 김명수(金明洙)
1,266 김왕근(金王根)
1,267 조갑래(趙甲來)
1,268 김귀종(金貴鍾)
1,269 이상철(李相哲)
1,270 박일권(朴一權)
1,271 김병훈(金柄勳)
1,272 박맹조(朴孟祚)
1,273 이용식(李龍植)
1,274 장길문(張吉文)
1,275 장성출(張成出)
1,276 김태석(金泰石)
1,277 이범태(李範泰)
1,278 배은경(裵銀景)
1,279 이의숙(李義淑)
1,280 김정희(金貞喜)
1,281 조미라(趙美羅)
1,282 추경리(秋京利)
1,283 한해선(韓海善)
1,284 신애숙(辛愛淑)
1,285 김명심(金明心)
1,286 이미경(李美敬)
1,287 김광화(金光化)
1,288 최귀출(崔貴出)
1,289 양옥례(梁玉禮)
1,290 서은옥(徐銀玉)
1,291 박복희(朴福姬)
1,292 정금숙(鄭琴淑)
1,293 김미영(金美英)
1,294 박송애(朴松愛)
1,295 이윤옥(李允玉)
1,296 이상애(李相愛)
1,297 손경미(孫景美)
1,298 김옥경(金玉璟)
1,299 이수경(李隨敬)
1,300 박혜숙(朴惠淑)
1,301 김정화(金貞花)
1,302 황광자(黃光子)
1,303 김영화(金榮花)
1,304 김해숙(金海淑)
1,305 김정임(金貞任)
1,306 이석숙(李石淑)
1,307 정유희(鄭有姬)
1,308 이명순(李明淳)

제13회 졸업생(1980)

남 71명, 여 67명, 계 138명



13회 전교생



13회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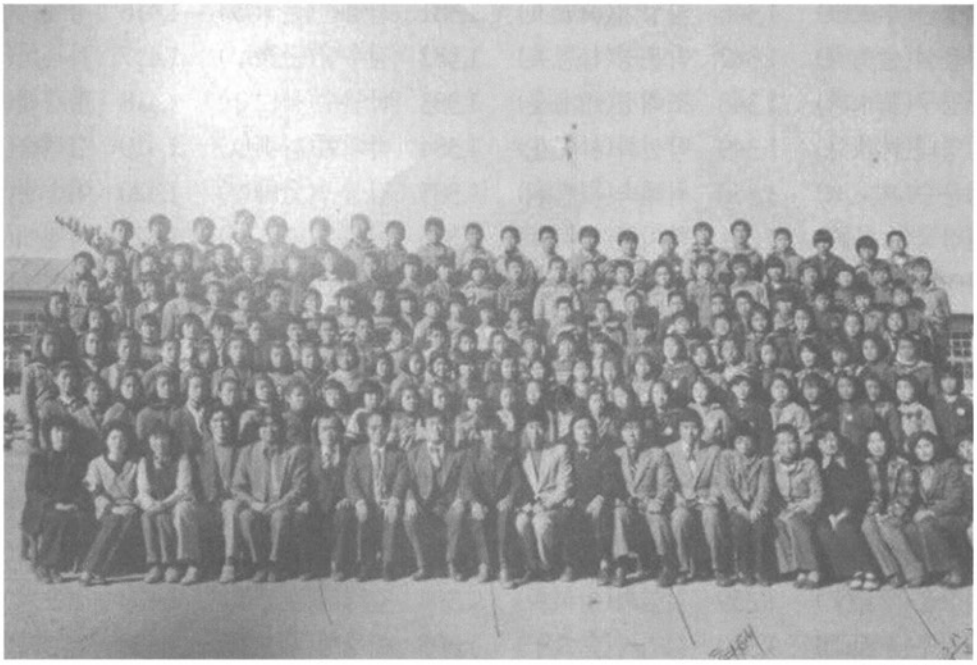


13회 2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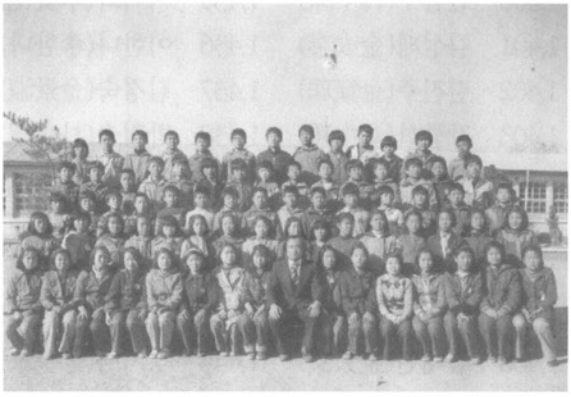
1,309 김종호(金鍾鎬)
1,310 홍성덕(洪性德)
1,311 이성근(李成根)
1,312 김용석(金勇奭)
1,313 황영구(黃永求)
1,314 임영태(林映兌)
1,315 임문수(林文洙)
1,316 김장국(金長國)
1,317 장영태(張榮泰)
1,318 김영운(金永雲)
1,319 박후동(朴後潼)
1,320 안수근(安秀根)
1,321 이상헌(李相憲)
1,322 노상철(盧相喆)
1,323 김정하(金楨河)
1,324 이상문(李相文)
1,325 이지우(李至雨)
1,326 허필우(許弼優)
1,327 김덕수(金德秀)
1,328 지태우(池泰雨)
1,329 김영대(金榮大)
1,330 이해진(李海榛)
1,331 차성환(車聲煥)
1,332 이영우(李榮優)
1,333 이성걸(李成杰)
1,334 황성룡(黃成龍)
1,335 윤장혁(尹章赫)
1,336 김태수(金泰洙)
1,337 김경식(金京植)
1,338 박덕수(朴德秀)
1,339 최남식(崔南植)
1,340 이애순(李愛順)
1,341 장연실(張連實)
1,342 강향춘(姜香春)
1,343 박덕숙(朴德淑)
1,344 변윤희(邊潤姬)
1,345 황양미(黃良美)
1,346 황성미(黃成美)
1,347 박은영(朴恩英)
1,348 조해경(趙海慶)
1,349 박선화(朴先花)
1,350 최혜숙(崔惠淑)
1,351 박미현(朴美賢)
1,352 이경숙(李敬淑)
1,353 김소라(金邵羅)
1,354 한귀숙(韓貴淑)
1,355 박미향(朴美香)
1,356 송명분(宋命芬)
1,357 김수자(金守子)
1,358 구명희(具明姬)
1,359 김영희(金英姬)
1,360 김귀자(金貴子)
1,361 이은희(李恩姬)
1,362 윤 경(尹 景)
1,363 이해숙(李海淑)
1,364 이선미(李善美)
1,365 박미애(朴美愛)
1,366 김화야(金花也)
1,367 안선영(安宣映)
1,368 김동란(金東蘭)
1,369 조영미(曺榮美)
1,370 김춘기(金春起)
1,371 이미애(李美愛)
1,372 황명화(黃明花)
1,373 이은숙(李銀淑)
1,374 고봉균(高鳳均)
1,375 황용식(黃鎔植)
1,376 조경우(趙庚雨)
1,377 이성진(李聖鎭)
1,378 심기동(沈起東)
1,379 조영태(趙英泰)
1,380 김우식(金雨植)
1,381 김영진(金永鎭)
1,382 김후탁(金後卓)
1,383 박인수(朴仁守)
1,384 박태현(朴泰炫)
1,385 김상규(金祥奎)
1,386 이용우(李容雨)
1,387 박종민(朴鍾旻)
1,388 김형철(金亨哲)
1,389 김규대(金圭大)
1,390 서운교(徐云敎)
1,391 홍봉식(洪峰植)
1,392 박선동(朴先潼)
1,393 박도홍(朴到泓)
1,394 김경진(金京眞)
1,395 이광형(李光炯)
1,396 이창식(李昌植)
1,397 정신조(鄭新朝)
1,398 황상렬(黃詳烈)
1,399 박은천(朴銀天)
1,400 한갑수(韓甲洙)
1,401 김성태(金成泰)
1,402 김진주(金鎭珠)
1,403 강중한(姜中漢)
1,404 황경식(黃敬植)
1,405 김환국(金奐局)
1,406 최두영(崔斗榮)
1,407 이영길(李英吉)
1,408 김대현(金大玄)
1,409 조학래(趙學來)
1,410 장영식(張永植)
1,411 권영숙(權寧淑)
1,412 최준옥(崔俊玉)
1,413 김향애(金香愛)
1,414 김미례(金美禮)
1,415 김정숙(金貞淑)
1,416 정애숙(鄭愛淑)
1,417 차복희(車福姬)
1,418 정경례(鄭敬禮)
1,419 김해숙(金海淑)
1,420 이순영(李順英)
1,421 박정애(朴貞愛)
1,422 권인주(權仁珠)
1,423 문정아(文貞兒)
1,424 유수양(劉守養)
1,425 강복자(康福子)
1,426 이미향(李美香)
1,427 이미자(李美子)
1,428 전영희(全英姬)
1,429 김은실(金銀實)
1,430 김영아(金英娥)
1,431 이수림(李季琳)
1,432 류수선(柳水仙)
1,433 박정희(朴貞姬)
1,434 김현숙(金賢淑)
1,435 이미화(李美化)
1,436 이한나(李한나)
1,437 김경숙(金景淑)
1,438 박정숙(朴貞淑)
1,439 김양숙(金良淑)
1,440 이윤희(李允姬)
1,441 전미경(全美景)
1,442 안현미(安賢美)
1,443 정기영(鄭基永)
1,444 설동훈(薛東薰)
1,445 최흥식(崔興植)
1,446 강희경(姜熙慶)

제14회 졸업생(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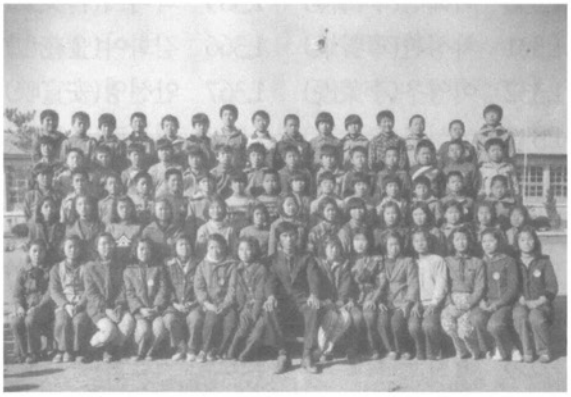
남 88명, 여 59명, 계 147명



14회 전교생



14회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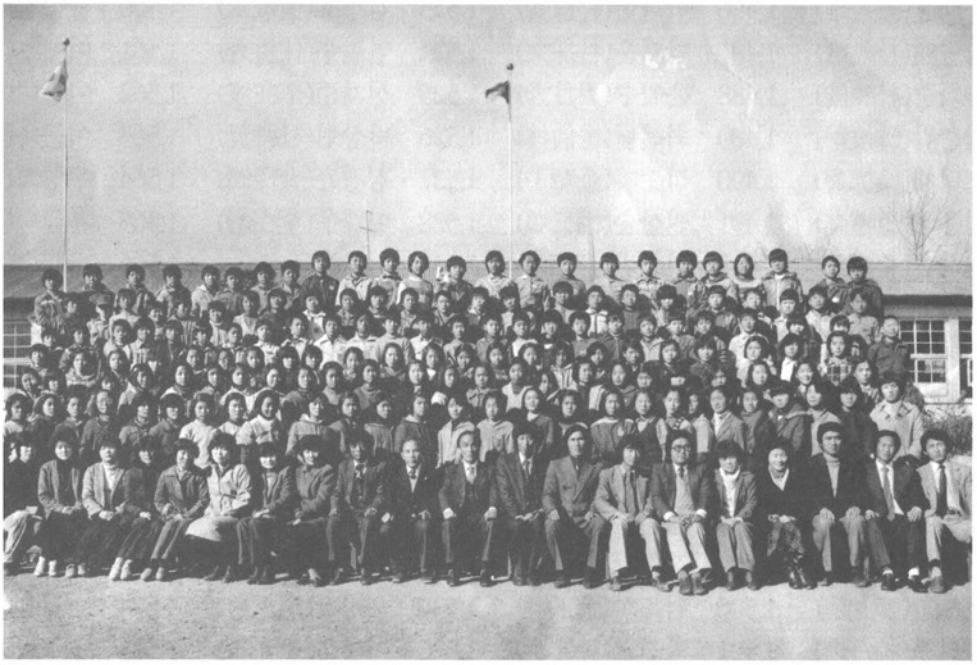


14회 2반

1,447 김상환(金相煥)
1,448 최 철(崔 哲)
1,449 유태웅(兪太雄)
1,450 박구배(朴九培)
1,451 박희준(朴熙俊)
1,452 한준갑(韓俊甲)
1,453 오덕제(吳德濟)
1,454 김응남(金應南)
1,455 전수만(全樹萬)
1,456 이창욱(李昌煜)
1,457 윤동수(尹東洙)
1,458 이용성(李容誠)
1,459 추삼수(秋三守)
1,460 이근열(李根熱)
1,461 이경포(李境圃)
1,462 김찬경(金燦敬)
1,463 이 훈(李 勳)
1,464 박일환(朴一煥)
1,465 김영훈(金永勳)
1,466 신 민(辛 珉)
1,467 이승언(李承彦)
1,468 조현광(趙顯光)
1,469 김준환(金俊煥)
1,470 김용주(金容住)
1,471 김필동(金必東)
1,472 김태열(金泰悅)
1,473 조봉래(趙鳳來)
1,474 김태형(金泰亨)
1,475 임태우(林泰佑)
1,476 김보헌(金寶憲)
1,477 이종문(李鍾文)
1,478 최해만(崔海滿)
1,479 박규선(朴奎善)
1,480 박희선(朴喜仙)
1,481 김정훈(金正勳)
1,482 최윤준(崔允準)
1,483 이동철(李東哲)
1,484 윤재현(尹載現)
1,485 박재성(朴宰成)
1,486 박철현(朴哲賢)
1,487 박채문(朴採文)
1,488 윤월수(尹月秀)
1,489 최선림(崔仙林)
1,490 김순자(金順子)
1,491 권삼순(權三順)
1,492 권상련(權相蓮)
1,493 장영란(張英蘭)
1,494 김점숙(金點淑)
1,495 주현희(朱玄姬)
1,496 최순희(崔順姬)
1,497 이인옥(李仁玉)
1,498 김현실(金賢實)
1,499 신순남(辛順南)
1,500 김옥희(金玉姬)
1,501 박진희(朴眞姬)
1,502 이근자(李根子)
1,503 손경실(孫景實)
1,504 오현미(吳鉉美)
1,505 박미영(朴美英)
1,506 류금남(柳錦南)
1,507 김현정(金賢貞)
1,508 박영숙(朴榮淑)
1,509 박현숙(朴賢淑)
1,510 이상란(李相蘭)
1,511 신은심(辛恩心)
1,512 박근희(朴根姬)
1,513 박향미(朴香美)
1,514 김순하(金順河)
1,515 김혜경(金惠慶)
1,516 윤성옥(尹聖玉)
1,517 성외숙(成外淑)
1,518 한인습(韓仁習)
1,519 류주은(柳周恩)
1,520 김미라(金美羅)
1,521 신광식(辛光植)
1,522 김이철(金二澈)
1,523 김경호(金敬호)
1,524 임철수(任哲秀)
1,525 신재준(辛在俊)
1,526 박상현(朴祥賢)
1,527 김경윤(金璟潤)
1,528 이재우(李在雨)
1,529 김진산(金鎭山)
1,530 이진철(李鎭哲)
1,531 고용진(高龍震)
1,532 이동기(李東琪)
1,533 임성운(林成芸)
1,534 이성형(李星炯)
1,535 이주철(李周哲)
1,536 임명준(林明俊)
1,537 우정관(禹正官)
1,538 이광석(李光石)
1,539 허동욱(許東旭)
1,540 최해국(崔海國)
1,541 신진석(辛鎭錫)
1,542 이재걸(李在杰)
1,543 정헌국(鄭憲國)
1,544 최광익(崔光翼)
1,545 이중우(李重雨)
1,546 유대근(劉大根)
1,547 이채관(李彩寬)
1,548 최용환(崔溶煥)
1,549 백용학(白龍學)
1,550 박영준(朴濬俊)
1,551 김영환(金榮煥)
1,552 조훈오(趙訓五)
1,553 김우열(金禹烈)
1,554 최동수(崔東受)
1,555 도기원(都基源)
1,556 김용철(金容哲)
1,557 이상범(李相範)
1,558 이상찬(李相贊)
1,559 박인로(朴仁魯)
1,560 황종진(黃鍾鎭)
1,561 이제호(李濟鎬)
1,562 이상대(李相大)
1,563 이근욱(李根旭)
1,564 우영희(禹英姬)
1,565 윤금숙(尹金淑)
1,566 박해숙(朴海淑)
1,567 정용말(鄭容末)
1,568 박미란(朴美蘭)
1,569 권경숙(權慶淑)
1,570 장미자(張美子)
1,571 한해화(韓海花)
1,572 조순희(趙順熙)
1,573 김흥미(金興美)
1,574 김정은(金正恩)
1,575 조경란(趙慶蘭)
1,576 김정숙(金貞淑)
1,577 강상진(姜相眞)
1,578 서순옥(徐順玉)
1,579 박복의(朴福義)
1,580 김은영(金銀英)
1,581 유수증(劉壽增)
1,582 박영옥(朴英玉)
1,583 김명숙(金明淑)
1,584 이두선(李斗善)
1,585 조난영(趙難英)
1,586 김영희(金英姬)
1,587 박소희(朴昭姬)
1,588 김은화(金銀花)
1,589 김영미(金英美)
1,590 김윤경(金允敬)
1,591 이미량(李美良)
1,592 김덕영(金德榮)
1,593 양용준(梁容準)

제15회 졸업생(1982)

남 76명, 여 76명, 계 152명



15회 전교생



15회 1반



15회 2반



15회 3반

제15회 졸업생(1982)

1,594 전현재(全鉉宰)
1,595 김양규(金陽奎)
1,596 박성문(朴聖文)
1,597 김영복(金榮福)
1,598 김대환(金大煥)
1,599 최동운(崔東雲)
1,600 이일우(李一雨)
1,601 권두기(權斗基)
1,602 이상훈(李相勳)
1,603 김영진(金永振)
1,604 이상욱(李相旭)
1,605 이상무(李相武)
1,606 신호준(辛虎俊)
1,607 노재열(盧載烈)
1,608 장일권(張一權)
1,609 박정우(朴正禹)
1,610 황정식(黃貞植)
1,611 김흥대(金興大)
1,612 김형욱(金亨旭)
1,613 장중돈(張仲敦)
1,614 이함엘(李함엘)
1,615 김종학(金鍾學)
1,616 이영관(李榮官)
1,617 김흥진(金興鎭)
1,618 김창현(金昌昡)
1,619 윤대근(尹大根)
1,620 황민규(黃珉奎)
1,621 추상우(秋尙佑)
1,622 정화수(鄭華守)
1,623 김칠만(金七晩)
1,624 김경철(金慶澈)
1,625 김홍만(金洪萬)
1,626 김동훈(金東薰)
1,627 김종국(金鍾國)
1,628 이강진(李康鎭)
1,629 박진아(朴珍雅)
1,630 황선규(黃善圭)
1,631 이경렬(李慶烈)
1,632 김경철(金敬哲)
1,633 정영기(鄭英基)
1,634 최광식(崔光湜)
1,635 김충식(金忠植)
1,636 이상훈(李相勳)
1,637 김태선(金泰善)
1,638 황광렬(黃光烈)
1,639 김용석(金容錫)
1,640 김태진(金泰陳)
1,641 임태희(林台熙)
1,642 박경조(朴景祚)
1,643 유삼룡(劉三龍)
1,644 이현준(李鉉俊)
1,645 김명룡(金明龍)
1,646 양택식(楊澤植)
1,647 임덕수(林德洙)
1,648 박성환(朴聖煥)
1,649 이상철(李相哲)
1,650 강중규(姜重圭)
1,651 이경배(李境倍)
1,652 김양규(金良奎)
1,653 박고봉(朴高奉)
1,654 지동하(池東夏)
1,655 이상덕(李相德)
1,656 강현구(姜賢求)
1,657 임종원(林鍾元)
1,658 최경원(崔京元)
1,659 박태환(朴泰煥)
1,660 박진석(朴珍錫)
1,661 김우진(金佑進)
1,662 박대훈(朴大勛)
1,663 송명준(宋命俊)
1,664 박영길(朴永吉)
1,665 김두용(金杜勇)
1,666 안울진(安蔚鎭)
1,667 한성은(韓聖恩)
1,668 임영진(林英鎭)
1,669 박희봉(朴熙鳳)
1,670 반정숙(潘貞淑)
1,671 김미라(金美羅)
1,672 황현숙(黃賢淑)
1,673 최미정(崔美婷)
1,674 장인실(張仁實)
1,675 김홍자(金洪子)
1,676 권미성(權美盛)
1,677 김은경(金恩京)
1,678 박영희(朴英熙)
1,679 이선옥(李先玉)
1,680 임해선(林海仙)
1,681 박미성(朴美成)
1,682 심미영(心美榮)
1,683 주경희(朱慶姬)
1,684 김정옥(金貞玉)
1,685 정주희(鄭朱姬)
1,686 김미경(金美京)
1,687 박경옥(朴京玉)
1,688 허애경(許愛敬)
1,689 지성미(池成美)
1,690 서미숙(徐美淑)
1,691 김소영(金素英)
1,692 김영희(金英嬉)
1,693 이은정(李銀貞)
1,694 이미정(李美貞)
1,695 손양순(孫亮淳)
1,696 오미화(吳美花)
1,697 유말숙(兪末淑)
1,698 김희정(金希貞)
1,699 황민숙(黃閔淑)
1,700 윤영자(尹英慈)
1,701 김순덕(金順德)
1,702 양순란(梁順蘭)
1,703 김진영(金眞瑛)
1,704 우금화(禹錦花)
1,705 백연화(白連花)

1,706 강옥선(姜玉善)
1,707 김미숙(金美淑)
1,708 김한영(金漢英)
1,709 김미숙(金美淑)
1,710 박향미(朴香美)
1,711 김정숙(金貞淑)
1,712 이미애(李美愛)
1,713 김경숙(金慶淑)
1,714 김경명(金京明)
1,715 조경민(趙慶珉)
1,716 박은향(朴銀香)
1,717 이미정(李美貞)
1,718 이귀란(李貴蘭)
1,719 김화순(金花順)
1,720 강경화(姜京花)
1,721 권영화(權寧和)
1,722 이미영(李美英)
1,723 최준희(崔浚嬉)
1,724 김은주(金銀周)
1,725 이미아(李美兒)
1,726 이순녀(李順女)
1,727 조종순(趙鍾順)
1,728 이은아(李銀兒)
1,729 전영숙(全英淑)
1,730 장상화(張相花)
1,731 오희영(吳喜永)
1,732 이종연(李鍾娟)
1,733 이경희(李京姬)
1,734 정명아(鄭明雅)
1,735 이상희(李相姬)
1,736 박혜선(朴惠仙)
1,737 김옥희(金玉姬)
1,738 김은진(金銀珍)
1,739 김옥선(金玉仙)
1,740 최미숙(崔美淑)
1,741 강경숙(姜敬淑)
1,742 최양숙(崔良淑)
1,743 박현아(朴賢雅)
1,744 허보경(許補景)
1,745 조영랑(趙英娘)

제16회 졸업생(1983)

남 66명, 여 60명, 계 126명



16회 1반



16회 2반



16회 3반

1,746 박광남(朴光男)
1,747 김기석(金基錫)
1,748 김종필(金鍾必)
1,749 이형창(李炯昌)
1,750 박덕성(朴德成)
1,751 박재규(朴宰圭)
1,752 김광태(金光泰)
1,753 이수형(李守炯)
1,754 조경훈(趙敬勳)
1,755 김인환(金仁煥)
1,756 박희상(朴喜祥)
1,757 최대흥(崔大興)
1,758 서재협(徐載協)
1,759 박진우(朴珍佑)
1,760 이동국(李東國)
1,761 서상교(徐相敎)
1,762 이상효(李相驍)
1,763 강지현(康智顯)
1,764 김종헌(金鍾憲)
1,765 장수건(張壽健)
1,766 권은숙(權銀淑)
1,767 정태자(丁泰子)
1,768 황정화(黃貞花)
1,769 홍상희(洪尙姬)
1,770 김남정(金南呈)
1,771 김화정(金花貞)
1,772 최설희(崔雪姬)
1,773 박광자(朴光子)
1,774 김정련(金貞連)
1,775 고형옥(高亨玉)
1,776 김은정(金銀貞)
1,777 조경희(趙景熙)
1,778 강은숙(姜銀淑)
1,779 김미남(金美男)
1,780 김옥화(金玉花)
1,781 배복덕(裵福德)
1,782 황경아(黃京妸)
1,783 박현정(朴玹貞)
1,784 이영미(李映美)
1,785 김영화(金映花)
1,786 김창식(金昌植)
1,787 김수정(金修正)
1,788 이재원(李在元)
1,789 김영률(金英律)
1,790 김태준(金泰俊)
1,791 이경환(李境煥)
1,792 신현철(申鉉哲)
1,793 신창업(申昌業)
1,794 김정욱(金正旭)
1,795 안동근(安東根)
1,796 우철궁(雨哲宮)
1,797 황윤목(黃允睦)
1,798 손호경(孫鎬經)
1,799 도기봉(都基鳳)
1,800 이상민(李相珉)
1,801 김병윤(金炳潤)
1,802 김주동(金柱東)
1,803 김영환(金榮煥)
1,804 손철우(孫哲佑)
1,805 이채호(李採鎬)
1,806 임동수(林東洙)
1,807 조현재(趙賢載)
1,808 서일은(徐一銀)
1,809 이상홍(李相泓)
1,810 조현래(趙玹來)
1,811 박진현(朴眞賢)
1,812 황정미(黃貞美)
1,813 이경희(李京姬)
1,814 박현희(朴賢姬)
1,815 박미순(朴美順)
1,816 김복실(金福實)
1,817 박은숙(朴銀淑)
1,818 홍복구(洪福逑)
1,819 김영옥(金英玉)
1,820 손여정(孫汝貞)
1,821 천정희(千貞熙)
1,822 김미경(金尾京)
1,823 이윤정(李侖庭)
1,824 정연숙(丁連淑)
1,825 김한정(金漢貞)
1,826 박재란(朴在蘭)
1,827 박은경(朴銀京)
1,828 박선화(朴先花)
1,829 김국자(金菊子)
1,830 김수정(金守貞)
1,831 박경미(朴京美)
1,832 최종국(崔鍾國)
1,833 추상학(秋相學)
1,834 김정현(金正賢)
1,835 안효준(安孝埈)
1,836 김문열(金文烈)
1,837 박근천(朴謹仟)
1,838 정제환(丁濟煥)
1,839 고영진(高寧震)
1,840 권중범(權重範)
1,841 김성룡(金聖龍)
1,842 김성환(金盛煥)
1,843 김영삼(金永三)
1,844 김두하(金斗河)
1,845 이성석(李成石)
1,846 서정훈(徐廷勳)
1,847 심상준(沈相俊)
1,848 강영수(姜領秀)
1,849 신동현(申東炫)
1,850 박기홍(朴起弘)
1,851 정현우(鄭炫友)
1,852 이진관(李鎭寬)
1,853 권상음(權相音)
1,854 김회정(金會貞)
1,855 정용해(鄭容海)
1,856 김경화(金慶花)
1,857 박현숙(朴賢淑)
1,858 이헌정(李憲貞)
1,859 김현경(金賢京)
1,860 김경례(金景禮)
1,861 박희영(朴嬉英)
1,862 전정순(全貞順)
1,863 이은실(李恩實)
1,864 김은숙(金銀淑)
1,865 윤정숙(尹貞淑)
1,866 강성실(康盛實)
1,867 신현미(辛賢美)
1,868 김정화(金貞花)
1,869 김선영(金仙影)
1,870 김태희(金泰希)
1,871 김한주(金漢周)

제17회 졸업생(1984)

남 74명, 여 71명, 계 145명



17회 1반



17회 2반



17회 3반

1,872 전필호(全必號)
1,873 임성언(林成彦)
1,874 김철곤(金哲坤)
1,875 이은봉(李銀峯)
1,876 윤호근(尹鎬根)
1,877 박영철(朴永喆)
1,878 김정훈(金正薰)
1,879 김동수(金東秀)
1,880 김경민(金敬珉)
1,881 박성종(朴成宗)
1,882 조동석(趙東錫)
1,883 최해동(崔海東)
1,884 김제동(金濟東)
1,885 김용만(金龍萬)
1,886 황무진(黃茂眞)
1,887 이상원(李相元)
1,888 김정완(金貞完)
1,889 이중엽(李重燁)
1,890 조봉래(趙鳳來)
1,891 반중근(潘重根)
1,892 고영철(高永鐵)
1,893 이채욱(李採旭)
1,894 임영규(任映圭)
1,895 이용구(李龍九)
1,896 정인숙(丁仁淑)
1,897 박진희(朴眞姬)
1,898 고미경(高美京)
1,899 오덕순(吳德順)
1,900 진은미(陳恩美)
1,901 유혜영(劉惠榮)
1,902 신은정(辛恩旌)
1,903 이명화(李明花)
1,904 권미경(權美慶)
1,905 박화영(朴花英)
1,906 윤미자(尹美子)
1,907 이순희(李順熙)
1,908 이윤희(李允熙)
1,909 박미정(朴美正)
1,910 김숙경(金淑景)
1,911 이은향(李恩鄕)
1,912 허윤숙(許允淑)
1,913 손혜정(孫惠貞)
1,914 이향미(李香美)
1,915 조혜란(趙惠蘭)
1,916 김철화(金哲花)
1,917 강숙이(姜淑伊)
1,918 장현순(張賢順)
1,919 궁계화(弓季花)
1,920 유옥분(劉玉分)
1,921 김영각(金永覺)
1,922 양승철(梁勝哲)
1,923 이재웅(李在雄)
1,924 박용성(朴容成)
1,925 정경달(鄭慶達)
1,926 이종성(李鐘城)
1,927 황강진(黃康鎭)
1,928 최유근(崔有謹)
1,929 김경석(金景席)
1,930 왕창호(王昌豪)
1,931 박시연(朴時讌)
1,932 정율재(鄭栗在)
1,933 임정희(林正熙)
1,934 오세진(吳世鎭)
1,935 김대훈(金大訓)
1,936 양철민(梁哲民)
1,937 이동수(李東守)
1,938 김성철(金城哲)
1,939 황정호(黃貞浩)
1,940 윤재필(尹載弼)
1,941 한태근(韓泰根)
1,942 김영일(金榮逸)
1,943 김원식(金元植)
1,944 김광주(金光周)
1,945 최임식(崔任植)
1,946 조영순(趙英順)
1,947 이정아(李政娥)
1,948 황경숙(黃敬淑)
1,949 한정숙(韓貞淑)
1,950 이운영(李雲英)
1,951 박선아(朴宣兒)
1,952 김은영(金恩榮)
1,953 유진용(劉眞溶)
1,954 김영해(金泳海)
1,955 이양숙(李良淑)
1,956 이샘터(李샘터)
1,957 김민정(金玟娗)
1,958 김미정(金美貞)
1,959 김경희(金京熙)
1,960 장영란(張英蘭)
1,961 김묘하(金妙荷)
1,962 송정희(宋貞熙)
1,963 박유현(朴有賢)
1,964 강미량(姜美良)
1,965 김윤애(金閏愛)
1,966 박향숙(朴香淑)
1,967 신재열(申載烈)
1,968 이민숙(李民淑)
1,969 임수홍(任樹洪)
1,970 권상규(權相奎)
1,971 김경연(金慶延)
1,972 임석훈(任錫勳)
1,973 최해웅(崔海雄)
1,974 이관용(李官龍)
1,975 김경산(金景山)
1,976 김정민(金正珉)
1,977 김종철(金鐘哲)
1,978 김성환(金成奐)
1,979 황상기(黃尙基)
1,980 김소야(金昭野)
1,981 박한욱(朴瀚昱)
1,982 박의천(朴義天)
1,983 최동광(崔東光)
1,984 최해청(崔海淸)
1,985 양성식(梁成植)
1,986 홍득표(洪得杓)
1,987 지진하(池珍夏)
1,988 최해광(崔海光)
1,989 정기복(鄭基福)
1,990 류성진(柳成鎭)
1,991 박진성(朴鎭成)
1,992 김수영(金秀英)
1,993 정미희(鄭美熙)
1,994 유옥순(兪玉順)
1,995 변순선(邊順善)
1,996 홍정옥(洪貞玉)
1,997 오현숙(吳鉉淑)
1,998 지말순(池末順)
1,999 이지영(李知暎)
2,000 안해순(安海純)
2,001 최선숙(崔善淑)
2,002 김해정(金海貞)
2,003 박윤정(朴윤정)
2,004 이순자(李順子)
2,005 김춘화(金春和)
2,006 이승희(李承熙)
2,007 김은희(金銀姬)
2,008 박미라(朴美羅)
2,009 권연미(權連美)
2,010 박은주(朴銀珠)
2,011 김윤희(金倫希)
2,012 이명주(李明珠)
2,013 오현희(吳鉉姬)
2,014 황양옥(黃良玉)
2,015 김진영(金珍榮)
2,016 이수진(李秀珍)

제18회 졸업생(1985)

남 64명, 여 62명, 계 126명



18회 1반



18회 2반



18회 3반

2,017 이광희(李光熙)
2,018 이호걸(李豪杰)
2,019 장영본(張榮本)
2,020 안용호(安龍浩)
2,021 정승조(鄭勝朝)
2,022 김장수(金長壽)
2,023 박건성(朴建城)
2,024 이경원(李京元)
2,025 이상진(李相眞)
2,026 김덕효(金德孝)
2,027 최영일(崔暎日)
2,028 윤성철(尹成哲)
2,029 문동환(文東煥)
2,030 이승철(李承哲)
2,031 이정우(李正雨)
2,032 이호석(李豪晳)
2,033 김정철(金正哲)
2,034 강모현(姜模玄)
2,035 이관희(李官熙)
2,036 정길재(鄭吉在)
2,037 이 일(李 一)
2,038 김정심(金貞心)
2,039 이수미(李秀美)
2,040 성계숙(成桂淑)
2,041 조임선(趙壬瑄)
2,042 장민자(張民子)
2,043 방순례(方順禮)
2,044 이해경(李海冏)
2,045 김현령(金賢怜)
2,046 김윤정(金允靜)
2,047 안은주(安恩姝)
2,048 허은경(許恩敬)
2,049 김광미(金光美)
2,050 김혜진(金惠珍)
2,051 김미경(金美京)
2,052 박유미(朴瑜美)
2,053 정용월(鄭容月)
2,054 장미란(張美蘭)
2,055 최금선(崔今先)
2,056 황경미(黃京美)
2,057 박경화(朴京花)
2,058 김은희(金銀姬)
2,059 최경남(崔庚南)
2,060 정대진(丁大珍)
2,061 엄을웅(嚴乙雄)
2,062 김태기(金泰基)
2,063 장용모(張容模)
2,064 김경태(金京泰)
2,065 김성훈(金聖勳)
2,066 최민웅(崔民雄)
2,067 김중권(金重權)
2,068 신동훈(申東勳)
2,069 이정민(李定珉)
2,070 원충연(元忠淵)
2,071 김공원(金孔源)
2,072 박정우(朴正佑)
2,073 박종덕(朴鍾德)
2,074 이상익(李相益)
2,075 박효섭(朴孝燮)
2,076 조승훈(趙勝勳)
2,077 박무진(朴珷珍)
2,078 이상학(李相學)
2,079 주경원(朱慶元)
2,080 최태영(崔太榮)
2,081 이형미(李炯美)
2,082 이현주(李賢珠)
2,083 정은주(鄭銀珠)
2,084 조희정(趙姬貞)
2,085 박희숙(朴熙淑)
2,086 김정희(金貞姬)
2,087 김선녀(金善女)
2,088 이미화(李美花)
2,089 박인숙(朴仁淑)
2,090 황임숙(黃任淑)
2,091 김국희(金菊姬)
2,092 김영혜(金永惠)
2,093 이신옥(李信玉)
2,094 김윤정(金閏貞)
2,095 김미정(金美貞)
2,096 오기숙(吳基淑)
2,097 김영숙(金榮淑)
2,098 오미성(吳美成)
2,099 오귀련(吳貴蓮)
2,100 김경희(金京姬)
2,101 이범석(李範錫)
2,102 박광석(朴光石)
2,103 장재훈(章在勳)
2,104 이상철(李相哲)
2,105 임지훈(任志勳)
2,106 이우민(李雨敏)
2,107 황선호(黃善鎬)
2,108 서재홍(徐載弘)
2,109 이도언(李到彦)
2,110 유재경(兪在京)
2,111 성동수(成東壽)
2,112 정정호(鄭丁豪)
2,113 박정규(朴正奎)
2,114 한영은(韓榮恩)
2,115 유정훈(劉政勳)
2,116 박치성(朴致星)
2,117 김익록(金益祿)
2,118 김동출(金東出)
2,119 신수복(辛壽福)
2,120 황성기(黃成基)
2,121 김성훈(金星薰)
2,122 박춘희(朴春熙)
2,123 김순화(金順花)
2,124 배은경(裵銀卿)
2,125 안주영(安珠英)
2,126 이주희(李珠姬)
2,127 최영희(崔英姬)
2,128 신경희(申敬姬)
2,129 홍상미(洪尙美)
2,130 김흥주(金興珠)
2,131 권미혜(權美惠)
2,132 권복순(權福順)
2,133 류수미(柳水美)
2,134 박정숙(朴貞淑)
2,135 황형희(黃炯希)
2,136 장정미(張貞美)
2,137 박성숙(朴成淑)
2,138 김은향(金恩香)
2,139 김순옥(金順玉)
2,140 박선희(朴宣姬)
2,141 이선희(李善嬉)
2,142 정국희(鄭菊姬)

제19회 졸업생(1986)

남 72명, 여 55명, 계 127명



19회 1반



19회 2반



19회 3반

2,143 조종락(趙鍾洛)
2,144 이명수(李明壽)
2,145 박희정(朴熙正)
2,146 최유호(崔有皓)
2,147 김정환(金政煥)
2,148 최기성(崔起誠)
2,149 이승철(李承澈)
2,150 황정호(黃政浩)
2,151 정현구(鄭炫九)
2,152 김정혁(金正赫)
2,153 박대용(朴大龍)
2,154 김영구(金永九)
2,155 오세호(吳世鎬)
2,156 천정수(千正洙)
2,157 강봉수(姜奉秀)
2,158 편재용(片在龍)
2,159 김도일(金度逸)
2,160 추상훈(秋相訓)
2,161 정성복(鄭成福)
2,162 김경진(金敬珍)
2,163 정종구(鄭鍾九)
2,164 최해영(崔海永)
2,165 최해용(崔海龍)
2,166 김순덕(金順德)
2,167 오수진(吳修眞)
2,168 박희영(朴姬英)
2,169 오덕숙(吳德淑)
2,170 김하영(金河永)
2,171 김경옥(金景玉)
2,172 김은정(金恩貞)
2,173 안수진(安秀鎭)
2,174 박명옥(朴明玉)
2,175 박현미(朴賢美)
2,176 최선주(崔善珠)
2,177 이미경(李美敬)
2,178 강은주(姜銀主)
2,179 김원희(金元姬)
2,180 정연옥(丁連玉)
2,181 박은정(朴恩正)
2,182 김화정(金花貞)
2,183 지진미(池珍美)
2,184 김희정(金姬貞)
2,185 김경수(金慶洙)
2,186 이두환(李杜煥)
2,187 박일성(朴日成)
2,188 김재용(金在勇)
2,189 윤은광(尹銀光)
2,190 김수창(金秀昶)
2,191 박의섭(朴義燮)
2,192 장민호(張民好)
2,193 김현진(金顯振)
2,194 조동훈(趙東勳)
2,195 김명석(金明錫)
2,196 이상혁(李相赫)
2,197 박일규(朴一圭)
2,198 권오명(權五明)
2,199 이상원(李相元)
2,200 김정근(金正根)
2,201 김승주(金承柱)
2,202 차일환(車一煥)
2,203 손동진(孫東辰)
2,204 박희중(朴喜仲)
2,205 임정훈(任正勳)
2,206 이재헌(李在憲)
2,207 이 건(李 鍵)
2,208 정현철(鄭賢喆)
2,209 여홍구(呂洪九)
2,210 이운진(李雲眞)
2,211 이형주(李炯珠)
2,212 유미영(劉美榮)
2,213 성실영(成實渶)
2,214 김인정(金仁貞)
2,215 김민경(金玟京)
2,216 김지현(金芝賢)
2,217 김은희(金恩熙)
2,218 이순영(李淳暎)
2,219 이종해(李鍾垓)
2,220 왕은희(王恩喜)
2,221 김영수(金永修)
2,222 윤미경(尹美京)
2,223 최은주(崔銀珠)
2,224 주상순(朱尙順)
2,225 이세나(李세나)
2,226 최영경(崔瑛卿)
2,227 이은영(李銀英)
2,228 이택운(李澤雲)
2,229 장영철(張英哲)
2,230 안성호(安聖呼)
2,231 문태수(文泰洙)
2,232 박승곤(朴勝坤)
2,233 박은섭(朴銀燮)
2,234 박일영(朴一暎)
2,235 이상직(李相直)
2,236 김성환(金聖煥)
2,237 이상율(李相律)
2,238 박종진(朴鍾眞)
2,239 김용태(金龍泰)
2,240 한동진(韓東辰)
2,241 천성관(千成官)
2,242 이영삼(李永三)
2,243 이창기(李昌琪)
2,244 박진석(朴振奭)
2,245 조여제(趙呂濟)
2,246 김달호(金達鎬)
2,247 이정일(李正日)
2,248 최상헌(崔相憲)
2,249 이인우(李仁雨)
2,250 김대석(金大石)
2,251 백태범(白泰凡)
2,252 김미경(金美卿)
2,253 김영숙(金英淑)
2,254 이미정(李美靜)
2,255 김수영(金琇瑛)
2,256 김경숙(金慶淑)
2,257 정명진(鄭明珍)
2,258 김영숙(金榮淑)
2,259 박연주(朴延珠)
2,260 한지은(韓智恩)
2,261 변영숙(邊英淑)
2,262 이미정(李美貞)
2,263 이정숙(李貞淑)
2,264 신현희(辛賢熙)
2,265 김은주(金銀珠)
2,266 김경애(金京愛)
2,267 백혜숙(白惠淑)
2,268 박은정(朴銀貞)
2,269 이은미(李銀美)

제20회 졸업생(1987)

남 53명, 여 66명, 계 119명



20회 1반



20회 2반



20회 3반

2,270 이중호(李重昊)
2,271 장수한(張壽漢)
2,272 문경환(文璟煥)
2,273 권재진(權在珍)
2,274 황승용(黃承用)
2,275 최영훈(崔榮訓)
2,276 김동명(金東明)
2,277 박성구(朴成求)
2,278 이도현(李到賢)
2,279 조준형(趙俊衡)
2,280 이동철(李東哲)
2,281 장재희(張在熙)
2,282 권동희(權銅熹)
2,283 이범규(李範圭)
2,284 성백룡(成百龍)
2,285 윤성진(尹成珍)
2,286 박향수(朴享洙)
2,287 김 훈(金 勳)
2,288 김수경(金秀京)
2,289 안선형(安善炯)
2,290 이경숙(李京淑)
2,291 이희순(李熙順)
2,292 김정임(金貞任)
2,293 박선희(朴善喜)
2,294 장혜선(長惠仙)
2,295 강정실(康情實)
2,296 이찬숙(李粲淑)
2,297 이유진(李有鎭)
2,298 이옥자(李玉子)
2,299 정은선(鄭恩先)
2,300 박은영(朴銀英)
2,301 이승빈(李承嬪)
2,302 박신옥(朴臣玉)
2,303 최타희(崔妥熙)
2,304 최연숙(崔連淑)
2,305 이종숙(李鍾淑)
2,306 김은경(金恩景)
2,307 오지은(吳芝恩)
2,308 정영애(鄭英愛)
2,309 최지영(崔知英)
2,310 이관수(李官洙)
2,311 이동철(李東澈)
2,312 박성인(朴成仁)
2,313 오춘근(吳春根)
2,314 조학래(趙鶴來)
2,315 전제윤(全濟潤)
2,316 김성태(金星泰)
2,317 강경수(姜慶秀)
2,318 김정진(金正鎭)
2,319 김태하(金太夏)
2,320 박주경(朴柱慶)
2,321 김종윤(金鍾潤)
2,322 장준익(張準益)
2,323 이주현(李周賢)
2,324 이명우(李明雨)
2,325 김영춘(金榮春)
2,326 박문택(朴汶澤)
2,327 장만식(張萬植)
2,328 송나영(宋羅永)
2,329 박해녕(朴孩佞)
2,330 김근화(金謹花)
2,331 조은주(趙恩珠)
2,332 최은경(崔恩慶)
2,333 김귀화(金貴花)
2,334 이상미(李相美)
2,335 양은주(梁恩珠)
2,336 김영희(金映希)
2,337 류영은(柳永恩)
2,338 박진숙(朴辰淑)
2,339 김화숙(金和淑)
2,340 류은영(柳銀英)
2,341 김경옥(金景玉)
2,342 성명순(成明純)
2,343 홍 화(洪 花)
2,344 권상례(權相禮)
2,345 김미선(金美仙)
2,346 김수정(金壽靜)
2,347 이미숙(李美淑)
2,348 윤유숙(尹裕淑)
2,349 김순월(金順月)
2,350 김구도(金求度)
2,351 박유성(朴有成)
2,352 김현진(金炫進)
2,353 백용조(白龍朝)
2,354 권중호(權重虎)
2,355 손종우(孫宗佑)
2,356 유승민(劉承旼)
2,357 정성창(鄭聖昌)
2,358 홍문식(洪汶植)
2,359 유태성(兪太成)
2,360 김장호(金長鎬)
2,361 정인철(鄭仁哲)
2,362 윤종수(尹鍾洙)
2,363 박성민(朴成敏)
2,364 안동훈(安銅勳)
2,365 신현호(申鉉鎬)
2,366 조세연(趙世衍)
2,367 정용수(鄭龍壽)
2,368 이은경(李恩慶)
2,369 박광순(朴光順)
2,370 이미선(李美仙)
2,371 허애경(許愛敬)
2,372 이현숙(李賢淑)
2,373 김순희(金順喜)
2,374 이미정(李美正)
2,375 이수해(李秀海)
2,376 황윤숙(黃潤淑)
2,377 오현선(吳鉉善)
2,378 김미영(金美英)
2,379 최미영(崔美英)
2,380 김현하(金賢荷)
2,381 신수정(申壽貞)
2,382 김은주(金恩珠)
2,383 이미라(李美羅)
2,384 심희영(沈喜榮)
2,385 김지선(金志善)
2,386 김경복(金京福)
2,387 심순자(沈順子)
2,388 정정화(鄭貞花)

제21회 졸업생(1988)

남 48명, 여 48명, 계 96명



21회 1반



21회 2반

2,389 이용갑(李龍甲)
2,390 박수성(朴修成)
2,391 박광선(朴光善)
2,392 엄을돈(嚴乙敦)
2,393 한형인(韓亨仁)
2,394 박운서(朴雲緖)
2,395 이광은(李光殷)
2,396 강병재(姜秉載)
2,397 박의준(朴義晙)
2,398 주상균(朱尙均)
2,399 김광석(金光錫)
2,400 이상탁(李相卓)
2,401 오승일(吳昇一)
2,402 성창수(成昌壽)
2,403 이상대(李相大)
2,404 염태진(廉泰振)
2,405 박동규(朴東奎)
2,406 오석용(吳錫勇)
2,407 김원일(金元一)
2,408 이득진(李得珍)
2,409 한재현(韓在賢)
2,410 서인용(徐仁龍)
2,411 이상국(李相國)
2,412 최연화(崔連花)
2,413 정미정(鄭美貞)
2,414 송경아(宋慶娥)
2,415 김미정(金美正)
2,416 김선애(金善愛)
2,417 정용희(鄭容熙)
2,418 권미석(權美汐)
2,419 이미진(李美珍)
2,420 김윤옥(金閏玉)
2,421 박희정(朴喜貞)
2,422 이선옥(李善玉)
2,423 홍미숙(洪美淑)
2,424 김정희(金貞姬)
2,425 한숙경(韓叔京)
2,426 김경실(金坰實)
2,427 정연희(丁連熙)
2,428 김수진(金秀珍)
2,429 이정숙(李貞淑)
2,430 박해경(朴孩敬)
2,431 윤현경(尹賢敬)
2,432 이수남(李守南)
2,433 정현주(鄭炫珠)
2,434 최민정(崔敏貞)
2,435 김재영(金宰永)
2,436 조분희(趙粉姬)
2,437 김종대(金鍾大)
2,438 김현수(金賢洙)
2,439 정영목(鄭永穆)
2,440 박희병(朴熙丙)
2,441 엄주현(嚴柱鉉)
2,442 김이현(金利鉉)
2,443 이진구(李振九)
2,444 신호영(辛昊泳)
2,445 이재명(李宰銘)
2,446 최영진(崔永進)
2,447 박진영(朴晉榮)
2,448 이창우(李昌雨)
2,449 김동환(金東煥)
2,450 김정국(金正國)
2,451 서원봉(徐源奉)
2,452 조홍석(曺洪錫)
2,453 박원진(朴院珍)
2,454 강지호(康智皓)
2,455 최일태(崔一太)
2,456 김응길(金應吉)
2,457 박현준(朴賢俊)
2,458 김철근(金喆槿)
2,459 전상호(全相昊)
2,460 이이희(李嬰喜)
2,461 황형미(黃炯美)
2,462 김숙자(金淑子)
2,463 최은희(崔銀姬)
2,464 김미숙(金美淑)
2,465 박은희(朴恩熙)
2,466 최미자(崔美子)
2,467 이정현(李貞賢)
2,468 조정희(趙正熙)
2,469 박준희(朴峻嬉)
2,470 장정헌(張貞憲)
2,471 주현숙(朱賢淑)
2,472 김실라(金實羅)
2,473 김옥진(金玉珍)
2,474 박향민(朴香敏)
2,475 박경희(朴敬禧)
2,476 박은아(朴恩娥)
2,477 조순아(趙淳娥)
2,478 김수영(金水英)
2,479 이미영(李美英)
2,480 한명선(韓明善)
2,481 이수정(李洙正)
2,482 황경주(黃京珠)
2,483 유주영(兪珠英)
2,484 변만석(邊萬錫)

제22회 졸업생(1989)

남 57명, 여 50명, 계 107명



22회 1반



22회 2반

2,485 이복천(李福天)
2,486 편재성(片在星)
2,487 박희종(朴熙鐘)
2,488 김용대(金龍大)
2,489 여창구(呂昌九)
2,490 최영진(崔暎辰)
2,491 임정우(林正虞)
2,492 김동일(金東一)
2,493 허동필(許東弼)
2,494 윤성용(尹成用)
2,495 황정일(黃貞一)
2,496 오재영(吳宰榮)
2,497 조동삼(趙東三)
2,498 왕태호(王泰豪)
2,499 김정근(金貞根)
2,500 손동민(孫東憫)
2,501 김경렬(金慶烈)
2,502 김영근(金榮近)
2,503 김민혁(金敏赫)
2,504 김종봉(金宗奉)
2,505 이상은(李相殷)
2,506 신철민(辛澈旼)
2,507 김도완(金度完)
2,508 최주현(崔周賢)
2,509 김동운(金東運)
2,510 최성철(崔城哲)
2,511 김창수(金昌水)
2,512 오수영(吳修英)
2,513 황경희(黃京喜)
2,514 최원영(崔原榮)
2,515 장연미(張連美)
2,516 김분학(金粉鶴)
2,517 안해정(安海貞)
2,518 진은하(陳恩河)
2,519 이인숙(李仁淑)
2,520 김지영(金志榮)
2,521 송정숙(宋貞淑)
2,522 오세련(吳世連)
2,523 정옹준(鄭翁俊)
2,524 노경화(盧景花)
2,525 변순복(邊順福)
2,526 김은숙(金恩淑)
2,527 조은희(趙恩熙)
2,528 김현주(金賢珠)
2,529 이현영(李賢榮)
2,530 지성희(池成熹)
2,531 최정애(崔貞愛)
2,532 김현민(金賢玟)
2,533 최향미(崔香美)
2,534 정미란(鄭美蘭)
2,535 최정영(崔貞英)
2,536 문은미(文은美)
2,537 임미라(任美羅)
2,538 강신명(康申明)
2,539 김성진(金成鎭)
2,540 박성훈(朴成勳)
2,541 박인걸(朴仁杰)
2,542 강중근(姜仲槿)
2,543 박성우(朴城右)
2,544 이봉걸(李奉杰)
2,545 신진관(辛鎭寬)
2,546 이택곤(李澤坤)
2,547 김권후(金權厚)
2,548 손길수(孫吉秀)
2,549 권철희(權喆喜)
2,550 김현곤(金鉉坤)
2,551 김동운(金東運)
2,552 최기선(崔其善)
2,553 박희재(朴希宰)
2,554 박성덕(朴成德)
2,555 조명훈(趙明勳)
2,556 문태국(文泰國)
2,557 나성환(羅成煥)
2,558 조윤현(趙閏顯)
2,559 박연구(朴鍊求)
2,560 김광호(金光昊)
2,561 정성만(鄭成萬)
2,562 박태성(朴泰星)
2,563 김도윤(金度潤)
2,564 김한진(金恨珍)
2,565 백용호(白龍浩)
2,566 박남식(朴南植)
2,567 서의정(徐義正)
2,568 양은진(梁銀珍)
2,569 장규남(張圭男)
2,570 김현주(金玄主)
2,571 임은진(林殷鎭)
2,572 조미연(趙美衍)
2,573 김임순(金壬順)
2,574 김수정(金洙正)
2,575 박현정(朴賢貞)
2,576 이윤화(李潤花)
2,577 백정은(白貞銀)
2,578 박정숙(朴正淑)
2,579 이미진(李美秦)
2,580 박민숙(朴旻淑)
2,581 김수정(金守貞)
2,582 성경선(成京鮮)
2,583 윤현원(尹賢媛)
2,584 김선화(金善花)
2,585 김귀영(金貴英)
2,586 문정미(文貞美)
2,587 최원정(崔源亭)
2,588 전혜진(全惠珍)
2,589 홍경진(洪京辰)
2,590 최유정(崔有貞)
2,591 김희선(金姬善)

제23회 졸업생(1990)

남 55명, 여 43명, 계 98명



23회 1반



23회 2반

2,592 김호현(金昊炫)
2,593 이상언(李相彦)
2,594 김성문(金成文)
2,595 백대환(白大煥)
2,596 박인철(朴仁哲)
2,597 최주식(崔周植)
2,598 정인교(鄭仁敎)
2,599 김성호(金聖昊)
2,600 손정범(孫政汎)
2,601 정희진(丁熙鎭)
2,602 최진식(崔進植)
2,603 성정수(成正壽)
2,604 김 혁(金 烇)
2,605 한동우(韓東優)
2,606 지정산(智圢鏟)
2,607 추상민(秋相敏)
2,608 김형욱(金亨昱)
2,609 윤종민(尹鍾敏)
2,610 박경배(朴敬培)
2,611 김민수(金旼水)
2,612 김주영(金周榮)
2,613 김형석(金炯錫)
2,614 염우진(廉佑振)
2,615 박민수(朴旻殊)
2,616 최상욱(崔相旭)
2,617 고영수(高永洙)
2,618 이권진(李權珍)
2,619 임춘일(林春日)
2,620 김지영(金志映)
2,621 김수정(金水貞)
2,622 류은화(柳恩花)
2,623 김미숙(金美淑)
2,624 박현정(朴賢貞)
2,625 장혜경(張惠京)
2,626 장혜숙(張惠淑)
2,627 박영민(朴永敏)
2,628 홍 숙(洪 淑)
2,629 정미조(鄭美造)
2,630 장정희(張正熙)
2,631 주은희(朱恩喜)
2,632 윤경숙(尹敬淑)
2,633 강메아리(姜메아리)
2,634 고영선(高寧善)
2,635 윤영순(尹英順)
2,636 김민하(金民河)
2,637 황지혜(黃智慧)
2,638 김학정(金學貞)
2,639 강유진(姜兪眞)
2,640 서지련(徐芝蓮)
2,641 전광석(田光錫)
2,642 송민호(宋珉鎬)
2,643 최 훈(崔 勳)
2,644 추상복(秋相福)
2,645 심민교(沈敏敎)
2,646 권재준(權在俊)
2,647 강홍주(姜洪柱)
2,648 최타호(崔他鎬)
2,649 이성운(李成運)
2,650 이태윤(李泰潤)
2,651 오종황(吳鍾熀)
2,652 정관혁(鄭寬赫)
2,653 정수영(鄭洙榮)
2,654 송윤생(宋允生)
2,655 윤종석(尹鍾碩)
2,656 이태헌(李泰憲)
2,657 김대우(金大羽)
2,658 김병희(金秉希)
2,659 이종성(李鍾城)
2,660 박현호(朴賢鎬)
2,661 김태동(金台東)
2,662 장동석(張東錫)
2,663 백승진(白承盡)
2,664 박성호(朴成浩)
2,665 이영민(李榮珉)
2,666 김진억(金振億)
2,667 이은미(李銀美)
2,668 박은성(朴恩成)
2,669 박수정(朴修貞)
2,670 최정미(崔禎美)
2,671 박주언(朴姝彦)
2,672 김주영(金株榮)
2,673 이미옥(李美玉)
2,674 김경희(金景熙)
2,675 박현진(朴賢珍)
2,676 강선아(姜先我)
2,677 장혜란(張惠蘭)
2,678 유영란(劉英蘭)
2,679 주상미(朱尙美)
2,680 정숙희(鄭淑熙)
2,681 황정혜(黃正惠)
2,682 손희숙(孫喜淑)
2,683 신현미(辛賢美)
2,684 김소정(金少靜)
2,685 김민화(金民花)
2,686 이무현(李戊絃)
2,687 이종숙(李終淑)
2,688 박선영(朴仙英)
2,689 김동진(金東眞)

제24회 졸업생(1991)

남 59명, 여 41명, 계 100명



24회 1반



24회 2반

2,690 김 석(金 石)
2,691 문태진(文泰鎭)
2,692 이종호(李宗祜)
2,693 임국희(林國熙)
2,694 서상돈(徐相敦)
2,695 김정효(金貞孝)
2,696 김수환(金洙煥)
2,697 이유진(李有珍)
2,698 김정규(金正圭)
2,699 이상윤(李相允)
2,700 이상동(李相東)
2,701 이상원(李相沅)
2,702 김태규(金兌奎)
2,703 조철호(趙哲浩)
2,704 이광호(李光鎬)
2,705 김성준(金成俊)
2,706 김동준(金銅俊)
2,707 박희준(朴希俊)
2,708 최해돈(崔海敦)
2,709 김동완(金東完)
2,710 이완철(李宛暾)
2,711 장수호(張洙豪)
2,712 오세영(吳世永)
2,713 조성기(曺成基)
2,714 박근백(朴謹伯)
2,715 박성원(朴聖元)
2,716 최원식(崔源植)
2,717 오광종(吳光鍾)
2,718 김웅일(金雄一)
2,719 도성호(都誠浩)
2,720 최대영(崔大映)
2,721 조미영(趙美英)
2,722 서윤희(徐尹喜)
2,723 황진희(黃眞喜)
2,724 오현주(吳睍珠)
2,725 김현선(金鉉善)
2,726 오애은(吳愛恩)
2,727 이해영(李侅映)
2,728 신경미(申景美)
2,729 정성화(鄭成華)
2,730 김윤정(金允貞)
2,731 김미현(金美炫)
2,732 강은주(姜銀珠)
2,733 김현임(金玹任)
2,734 김은희(金恩熙)
2,735 김연화(金連花)
2,736 박종현(朴鍾賢)
2,737 김현향(金賢香)
2,738 김희경(金姬京)
2,739 오인희(吳仁姬)
2,740 조순지(曺順智)
2,741 박선영(朴善暎)
2,742 김혜진(金惠鎭)
2,743 윤정민(尹正玟)
2,744 이덕우(李德雨)
2,745 김경준(金坰俊)
2,746 이영우(李永雨)
2,747 박희영(朴熹永)
2,748 김민규(金旻奎)
2,749 박상일(朴相壹)
2,750 한 교(韓 皎)
2,751 김봉근(金奉槿)
2,752 임정수(林正洙)
2,753 이성만(李成萬)
2,754 김규태(金圭泰)
2,755 이상성(李相成)
2,756 유석태(劉石泰)
2,757 최해윤(崔海潤)
2,758 최현우(崔賢宇)
2,759 이근수(李根洙)
2,760 주인규(朱仁圭)
2,761 정대혁(鄭大赫)
2,762 양일도(梁一道)
2,763 조명진(趙明眞)
2,764 송우성(宋宇星)
2,765 이황욱(李晃旭)
2,766 김진만(金振萬)
2,767 현순일(玄淳一)
2,768 박병삼(朴炳三)
2,769 강진구(姜珍求)
2,770 김은희(金恩姬)
2,771 장삼희(張三姬)
2,772 김정미(金貞美)
2,773 홍해경(洪海慶)
2,774 김운주(金芸柱)
2,775 박유선(朴有善)
2,776 장미화(張美花)
2,777 윤현예(尹賢叡)
2,778 정인희(鄭仁禧)
2,779 강경화(姜暻華)
2,780 정지혜(鄭知惠)
2,781 이부영(李富永)
2,782 김수영(金壽英)
2,783 임혜정(任慧貞)
2,784 박민영(朴敏榮)
2,785 전현주(全昡姝)
2,786 김동숙(金東淑)
2,787 김영실(金榮實)
2,788 이정화(李情和)
2,789 김희영(金姬英)

제25회 졸업생(1992)

남 46명, 여 44명, 계 90명

2,790 이두성(李斗成)
2,791 손호식(孫鎬植)
2,792 이용재(李龍在)
2,793 조성렬(趙星烈)
2,794 홍성기(洪性基)
2,795 이우준(李雨峻)
2,796 송호선(宋鎬宣)
2,797 김윤철(金閏喆)
2,798 이석호(李碩湖)
2,799 김정훈(金正勳)
2,800 신경식(辛慶植)
2,801 최영훈(崔永訓)
2,802 김영배(金永培)
2,803 김세현(金世現)
2,804 윤덕영(尹德榮)
2,805 김동복(金東福)
2,806 최이환(崔二歡)
2,807 이용희(李龍熙)
2,808 김선기(金善基)
2,809 정인재(鄭印宰)
2,810 장승욱(張勝旭)
2,811 한형윤(韓亨允)
2,812 박윤배(朴允培)
2,813 주상덕(朱尙德)
2,814 권미희(權美希)
2,815 김순녀(金順女)
2,816 왕명희(王明喜)
2,817 김정미(金廷美)
2,818 변석경(卞石暻)
2,819 박말희(朴末熙)
2,820 김현미(金玄美)
2,821 박영신(朴映信)
2,822 문정옥(文貞玉)
2,823 김연화(金妍華)
2,824 안진희(安鎭姬)
2,825 조선옥(趙善玉)
2,826 정미영(鄭美榮)
2,827 김민정(金玟廷)
2,828 김미례(金美禮)
2,829 김유미(金有美)
2,830 편미경(片美京)
2,831 이수현(李秀賢)
2,832 김가희(金佳曦)
2,833 강은아(姜恩我)
2,834 김지원(金志原)
2,835 이정화(李貞和)
2,836 문광주(文光周)
2,837 백상훈(白尙勳)
2,838 백승화(白承花)
2,839 이태호(李泰昊)
2,840 김상태(金相泰)
2,841 윤성수(尹晟壽)
2,842 박창식(朴昌植)
2,843 지봉철(池奉哲)
2,844 백승기(白承起)
2,845 이대관(李大寬)
2,846 성명수(成明洙)
2,847 유승준(劉昇俊)
2,848 윤재민(尹載珉)
2,849 이기환(李起煥)
2,850 김은찬(金恩燦)
2,851 김정규(金正奎)
2,852 신철구(辛澈球)
2,853 홍민지(洪敏智)
2,854 오성준(吳晟俊)
2,855 오세일(吳世一)
2,856 박희철(朴熙哲)
2,857 김성준(金成俊)
2,858 권미녀(權美女)
2,859 김은정(金恩淨)
2,860 박수향(朴修香)
2,861 박선희(朴善熙)
2,862 이정옥(李貞玉)
2,863 이민영(李珉煐)
2,864 고지영(高志暎)
2,865 김경은(金京恩)
2,866 정수자(鄭水子)
2,867 김수연(金修延)
2,868 김경란(金京蘭)
2,869 정은주(鄭銀珠)
2,870 조기영(趙己泳)
2,871 양은숙(梁恩淑)
2,872 강민희(姜民姬)
2,873 한해련(韓海蓮)
2,874 이운화(李雲花)
2,875 김민선(金旻仙)
2,876 박미진(朴美眞)
2,877 최성은(崔城恩)
2,878 박주란(朴朱蘭)
2,879 김수연(金秀娟)

제26회 졸업생(1993)

남 52명, 여 44명, 계 96명



26회 1반



26회 2반



26회 3반

제26회 졸업생(1993)

2,880 손동섭(孫東燮)
2,881 김영석(金英錫)
2,882 손용희(孫庸諧)
2,883 조재열(趙在洌)
2,884 최준석(崔峻碩)
2,885 황성곤(黃成坤)
2,886 김재두(金載斗)
2,887 이태훈(李泰勳)
2,888 박희준(朴熹俊)
2,889 박기태(朴起台)
2,890 김병하(金丙河)
2,891 김성일(金成一)
2,892 이상문(李相文)
2,893 방상규(方相圭)
2,894 엄성일(嚴聖壹)
2,895 성철호(成哲好)
2,896 최민아(崔敏阿)
2,897 박진영(朴眞榮)
2,898 박정련(朴貞蓮)
2,899 이정옥(李情玉)
2,900 정소영(鄭昭英)
2,901 최민정(崔敏貞)
2,902 안효정(安孝貞)
2,903 변선애(邊善愛)
2,904 김정애(金貞愛)
2,905 이정미(李正美)
2,906 유미희(劉美熙)
2,907 김미혜(金美惠)
2,908 지정숙(智貞淑)
2,909 김효선(金孝善)
2,910 최미경(崔美炅)
2,911 박종순(朴鍾順)
2,912 이정희(李貞熙)
2,913 김익삼(金益三)
2,914 윤동현(尹棟泫)
2,915 이정우(李正宇)
2,916 이상호(李相好)
2,917 이수진(李守珍)
2,918 도성길(都誠吉)
2,919 이근정(李根禎)
2,920 박유성(朴唯成)
2,921 윤정완(尹湞皖)
2,922 이세윤(李世潤)
2,923 조복지(曺福智)
2,924 신재광(辛在光)
2,925 김정남(金正南)
2,926 조성련(趙成鰱)
2,927 정경찬(鄭慶讚)
2,928 김효준(金曉俊)
2,929 이태석(李泰錫)
2,930 박계희(朴桂嬉)
2,931 김지아(金智兒)
2,932 김화숙(金花淑)
2,933 박민희(朴民姬)
2,934 김미선(金美善)
2,935 오정은(吳正恩)
2,936 이해윤(李侅倫)
2,937 김정희(金貞姬)
2,938 김은진(金恩珍)
2,939 이순지(李順智)
2,940 이순영(李順英)
2,941 박미정(朴美停)
2,942 이수정(李修貞)
2,943 현연선(玄娟善)
2,944 정종욱(鄭鍾旭)
2,945 이성현(李成絃)
2,946 전상우(全相祐)
2,947 오재훈(吳宰訓)
2,948 이대희(李大熙)
2,949 박수환(朴修煥)
2,950 김영재(金永才)
2,951 박성민(朴成愍)
2,952 서계영(徐季榮)
2,953 조동환(趙東煥)
2,954 정순재(鄭淳財)
2,955 안시홍(安時弘)
2,956 김정협(金正協)
2,957 이완형(李完炯)
2,958 김수현(金秀縣)
2,959 박상진(朴相眞)
2,960 김세진(金世進)
2,961 김세현(金勢縣)
2,962 조재한(趙在漢)
2,963 김순덕(金順德)
2,964 김윤정(金允貞)
2,965 이수미(李洙美)
2,966 이경미(李敬美)
2,967 김경화(金庚花)
2,968 김현설(金炫雪)
2,969 김영자(金英子)
2,970 최진영(崔珍瑛)
2,971 조은정(趙恩正)
2,972 오유리(吳유리)
2,973 이미지(李美知)
2,974 이미진(李味眞)
2,975 김윤희(金潤姬)

제27회 졸업생(1994)

남 34명, 여 42명, 계 76명

2,976 김환겸(金桓謙)
2,977 김규식(金奎植)
2,978 김의종(金義鍾)
2,979 박주현(朴珠炫)
2,980 박병규(朴炳奎)
2,981 최상현(崔相賢)
2,982 윤준영(尹晙榮)
2,983 조경연(趙暻衍)
2,984 이석훈(李石薰)
2,985 백승진(白承鎭)
2,986 이태근(李泰瑾)
2,987 최종천(崔宗天)
2,988 오성호(吳晟湖)
2,989 정진호(鄭進戶)
2,990 지정록(池正綠)
2,991 손동욱(孫東煜)
2,992 이은정(李恩定)
2,993 최덕화(崔德花)
2,994 김선영(金善英)
2,995 이영주(李怜珠)
2,996 한미현(韓美玄)
2,997 고가영(高佳暎)
2,998 박선미(朴善媚)
2,999 이미진(李美珍)
3,000 윤현경(尹賢敬)
3,001 이선정(李善政)
3,002 신수련(申壽蓮)
3,003 조명희(趙明熙)
3,004 장은정(張恩正)
3,005 황정희(黃貞喜)
3,006 박주영(朴朱永)
3,007 심희경(沈熙京)
3,008 박혜경(朴惠敬)
3,009 이영희(李暎喜)
3,010 강효주(姜孝州)
3,011 오현지(吳晛杜)
3,012 박지영(朴志映)
3,013 정연관(鄭然寬)
3,014 김규원(金圭源)
3,015 김태호(金泰昊)
3,016 이대규(李大揆)
3,017 백승남(白承男)
3,018 장승규(張勝圭)
3,019 김동석(金東錫)
3,020 전후락(田厚洛)
3,021 문영국(文榮國)
3,022 이창욱(李昌郁)
3,023 홍태훈(洪泰勳)
3,024 윤석호(尹碩浩)
3,025 김민학(金敏鶴)
3,026 홍민혁(洪敏赫)
3,027 김제영(金制暎)
3,028 이대엽(李大燁)
3,029 이한희(李韓熙)
3,030 김민호(金民浩)
3,031 윤수미(尹粹美)
3,032 정미옥(鄭美玉)
3,033 김아랑(金我郎)
3,034 김숙향(金淑香)
3,035 김희경(金熙敬)
3,036 박정화(朴貞華)
3,037 이영희(李榮熙)
3,038 김애란(金愛蘭)
3,039 이은경(李銀瓊)
3,040 김보영(金寶英)
3,041 김향주(金香珠)
3,042 김미향(金美香)
3,043 박지영(朴志英)
3,044 백은미(白恩美)
3,045 이현숙(李賢淑)
3,046 박미정(朴美貞)
3,047 김지은(金志恩)
3,048 송지연(宋枝娟)
3,049 박순미(朴順美)
3,050 강민정(姜民正)
3,051 최수정(崔琇淨)

제28회 졸업생(1995)

남 34명, 여 25명, 계 59명



28회 전교생

3,052 김재광(金在光)
3,053 박유광(朴有光)
3,054 이명원(李明園)
3,055 박현철(朴賢澈)
3,056 김세환(金勢桓)
3,057 이관민(李官玟)
3,058 이민규(李敏揆)
3,059 김동현(金東賢)
3,060 김보영(金甫榮)
3,061 김경민(金暻頤)
3,062 지정민(池正敏)
3,063 조성진(趙成辰)
3,064 김상진(金相眞)
3,065 이석환(李碩煥)
3,066 김선용(金善庸)
3,067 김태성(金泰成)
3,068 이정현(李正賢)
3,069 이상협(李相協)
3,070 성수경(成受暻)
3,071 김보림(金保寐)
3,072 서미애(徐美愛)
3,073 김미현(金美賢)
3,074 정재경(鄭在更)
3,075 박민희(朴珉熙)
3,076 최원영(崔원영)
3,077 안세영(安世英)
3,078 이미경(李味暻)
3,079 이현아(李現娥)
3,080 김지혜(金智惠)
3,081 김미리(金美里)
3,082 박현정(朴炫柾)
3,083 김향희(金昌禧)
3,084 김지태(金智太)
3,085 이채문(李棌文)
3,086 김원성(金元成)
3,087 조현민(趙炫珉)
3,088 이희우(李稀雨)
3,089 엄광석(嚴光石)
3,090 이진수(李鎭洙)
3,091 최영주(崔永周)
3,092 안태홍(安台弘)
3,093 김규석(金奎錫)
3,094 박상문(朴相文)
3,095 김여도(金余導)
3,096 하현성(河賢成)
3,097 박정환(朴貞煥)
3,098 김덕주(金德柱)
3,099 서원근(徐源瑾)
3,100 정현정(鄭賢晶)
3,101 김외숙(金外淑)
3,102 김은애(金恩愛)
3,103 윤정금(尹貞今)
3,104 김성미(金成美)
3,105 유하정(劉河貞)
3,106 권윤정(權允貞)
3,107 정수나(鄭秀娜)
3,108 최지희(崔志熙)
3,109 김미선(金美善)
3,110 곽진영(郭眞榮)

제29회 졸업생(1996)

남 17명, 여 13명, 계 30명



29회 전교생

3,111 김덕환(金德煥)
3,112 권효근(權孝根)
3,113 김하늘(金하늘)
3,114 안효준(安孝準)
3,115 조광연(趙光衍)
3,116 이현희(李賢熙)
3,117 이용희(李龍熙)
3,118 권정훈(權正勳)
3,119 유지태(劉知泰)
3,120 이우열(李雨烈)
3,121 오수동(吳修東)
3,122 김정범(金正範)
3,123 한치우(韓致雨)
3,124 이석환(李石煥)
3,125 성수복(成受福)
3,126 조용현(趙庸現)
3,127 박영훈(朴永訓)
3,128 윤수영(尹洙榮)
3,129 최자연(崔子妍)
3,130 김숙희(金瀟姬)
3,131 허연실(許娟實)
3,132 유은반(劉銀般)
3,133 최유경(崔有卿)
3,134 김세영(金說英)
3,135 박미희(朴美姬)
3,136 천선미(千善美)
3,137 이현주(李現主)
3,138 장경희(張敬熙)
3,139 조아영(趙兒英)
3,140 이남정(李南正)

제30회 졸업생(1997)

남 12명, 여 21명, 계 33명



30회 전교생

3,141 박태훈(朴太勳)
3,142 김 길(金 吉)
3,143 안세완(安世完)
3,144 이세일(李世一)
3,145 정재용(鄭載勇)
3,146 이민수(李玟守)
3,147 이상민(李相玟)
3,148 엄성필(嚴聖弼)
3,149 이용필(李勇泌)
3,150 신재운(申在雲)
3,151 서지용(徐智龍)
3,152 김종현(金宗賢)
3,153 김희연(金熙娟)
3,154 김민영(金旻永)
3,155 전향주(田享主)
3,156 송지이(宋枝易)
3,157 방난희(方蘭姬)
3,158 윤지영(尹智暎)
3,159 조애라(趙愛羅)
3,160 박광민(朴姸敃)
3,161 이민희(李珉熙)
3,162 강애란(姜愛蘭)
3,163 이종숙(李鍾淑)
3,164 이유민(李裕敏)
3,165 조은숙(趙恩淑)
3,166 문정애(文正愛)
3,167 홍은아(洪恩阿)
3,168 황성옥(黃成鈺)
3,169 최송아(崔송아)
3,170 박은미(朴恩美)
3,171 변미희(邊美姬)
3,172 곽진숙(郭眞淑)
3,173 염현경(廉賢敬)

제31회 졸업생(1998)

남 7명, 여 5명, 계 12명



31회 전교생

3,174	김현국(金鉉國)	3,178	조인식(趙仁植)	3,182	김은영(金恩永)
3,175	최무종(崔武鍾)	3,179	강 혁(康 奕)	3,183	이은희(李銀熙)
3,176	허준호(許峻豪)	3,180	김종민(金宗珉)	3,184	이지숙(李智淑)
3,177	이승용(李承勇)	3,181	박경미(朴暻美)	3,185	권진혜(權眞慧)

제32회(복교 1회) 졸업생(2005)

남 89명, 여 99명, 계 1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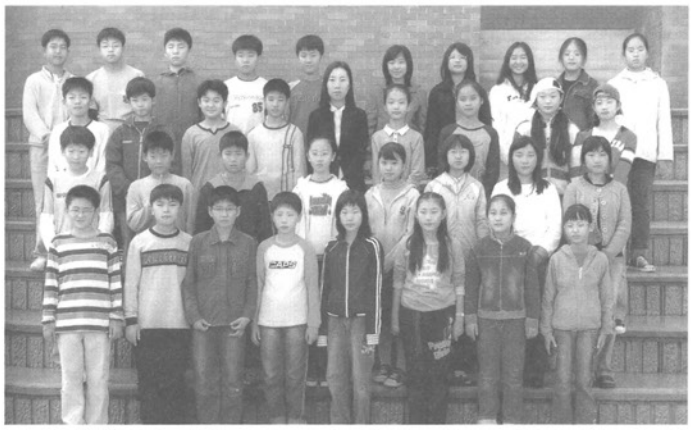
32회 1반



32회 2반



32회 3반



32회 4반



32회 5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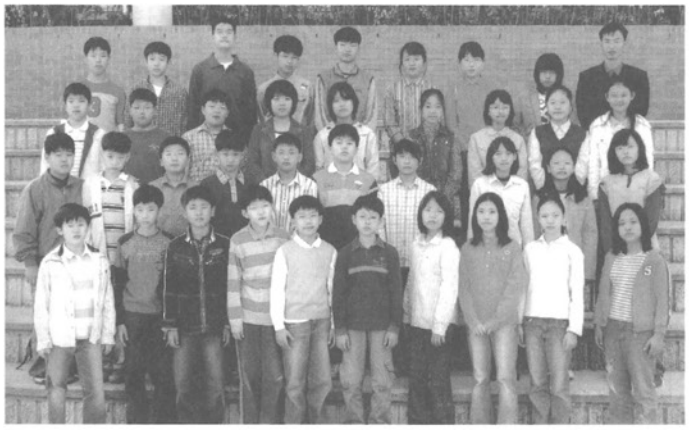
제32회(복교 1회) 졸업생(2005)

3,186 고여진
3,187 권오성
3,188 김미래
3,189 김소연
3,190 김소원
3,191 김정열
3,192 김준환
3,193 김태원
3,194 문상진
3,195 박고은
3,196 박동우
3,197 박창영
3,198 서인경
3,199 손윤정
3,200 송지은
3,201 안동준
3,202 안희경
3,203 우지훈
3,204 유지연
3,205 이가영
3,206 이도현
3,207 이비치
3,208 이정은
3,209 임인희
3,210 장인수
3,211 정원석
3,212 지규환
3,213 최민우
3,214 최샛별
3,215 최유진
3,216 최지원
3,217 한민영
3,218 현성진
3,219 이현아
3,220 신지훈
3,221 박소정
3,222 김재식
3,223 서선경
3,224 강은경
3,225 고수정
3,226 김동걸
3,227 김동규
3,228 김새별
3,229 김성현
3,230 김소희
3,231 김수구
3,232 김진희
3,233 문동주
3,234 박새롬
3,235 박성호
3,236 박성훈
3,237 박제우
3,238 설종우
3,239 성준용
3,240 손지원
3,241 손호찬
3,242 유대훈
3,243 윤길웅
3,244 이상명
3,245 이선영
3,246 이승민
3,247 이창규
3,248 임가영
3,249 장동제
3,250 주현정
3,251 진주현
3,252 최규명
3,253 최지윤
3,254 최지은
3,255 한슬기
3,256 황유성
3,257 곽수영
3,258 이나경
3,259 김준화
3,260 박성현
3,261 안다혜
3,262 김경민
3,263 김동규
3,264 김보교
3,265 김소정
3,266 김찬호
3,267 김태연
3,268 김화경
3,269 박강훈
3,270 박재현
3,271 박준수
3,272 박형욱
3,273 방지은
3,274 서혜민
3,275 신용현
3,276 안채은
3,277 양대웅
3,278 이기혁
3,279 이세현
3,280 이영섭
3,281 이지향
3,282 이지현
3,283 이헌수
3,284 이희승
3,285 정원정
3,286 정혜민
3,287 조민영
3,288 최아영
3,289 최지원
3,290 최해진
3,291 황태훈
3,292 한성재
3,293 김유진
3,294 정영석
3,295 김진영
3,296 최정훈
3,297 이승윤

3,298 홍유진
3,299 김수빈
3,300 김슬기
3,301 김은혜
3,302 김재서
3,303 나규빈
3,304 도찬수
3,305 박결이
3,306 박정우
3,307 박지호
3,308 박채린
3,309 배유정
3,310 백하은
3,311 송경인
3,312 신우람
3,313 심은주
3,314 심지용
3,315 오민규
3,316 오성환
3,317 오세원
3,318 이수정
3,319 이종현
3,320 김주혜
3,321 이지혜
3,322 윤수영
3,323 윤주민
3,324 정성환
3,325 정재익
3,326 정효영
3,327 조원호
3,328 천상현
3,329 최은영
3,330 최지은
3,331 한재경
3,332 정혜진
3,333 황태호
3,334 김지원
3,335 김수진
3,336 박서형
3,337 강건우
3,338 강주희
3,339 권보민
3,340 김병현
3,341 김보강
3,342 김연주
3,343 김욱휘
3,344 김윤주
3,345 김재협
3,346 김지현
3,347 김태완
3,348 김태희
3,349 김형민
3,350 김희진
3,351 노길영
3,352 박민지
3,353 박성복
3,354 박성우
3,355 박이정
3,356 백종엽
3,357 변원진
3,358 신명진
3,359 안성혁
3,360 안 준
3,361 유무언
3,362 윤지은
3,363 이연비
3,364 이주성
3,365 정규용
3,366 정지혁
3,367 조은정
3,368 조은혜
3,369 주성빈
3,370 김연희
3,371 문으뜸
3,372 임수지
3,373 황보미

제33회(복교 2회) 졸업생(2006)

남 123명, 여 93명, 계 2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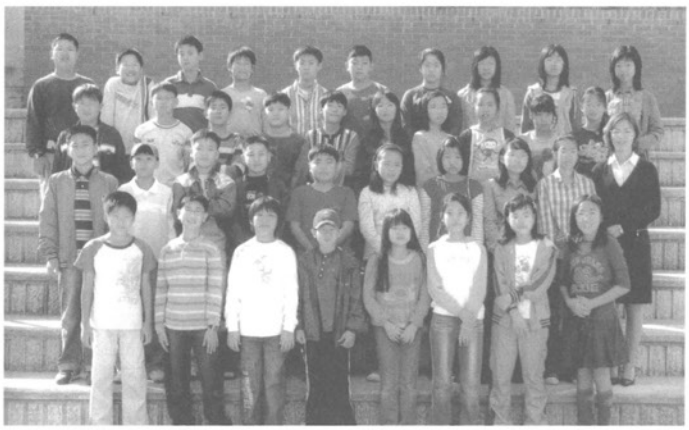
33회 1반



33회 2반



33회 3반



33회 4반



33회 5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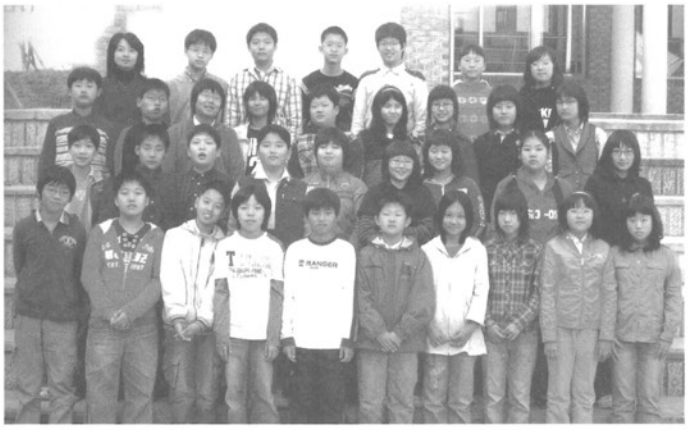
제33회(복교 2회) 졸업생(2006)

3,374 강례윤
3,375 고해미
3,376 권영일
3,377 김구호
3,378 김련서
3,379 김보미
3,380 김선애
3,381 김아름
3,382 김정복
3,383 김종헌
3,384 김택균
3,385 노다은
3,386 노희원
3,387 류희정
3,388 박동희
3,389 박민서
3,390 변재성
3,391 성치운
3,392 안주형
3,393 이금영
3,394 이민형
3,395 이재훈
3,396 이주원
3,397 이지영
3,398 이진관
3,399 이현수
3,400 장형욱
3,401 전세현
3,402 조정문
3,403 지준혁
3,404 최성렬
3,405 최지원
3,406 현성현
3,407 홍지수
3,408 황순환
3,409 오세준
3,410 최유진
3,411 고상혁
3,412 고현우
3,413 김근배
3,414 김다솜
3,415 김동영
3,416 김률희
3,417 김민석
3,418 김민혁
3,419 김예은
3,420 김혜란
3,421 박언영
3,422 박유한
3,423 박진현
3,424 박혁모
3,425 신정환
3,426 심종성
3,427 안효정
3,428 이경미
3,429 이도영
3,430 이시훈
3,431 이온유
3,432 이용철
3,433 이찬영
3,434 임유빈
3,435 장종민
3,436 정광미
3,437 전선혜
3,438 정광호
3,439 정희원
3,440 조현주
3,441 차보현
3,442 천지운
3,443 최동훈
3,444 최수진
3,445 최영광
3,446 한상혁
3,447 강지원
3,448 구한솔
3,449 권미래
3,450 김다은
3,451 김수민
3,452 김은우
3,453 김혜인
3,454 박경혜
3,455 박민욱
3,456 박유빈
3,457 박진호
3,458 박초희
3,459 박희성
3,460 서덕민
3,461 성바름
3,462 신민영
3,463 윤상기
3,464 이동기
3,465 이우진
3,466 이유진
3,467 이준표
3,468 이지윤
3,469 이효진
3,470 장정환
3,471 전재형
3,472 정은교
3,473 주예솔
3,474 최성우
3,475 최승훈
3,476 최진혁
3,477 최희원
3,478 하병우
3,479 허민아
3,480 허수현
3,481 황기현
3,482 임종욱
3,483 조아라
3,484 강승묵
3,485 강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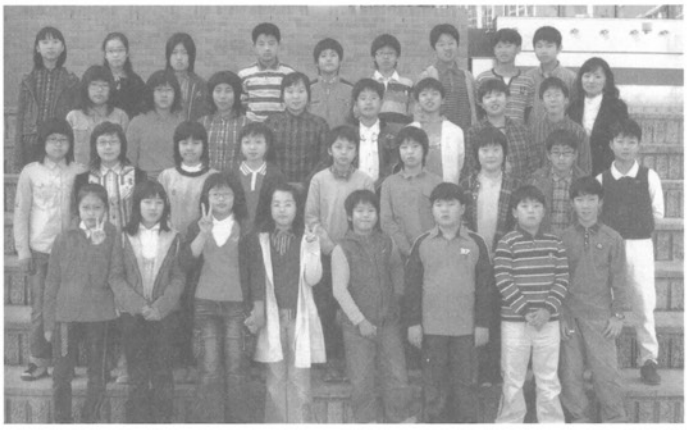
3,486 고연지
3,487 권용호
3,488 김경민
3,489 김다정
3,490 김동환
3,491 김영현
3,492 김원모
3,493 김유진
3,494 김은별
3,495 김형진
3,496 김혜진
3,497 박성욱
3,498 박욱현
3,499 박지성
3,500 신예빈
3,501 안재성
3,502 윤보람
3,503 이수경
3,504 장현수
3,505 전슬기
3,506 전유진
3,507 전재우
3,508 정민성
3,509 조인영
3,510 조재욱
3,511 조형원
3,512 차영준
3,513 최성훈
3,514 허지은
3,515 황지민
3,516 김지원
3,517 백인재
3,518 박상현
3,519 안다빈
3,520 강경원
3,521 강정우
3,522 강혜인
3,523 권구건
3,524 김경수
3,525 김선정
3,526 김소현
3,527 김원희
3,528 김재만
3,529 김정현
3,530 김지홍
3,531 도영서
3,532 박민경
3,533 박지우
3,534 박태림
3,535 송민철
3,536 신한솔
3,537 양은철
3,538 오동훈
3,539 윤형호
3,540 정명석
3,541 정상현
3,542 정예슬
3,543 정지연
3,544 정혜민
3,545 진은기
3,546 최지원
3,547 최현섭
3,548 하수민
3,549 허성봉
3,550 황민경
3,551 황보라
3,552 최 건
3,553 김해인
3,554 김상랑
3,555 강연진
3,556 강재원
3,557 곽동훈
3,558 김대진
3,559 김도욱
3,560 김보석
3,561 김소연
3,562 김소영
3,563 김우진
3,564 김채린
3,565 박성은
3,566 박은영
3,567 박정황
3,568 박지민
3,569 배수한
3,570 서보민
3,571 신종성
3,572 안치현
3,573 안혜정
3,574 이기연
3,575 이동환
3,576 이송화
3,577 이수진
3,578 이승호
3,579 이시은
3,580 이효원
3,581 임동희
3,582 임제확
3,583 장예진
3,584 전재현
3,585 정재만
3,586 조성준
3,587 지창환
3,588 진송현
3,589 여은정

제34회(복교 3회) 졸업생(2007)

남 121명, 여 89명, 계 2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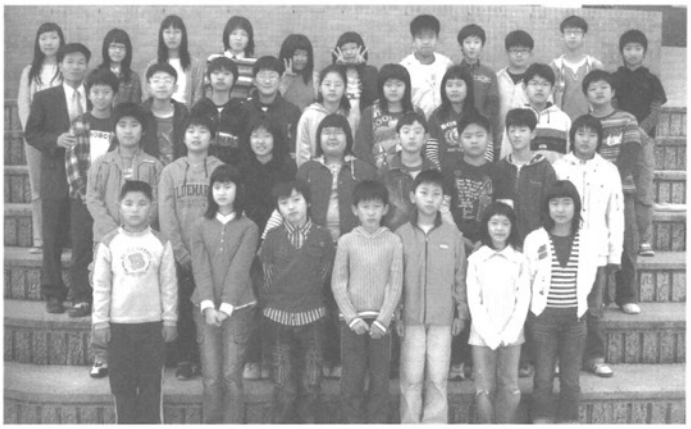
34회 1반



34회 2반



34회 3반



34회 4반



34회 5반



34회 6반

제34회(복교 3회) 졸업생(2007)

3,590 강판석
3,591 구병찬
3,592 권현희
3,593 김규탁
3,594 김남현
3,595 김수민
3,596 김수현
3,597 김재현
3,598 김창희
3,599 문다희
3,600 박도연
3,601 방대원
3,602 배광열
3,603 배혜진
3,604 신민영
3,605 신솔비
3,606 양지형
3,607 오세영
3,608 유민영
3,609 이가람
3,610 이다설
3,611 이도현
3,612 이상윤
3,613 이윤형
3,614 전소현
3,615 전태성
3,616 정수진
3,617 조준우
3,618 최승원
3,619 최영호
3,620 최정애
3,621 하진우
3,622 함동현
3,623 허희은
3,624 황성욱
3,625 강우진
3,626 김광선
3,627 김기덕
3,628 김대업
3,629 김송부
3,630 김상록
3,631 김영준
3,632 김영지
3,633 김유나
3,634 김진희
3,635 김택수
3,636 문고운
3,637 박상영
3,638 박시형
3,639 박재민
3,640 박재현
3,641 서지영
3,642 양유진
3,643 어용훈
3,644 윤 진
3,645 윤다솜
3,646 이명우
3,647 이재익
3,648 이주혁
3,649 이혜빈
3,650 정종영
3,651 정희수
3,652 최명지
3,653 최영민
3,654 최원령
3,655 한은정
3,656 홍현진
3,657 황지원
3,658 한재우
3,659 방인정
3,660 김민경
3,661 김민석
3,662 김민지
3,663 김수진
3,664 김지민
3,665 김창민
3,666 김태희
3,667 박성률
3,668 박승모
3,669 박예솔
3,670 박종민
3,671 박현민
3,672 배준형
3,673 손한솔
3,674 송성현
3,675 신예림
3,676 안 건
3,677 여태구
3,678 이동렬
3,679 이성훈
3,680 이연경
3,681 이영규
3,682 이주열
3,683 이진일
3,684 장준영
3,685 장지호
3,686 정민경
3,687 조남훈
3,688 조신영
3,689 최상규
3,690 최은지
3,691 한유림
3,692 정혜정
3,693 이건영
3,694 강혜림
3,695 김기록
3,696 김성환
3,697 김은지
3,698 김재헌
3,699 김종원
3,700 김지홍
3,701 김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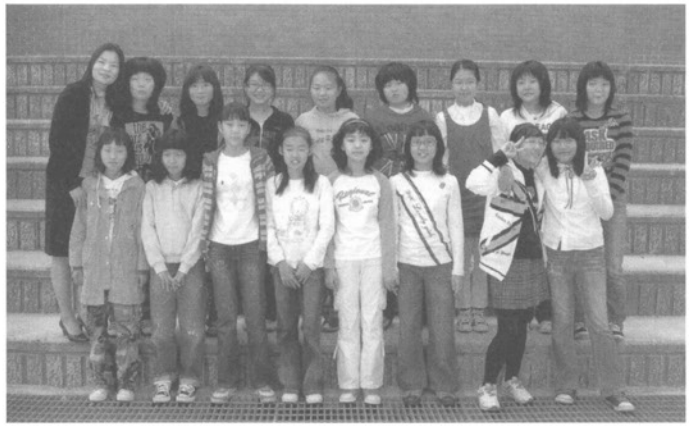
3,702 김하영
3,703 김현준
3,704 김홍식
3,705 박수지
3,706 박예림
3,707 박종일
3,708 박진수
3,709 박현주
3,710 박호영
3,711 배경진
3,712 배진현
3,713 유진영
3,714 윤기현
3,715 윤창윤
3,716 윤혜지
3,717 이지선
3,718 이형섭
3,719 정다운
3,720 정준문
3,721 천영현
3,722 최다은
3,723 최성은
3,724 최연승
3,725 최치원
3,726 허종도
3,727 현성천
3,728 황명호
3,729 고광민
3,730 김경원
3,731 김다슬
3,732 김동훈
3,733 김민영
3,734 김보연
3,735 김세협
3,736 김소연
3,737 김하선
3,738 김현경
3,739 김현찬
3,740 박근태
3,741 박성은
3,742 박형태
3,743 백지환
3,744 서진혁
3,745 송윤성
3,746 심선화
3,747 오정하
3,748 오준석
3,749 유지원
3,750 윤수현
3,751 이기문
3,752 이명진
3,753 이민호
3,754 이수영
3,755 장태주
3,756 장호정
3,757 최정철
3,758 허성필
3,759 황보은
3,760 황승주
3,761 황용석
3,762 박민경
3,763 강혜은
3,764 곽수진
3,765 김명환
3,766 김소현
3,767 김수향
3,768 김영준
3,769 김재훈
3,770 김태영
3,771 김홍식
3,772 문상준
3,773 박미란
3,774 박성규
3,775 박세찬
3,776 박솔아
3,777 박채연
3,778 배다영
3,779 배병수
3,780 변유정
3,781 신윤정
3,782 윤민주
3,783 윤성보
3,784 윤준성
3,785 이도형
3,786 이유빈
3,787 이정규
3,788 이지혜
3,789 전성훈
3,790 정수지
3,791 정승윤
3,792 조이래
3,793 진경서
3,794 최기현
3,795 하영빈
3,796 한화나
3,797 황지은
3,798 두지영

제35회(복교 4회) 졸업생(2008)

남 109명, 여 98명, 계 207명



35회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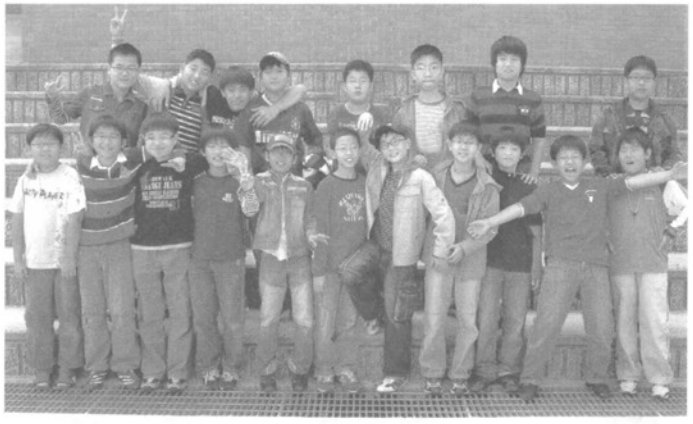
35회 1반



35회 2반



35회 2반



35회 3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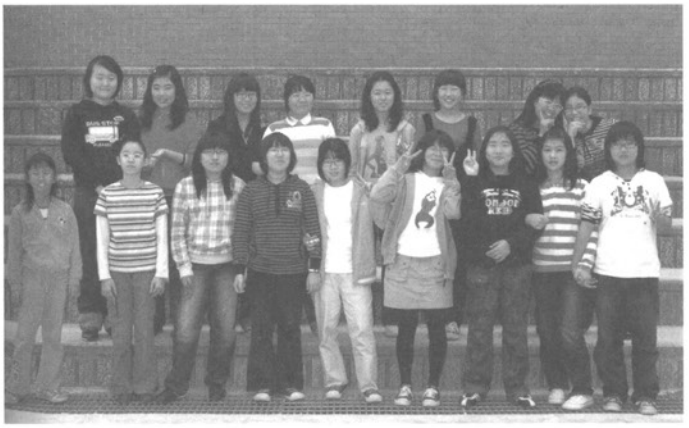


35회 3반

제35회(복교 4회) 졸업생(2008)



35회 4반



35회 4반



35회 5반



35회 5반



35회 6반



35회 6반

제35회(복교 4회) 졸업생(2008)

3,799 강진경
3,800 고은빈
3,801 김미애
3,802 김백현
3,803 김병준
3,804 김준휘
3,805 김하늘
3,806 김하림
3,807 김해리
3,808 김현정
3,809 김혜원
3,810 박세형
3,811 박혜진
3,812 서경환
3,813 손하영
3,814 신상준
3,815 윤지현
3,816 이선주
3,817 이채은
3,818 이채훈
3,819 이현우
3,820 전상룡
3,821 정영섭
3,822 정우정
3,823 정희택
3,824 조은지
3,825 차예람
3,826 최규환
3,827 최준혁
3,828 하수호
3,829 허석봉
3,830 현성호
3,831 황인혁
3,832 황희관
3,833 조창범
3,834 강구형
3,835 고수민
3,836 김나경
3,837 김명섭
3,838 김민정
3,839 김선아
3,840 김성겸
3,841 김태한
3,842 김혁재
3,843 김현경
3,844 박광준
3,845 박진형
3,846 안성국
3,847 양현준
3,848 양희주
3,849 윤성현
3,850 이규홍
3,851 이보경
3,852 이혜진
3,853 이화정
3,854 정지은
3,855 조현경
3,856 주정인
3,857 최병찬
3,858 최수연
3,859 최 훈
3,860 하지헌
3,861 한재성
3,862 황제혁
3,863 허수은
3,864 엄건희
3,865 박상현
3,866 강재관
3,867 김광현
3,868 김기호
3,869 김기홍
3,870 김병엽
3,871 김보현
3,872 김예림
3,873 김지원
3,874 김채연
3,875 김철한
3,876 김혜란
3,877 나대엽
3,878 류문성
3,879 문신혜
3,880 박경민
3,881 박성훈
3,882 심규열
3,883 엄성욱
3,884 이주미
3,885 이주희
3,886 이창훈
3,887 임성훈
3,888 장유리
3,889 정다혜
3,890 정진용
3,891 조나빈
3,892 주현정
3,893 최보현
3,894 최소희
3,895 최은채
3,896 한은지
3,897 허정호
3,898 홍명기
3,899 황보성호
3,900 황주식
3,901 황지은
3,902 강규임
3,903 강동훈
3,904 권성은
3,905 권용현
3,906 김경남
3,907 김경민
3,908 김대웅
3,909 김도훈
3,910 김동현

3,911 김성래
3,912 김시윤
3,913 김영훈
3,914 김은진
3,915 김자은
3,916 김재현
3,917 김채령
3,918 김태욱
3,919 김환이
3,920 남언영
3,921 도경태
3,922 박경옥
3,923 박상언
3,924 박현진
3,925 배진수
3,926 서주희
3,927 안수빈
3,928 이상화
3,929 이진이
3,930 장준영
3,931 정지인
3,932 지윤한
3,933 천준홍
3,934 최성훈
3,935 한영규
3,936 허희지
3,937 강지윤
3,938 고소영
3,939 고진국
3,940 구병우
3,941 김광재
3,942 김나현
3,943 김다현
3,944 김승상
3,945 김승연
3,946 김유정
3,947 김태경
3,948 김태원
3,949 김현민
3,950 김현지
3,951 남혜진
3,952 박주영
3,953 손민근
3,954 안장현
3,955 안지연
3,956 오혜영
3,957 오은주
3,958 윤다영
3,959 이경열
3,960 이승은
3,961 장성훈
3,962 장지혜
3,963 전영대
3,964 정유라
3,965 정인성
3,966 조은영
3,967 진연종
3,968 최시영
3,969 하지수
3,970 박예원
3,971 고대희
3,972 고용민
3,973 고현성
3,974 김난희
3,975 김영훈
3,976 김예나
3,977 김재하
3,978 김지현
3,979 김혜수
3,980 문석주
3,981 박규현
3,982 박나영
3,983 박선영
3,984 박성인
3,985 박종민
3,986 박준형
3,987 백예린
3,988 안도형
3,989 안현기
3,990 윤강은
3,991 이동형
3,992 이명현
3,993 이선주
3,994 이승필
3,995 이승하
3,996 이유미
3,997 이채준
3,998 임주희
3,999 장정욱
4,000 장지훈
4,001 정유라
4,002 최정안
4,003 하우석
4,004 황덕기
4,005 황성용

제36회(복교 5회) 졸업생(2009)

남 98명, 여 90명, 계 188명



36회 1반



36회 2반



36회 3반



36회 4반



36회 5반



36회 6반

제36회(복교 5회) 졸업생(2009)

4,006 강명동
4,007 강재현
4,008 곽동욱
4,009 권은지
4,010 김광민
4,011 김도경
4,012 김정민
4,013 김하영
4,014 김해인
4,015 박수이
4,016 박진영
4,017 박혜은
4,018 서도혁
4,019 서설희
4,020 성치현
4,021 손대호
4,022 손수철
4,023 송진희
4,024 우혜빈
4,025 유완실
4,026 윤진렬
4,027 이상헌
4,028 이세원
4,029 이승진
4,030 장현수
4,031 전광혁
4,032 전은경
4,033 정순우
4,034 정예영
4,035 정은선
4,036 정혜진
4,037 조민기
4,038 권솔이
4,039 김규보
4,040 김민세
4,041 김새봄
4,042 김영은
4,043 김치연
4,044 김하영
4,045 김현수
4,046 도우창
4,047 문관덕
4,048 문유진
4,049 박재균
4,050 백다인
4,051 서민성
4,052 손중곤
4,053 송준희
4,054 신영욱
4,055 신용수
4,056 엄재덕
4,057 윤태영
4,058 이소현
4,059 이수희
4,060 장유진
4,061 전하늘
4,062 정소헌
4,063 조성훈
4,064 조아현
4,065 최연수
4,066 최주영
4,067 최혜지
4,068 허준혁
4,069 김수연
4,070 감동현
4,071 김가연
4,072 김다희
4,073 김민수
4,074 김선빈
4,075 김세원
4,076 김원태
4,077 김유빈
4,078 김유정
4,079 김지훈
4,080 김현진
4,081 김혜영
4,082 김혜지
4,083 박선정
4,084 박태훈
4,085 선우석
4,086 송민욱
4,087 신효재
4,088 심정빈
4,089 안재우
4,090 양소현
4,091 이정주
4,092 이주형
4,093 이현지
4,094 임진섭
4,095 장예지
4,096 전시현
4,097 전제근
4,098 최연우
4,099 권영주
4,100 최민욱
4,101 이주현
4,102 김건서
4,103 김민영
4,104 김유빈
4,105 김유진
4,106 김윤식
4,107 김재휘
4,108 김중인
4,109 김지현
4,110 김채령
4,111 김형동
4,112 노동희
4,113 류승연
4,114 박철현
4,115 배혜진
4,116 손예림
4,117 송지원

4,118 신예진
4,119 원대한
4,120 이동현
4,121 이세령
4,122 이인호
4,123 이주현
4,124 이주희
4,125 이창현
4,126 임현진
4,127 전연홍
4,128 전지현
4,129 정주환
4,130 최치영
4,131 한승수
4,132 박형철
4,133 강진선
4,134 김건희
4,135 감두현
4,136 김민지
4,137 김예진
4,138 김웅희
4,139 김윤재
4,140 김주형
4,141 김지인
4,142 김현민
4,143 민수지
4,144 박준영
4,145 배승재
4,146 안유정
4,147 안진현
4,148 안현진
4,149 오준환
4,150 유성오
4,151 윤애경
4,152 이관호
4,153 이솔아
4,154 이수교
4,155 이승원
4,156 이윤정
4,157 전유진
4,158 정다솔
4,159 조민호
4,160 최보윤
4,161 한재승
4,162 허진성
4,163 황지은
4,164 강라윤
4,165 강신욱
4,166 강채현
4,167 김도영
4,168 김병수
4,169 김보현
4,170 김상훈
4,171 김소윤
4,172 김아영
4,173 김영환
4,174 김정록
4,175 김지인
4,176 류영진
4,177 문기용
4,178 박호진
4,179 서동민
4,180 서명현
4,181 유희정
4,182 윤지훈
4,183 이가영
4,184 이나현
4,185 이민화
4,186 이원용
4,187 임지환
4,188 장소영
4,189 정설린
4,190 조광훈
4,191 하병희
4,192 김명준
4,193 임다은

제37회(복교 6회) 졸업생(2010)

남 87명, 여 98명, 계 185명



37회 1반



37회 2반



37회 3반



37회 4반



37회 5반



37회 6반

제37회(복교 6회) 졸업생(2010)

4,194 강대훈
4,195 권수희
4,196 김다혜
4,197 김보경
4,198 김성재
4,199 김예찬
4,200 김재현
4,201 김지호
4,202 김효진
4,203 박민지
4,204 박지원
4,205 배진솔
4,206 배효진
4,207 송지수
4,208 송휘섭
4,209 심성훈
4,210 심세은
4,211 윤범렬
4,212 이경서
4,213 이지훈
4,214 이채영
4,215 이하영
4,216 이한빈
4,217 장희원
4,218 전은지
4,219 정홍민
4,220 최현정
4,221 홍성욱
4,222 황다영
4,223 최호경
4,224 강지수
4,225 김민지
4,226 김수진
4,227 김승모
4,228 김이슬
4,229 김정형
4,230 김현우
4,231 김혜정
4,232 남화영
4,233 두진석
4,234 박도준
4,235 박재홍
4,236 박주현
4,237 박준혁
4,238 손유민
4,239 손종길
4,240 오유진
4,241 유태우
4,242 이선주
4,243 이연수
4,244 이지헌
4,245 이태호
4,246 장병규
4,247 장인제
4,248 정민상
4,249 정성후
4,250 정은아
4,251 정지원
4,252 최예지
4,253 하승연
4,254 홍찬호
4,255 장준서
4,256 고승민
4,257 구자헌
4,258 권 휘
4,259 김경민
4,260 김양선
4,261 김정욱
4,262 김태균
4,263 김현영
4,264 김현지
4,265 박민재
4,266 박소영
4,267 박지연
4,268 박하영
4,269 백성욱
4,270 변유주
4,271 송민진
4,272 안병호
4,273 이선진
4,274 이연숙
4,275 이정민
4,276 이태영
4,277 이하원
4,278 이현정
4,279 이혜인
4,280 임재선
4,281 장호민
4,282 전강주
4,283 전수민
4,284 최민정
4,285 허수진
4,286 황예진
4,287 류윤성
4,288 강효은
4,289 고소영
4,290 고태동
4,291 권다연
4,292 김신영
4,293 김영곤
4,294 김용기
4,295 김재현
4,296 김현주
4,297 김혜림
4,298 김혜원
4,299 김효은
4,300 박범진
4,301 서도원
4,302 오진혁
4,303 윤신원
4,304 윤영민
4,305 이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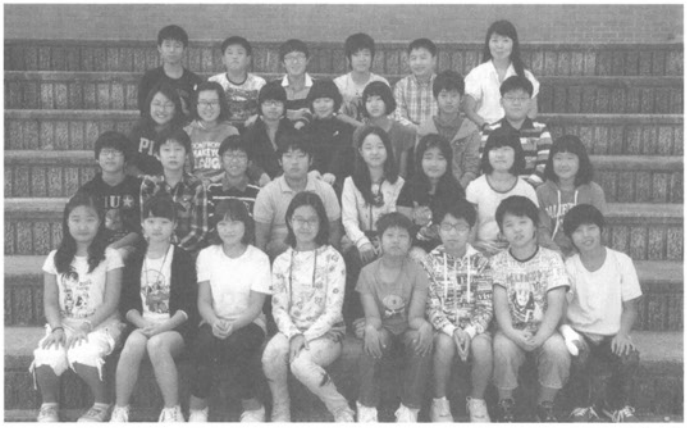
4,306 이언주
4,307 이유진
4,308 이인혜
4,309 이지선
4,310 이현주
4,311 정아영
4,312 정종원
4,313 조현진
4,314 표지원
4,315 하철윤
4,316 황성보
4,317 곽도훈
4,318 권소희
4,319 김민지
4,320 김연주
4,321 김창원
4,322 김창준
4,323 김채원
4,324 박진영
4,325 서나라
4,326 서장군
4,327 석지영
4,328 심나연
4,329 우수빈
4,330 유세옥
4,331 윤소현
4,332 이도겸
4,333 이도희
4,334 이세현
4,335 이유리
4,336 임혜용
4,337 장유진
4,338 조민상
4,339 조선빈
4,340 최지원
4,341 추상현
4,342 하연우
4,343 함동호
4,344 허강원
4,345 홍다희
4,346 조세현
4,347 이문주
4,348 강동원
4,349 구혜진
4,350 김민지
4,351 김범래
4,352 김신범
4,353 김예인
4,354 김준태
4,355 김지은
4,356 김태완
4,357 문혜성
4,358 박규남
4,359 박민성
4,360 박성림
4,361 박주은
4,362 박진실
4,363 박진한
4,364 서예림
4,365 심민준
4,366 심혜빈
4,367 안혜린
4,368 우석현
4,369 이도운
4,370 이륜경
4,371 이승재
4,372 이영경
4,373 이주희
4,374 정보람
4,375 정유진
4,376 정재윤
4,377 조현희
4,378 최민좌

제38회(복교 7회) 졸업생(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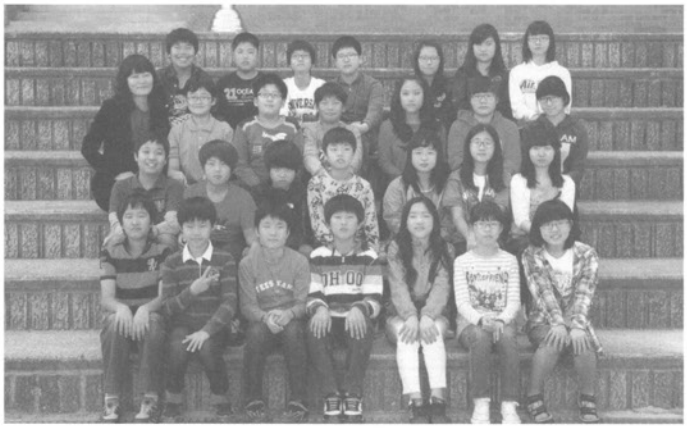
남 89명, 여 78명, 계 167명



38회 1반



38회 2반



38회 3반



38회 4반



38회 5반



38회 6반

제38회(복교 7회) 졸업생(2011)

4,379 김민준
4,380 김범승
4,381 김수성
4,382 김진헌
4,383 민창민
4,384 박성민
4,385 박현규
4,386 신주헌
4,387 안도영
4,388 이진협
4,389 이한웅
4,390 임승빈
4,391 조성범
4,392 최강연
4,393 김나영
4,394 김리은
4,395 김시은
4,396 김예빈
4,397 김예지
4,398 김기원
4,399 김진경
4,400 선현지
4,401 오 별
4,402 강은영
4,403 정재원
4,404 지서영
4,405 지서영
4,406 최수지
4,407 오지현
4,408 노주환
4,409 권근록
4,410 김민섭
4,411 김태윤
4,412 여운호
4,413 이동원
4,414 이승원
4,415 이재박
4,416 전선재
4,417 정수민
4,418 정인탁
4,419 정재희
4,420 정진욱
4,421 최보성
4,422 황지훈
4,423 권지연
4,424 김경현
4,425 김소정
4,426 김예진
4,427 김은혜
4,428 김지현
4,429 송미루
4,430 이나영
4,431 장세빈
4,432 전유란
4,433 정지숙
4,434 추재은
4,435 한예나
4,436 강기호
4,437 강태욱
4,438 김강민
4,439 김경훈
4,440 김규원
4,441 김나훈
4,442 김원진
4,443 남홍근
4,444 송영민
4,445 이윤제
4,446 이한경
4,447 임부근
4,448 전태현
4,449 최준호
4,450 허진혁
4,451 강민지
4,452 김정연
4,453 김지연
4,454 문혜란
4,455 박예지
4,456 박정아
4,457 안현빈
4,458 이원빈
4,459 이주원
4,460 이혜원
4,461 한희은
4,462 김효은
4,463 고승범
4,464 구재범
4,465 김규태
4,466 김동형
4,467 김민재
4,468 김태형
4,469 류민상
4,470 박진휘
4,471 양정원
4,472 오준식
4,473 이동규
4,474 이명주
4,475 이승엽
4,476 이지훈
4,477 이창현
4,478 권민선
4,479 김도윤
4,480 문세현
4,481 민현민
4,482 송유림
4,483 윤소영
4,484 윤수정
4,485 이나영
4,486 이수빈
4,487 이아현
4,488 정인선
4,489 정혜련
4,490 한유진

4,491 권병근
4,492 김대유
4,493 김성준
4,494 김세진
4,495 김조웅
4,496 이동호
4,497 이민우
4,498 이영록
4,499 이정호
4,500 전범준
4,501 채민근
4,502 최성민
4,503 한정훈
4,504 현승천
4,505 김성희
4,506 김세현
4,507 김윤경
4,508 문지원
4,509 박하민
4,510 서지이
4,511 성혜민
4,512 손예린
4,513 이가람
4,514 이서연
4,515 이정현
4,516 장서희
4,517 정하은
4,518 김민준
4,519 구재원
4,520 권동규
4,521 김경헌
4,522 김동주
4,523 김상우
4,524 김지원
4,525 류승준
4,526 윤준웅
4,527 이강현
4,528 이영훈
4,529 이지환
4,530 임동재
4,531 정현수
4,532 최우규
4,533 황태윤
4,534 강보윤
4,535 권윤정
4,536 김윤미
4,537 김정은
4,538 박예진
4,539 이서현
4,540 이지영
4,541 이희재
4,542 차지인
4,543 최고은
4,544 최혜지
4,545 하채원
4,546 하이영

제39회(복교 8회) 졸업생(2012)

남 97명, 여 80명, 계 177명



39회 1반



39회 2반



39회 3반



39회 4반



39회 5반



39회 6반

제39회(복교 8회) 졸업생(2012)

4,547 금보영
4,548 김경례
4,549 김고현
4,550 김동현
4,551 김영래
4,552 김진휘
4,553 박태영
4,554 여운용
4,555 원지운
4,556 윤신력
4,557 이대억
4,558 임재영
4,559 전민혁
4,560 조문성
4,561 주세훈
4,562 황인용
4,563 강채원
4,564 박수민
4,565 배현민
4,566 신화경
4,567 이다인
4,568 이지은
4,569 이채연
4,570 임자빈
4,571 전은수
4,572 정소영
4,573 최세은
4,574 최예진
4,575 최해기
4,576 김성민
4,577 고현재
4,578 김동진
4,579 김재영
4,580 김준형
4,581 김채윤
4,582 노규민
4,583 석지웅
4,584 손병찬
4,585 이여명
4,586 이채현
4,587 이화준
4,588 정다현
4,589 정진현
4,590 최현석
4,591 한세인
4,592 김지석
4,593 김성현
4,594 김지수
4,595 김지희
4,596 박민경
4,597 박수진
4,598 박지영
4,599 서효정
4,600 송서영
4,601 유지숙
4,602 이다인
4,603 이해인
4,604 최민주
4,605 하수빈
4,606 손유정
4,607 김대영
4,608 김성현
4,609 노주환
4,610 박민규
4,611 박형준
4,612 오현승
4,613 이성재
4,614 이승혁
4,615 이영기
4,616 이정호
4,617 정욱태
4,618 정주영
4,619 최성진
4,620 최성혁
4,621 황남기
4,622 강혜윤
4,623 김사빈
4,624 김영은
4,625 김영하
4,626 김유경
4,627 김희연
4,628 박혜진
4,629 서미나
4,630 송수빈
4,631 임현지
4,632 장수빈
4,633 정해림
4,634 최보경
4,635 임채림
4,636 김유림
4,637 고종혁
4,638 권오철
4,639 김성무
4,640 김은찬
4,641 김지원
4,642 김지훈
4,643 김혁진
4,644 신승현
4,645 신정호
4,646 양선모
4,647 윤민석
4,648 이동은
4,649 이창희
4,650 조승호
4,651 추정현
4,652 김예은
4,653 김채서
4,654 도경민
4,655 박민정
4,656 박소미
4,657 서혜지
4,658 엄지혜

4,659 이수빈
4,660 이지혜
4,661 이현경
4,662 이희진
4,663 임세윤
4,664 진은비
4,665 우지석
4,666 권용환
4,667 김동영
4,668 김동욱
4,669 김성완
4,670 김윤영
4,671 김현오
4,672 박현우
4,673 송동원
4,674 이동휘
4,675 이세범
4,676 장남웅
4,677 장재원
4,678 전광진
4,679 차현재
4,680 한명호
4,681 홍준호
4,682 강라원
4,683 심희은
4,684 이가희
4,685 이규리
4,686 이시영
4,687 이예원
4,688 이예주
4,689 이주미
4,690 임채은
4,691 전민주
4,692 정세령
4,693 정윤진
4,694 황지민
4,695 강규현
4,696 고한승
4,697 곽지훈
4,698 김상지
4,699 김성원
4,700 김원준
4,701 김진권
4,702 김호준
4,703 노유림
4,704 송윤섭
4,705 윤선준
4,706 이승호
4,707 이태오
4,708 장태현
4,709 차민규
4,710 김세령
4,711 김유진
4,712 김지은
4,713 김채은
4,714 김채희
4,715 김현정
4,716 박보현
4,717 박지수
4,718 배현주
4,719 서채빈
4,720 이하린
4,721 장서현
4,722 정세빈
4,723 김동욱

제40회(복교 9회) 졸업생(2013)

남 91명, 여 83명, 계 174명



40회 1반



40회 1반



40회 2반



40회 2반



40회 3반



40회 3반



40회 4반



40회 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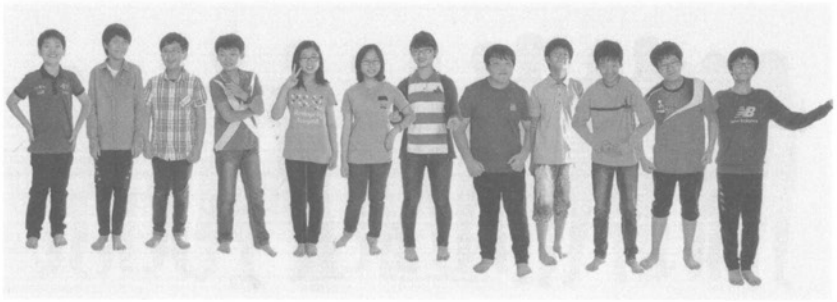
제40회(복교 9회) 졸업생(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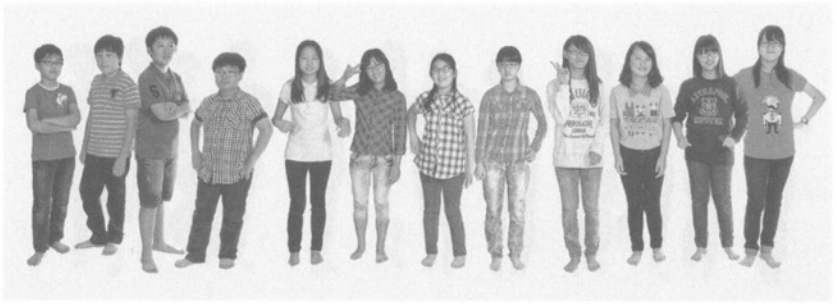
40회 5반



40회 5반



40회 6반



40회 6반



40회 7반



40회 7반

제40회(복교 9회) 졸업생(2013)

4,724 강대현
4,725 고현수
4,726 김규석
4,727 김민우
4,728 김민찬
4,729 박상완
4,730 박준규
4,731 유정훈
4,732 이석원
4,733 이원준
4,734 이주효
4,735 이태현
4,736 조성호
4,737 강규리
4,738 고가람
4,739 김수현
4,740 박정미
4,741 설 빈
4,742 손혜민
4,743 장유정
4,744 정은지
4,745 정지예
4,746 최지오
4,747 한서영
4,748 홍수민
4,749 김수빈
4,750 강지원
4,751 권도형
4,752 김동인
4,753 김두환
4,754 김선일
4,755 송경진
4,756 윤시현
4,757 이재강
4,758 장용환
4,759 최성현
4,760 최유성
4,761 한수민
4,762 김가은
4,763 박윤지
4,764 박정아
4,765 박호연
4,766 배혜민
4,767 신지희
4,768 우나영
4,769 이다교
4,770 이소영
4,771 장시영
4,772 조민령
4,773 최수진
4,774 김성은
4,775 김성훈
4,776 김영태
4,777 김태남
4,778 김호영
4,779 박기정
4,780 박준영
4,781 박진성
4,782 안태균
4,783 엄상언
4,784 이재호
4,785 이진혁
4,786 정태빈
4,787 최정운
4,788 고가은
4,789 김규리
4,790 김은윤
4,791 김현정
4,792 김도연
4,793 박윤아
4,794 반지우
4,795 송지민
4,796 오지윤
4,797 임유정
4,798 장하늘
4,799 지민건
4,800 곽도현
4,801 김도균
4,802 김동윤
4,803 김민성
4,804 김병수
4,805 김병지
4,806 김준세
4,807 김현욱
4,808 박현서
4,809 박현준
4,810 박호진
4,811 신동희
4,812 이동영
4,813 김예향
4,814 김현경
4,815 김혜림
4,816 박수연
4,817 배휘진
4,818 오하늘
4,819 우현빈
4,820 이진현
4,821 이채연
4,822 장유빈
4,823 채유진
4,824 최민경
4,825 강재훈
4,826 김민규
4,827 김민서
4,828 김성빈
4,829 김찬영
4,830 박민제
4,831 서민수
4,832 서인석
4,833 이태호
4,834 정재교
4,835 주호찬

4,836 하철민
4,837 홍지호
4,838 김가현
4,839 김다예
4,840 김예진
4,841 김정원
4,842 문설해
4,843 배정현
4,844 변은경
4,845 서해윤
4,846 이영민
4,847 장다연
4,848 정다진
4,849 하나현
4,850 권오운
4,851 김병국
4,852 김지훈
4,853 박민광
4,854 박민서
4,855 손예찬
4,856 이민혁
4,857 이진혁
4,858 정수환
4,859 주지호
4,860 최준하
4,861 허종휘
4,862 황진욱
4,863 강서윤
4,864 김주미
4,865 김지우
4,866 김현정
4,867 노유진
4,868 이수빈
4,869 이지영
4,870 정연신
4,871 정유진
4,872 조수연
4,873 한지은
4,874 김민서
4,875 김민수
4,876 김홍석
4,877 신성욱
4,878 윤준성
4,879 이권열
4,880 이석진
4,881 이세인
4,882 이준협
4,883 전수찬
4,884 최문기
4,885 하민우
4,886 황도연
4,887 강새흰
4,888 김윤영
4,889 김지현
4,890 남가민
4,891 성유빈
4,892 윤혜진
4,893 이다경
4,894 이은주
4,895 이주은
4,896 이현수
4,897 황현희



제3부

용연초등학교 육성회 활동

1. 옛 용연초등학교 육성회
2. 용연초등학교 역대 육성회장 명단과 재임 기간
3. 현 용연초등학교 역대 운영위원회 명단

1. 옛 용연초등학교 육성회

처음 용연초등학교를 지었을 때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많은 고생을 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화단 가꾸기, 운동장 배수로 만들기, 학교 담장에 나무 심기 등에 거의 노동자 수준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육성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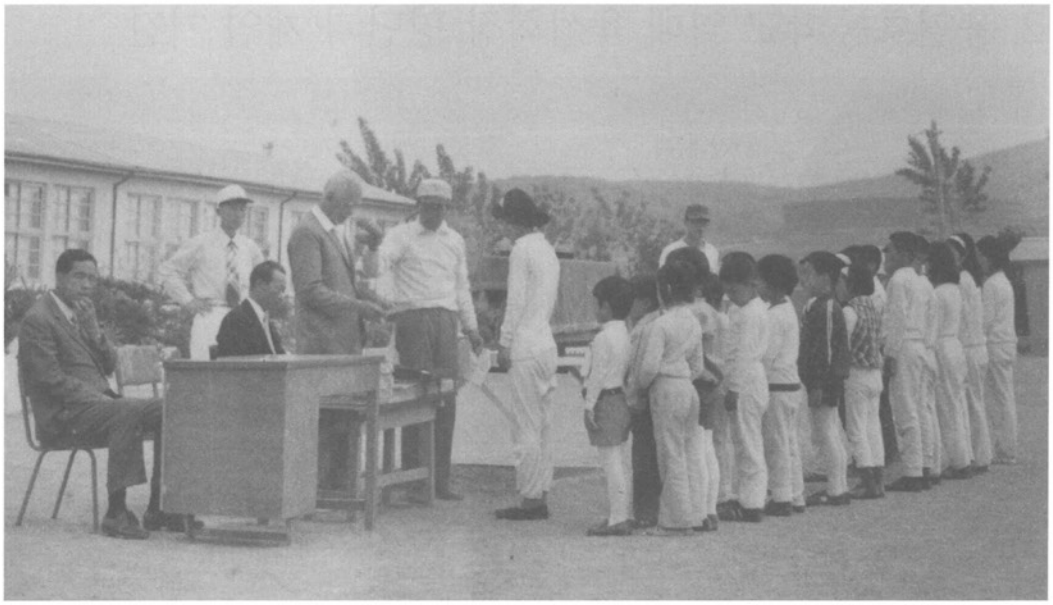
용연초등학교 제2대 이재만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육성회 초대, 제2대, 제3대 회장들과 이사들(검은 선 그라스를 쓰신 분이 용연초등학교 제2대 이재만 교장이고, 장구채를 들고 있는 분이 제4대 동창회장의 부친이고, 술병을 넘기고 있는 분이 신종철 선생님이다.).

한 해 춘추절에 꼭 인근 유원지를 찾아서 야유회를 가지면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육성회의 친목도모와 육성회 활동을 더했다. 그때면 가까운 세죽마을에 신라 처용설화의 본거지인 처용암을 경유하여 춘도공원을 노를 저어 오가면서 취기를 더해 징과 장구를 치며 봄놀이를 즐기고 정담을 나누었다. 그때 세죽에 바닷가를 돌아가며 자리했던 많은 붕장어 횟집의 명성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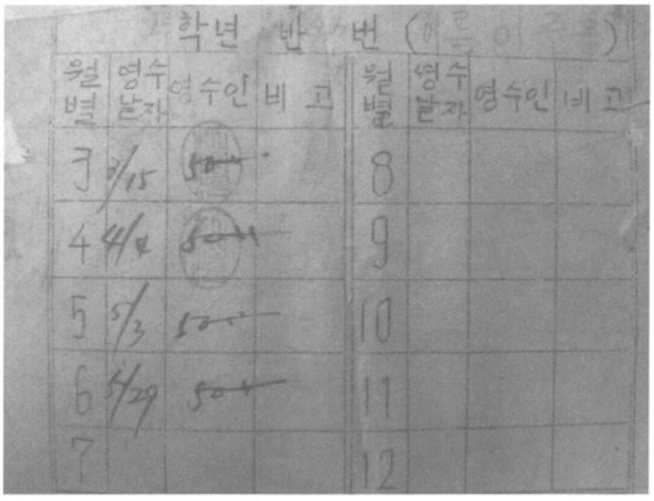
용연초등학교 제4대 황기상 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초대 육성회장 이대유 님, 제2대 김학수 님, 제3대 이말출 님

초대 육성회장(사진 : 두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의 성품과 인품으로는 감히 말할 것도 없고 늘 학교 행정의 대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올 때에는 머리가 하얗던 선비의 표본이셨고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 그리고 제2대 육성회장으로 계셨던 분이 김학수(사진 : 앞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는 동그란 뿔테 안경을 썼다. 그리고 제3대 육성회장이던 이말출(사진 :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다.



오른쪽부터 초대 박일호 교장 선생님과 이대유 초대 육성회장. 곁에 선 박상연 선생님과 제3대 육성회장

당시 학교 학생들의 육성회비 학생 당 200~300원이었다. 이말출 3대 육성회장은 역임 중에 황암동민들과 힘을 합해서 마을 앞 바닷가에 양질의 미역 인공 양식장을 마련했다. 그 수익금으로 용연 가리못에 잉어 치어 15,000 마리를 방사하여 재투자하였다.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의 육성회비와 선생들의 연구비로 충당하기도 해서 지방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학년 반 번 (
월별 영수 날자 영수인 비 고 월별 영수 날자 영수인 비 고
3 3/15 8
4 4/12 9
5 5/3 10
6 5/29 11
7 12

1968년 당시 육성회비 영수증

2. 용연초등학교 역대 육성회장 명단과 재임 기간

대 수	성 명	재임 기간	지역
초대	육성회장 **이대유**	1963년 2월~1967년 2월	용연
제2대	육성회장 **김학수**	1967년 3월~1969년 2월	용연
제3대	육성회장 **이말출**	1970년 3월~1977년 2월	황암
제4대	육성회장 **박해식**	1977년 3월~1979년 2월	세죽
제5대	육성회장 **박연모**	1979년 3월~1981년 2월	용연
제6대	체육진흥회장 **김순규**	1981년 3월~1984년 2월	세죽
제7대	체육진흥회장 **손현호**	1984년 3월~1987년 2월	세죽
제8대	체육진흥회장 **김소도**	1987년 3월~1991년 2월	황암
제9대	체육진흥회장 **정우영**	1991년 3월~1994년 2월	세죽
제10대	체육진흥회장 **고인기**	1994년 3월~1998년 2월	황암
복교 초대	학교운영위원장 **이수우**	2002년 3월~2006년 2월	황암
제2대	학교운영위원장 **김갑룡**	2006년 3월~현재	야음

3. 현 용연초등학교 역대 운영위원회 명단

1) 2004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이수우	위원장
	이평국	부위원장
	이필화	
	권순일	
지역위원	김갑룡	
	제환도	
교원위원	권두호	
	김종욱	
	조미경	

2) 2005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이수우	위원장
	강영숙	
	곽영삼	
	백문성	
	신남수	
	이효양	
지역위원	김갑룡	
	제환도	
	이평국	부위원장
교원위원	권두호	
	김종욱	
	조경욱	
	조미경	

3) 2006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이수우	위원장
	곽영삼	
	김명자	
	백문성	
	허원현	
	구미정	
지역위원	김갑룡	
	김명희	
	이평국	부위원장
교원위원	권두호	
	김종욱	
	김영숙	
	김진현	

4) 2007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백문성	
	허원현	
	곽영삼	
	김명자	
	백미나	
	이수우	위원장
지역위원	김갑룡	
	이평국	부위원장
	최성식	
교원위원	권두호	
	최인수	
	조경욱	
	김진현	

5) 2008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곽영삼	부위원장
	허원현	
	여지현	
	홍성옥	
	홍승희	
지역위원	김갑룡	위원장
	이평국	
교원위원	김옥명	
	최인수	
	조경욱	
	김진현	

6) 2009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곽영삼	부위원장
	남미영	
	안성희	
	여지현	
	허원현	
	홍성옥	
지역위원	김갑룡	위원장
	이정호	
교원위원	심외수	
	최인수	
	이영점	
	김경수	

7) 2010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허원현	
	김옥주	
	안성희	부위원장
	남미영	
	홍성옥	
	한명옥	
지역위원	김갑룡	위원장
	이정호	
교원위원	심외수	
	김정중	
	이영점	
	박경현	

8) 2011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허원현	
	김옥주	
	한명옥	
	남미영	부위원장
	김병학	
	박석원	
지역위원	김갑룡	위원장
	최무연	
교원위원	심외수	
	김정중	
	임미숙	
	박경현	

9) 2012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허원현	
	김병학	
	박석원	
	남미영	부위원장
	한명옥	
	조재형	
지역위원	김갑룡	위원장
	안은미	
교원위원	백판덕	
	김정중	
	임미숙	
	정의수	

10)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학부모위원	김소라	
	주성경	
	허원현	
	남미영	부위원장
	임현정	
	박석원	
지역위원	김갑용	위원장
	한명옥	
교원위원	백판덕	
	정남순	
	임미숙	
	정의수	



제4부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상 사례

1. 옛 용연초등학교 졸업생 수상 사례

2. 현 용연초등학교 수상 사례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8년)

3. 현 용연초등학교 현관에 진열된 상장과 상패

1. 옛 용연초등학교 졸업생 수상 사례

1) 봄편지 노래비 건립 기념 글짓기 대회

• 13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1981. 10. 9) 초등부

운문부 참방 : 6-1, 허애경(15회)

• 21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1989. 10. 9) 초등부

산문부 참방 : 4-2, 정수자(25회)
산문부 참방 : 6-1, 강메아리(23회)

2) 처용글짓기 대회

• 처용글짓기 대회(1986. 10. 26) 초등부

산문부 참방 : 6-1 장혜선(20회)
산문부 참방 : 6-3 이미나(20회)

• 처용글짓기 대회(1987. 11, 7) 초등부

운문부 참방 : 6-2 신호영(21회)

• 처용글짓기 대회(1988. 11. 7) 초등부

운문부 참방 : 5-2 이은미(23회)
운문부 참방 : 4-2 정지혜(24회)
산문부 참방 : 5-1 윤경숙(23회)
산문부 참방 : 5-2 강선아(23회)

• 처용글짓기 대회(1989. 11. 7) 초등부

운문부 차상 : 4학년 신철구(25회)
운문부 차하 : 4학년 김유미(25회)
산문부 참방 : 6학년 강메아리(23회)

• 처용글짓기 대회(1990. 11. 4) 초등부

운문부 차하 : 5-1 신철구(25회)
운문부 차하 : 6-2 이상성(24회)
운문부 참방 : 4-2 김효선(26회)
운문부 참방 : 6-1 김미현(24회)
운문부 참방 : 4-3 박진영(26회)
산문부 차하 : 5-2 박수향(25회)
산문부 참방 : 5-3 정수자(25회)

2. 현 용연초등학교 수상 사례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 **한문(초등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특선 : 4-2 김민석

- **제7회 회장기 초 · 중 · 고 학교 대항 육상 경기대회**

  200m 3위, 100m 3위 6-5 김재협

- **모범 학생 표창장**

  표창장 : 6-4 김재서

-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장려상 : 5-5 정예슬

- **환경사랑 어린이 대회**

  우수상 : 1-2 김범래
  장려상 : 1학년 고승민, 김인영, 김현주

- **제27회 현대어린이 미술대회**

  개나리상 : 1-2 김범래

•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 : 1-2 안지예, 2-1 김현석

• **2004 강남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과학 탐구실험 부문**

장려 : 6-1 최민우, 6-2 장동제, 6-3 최아영

• **2004 강남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로봇 부문**

은상 : 6-2 이창규

• **제3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학생발명대회**

구조물 만들기 : 동상 6-1 최민우, 6-2 이창규
색종이 접기 동상 : 6-1 정원석
발명 만화 그리기 : 은상 4-4 김지홍
생활도자기 만들기 동상 : 6-1 이정은, 5-5 정예슬

• **제7회 울산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생활과학 I 부문**

은상 : 5-1 김민경

• **SK 울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은상 : 5-1 서보민
동상 : 2-2 박다인
입선 : 1-1 김연주, 1-1 김현주, 1-1 박도준, 3-5 박광준, 1-2 김인영, 1-3 안병호,
1-3 이지선, 1-4 배효진, 4-2 배슬기, 4-4 윤효정

• **울산광역시 건치 아동선발 대회**

표창장 : 5-3 전유진, 5-5 이민형

• **제10회 울산고래축제 "점토로 고래 만들기 대회"**

특선 : 1-4 김승모, 1-4 박진영

• **건치 어린이 선발대회**

우수 : 5-5 이민형

• **제5회 전국 초등 수학 학력평가**

은상 : 5-1 장정환, 5-1 김형진, 3-4 최은채
동상 : 3-4 김재하, 6-1 김준환, 4-4 한유림, 5-1 김은별
장려상 : 3-1 박주영, 5-3 권용호, 2-2 송민욱

• **제1회 울산 환경 백일장 초등고학년**

장원 : 4-3 박태성

• **(장애인 먼저) 제6회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최우수상 : 3-4 고수민

• **2004 울산 산업박람회 그림 그리기**

입선 : 6-1 고여진, 6-2 최지윤

• **전국수학학력평가(NMC)**

금상 : 3-2 김형민

• **제5회 울산광역시 119동요 경연대회/한국화재 부산지구 보험협회장상**

3학년 어린이

• **제7회 강남 학생 자연관찰 탐구대회**

장려상 : 5-3 이유진, 5-4 조영미

• **제7회 울산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로봇과학 초등부**

장려상 : 6-2 이창규

• **제9회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장원 : 6-2 최지윤
으뜸상 : 6-4 이주혜, 6-4 김재서, 5-5 정예슬, 4-3 김지원, 4-1 최승호, 3-3 최병찬,
2-3 정예영, 1-1 박재홍

• **제5회 초등학생 영어 듣기대회**

장려상 : 6-4 나규빈

• **2004 서울 경제신문 학생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최고상 : 6-2 김소희

특상 : 5-4 김소현, 4-4 양지영, 4-1 강서경, 3-1 윤지현, 3-4 이혜진

• **금연포스터 그리기**

대상 : 5-2 최지원
장려상 : 5-1 최수진

• **제8회 강남교육청교육장기 육상 경기대회**

남초 6 100m·800m 3위 : 6-5 김재협

• **새마을문고 주최 제1회 독후감 경연대회**

최우수상 : 1-2 김현영

• **고래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 : 4-1 강서경, 4-3 고광민, 4-3 문다희, 1-2 김범래, 1-1 김현주, 6-1 고여진, 2-3 안유정, 6-2 최지윤, 1-1 임재선, 6-4 박결이, 1-1 김현우

• **제7회 울산광역시 수학 경시대회**

은상 : 1-3 이혜민

• **제1회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한자 경시대회**

은상 : 3-2 최규한, 5-2 최지원
장려상 : 4-2 김민석, 5-5 이우진, 5-5 이민형, 6-4 나규빈, 3-4 나대엽, 2-1 성치현

• **제38회 처용문화제 미술대회**

처용상 : 2-4 이윤정, 3-4 한은지, 6-4 박결이, 6-2 이선영, 4-3 고광민, 2-4 전연홍, 2-3 민수지
문수상 : 1-4 강정호, 1-2 고승민, 1-1 김현우, 1-1 김현수, 1-2 김범래, 1-1 이유진, 6-1 고여진, 6-5 박민지, 5-1 허지은, 2-1 최혜지, 2-3 정예영, 2-2 조민호, 4-3 문다희, 1-2 이경은, 1-3 김양선

• **전국 수학 학력 평가**

금상 : 3-2 김형민
은상 : 3-2 이주미
동상 : 3-4 박경민

• **한국일보 학생 미술대회**

우수상 : 1-4 김효은, 2-4 전유진

• **제1회 대한 수학 학력 평가**

금상 : 5-3 황지민

• **자연학습원 교육실습 소감 글짓기대회**

입선 : 5-1 조정문, 5-2 전슬기, 5-3 전유진, 5-4 김률희, 5-5 신예빈

• **모범 졸업대원 표창**

6-4 박결이, 6-4 김슬기

• **제11회 한국 수학 학력평가**

금상 : 3-2 김형민, 3-4 박경민, 5-3 황지민
은상 : 3-2 이주미, 4-1 이지혜, 4-2 배다영
동상 : 5-4 김혜진
장려 : 4-2 김기록

• **한국 걸스카우트 모범대원 표창**

6-5 : 황보미

• **제7회 리코더 경연대회 독주 부문**

은상 : 4-2 김영지, 4-2 김소연

• **기초 · 기본 생활습관 우수 학생 표창**

6-1 김소연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 **제12회 어린이 동화 구연대회**

별님상 : 1 김도윤, 이주원

• **강남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장려상 : 5 강서경, 6 하병우, 황지민, 최현섭, 김도욱

• **제15회 울산 경남은행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입상**

입선 : 1 전유란, 2 이유진, 김현영

• **울산시 건치 아동 선발대회 표창장**

5 배병수

• **제8회 학생정보 올림피아드**

동상 : 6 최수진

• **제5회 2005 전국 나의 주장 웅변대회**

동상 : 4 임성환

• **울산아동문학회 문화축제 산문부**

장려 : 4 김경민

• **전국수학학력평가**

은상 : 3 김자현

•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주최 학생 발명, 창의성 경진대회**

발명 만화 은상 : 6 김선정, 정예슬, 5 송연희
색종이접기 동상 : 5 박예솔

• **HME해법수학 학력평가**

금상 : 6 이재훈
은상 : 5 구병찬, 6 권구건
동상 : 6 임유빈

• **제8회 환경문학제 전국 백일장**

차상 1 이가람

• **제1회 쪽빛 태화강 가꾸기 그림대회**

입선 : 5 강혜림, 2 김현우, 2 고승민

• **제12회 한국 수학 학력평가**

금상 : 6 박민석, 6 황지민, 4 최규한, 4 김다현, 4 나대협, 3 김영은
은상 : 6 김보미, 6 지준혁, 6 서보민, 5 김수진, 4 이주미, 3 정예영, 2 김현
동상 : 6 김예은, 6 정희원, 6 정예슬, 5 김수민, 5 양유진, 4 김형민, 4 박경민, 4 김기호, 3 임현진, 3 전연홍, 2 김태준
장려상 : 5 김민지, 5 안 건, 5 김상옥

• **2005 건강 줄넘기 대회 긴줄 부문**

3등 : 5 박예솔 외 11명

• **제25회 비추미 그림축제 입상**

장려 : 1 김수성

• **제7회 울산 청소년 백일장 초등부 운문상**

장려 : 5 최연승

• **제8회 환경문학제 전국 학생백일장 운문부**

참방 : 1 최인혜

• **제7회 전국 초등수학 학력 평가대회**

금상 : 5 김은지
은상 : 3 송민욱, 3 한재승 4 김재하, 4 최은채, 4 정다혜
동상 : 3 백다인, 3 임현진, 3 김예진, 4 박신휘, 4 이채훈, 5 한은정, 6 장정환
장려상 : 4 박주영

• **제8회 울산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입상(로봇과학)**

장려상 : 6 최현섭

• **제9회 강남교육청 교육장기 육상대회**

높이뛰기 2위 : 김경수

• **제7회 초등학생 영어 듣기대회**

동상 : 6 강재원

• **제6회 통일 글쓰기 그림 그리기 대회**

통일상 : 1 이수빈

• **국제 수학 자격검정 시험 합격**

준11급 : 1 이동규, 1 문현지
10급 : 3 이주희

• **제10회 울산 새글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대회**

대상 : 6 정예슬
으뜸상 : 6 박태림, 5 이다설, 4 박나영, 3 정예영, 3 강명동, 2 이승재, 1 오수빈

• **제10회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운문부**

입선 : 6 천지운

• **제7회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그림**

입선 : 5 문상준

• **학업 우수생 발굴 장학금**

장학증서 : 6 김우진

• **울산시교육청 자율·특색사업 명예 규율 모범 표창장**

6 조성준

• **2005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입상 산문**

우수 : 6 최지원

• **제11회 고래축제 '점토로 고래 만들기' 대회**

장려상 : 2 김승모
특선 : 1 김예진

• **제1회 태화강 수영대회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은상 : 5윤수희, 2 김효진, 2 김현지, 2 이경은, 1 이유정, 1 김성준, 1 이가람, 1 윤수정, 1 민현민

• **2005보건소 주최 금연·절주 작품 공모전**

카툰 장려상 : 5 이수영

포스터 장려상 : 6 최지원
포스터 동상 : 5 강서경

• **제9회 초등어린이 그림 공모전 입상**

특선 : 4 이승하, 3 김아영, 3 정예영, 2 정재윤, 2 박진영, 2 권다연, 2 이승재, 1 강보아, 1 한정훈, 1 이수빈, 1 정수민
입선 : 1 윤수정, 1 허예담, 1 최우규, 1 고승범, 2 이태호, 2 홍다희, 2 최정환, 2 안지예, 4 이주미, 5 이재익, 5 최상규

• **전국 학생 세금 문예 작품 공모전**

우수상 : 4 김형민, 5 이수영, 5 신솔비, 6 김소영

• **2005 전기 전국 초· 중 영어· 수학 학력평가**

대상 : 5 김수민
금상 : 6 지준혁
은상 : 6 임종욱
동상 : 5 김수진, 4 김해리, 4 김다현

• **제13회 부산 동백 대상 학생 음악 콩쿠르**

특상 : 4 이채은
최고상 : 3 우혜빈, 3 김현희, 2 진 주, 1 하채원
2등상 : 3 김민지
3등상 : 4 김자은, 3 안유정, 2 배진솔, 2 정은아

• **새마을문고 야음2동분회 주관 '제2회 독후감 경진대회'**

최우수상 : 2 박진영
우수상 : 1 이주원
장려상 : 5 강우진
격려상 : 2 김효진, 5 신예림, 1 김상우

• **제22회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장려상 : 6 최수진

• **제1회 전국 음악 콩쿠르**

2등 : 3 허진성, 1 김시은
3등 : 3 이연주, 6 김소현, 6 최지원

• 제3회 회장배 에어로빅 대회

초등부 12인조 3위 : 김혜지 외 12명
초등부 6인조 장려상 : 김도훈 외 6명

• 제5회 영·호남 청소년 문화제 전국대회 웅변부문

금상 : 3 임지환
동상 : 4 임성환

• 2005 창의성 경진대회

노력상 : 2 이태호, 3 정순의, 4 이현우

• 초등 영어 자격검정 합격

1급 : 6 임유빈
2급 : 2 권다연, 4 조창범, 6 황민경
3급 : 3 김혜민, 4 최소희, 6 신민영, 조재욱

• 제2회 울산 초등학생 한자 경시대회

은상 : 4 최규한, 성치현, 6 최지원
동상 : 6 이민형
장려상 : 1 이윤제, 2 박준혁, 박성림, 5 김홍식, 김민석

• 2005 우리 고장 그림그리기 대회

장려상 1 : 김민지
입선 5 : 장준영, 6 강연진

• 제2회 울산 남구 사랑 백일장 대회

산문 장원 : 1 유다예
산문 우수 : 1 김다은
운문 장려 : 1 김다은

• 39회 처용문화제 사생 대회

처용상 : 3 김상윤
태화상 : 1 김지원, 박수현, 2 이정은
문수상 : 1 김현수, 2 변유주, 김현우, 정유진, 3 민수지, 이윤정, 4 이주희

• **제25회 국민 독서 경진 울산 남구 대회**

우수 : 2 송지수

• **제7회 독서활동 사례 종합발표 대회**

장려 : 4 김민정

• **제9회 울산시 교육감기 육상 경기대회**

2위 : 6 김경수

• **제3회 대한 수학 학력평가 입상**

금상 : 6 황지민, 김혜인
은상 : 5 김수향

• **제9회 라이온스 국제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 : 5 고광민, 6 정민성, 장종민

• **(주)디딤돌 넷스쿨 주최 '전국 수학 학력평가'**

금상 : 4 김형민, 남언영

• **(주)천재교육 공동 주최 HME해법수학 평가**

입상 : 1 박준우, 윤수정

• **6회 울산시 학원문화제 미술 사생 실기대회**

우수 : 2 김현주
은상 : 5 최정애
장려상 : 1 이수빈, 정재희, 2 홍다희

• **제13회 우체국 예금 · 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

입선 2 : 정지원, 조선빈, 박진영, 이하영, 장호민

• **제3회 울산 지방 OL대회**

장려 6 : 김남규, 박진호, 4 한영규, 조윤장

• **2005 울산 창작로봇 발명 경진대회**

대상 6 : 차영준

• **2005 컴퓨터 꿈나무 선정**

표장장 : 6 최수진

• **제8회 전국 초등수학 학력평가**

금상 : 3 성치현
은상 : 6 이동기

• **걸스카우트 활동 우수 모범 대원 표창**

6 신예빈, 이유진

• **기초 질서 우수 학생 표창**

6 강연진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8년)

• **제27회 국민 독서경진 울산남구대회 독후감 부문 초등부**

장려 : 5-5 서설희

• **바다 그리기 대회**

우수 : 2-4 김지은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상**

우수 : 6-6 백예린

• **울산광역시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남자 초등부 2군**

페더급 3위 : 6-1 허석봉

• **제2회 희망 나눔 사생대회**

장려상 : 3-4 현승철

입선 : 2-4 김지은, 3-5 임부근, 5-1 양소현

• **울산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과학완구)**

은상 : 4-3 함동호

• **제12회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으뜸상 : 2-3 김주현, 3-5 최수진, 4-2 박진한, 5-4 강라윤, 6-6 백예린

• **울산과학발명품경진대회(생활과학)**

동상 : 3-2 이동규

• **걸스카우트**

모범대원 : 6-1 박세현

• **항공과학 글라이더 초등부**

장려상 : 6-1 최규한

• **전자과학 초등부**

장려상 : 6-1 이현우

• **제13회 울산고래축제 나의 주장 웅변대회**

우등 : 5-6 임지환

• **제30회 전국 어린이 건강 글짓기 대회 산문**

동상 : 6-6 박나영

• **점토로 고래 만들기**

특선 : 3-5 박예진

• **태화강물축제 기념 제3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대상 : 2-2 김현정
특선 : 3-4 현승철
입선 : 1-2 박윤미

• **제9회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울산 예선**

동상(로봇서바이벌) : 3-4 조재훈

• **강남교육청 주최 과학실험 탐구대회**

장려상 : 6-4 이상화, 6-5 김유정

• **발명만화 그리기 대회**

은상 : 6-1 김현정

• **색종이 접기 대회**

은상 : 6-1 정우정

• **2007 강남 초등학생 영어 듣기 쓰기 대회**

동상 : 5-6 정예영
장려 : 6-3 나대엽

• **제1회 자연보호 미술대회**

입선 : 4-2 김효진

• **제19회 제헌절기념 전국 웅변대회**

우수 : 6-3 임성환

• **제4회 울산남구 독후감 쓰기 경진대회**

최우수 : 6-6 이승하
최우수 : 1-1 김다예
우수 : 5-5 서설희

• **2007 강남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은상 : 5-6 정예영

• **태화강 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

장려 : 3-5 정현수
입선 : 3-5 박예진

•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 어린이**

표창 : 6-3 김기홍

• **교통질서 학립 웅변대회**

금상 : 6-3 임성환

• **제4회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한자 경시대회 고학년부**

장려 : 6-4 천준홍, 6-1 최규한

• **제12회 울산 배축제 기념 울산보배 사생대회**

특선 : 3-4 윤소영

• **어른 공경, 스승 공경 작품 공모전**

최우수 : 5-5 전연홍

가작 : 5-1 김아영

3. 현 용연초등학교 현관에 진열된 상장과 상패

• **제4회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장배 학교별 어머니 배구대회 3위**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장 장섬창, 울산광역시 남구 배구연합회장 김정수

2004년 06월 11일

• **감사장, 대상:용연초등학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울산지부

2004년 11월 02일

• **남구보건소에서 주최한 2005년 건강 줄넘기 대회 3등(긴줄손 가위바위보 – 박예솔 외 11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채익

2005년 06월 25일

• **대통령기 제25회 국민 독서경진 울산남구대회**

새마을문고 울산남구지부 회장 강영자

2005년 11월 15일

• **새마을문고 울산남구지부가 주관하는 대통령기 제25회 국민독서경진 울산남구대회 독후감 부문 초등 단체부 장려**

새마을문고 울산남구지부 회장 강영자

2005년 11월 15일

• **표창 2006년도 학교 ICT 활용교육 종합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

울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서용범

2006년 12월 26일

• **표창장 2007년도 학교 ICT 활용교육 종합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

울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서용범(2007년 11월 22일)

• **1사 1교 자매결연 100%(217개 교) 달성 기념**

대한통운㈜ 울산지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상공회의소

2007년 12월 26일

•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및 초, 중학교 대항 육상 경기대회 겸 93)**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

2008년 04월 02일

• **제12회 강남교육청 교육장기 육상대회 3위(여초 6학년 400m 계주 기록 1'01'55)**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최성식

2008년 10월 22일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이 주최한 2008년 강남초등 겨루어보자, 수학한판 대회 우수상(단체상 2그룹 5학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최성식

2008년 11월 25일

• **울산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 분야 장려**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

2009년 12월 18일

•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2009년도 학교 평가 우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009년 12월 24일

-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진행하는 "제18회 지구촌 나눔 가족, 100원의 기적" 감사장**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장
2010년 05월 10일

- **제10회 울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준우승(농구 남초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2011년 10월 22일

- **제13회 울산광역시 연합회장배 배구대회 우승(교직원)**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배구연합회 회장 문웅교
2011년 12월 03일

- **표창장, 분야 : 자원 봉사, 학부모회명 : 용연초학부모회(마중물사랑봉사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2011년 12월 16일

- **제1회 울산교총회장배 교직원 배구대회 3위**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장
2012년 10월 06일

- **제11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여초부 3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
2013년 10월 03일

- **제11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여초부 3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
2013년 10월 05일

- **제11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종목 : 줄넘기(남초부) 우승**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
2013년 10월 05일

• **제11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종목 : 줄넘기(여초부) 공동 3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

2013년 10월 05일

• **2013년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 줄넘기(남초부) 준우승**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2013년 10월 12일



제5부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상 작품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7년)

〈차례〉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1) 새마을문고 주최 제1회 독후감 경연대회

• 김현영 1-2 (최우수)-호기심이 많았던 파브르 선생님
-파브르 곤충기를 읽고-

2) 제9회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 최지윤 6-2 (장원)-믿지 않은 언니
• 박재홍 1-1 (으뜸상)-종이비행기
• 정예영 2-3 (으뜸상)-인형놀이
• 최병찬 3-3 (으뜸상)-눈물
• 김지원 4-3 (으뜸상)-봄
• 최승호 4-1 (으뜸상)-시험
• 정예슬 5-5 (으뜸상)-우리 반은 이야기의 주인공
• 이주혜 6-4 (으뜸상)-비밀의 공간
• 김재서 6-4 (으뜸상)-시냇물

3) 「장애인 먼저」 제6회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시 부문)

• 고수민 3-4 (최우수)-휠체어

4) 제1회 울산환경백일장 수상작

• 박태성 4-3 (장원)-금붕어

5) 자연학습원 교육실습 소감 글짓기대회

• 조정문 5-1 (입선)-즐거운 현장체험 학습
• 전슬기 5-2 (입선)-고구마 캐는 날
• 전유진 5-3 (입선)-고구마를 캐러! Go Go
• 김률희 5-4 (입선)-고구마를 캐러 간 날
• 신예빈 5-5 (입선)-내 고구마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1) 제8회 환경문학제 전국백일장

- 이가람 1-1 (차상)-장난꾸러기 고래
- 최인혜 1-1 (참방)-내 마음 알까

2) 제10회 울산 새 글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대회

- 오수빈 1-1 (으뜸상)-우리 엄마
- 이승재 2-2 (으뜸상)-등산
- 강명동 3-4 (으뜸상)-정전
- 정예영 3-1 (으뜸상)-아무 것도 안 보여
- 박나영 4-1 (으뜸상)-어른이 된 것 같은 설레임
- 이다설 5-1 (으뜸상)- 새싹의 엄마
- 박태림 6-5 (으뜸상)-신라의 피리
- 정예슬 6-5 (대상)-바다 속 이야기

3)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운분부

- 천지운 6-2 (입선)-우리의 소원

4)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산문부

- 최지원 6-1 (우수상)-여자는 힘이 세다

5) 새마을문고 야음2동 분회 주관 '제2회 독후감 경진대회'

- 박진영 2-4 (최우수)-『친구와 싸웠어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떡해야죠?』
- 이주원 1-4 (우수상)-각시붕어가 이상해졌어요.'를 읽고...
- 김효진 2-4 (격려상)-『효자와 불효자』

6) 전국학생 세금 문예 작품 공모전

- 신솔비 5-2 (우수)-소중한 세금

7) 제13회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

- 이소영 2-4 (입선)- 우리 엄마는 구두쇠
- 이하영 2-4 (입선)-내 통장
- 장호민 2-4 (입선) 티끌 모아 태산
- 정지원 2-4 (입선)-내가 실천하는 절약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8년)

1) 제13회 울산고래축제 나의주장 웅변대회

- 임지환 5-6 (우등)-기적의 길

2) 제30회 전국어린이 건강 글짓기대회 산문부

- 박나영 6-6 (동상)-나의 비밀

3) 울산 남구 새마을회 독후감 쓰기대회

- 김다예 1-1 (최우수)-내 친구 짱짱이에게
  '동생 싸게 팔아요'를 읽고 나서

4) 새 글 글짓기 공모대회

- 김주현 2-3 (으뜸상)-구름
- 최수진 3-5 (으뜸상) 뻐꾸기 시계
- 박진한 4-2 (으뜸상)-내 동생
- 강라윤 5-4 (으뜸상)-은행나무
- 백예린 6-6 (으뜸상)-여름

5) 교통질서 확립 웅변대회

- 임성한 6-3 (금상)-월드컵의 함성

1. 용연 첫 번째 이야기(2005년)

1) 새마을문고 주최 제1회 독후감 경연대회

호기심이 많았던 파브르 선생님

-파브르 곤충기를 읽고-



김현영 1-2 (최우수)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책이 손에 잡혀야 한답니다. 방바닥에 널려 있는 책 중에서 파브르 곤충기는 읽고 또 읽어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노래기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멋진 사냥꾼 노래기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애벌레 종류도 많으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겠지?' 늘 생각했던 것인지 봐도 보아도 지겹지 않습니다. 파브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곤충학자 파브르 선생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곤충을 사랑하여 곤충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파브르 선생님이 지으신 파브르 곤충기는 총 2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곤충들의 생김새나 하는 일, 짝짓기, 알을 낳는 방법 등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궁금해 하던 것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어서 난 이 책이 참 소중합니다.

파브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쓰게 된 것은 호기심이 다른 친구들 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끝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도 파브르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제9회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밉지 않은 언니

최지윤 6-2 (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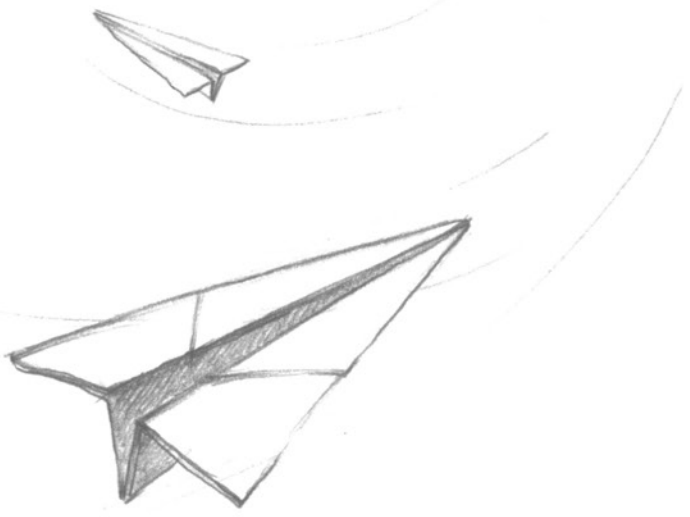
먹을 땐 맛있는 것 숟가락으로 싸우고
예쁜 옷 사달라고 엄마께 투정하며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네 살 차이 언니와 나
성적표 받아 올 때 누가 더 잘 나왔나
거울을 쳐다보며 서로 더 예쁘다고
만나면 티격거리는 밉지 않은 우리 언니



종이비행기

박재홍 1-1 (으뜸상)

한 번 두 번 접으면
오징어 비행기
손으로 꼭 꼭 접고 돌리면
로켓 비행기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요술쟁이 비행기
으라찻! 내 비행기 날아라
으라찻! 친구 비행기 날아라
요술쟁이 내 비행기
바람 타고 멀리 멀리 보이지도 않는다



인형놀이

정예영 2-3 (으뜸상)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고
심심한 시간
내 친구 미미와 아롱이가 같이 놀자고 한다.
나는 예쁜 선생님
나 닮은 미미는 착한 학생
언니 닮은 아롱이는 버릇없는 학생
자, 큰 목소리로 예쁘게 노래하는
미미는 합격
딴 짓하는 아롱이는 벌서기
이번 시간은 소꿉놀이 공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아기 머리도 빗기고 청소도 쓱싹쓱싹
아이구 허리야!
설거지도 하고 자기 방 청소도 잘하는 미미
컴퓨터만 하고 심부름만 시키는 아롱이
언니랑 나랑 꼭 닮았다.
티격태격! 쿵쾅쿵쾅! 하루 종일 시끄러운 집
미미랑 아롱이를 목욕시켜 엄마처럼 재운다.

눈물

최병찬 3-3 (으뜸상)

한 대 치고
싸움하다
눈물이 줄줄
그릇을 깨트려
어머니께 혼날까봐
눈물이 줄줄
내 잘못을
먼저 알고
눈물이 줄줄

봄

김지원 4–3 (으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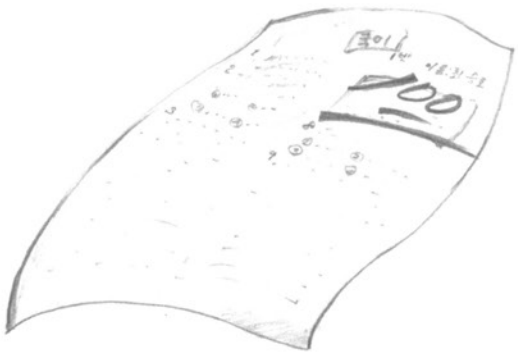
봄에는 봄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얼굴을 내민다.
나비가 새싹들을
부르는 건 아닐까?
봄에는 봄에는
예쁜 꽃들이 방실방실
얼굴을 내민다.
요정들이 예쁘게 옷을
입혀 주는 것은 아닐까?
봄에는 봄에는 따뜻한 햇살이
살며시 얼굴을 내민다.
여름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건 아닐까?
봄에는 봄에는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닌다.
봄 햇살이 좋은가 보다.



시험

최승호 4-1 (으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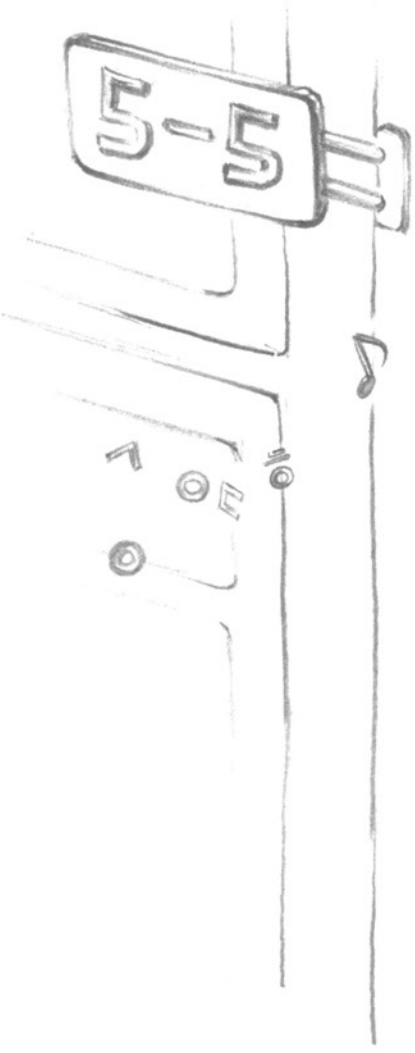
며칠 있으면 시험 친다.
야! 공부 좀 해라
시험이 뭔지?
시험은 난로인가?
왜 이리 더운 거야?
시험이 뭔지?
텔레비전, 컴퓨터게임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시험이 뭔지?
시험만 끝봐라
시금치 안 먹을 거다



우리 반은 이야기의 주인공

정예슬 5-5 (으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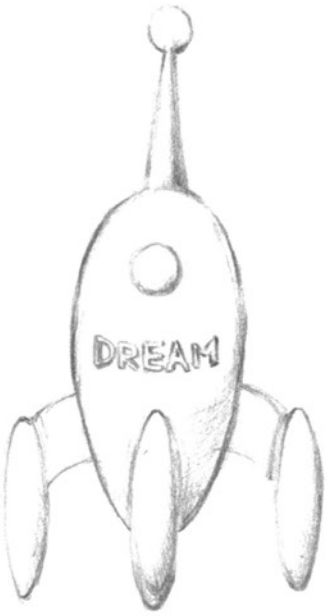
매일 매일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반 친구들은 이야기의 주인공
아침부터 이것저것 챙기고
시시콜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팥쥐 엄마 저리 가라 우리 선생님
내 것 손 대지마! 자린고비
하루 종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김삿갓
거울아 거울아 내가 제일 예쁘지? 나 홀로 공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물렀거라! 천하장사
하루 종일 시끌벅적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
사고뭉치들의 아우성에 우리 반이
터져 나간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 질까?
옆 반 피구 공을 온 몸으로 막아주는
의리의 사나이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슬퍼해 주며
미운 정 고운 정 추억들이 쌓여간다.



비밀의 공간

이주혜 6-4 (으뜸상)

엄마의 잔소리
바쁜 학원 시간
날 지치게 할 때
잠시 동안의 행복
정말 달콤해
잠깐의 그 시간 속에서
난 어느덧 우주에
난 어느덧 꽃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이 공간에서
난 편안한 시간을 가져,
아무도 올 수 없는 비밀의 공간
그곳은 바로 낮잠이야



시냇물

김재서 6-4 (으뜸상)

맑은 노랫소리에 화음까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멋진 목소리에 경쾌하다
지휘자인 바람과
항상 웃는 얼굴로
열심히 노래하는 합창단원
시냇물 친구들
졸졸졸 졸졸졸
이 맑은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도
깨끗이 청소 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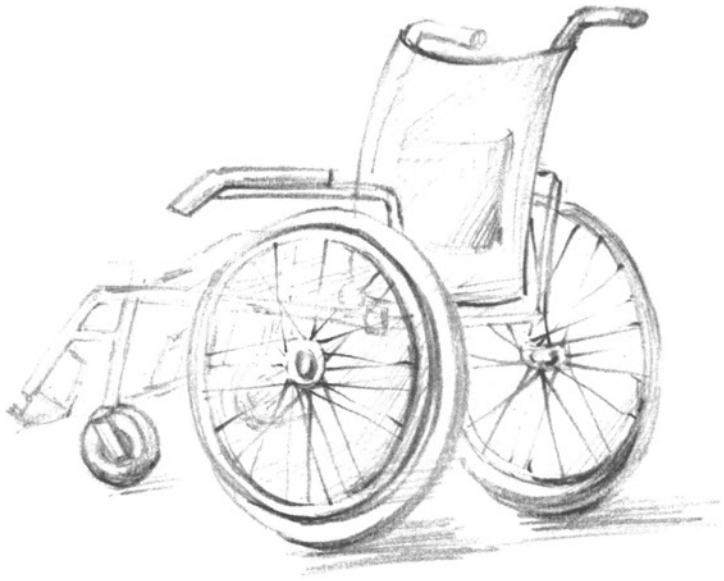


3) 〔장애인 먼저〕 제6회 전국초등학생 백일장(시 부문)

휠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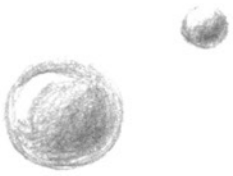
고수민 3-4 (최우수)

느리게 느리게
조심스럽게
굴러가는 둥그런 바퀴
두 손으로
움직여 가는
아저씨의 힘든 얼굴
그래도 나를 보며 씨익 웃는다.
가만히 있는
내 손이 부끄러워
나도 그냥 씨익 웃는다.



4) 제1회 울산환경백일장 수상작

금붕어



박태성 4-3 (장원)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우리 엄마는 화초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금붕어 키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가끔 1시간도 넘게 금붕어만 쳐다봤습니다. 나보다 금붕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갔다 오니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나도 금붕어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금붕어가 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금붕어 한 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생선가게가 생각나서 부엌에 있는 과일칼을 가지고 나와 비늘을 쳐보았습니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었습니다. 한 마리 더 잡아서 또 비늘을 치고 배를 가르고 다섯 마리 중 두 마리만 남겨놓고 작은 수첩위에 나란히 눕혀 밖으로 들고 나가 "생선 팝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벌을 섰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회초리 줄이 뻘겋게 생기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물도 처음 구경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두 마리를 잘 키우기 위해 아침마다 밥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금붕어 병들었나 보구나, 움직이질 않는다. 비늘도 이상하고..." 그러고 보니까 금붕어 비늘이 솔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수족관에 가서 물어보니 밥 때문에 물이 더러워져서 금붕어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금붕어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금붕어를 잘 키웁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고놈, 참 실하다."라고 하십니다. 날 닮아서 우리 금붕어는 정말 튼튼합니다.

5) 자연학습원 교육실습 소감 글짓기대회

즐거운 현장 체험학습

조정문 5-1 (입선)

어제 어린이 자연 학습원과 현대중공업에 갔다 왔다. 금요일의 소풍으로 조금 지쳐 있었지만 또다시 현장학습을 간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오전에는 봄에 고구마를 심었던 어린이 자연학습원에 갔다. 그 때는 직접 심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 손으로 고구마를 캘 수 있었다.

우리들이 도착하니, 나무들은 가을을 알기라도 하듯 고운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삼산초등학교 친구들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우리 모두 원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었다. 좀 지겨운 표정들이었으나 고구마를 캔다는 말을 들으니 표정이 다시 환해지는 것 같았다.

고구마를 캐러 가는 길에는 여러 예쁜 꽃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고 역시 자연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구마를 캐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고구마가 찍힐까 봐 조심조심 다루었다. 고구마가 한 개씩 보일 때마다 미소가 번졌다. 고구마가 잘 안 빠질 때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주머니께서 도와 주셔서 다행히 꺼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을 먹고 현대중공업으로 출발하였다.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넓었다. 우리 아빠가 다니시는 영남화학보다 더 우수한 것 같아 질투가 나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 아저씨들의 땀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났다. '나중에 나도 현대중공업에 취직할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것이 본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현대중공업'하면 사람들은 울산이 떠오른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우리 울산을 빛내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현장학습으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5학년 현장학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못 잊을 추억이 될 것이다.

고구마 캐는 날

전슬기 5-2 (입선)

10월 25일 우리 5학년은 1학기 때 심었던 고구마를 캐러 갔다.

버스에서 약간 멀미가 나서 괴로웠지만, 1학기 때 왔던 고구마 밭을 보자니 울렁거리던 속이 두근거림으로 바뀌었다.

아이들도 각각 여러 말을 했다. '야, 기대 된다.' 또는 '아까 아저씨가 보여줬던 '덩'같이 생긴 거면 어떻게 한다? 괜찮지 않남? 꽤 큰 거니깐.' 등 등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었다.

담당 아저씨께서는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잘 캐내는지'를 두어 번 정도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항목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여 주셨다.

첫째,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둘째, 꽃이나 나무 가지를 꺾지 말자.

셋째, 물은 앞에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되 컵으로 마실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 드디어 고구마를 캐러 갔다.

손으로 어느 정도 흙을 파내니 딱딱한 고구마가 등장!

너무 기뻤다. 하지만 캐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고생했다.

다 캐고 나서 줄기를 쑤욱 뽑아서 보았더니 '에구머니나' 한 줄기에 다섯 개나 달려 있었다. 너무 신이 났다. 불그스름한 고구마가 너무 귀여웠다.

또 선생님과 어느 아저씨 한 분이 고구마를 3개나 더 주셨고, 친구한테서도 하나 얻었다. 내 고구마는 적당한 크기였는데 그래서인지 갈라진 것이 없었고 너무나 예뻤다.

고구마를 다 캐고 나서 도시락을 막고 오손도손 삼행시를 들으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버렸다.

그동안, 내손으로 뭔가를 키워 얻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자연학습원의 경험이 나에게 소중했다. 이제 이 경험을 다음 5학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잊지 못할 것이다. 5학년만이 경험하는 '고구마 캐기' 는 보람 있는 날 이었다..

고구마를 캐러! Go Go

전유진 5-3 (입선)

오늘은 고구마를 캐러 가는 날이다
내 고구마가 많이 자랐을까?
많이 많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을 텐데.....
버스를 타고 갔다.
그런데 버스에 안전벨트가?
안전벨트가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건데 왜 없을까?
아무튼 안전하게 고구마를 캐러 갔다.
고구마를 캐기 전에 호미를 주었다.
그 호미로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캤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5개쯤 캘 때 나는 달랑 1개
고구마는 많이 보이는데 잘 안 캐져서였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도 많이 많이 캤다.
봉지에 고구마를 넣고 다시 집합장소에 갔다.
과자를 먹고 점심을 먹고 삼행시 짓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야 삼행시가 생각이 났다.
고 - 고양이가
구 - 구운 고구마를
마 - 마구 마구 먹는다. ㅋ ㅋ



고구마를 캐러 간 날

김률희 5-4 (입선)

고구마를 심으러 간 날이 어제만 같았다.

그 이후로 잠시 동안 나의 머리에서 고구마에 대한 생각이 잊혀졌다. 그런데 바로 어제 10월 25일 고구마를 캐러 가는 날이 되자 문득 나의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주머니들이 심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내 고구마는 내 고구마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도 먹고 햇빛도 듬뿍 받았겠지? 빨리 캐러 갔으면….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큰 길 작은 길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드디어 도착하였다. 삼산초등학교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고, 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고구마를 캐러 갔다. 봉지와 호미를 들고 우리 반 고구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의 공간은 좁았지만 고구마가 이 땅속에 가득 묻혀 있을 것만 생각하면 이 좁은 공간이 천 배 만 배 넓어 보였다. 손으로 땅을 파헤쳐 보았다. 제일 먼저 빛을 본 고구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첫 고구마를 캐내었다. 비록 크진 않았지만 정말 뿌듯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구마를 캐내었다.

시간이 흐르고 선생님의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봉지 속을 살펴보니 나는 8개를 캤다. 그리 큰 고구마가 나오지 않아 조금 실망도 했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보니 8개 이하인 친구가 더 많았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

모이는 곳에서 약간의 짬을 이용하여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을 하였고 11시 50분에 점심을 먹었다. 나는 찬영이와 은영이랑 같이 먹었다. 나는 엄마가 정성들여서 직접 싸주신 김치김밥을 먹었다. 이럴 때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점심을 다 먹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과자도 먹으면서 놀았다. 그리고 12시 50분이 되어서 점심시간이 끝났다.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후 고구마로 삼행시 짓기 놀이를 하였다. 그리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지은 삼행시를 들으니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 우리 학교부터 차를 타러 내려갔다.

시계를 보니 2시 정도 되어 있었다. 이대로 집에 갔으면 좋겠지만 현대중공업이라는 곳을 삥 둘러보고 돌아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배를 만드는 곳인지 큰 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기사 아저씨의 설명도 듣고 집으로 갔다. 이 맛있게 생긴 고구마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집으로 돌아온 날에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엄마에게 맛있게 삶아 달라고 해야겠다.



내 고구마

신예빈 5–5 (입선)

'어. 어… 와!! 나왔다! 드디어 내 고구마가 나왔어?'

반들반들한 내 고구마, 땅속에서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생각이 된다.

아주 갑갑한 땅속은 지하 동굴처럼 답답할 텐데 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니 정말 고맙다고 생각된다. 그것도 조그마한 고구마도 아니고 아주 커다란 큼직한 고구마, 과연 내가 다 먹을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미를 들고 열심히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나는 내 고구마가 더 있을까 땅을 깊숙이 파고 있다.

옆에서 '나는 열 몇 개야!' 할 때마다 '정말 열 개 정도 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쟤들은 진짜 고구마를 원할까 아님 단지 많다고 자랑하는 걸까? 무거운 비닐봉지를 보고 나는 무척 홀가분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아줌마들이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할 때는 아직도 저 흙속에서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 고구마들이 있는 것 같다. 아, 내 고구마들 다른 누군가가 캐 가지는 않을까? 슬쩍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 비닐봉지에 있는 고구마들이나 맛나게 먹어 주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햇빛은 쨍쨍! 반짝이는 호미들, 우리는 잘 큰 고구마를 캤다. 고구마를 캔 우리들 모두 즐거웠다. 여기에서 고구마가 가장 큰 것을 캔 사람을 고구마 왕으로 뽑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나는 고구마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흥! 고구마 왕이 된 사람의 고구마는 귀엽지도 않았던걸, 고구마는 역시 맛도 맛있어야 하지만 귀엽기도 해야 한다고.'

고구마 왕을 뽑은 다음 점심을 먹었다. 고구마를 캐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었다.

꼭 김밥 속에 맛있고 달기도 단 고구마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년에도 이곳 고구마 밭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척 불만이었다. 소풍으로는 좀 재미있는 곳에, 즉 놀이공원 같은데 가지 햇볕도 있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인데 뭐 하러 이런 곳에 가지? 하면서 투덜거렸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내년에도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처음 심을 때 고구마 뿌리가 두 개 밖에 없어 고구마가 두 개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땅속에서 크고 크고 하여서 이렇게 10개 남짓 되는 고구

마가 탄생을 하였다. 그동안 이 고구마에게 영양분을 준 흙에도 고맙고, 이 고구마들이 잘 크라고 물을 주신 아줌마들께도 고맙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 이분들께 여쭈어 보겠다. 집에서도 이 고구마를 키우려면 잘 크는가? 왜냐하면 나도 된다면 집에서 고구마를 키워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고구마를 키우는데 맞추어야 하는 온도를 어떻게 정하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다. 또 실내보다는 역시 실외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키워도 괜찮은 가도 궁금하였다. 아직 고구마에 대한 의문점은 많지만 난 역시 달고 맛있는 고구마가 좋다!



2. 용연 두 번째 이야기(2006년)

1) 제8회 환경문학제 전국백일장

장난꾸러기 고래

이가람 1-1 (차상)

고래는 장난꾸러기
아기 물고기들을 놀라게 하고 키키키 웃어요.
고래는 바다 위로 올라가
슈웅 물을 뿜어 한 번 더 놀라게 해요.
고래는 물속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고래는 엉엉 울며 후회했어요.
물고기들이 고래를 달래 주었어요.
신이 난 고래는 바다 위로 올라가
또 한 번 물을 뿜어요.



내 마음을 알까

최인혜 1-1 (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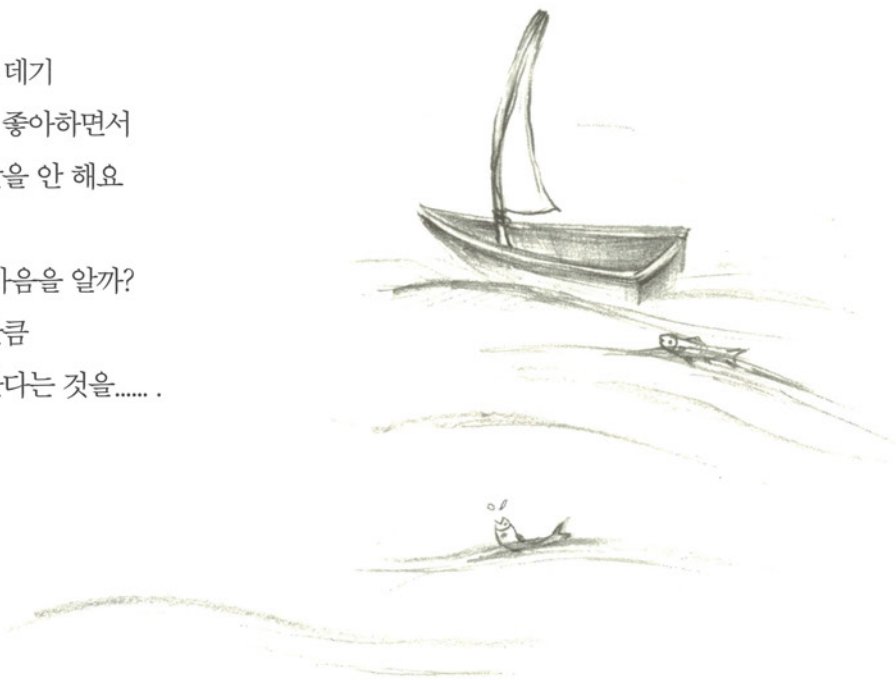
바다는 고집쟁이
쓰레기는 싫다고
쫑알대요.

바다는 멋쟁이
색깔을 바꾸고
파도치며 우쭐대요.

바다는 부끄럼쟁이
"바다야, 놀자."하면
부끄러워 말을 못 해요

바다는 새침데기
물고기들을 좋아하면서
좋아한다 말을 안 해요

바다는 내 마음을 알까?
깊은 바다만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



2) 제10회 울산 새 글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대회

우리 엄마



오수빈 1-1 (으뜸상)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자꾸자꾸
생각난다!

생각하면
안되는데
내 머리가
왜 이러지?

엄마 얼굴
라면 생각
시소를 타고 있네.

자꾸자꾸
먹고 싶네
엄마는 내 맘 알까?

등산

이승재 2-2 (으뜸상)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시원한 공기 찾아
오르는 산

깔딱 고개를 넘어갈 때
숨이 깔딱깔딱
산 하나 넘으니
땀이 뻘뻘뻘뻘

저 멀리 메아리가
내 이름 부른다.



정전



강명동 3-4 (으뜸상)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됐다
TV도 못 본다
책도 못 본다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됐다
냉장고도 깜깜
밥도 못 먹지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됐다
컴퓨터도 못하고
목욕도 못한다.

정전이 되니
할 게 없다.

아무 것도 안 보여

정예영 3-1 (으뜸상)

엄마한테 졸라 졸라 받은 용돈
아이스크림 다 사먹을 땐
아무 것도 안 보여
너무 너무 맛있으니까

학교 숙제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 할 땐
아무 것도 안 보여
너무 너무 재미있으니까

학원 시간 놓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땐
아무 것도 안 보여
너무 너무 신나니까

배고플 때 언니 몰래
냉장고에 맛있는 것 다 먹을 땐
앗! 눈앞에 별이 반짝!
엄마의 불같은 꿀밤이 보인다..

어른이 된 것 같은 설레임

박나영 4-1 으뜸상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아 기다리면
은행 직원이
"박나영님!"
하고 부른다.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면
아르바이트생 언니가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말해준다.

4학년밖에
되지 않은 나
왠지 내가 벌써
어른이 된 것 같다.



새싹의 엄마

이다설 5–1 (으뜸상)

안개 낀 아침
봄비가 내리자
새싹은 작은 입 크게 벌려
봄비를 마신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크지도 않은 입을
찢어질 듯 한껏 벌려
봄비를 먹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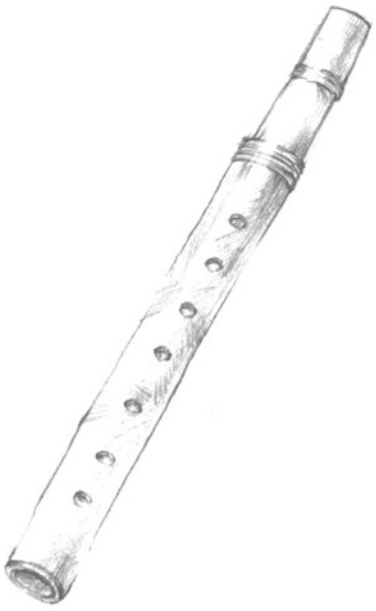
엄마 새가 먹이를 주는
아기 새의 모습 같아
봄비와 새싹은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봄비와 새싹이작별할 시간
봄비는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흘린다.



신라의 피리

박태림 6-5 (으뜸상)



용아 용아!
동해바다의
대나무를 잘라다오

용아 용아!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다오.

피리야 피리야!
적은 없애주고
병은 고쳐 주는구나.

피리야 피리야!
용은 문무왕
유신은 화랑의 장수란다.

용아, 피리야!
너희가 진정
신라의 수호신이로다.

바다 속 이야기

정예슬 6-5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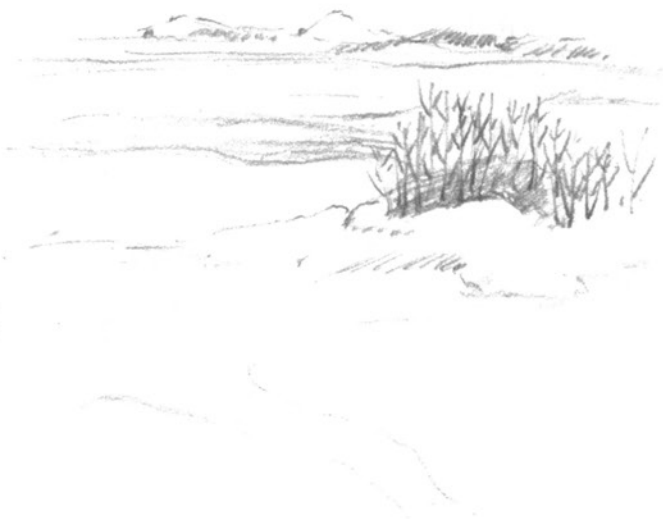
서해안 땅끝 마을에
바닷길이 열린다.

숨어있던
바다 속 이야기들
하나둘씩 고개를 내민다.

따닥따닥 따개비
동글동글 소라
옹기종기 홍합
사이좋게 바다 마을 이루고

쏘옥 얼굴 내민
꽃게 따라 숨바꼭질

발끝마다
다가오는 바다 속 이야기
잔잔히 몰려오는 파도 따라
멀리서도 전해오는 바다 이야기



밀려오는 물결 따라
어느덧 갯벌이 닫히고
조잘조잘 끝없던 바다 속 이야기
갯벌 속으로 꼭꼭 숨어버린다.

3) 학생 통일 글짓기대회 운분부

우리의 소원

천지운 6-2 (입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두만강 앞에서
백두산 앞에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지만 이해 못합니다.

그까짓
선 하나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싸워서
"이선 넘어 오지마!"하는 것처럼
바로 앞인데 놓쳤습니다.

눈앞에서
코앞에서

친구들도 60년 안 싸웠는데
어른들이 어린 걸까요?

하얗고 초록색인 종이 한 장

빨간 선 하나
우릴 남북으로 갈라놓은 삼팔선

하느님, 부처님
당신들에겐
60초, 60분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상처를 아물게 하면 안 되나요?

아직도 6.25전쟁의 죄 씻으려면 멀었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언제까지요?

내가 코앞에 놓인
백두산 건너
두만강 건너
북한이라는 땅
우리 민족의 땅
밟아보면 안 되나요?

우리의 소원인데요.!



4)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산문부

여자는 힘이 세다

최지원 6-1 (우수상)

평등이라는 말을 도덕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다. 인간은 피부색, 빈부 차, 나이, 성별 등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말에 덧붙여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기회에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양성 평등의 의미를 내 스스로 생각해 남녀평등이라고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아빠는 주부 엄마는 카레이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맡아 하시는 주부이고 어머니는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카레이서이다. 내가 생각해도 별 이상할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이고 주인공도 이런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에 당당히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발표 했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하시는데 주인공의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바뀌었기에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왜 그러한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야 될까? 사람에게는 소질 및 적성, 그리고 능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 일이 있었던 이후 주인공은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얄밉게 행동한다. 하지만 결국 주인공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족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대회에 참여해 상을 타고 만족해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온 가족은 행복해 한다. 또한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의 직업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별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해야한다." 라고.

직업은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

꼈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서 명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의 가족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바뀐다고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님은 우리들의 부모님인 것이다.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집도 주인공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교육과 설거지, 밥, 빨래,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셨다고 한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꿈을 포기하고 집안 일만 하시는 게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사람마다 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능력과 흥미도 다르단다. 여자라서 못할 것도 없고, 남자라서 이래야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는 지금 집에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엄마 선생님이 되었잖니?"

우리를 키우시느라 힘이 드시는데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내시는 엄마를 보면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께서도 물론 회사에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힘이 드시지만, 옛날에는 어머니 일을 도와주시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신다. 물론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의 일에 이렇게 구분해서 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은가? 앞으로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한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중요하다. 여자들은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이 여자 스스로를 힘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양성평등,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외할머니께서는 대를 잇기 위해 자식을 8명이나 낳으셨다.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나를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신다. 외할머니의 어머니께서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고 하시면서 외할머니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일만 시키고 공부를 안 시키셨다고 한다. 옛날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고 딸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했다. 이제는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지나갔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키워 이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녀 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다. 앞으로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남녀차별이란 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녀가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사회발전에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회를 바란다.

5) 새마을문고 야음2동 분회 주관 '제2회 독후감 경진대회'

『친구와 싸웠어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떡해야죠?』

박진영 2-4 (최우수)

다툼을 한 친구와 화해하고 싶다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면 어떨까?

하지만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항상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수와 경준이라는 두 친구가 몸이 아파서 체육 시간에 교실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한 아이의 지갑이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정수가 의심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은 의심을 하는데 경준이는 끝까지 믿어 주었다. 다행히 지갑은 교실 구석에서 발견되어 친구들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다.

오해가 풀려서 정수는 다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지만 의심을 받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만약 내가 정수라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을 것 같다. 그래도 정수 옆에는 정수를 믿어주는 경준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자신을 믿어 주었으니까 말이다.

10년이 지나 경준이는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경준이를 전부 의심했지만 정수는 자신을 믿어 주었던 경준이를 위해 밤낮으로 증거와 증인을 찾아다닌 결과 경준이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어릴 적 조그만 믿음에서 시작된 친구간의 사랑은 먼 훗날 더 큰 믿음이 되어 다시 경준이에게 돌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친구를 의심할 때 나는 내 친구의 편을 들어 줄 수 있을까? 경준이와 정수의 믿음을 보니 과연 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나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용기를 가지고 그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친구 사이의 진정한 우정인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친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게 되었다. 앞으로 진정으로 친구들을 믿어주고 나 역시 친구들이 믿을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시붕어가 이상해졌어요.'를 읽고...

이주원 1-4 (우수상)

오늘은 엄마와 서점에 가는 날이다.

나는 베리베리뮤뮤 책을 사고 싶은데 엄마는 독후감 숙제 할 때 필요한 책을 사라고 하셨다. 어떤 책을 사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엄마가 골라 주시는 책을 사기로 했다.

제목은「각시붕어가 이상해졌어요.」이다. 각시붕어가 사는 냇물에는 송사리와 조개, 피라미, 잉어 친구들이 살고 있다. 깨끗한 냇물이어서 메기는 아래 냇물로 이사를 갔다. 각시붕어는 조개의 입속에 몰래 알을 그렇지만 시끄러운 송사리가 떠들어서 조개가 화를 내면 조개는 입을 꽉 다물어서 각시붕어 알도 나올 수 없게 된다.

예쁜 아기 각시붕어가 태어났다. 엄마 각시붕어와 아빠 각시붕어는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행복했다. 그런데 아기 각시붕어의 몸은 이상했다. 몸은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한쪽 눈밖에 없는 아기도 있었다. 엄마 각시붕어와 아빠 각시붕어는 슬펐다.

냇물병원 잉어 의사선생님은 아기들이 모두 중금속에 오염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아기들은 모두 깨끗한 냇물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중금속에 오염될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아래 냇물의 더럽고 오염된 물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속 중금속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 아기 각시붕어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하수와 공장의 폐수, 농약 때문에도 강물이 오염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먹고사는 물고기들이 병에 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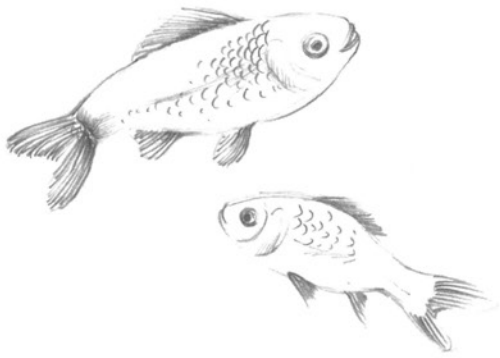
우리 아빠 회사 작은 연못에도 황금 옷을 입은 황금잉어가 살고 있다. 황금잉어들은 아빠 회사의 깨끗한 물을 먹고 산다. 나는 아빠한테 물어보았다.

"아빠! 공장에 더러운 물을 어떻게 잉어가 먹고 살아요?"

그 이유는 공장의 폐수처리장이라는 곳에서 기계와 약품으로 잉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 집에서도 내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와 린스, 엄마가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주방세제를 조금만 줄이고, 우리 아빠 회사 공장 폐수도 깨끗

한 물로 바꿔서 강물에 흘러 보낸다면 강물의 오염도 줄일 수 있어서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깨끗해진 강물에서 각시붕어 가족들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아프면 슬프다고 하셨다.



『효자와 불효자』

김효진 2-4 (격려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효성이 너무 지극했습니다. 특히 생선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낚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러 나왔다가 낚시를 하고 있던 젊은이를 보고 이 추운 겨울날 고기를 왜 잡고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젊은이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아보려고 집에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룻밤 동안 몰래 살펴보고 젊은이의 효성에 감복하여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욕심이 난 불효자는 같은 방법으로 임금님에게 거짓으로 효도하는 척을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임금님이 속는 것 같았지만 결국 들통이 난 불효자는 큰 상 대신 곤장 50대라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짜 마음이 아니라 효자의 행동만 흉내 낸 거짓 효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가 없었고 결국 자신의 거짓 행동의 대가로 불효자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착한 행동이라 말하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하는 행동이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효자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불효자를 닮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동도 반성해 보게 되고 효자처럼 스스로 하는 착한 행동들은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해 나가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6) 전국 학생 세금 문예 작품 공모전 우수

소중한 세금

신솔비 5-2 (우수)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참 소중한 것이다. 만약 세금이 없어서 내지 못한다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가 없다면 많은 것이 불편하다. 밥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씻는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TV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전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꼭 써야 할 때가 있으면 쓰고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잊어 버리면 안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언젠가 잡힌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자!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에 찔릴 것이다. 세금은 중요하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 살림을 살 수 없다. TV에서도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던 데 결국 잡히고 말았다.

작년 여름에 엄마가 세금이 모자라서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차렸다.

"엄마, 정말 가게 차릴 거야?"

"그럼, 손님은 없겠지만..."

나는 왠지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모자란 세금을 모아 오셨다. 하루가 지나도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아서 일주일이 걸리셨다. 그리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일을 하신다. '어른이 되면 힘든 거구나.' 나는 생각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세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나는 말썽만 피운다. 안 그래도 엄마가 힘든데 나는 더욱 짐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론 짐이 안 되게 노력해야겠다.

세금의 중요성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낸다. 그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다리도 놓고, 길도 내고, 집도 짓는다. 또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 생활 하나 하나에 세금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나 공공 건물의 물건도 아껴 쓰고 거

리에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겠다.

엄마는 오늘도 아프다고 하신다. 나는 마음에 돌덩이가 얹히는 것만 같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커서 꼭 효도 할게요.'



7) 제13회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

우리 엄마는 구두쇠

이소영 2-4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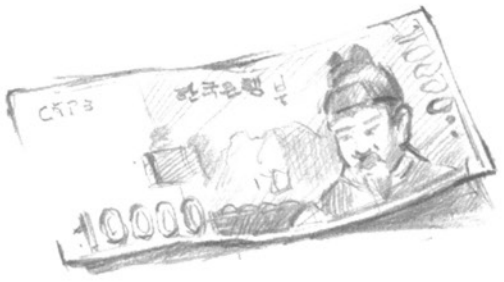
우리 엄마는 구두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사달라고 하면 돈이 아깝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옷이나 먹을 것을 살 때도 내가 맘에 드는 것보다 싼 것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엄마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아껴야 잘 살지!" 라고 짧게 대답해 주십니다. 저 역시 돈을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가끔 엄마가 조금만 아끼시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잘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은 항상 웃으면서 사 주십니다. 또, 몸에 좋은 과일이나 반찬은 언제나 먼저 챙기십니다. 비록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옷 같은 것은 잘 사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은 언제나 엄마께서 먼저 챙겨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작은 돈도 아끼시는 것이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먼저 생각하는 제가 욕심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엄마께 불평, 불만을 하지요.

하지만 엄마의 아끼시는 생활을 본받아서 갖고 싶은 물건은 제 용돈을 모아서 사려는 버릇을 가져야겠습니다. 무조건 엄마께 사달라고 조르는 버릇이 빨리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사는데 저도 조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내 통장

이하영 2-4 (입선)

떡볶이,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마다 꾹꾹 참으며 돼지 저금통에 용돈을 저금했다. 그래서 내 돼지저금통은 진짜 먹보 돼지가 되었다. 내 대신 떡볶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서인지 내 돼지저금통은 늘 웃고 있다. 내 대신 실컷 먹고 기분 좋아하는 돼지저금통을 보면 내 기분도 좋아진다.

돼지저금통의 배가 너무 불러져서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직접 저금을 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은행 창구의 언니가 "저금 하러 왔니?"라고 웃으며 물어보자 나는 나의 소중한 저금통을 내밀었다. 소중한 보물 돼지저금통은 녹색통장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은행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한편으로는 으쓱한 기분도 들었다. 앞으로는 내가 그 통장을 들고 가서 모은 용돈을 저금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 책상 위의 돼지저금통은 또 나대신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고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보이겠지. 그럼 토실토실 살이 찐 돼지저금통을 안고 은행으로 가서 또 은행 언니를 만나게 되겠지.

나는 조금씩 숫자가 커질 내 통장을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내 녹색 통장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땐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내 자랑스러운 돼지저금통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씽긋 웃어본다.



티끌 모아 태산

장호민 2-4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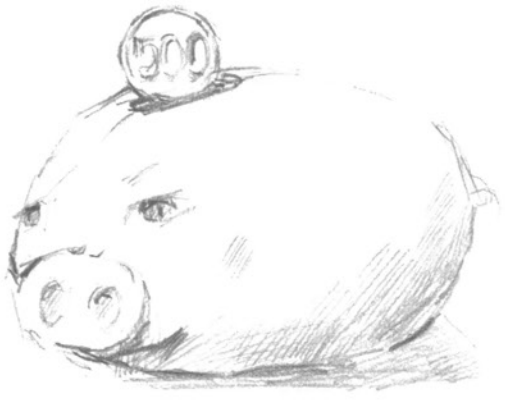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조금씩 이것, 저것 쓰다 보면 어느새 용돈을 다 써 버릴 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 저축하면 떠오르는 속담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다. 조금씩 모으다 보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나는 저축하면 자린고비 이야기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자린고비 아저씨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욕심이 가득한 생활을 한다.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돈을 훔쳐서 저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절약을 하더라도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절약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이지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약을 하더라도 착하고 올바른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돈을 올바른 방법으로 모으고 좋은 곳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착하고 좋은 생각으로 돈을 열심히 절약하고 모아서 꼭 필요한데 쓰는 것, 그것이 저축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내가 실천하는 절약

정지원 2-4 (입선)

글을 쓰기 위해 먼저 절약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께 절약에 대해 여쭈어도 보고 예전에 읽었던 책도 찾아 다시 읽어 보았다. '절약이란 무엇일까?'

어머니는 절약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실 때 옷들을 모아 두었다 세탁기에 한꺼번에 돌리시는 것도 전기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행동들 중에 절약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내가 일기를 쓸 때 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쓰신다. 어머니는 "그래야지 오늘 쓴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서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여 시간을 절약하듯 어머니는 가계부를 쓰시며 돈을 절약하시는 것이다.

어머니는 절약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는 절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절약을 직접 실천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불을 잘 켜놓는 버릇을 말씀하시며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화장실에 불을 끈다면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절약하는 생활이구나.' 나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방법에 대해 생각 해 보았다. 먼저 학용품에 이름을 잘 써서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용돈이 생기면 아무 것이나 사지 않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저축도 해야겠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항상 재활용품이 가득하다. 어머니는 이런 물건들을 재활용 하는 것이 절약이고 이런 쓰레기들이 다시 돈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절약을 잘 하는 우리 집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3. 용연 세 번째 이야기(2008년)

1) 제13회 울산고래축제 나의 주장 웅변대회

기적의 길

임지환 5-6 (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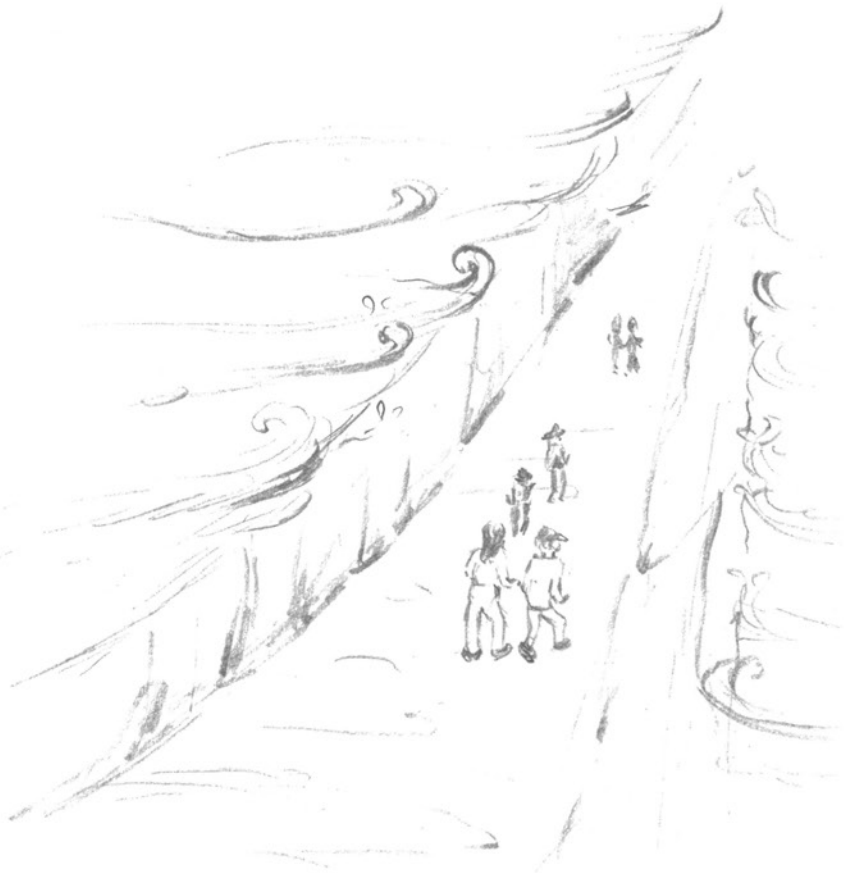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길이 2.8㎞, 너비 약 30m의 신비의 바닷길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너무도 유명해져서 해마다 3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길은 1975년 한 주한 프랑스대사가 우연히 발견한 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이러한 밀물과 썰물 현상은 사실 일 년에 단 한번이 아니라 바다가 매일 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바다는 밀물 때가 되면 드넓은 품으로 대지를 품고 있다가 썰물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신의 속살인 갯벌을 드러내어 수많은 양식을 베풀곤 합니다. 단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미물들에서부터 창공을 나는 새들,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인 고래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바다에 대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 그리고 버려진 양심들은 소중한 바다 생태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얼마 전 수업시간에 경작지를 늘리려고 토양으로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바닷새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

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적의 길을 열고자 하는 바다를 사람들은 욕심이란 흙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작은 실천을 통해 그들에게 공존의 길이 되어 주자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2) 제30회 전국어린이 건강 글짓기대회 산문부

나의 비밀

박나영 6-6 (동상)

나는 요즘 졸업식 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절말 노력중이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대회에도 많이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야 한다.

요즘 어떤 대회가 있는 지 찾던 중 선생님께서 "4월 21일 오후 3시에 제30회 건강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나가 볼 사람 있니?" 하고 물어보셔서 바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전국 대회가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했지만 선생님께서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참가했다.

나의 비밀,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당황했다. 나의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꿈은 아나운서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발음도 좋아야 하고, 외국어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아무도 모르게 펜을 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 펜을 물고 처음 연습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초심은 온 데 간 데 없고, 연습도 게을리 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떠올리며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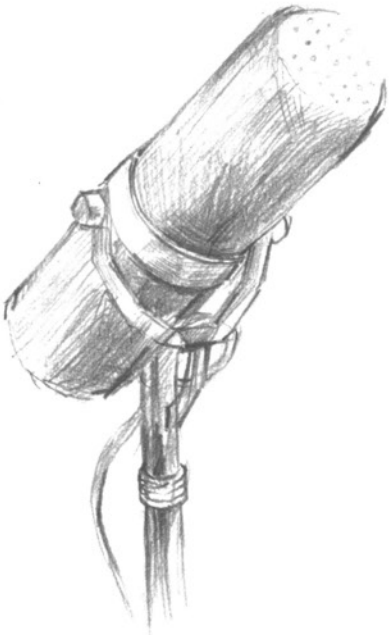
그리고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 외국어를 우리말처럼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아나운서의 꿈을 가진 후부터 영어 학원도 등록했다. 영어 숙제가 많거나 시험을 못 쳤을 때, 그리고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등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지금 토익을 배우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나운서의 꿈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힘들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비밀을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나를 위해 발표를 많이 시켜 주시고 글을 많이 읽게 해주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지 않고, 꼭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 나의 비밀이 너무 간단할 수도 있고, 비밀이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제일 큰 비밀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의 비밀이 모두 들통났지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노력...그것이 나의 비밀이다.



3) 울산 남구 새마을회 독후감 쓰기대회

내 친구 짱짱이에게

'동생 싸게 팔아요'를 읽고 나서

김다예 1-1 (최우수)

안녕, 짱짱아! 나는 다예라고 해.
나이는 8살, 1학년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너 동생 때문에 속상했다며?
나 니 마음 이해해. 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동생을 팔려고 그랬겠니?

나도 너처럼 한빛이라는 개구쟁이 동생이 있어.
내 동생은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그린 여름방학 그림 숙제에 마구 마구 색칠을 해서 내가 동생을 때려주고 난 울기까지 했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겠니?
또 내 동생은 매일 나를 말로 삼아 놀아.
내가 누워있으면 등에 올라타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놀아. 그럴 때마다 힘들고 속상해. 나도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싶어. 니가 동생을 팔러 갔을 때 얼마나 속상해서 그러는지 알겠더라.
하지만 난 동생이 있어서 좋기도 해. 심부름도 시키고, 애완동물도 함께 돌보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 가장 좋은 건 샤워할 때 서로 물을 뿌려주며 놀아서 좋아.
너도 생각해 보니까 동생의 좋은 점이 많지?
나도 그래. 니가 조금만 참으면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참으면서 기다려 보자.
우리 동생이 말썽피워도 우리 좀 봐주고, 사랑해 주자.
그러면 동생도 심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짱짱아,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미워도 우리 사랑해 주고 아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내자.
아자 아자. '화이팅~'

4) 새 글 글짓기 공모대회

구름



김주현 2-3 (으뜸상)

구름은 장난꾸러기
양떼구름으로 변했다가
먹구름으로 바뀌니까

구름은 요술쟁이
비를 내렸다가
눈을 내릴 수 있으니까

구름은 삐침쟁이
삐치면 우르르 쾅쾅 천둥도 치고
번쩍번쩍 번개도 내리니까

뻐꾸기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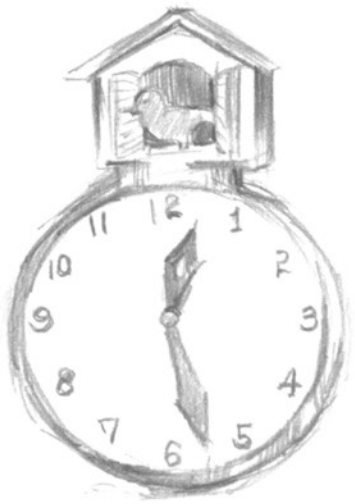
최수진 3–5 (으뜸상)

뻐꾸기 시계가 노래를 한다.
뻐꾹
뻐꾹 뻐꾹
똑같은 가사를

뻐꾹아 목 안 아프니?
친구는 있니?
밥은 먹었니?

대답대신
뻐꾹
뻐꾹 뻐꾹

그래도 기다려지는
뻐꾸기 친구



내 동생

박진한 4-2 (으뜸상)

삐삐 머리 내 동생
머리를 흔들며
자기만한 가방 메고
유치원 가지요

개구쟁이 내 동생
나를 보면 좋아서
깡충깡충 까르르
장난치지요.

고함쟁이 내 동생
마음대로 안 되면
조그만 입이
풍선처럼 되지요.

욕심쟁이 내 동생
내 것도 자기 꺼
나는 매일 산타클로스
동생은 빨간 양말

그래도 귀여운 내 동생
조그마한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보드라운 손
동생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은행나무

강라윤 5-4 (으뜸상)

교문 옆 놀이터의 새파란 은행나무
차가운 꽃샘바람이 다른 마을로 이사가면
더 푸르고 무성해진다.

"3층 교실 아이들과 인사하려면 더 높이 자라야 해."
솔솔 부는 봄바람에게 얇고 가냘픈 잎으로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우뚝 서서 교통정리 하나?
기분이 좋은지 나뭇잎을 살랑살랑

봄부터 여름까지 어린 나이 은행나무는
가을까지 참다가 눈물이 뚝뚝
나뭇잎이 떨어진다.



여름

백예린 6-6(으뜸상)



시원한 여름 가족들과 피서 가네
쨍쨍 햇빛이 다가오네
시원한 파도가 철썩철썩
더위를 물러가게 하네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
텐트를 치고 벌러덩 누워 하늘 쳐다보네
신기한 구름 모양들이
달콤 시원한 수박 한 조각과 함께 입에 가득 차네
여름날 온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이 스르르 남네

시원한 여름 서늘 서늘한 바람 부네
시골 오두막집 할머니 댁에 머무르네
할머니의 시골 냄새 향긋한 풀 냄새
잘 익은 고추밭에서 흘리는 땀 냄새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냠냠 맛있게 함께 먹는 즐거움
여름은 온 가족의 사랑을 남기고 점점 사라지네.



5) 교통질서 확립 웅변대회

월드컵의 함성

임성한 6-3 (금상)

여러분 5년 전 한· 일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였지만 온 거리에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소리와 '빵빵빵 빵빵' 이라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경적소리를 말입니다.

요즘 부모님 차를 타고 시내를 다녀보면 5년 전의 한· 일 월드컵 못지않은 경적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해보자.'라는 열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 길을 방해 하지마!'라는 이기적인 소리들을 말입니다.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난폭운전, 추월운전을 하여 앞질러간 차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지신호에 의해 멈추어 서 있기 일쑤입니다. 약간 빨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수가 1,6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이에 걸맞은 질서 의식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 전문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경제적인 속도는 시속 70에서 80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속도를 넘어서서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기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운전문화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 함께 불같이 뜨거운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나라의 승리를 위해 내지르던 그 함성을 이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소리 내지 않는 배려의 문화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던 열화와 같은 함성과 응원이 월드컵 4강 진출의 축구 강대국을 만들어 내었다면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배려의 문화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교통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여기 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제6부

신문 자료로 보는 용연초등학교 50년사

1. 옛 용연초등학교 신문 자료
2. 휴교 동안의 신문 자료
3. 현 용연초등학교의 신문 자료

1. 옛 용연초등학교 신문 자료

- **부산일보** 1997-03-06, [울산] 용연천에 강알카리성 폐수 다량 유입, 어장 황폐화 우려
- **조선일보** 1997-09-04, [울산 용연초등교] 학교 주변에 공장 많아 끝내 폐교
- **부산일보** 1997-09-04, [울산] 공해에 찌든 초등교 학생 일지로 고발
- **중앙일보** 1997-09-05, 공해 공단에 둘러싸인 울산시 용연초등학교 내년 3월 결국 폐교
- **동아일보** 1997-09-05, [부산 / 경남] 울산공단 인근 학교 공해로 수업 중단 잦아
- **동아일보** 1997-09-05, 울산 초등교 교실 공기 중금속 오염…울산환경聯 조사
- **중앙일보** 1997-09-06, 울산 초등학교 중금속 비상...
- **부산일보** 1997-09-06, [울산] 비공해 지역도 초등교 중금속 오염 심각
- **경향신문** 1997-09-06, 울산 초등校 교실 중금속 오염
- **경향신문** 1997-09-24, 울산 초등생 1,037명 정밀진단
- **중앙일보** 1997-10-14, 한국전력, 철거민들의 향수 달래주는 리플릿 배포
- **동아일보** 1997-10-16, [부산 / 경남] 「그리운 옛 울산」 사진으로 만나요
- **조선일보** 1997-10-27, 울산공단 초등학생 중금속 조사
- **부산일보** 1997-12-09, [울산]공단 인근 초등교 전국 첫 건강 검진
- **동아일보** 1997-12-09, [부산 / 경남] 울산공단 초등생 정밀 건강 진단 실시
- **부산일보** 1997-12-17, 울산 환경운동연합, 올해 10대 환경 뉴스 선정
- **부산일보** 1998-02-19, 마지막 졸업식 초등교 2題
- **조선일보** 1998-02-20, [울산] '공해 학교' 용연초등 마지막 졸업식
- **부산일보** 1998-02-21, [취재수첩] '공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2. 폐교 동안의 신문 자료

- **부산일보** 1998-04-11, 공해로 잃은 학교 이름만이라도…
- **연합뉴스** 1998-09-09, 경기 불황 여파로 폐교 매각 부진
- **부산일보** 1998-12-16, 산업폐기물의 공동묘지 울산
- **부산일보** 1999-04-15, '공해지역 폐교는 매각'
- **부산일보** 2003-05-14, '사또' 옷 입고 역사 교육 30년
- **경상일보** 2003-09-24, 교명선정위원회 열어
- **부산일보** 2004-01-08, 울산 초. 중. 고등학교 3월 11곳 새로 개교
- **부산일보** 2004-01-16, '초. 중. 고교를 한 울타리에'

3. 현 용연초등학교의 신문 자료

- **경상일보** 2004-05-04, 용연초등 야음동으로 옮겨 복교식
- **경상일보** 2004-05-06, "폐교의 아픔을 빛나는 전통으로"
- **동아일보** 2004-05-06, [부산/경남]울산 용연초교… 7년 만에 되찾은 교명
- **경상일보** 2004-10-25, 윤종호, 오종경 울산시 초등생 한자 경시대회 금상
- **경상일보** 2005-03-26, 폐교 활용 범위 대폭 확대
- **경상일보** 2005-08-23, "창의력, 울산 교육의 희망"
- **경상일보** 2007-03-09, 용연초 어린이 울산세관 방문 휴대품 검색 등 세관 업무 체험
- **경상일보** 2007-07-23, 광역시 10년 53곳 개교·21곳 폐교.
- **연합뉴스** 2007-07-23, 〈울산 지난 10년간 20개 초등학교 폐교〉
- **울산매일신문** 2008-01-08, 김진곤(용연초등 8회)'타임'지 실렸던 옛 용연초등학교 공해 기사
- **경상일보** 2009-09-18, 용연초등 유네스코 협동 학교 지정 현판식
- **울산제일일보** 2009-10-27, 학생회장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심사
- **경상일보** 2009-11-16, 울산 초·중학생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서 두각
- **울산신문** 2010-06-03, 해경 바다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용연초 정다인 학생 대상
- **울산제일일보** 2010-07-20, 울산과학교육원 다음달 13일까지 교사 연수
- **울산제일일보** 2011-04-06, "딸 한국 생활에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 **울산신문** 2011-06-01, 김사빈·이초희 '최우수상'.
- **부산일보** 2011-07-19, [브리핑] 울산 '주 5일제 수업제' 시범 운영
- **경상일보** 2011-11-17, '학교는 두 개 운동장은 한개' 참 불편하다
- **울산제일일보** 2012-02-27, 울산 남구문화 제9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2013-01-23, 김진곤(용연초등 8회), 용연초등 50년사, 울산 현대사 축소판
- **울산저널** 2013-01-30, 고도 성장의 '그늘'까지 기록에 남긴다. 용연초교 동문들의 학교 추억 살리기
- **세계일보** 2013-02-25, 1998년 환경재앙으로 폐교... 6년 후 복교
  울산 용연초 '굴곡의 역사' 책으로 낸다.
- **울산매일신문** 2013-04-15, 거대한 산업 쓰레기에 갇힌 아이들… 공해 학교로 악명.

1. 옛 용연초등학교 신문 자료

• **[울산] 용연천에 강알카리성 폐수 다량 유입, 어장 황폐화 우려**

부산일보 1997-03-06

[울산]울산시 남구 개운동 용연초등학교 앞 용연천에 강알카리성 폐수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용연 앞바다로 유입, 어장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용연어촌계 박영필 계장(57)을 비롯한 주민들에 따르면 5일 오전부터 용연공단으로 이어지는 용연천을 통해 붉은색의 폐수 수백 t이 강한 초산 냄새를 풍기면서 바다로 흘러들어 길이와 너비 각 1백여 m의 띠를 형성하며 양식장 일대 바다를 크게 오염시켰다는 것. 이날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용연천의 폐수를 채취해 수소 이온 농도를 분석한 결과 9.5의 강알칼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종국 기자)

• **[울산 용연초등교] 학교 주변에 공장 많아 끝내 폐교**

조선일보 1997-09-04

인근 석유화학공단에서 넘어오는 소음 공해, 대기 오염에 시달리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지난 88년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양호일지'로 화제가 됐던 울산 용연초등학교가 내년 3월 폐교된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4일 "85년부터 시작된 용연공단 공해 지역 주민의 이주 사업이 내년 초 완료되면 현재 6학급 63명 학생을 인근 대현초등학교로 전학시키고 용연초등학교는 폐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달고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해야 했던 학교. 때로는 운동장에 연막을 뿌린 듯 짙은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이 학교의 공해피해는 심각했다. 당연히 어린 학생들이 구토와 복통,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피부병 같은 질환에 시달리고 공해가 심한 날에는 수업도 중단됐다.

이처럼 공해 피해에 시달리는 어린이 모습은 88년 당시 이 학교 양호교사가 1년 간 기록

한 근무 일지에 고스란히 담겨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일지에는 공기가 워낙 나빠 월요일 아침에 조례를 할 수 없었던 모습, 수업 중 교사가 쓰러졌던 일, 학생들이 진통제와 두통약을 상시 복용해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는 의견 등….

울산이 특정 공업 지구로 지정된 다음해인 63년 5월, 12학급으로 출발한 용연초등학교는 주변에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인 ㈜극동이 학교 서쪽 담장과 붙어 있고 동쪽 2㎞ 바다 건너에는 온산공단, 북쪽 담장 쪽으로는 울산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공해업체에 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용연초등학교의 마지막 교장이 된 백승효(61)교장은 "한때 푸른 바다를 앞에 둔 아름다운 학교였던 이곳이 공해 때문에 문 닫는 건 안타깝지만 어린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박용근 기자)

- **[울산]공해에 찌든 초등교학생 일지로 고발**

부산일보 1997-09-04

공단에서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입은 인체 피해와 공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공해 발생 상황부"가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성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교장 백승효)에 따르면 지난 88년 개교와 동시에 학생들이 겪은 공해 피해와 조치 내용를 일지로 기록한 공해 발생 상황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상황부에는 공해 때문에 구토와 두통 증세로 학생들을 집단 조퇴시킨 것을 비롯해 운동장 수업을 금지하고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 실태를 기록해 놓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기오염이 심해질 때는 심한 투통 증세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조기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초등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공해 피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해 발생 상황부에 기록된 공해 피해 일수는 학생들의 연간 총 출석일 2백 30일 중 51일로 나흘에 한번 꼴로 학생들이 구토와 두통 목통증 복통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공해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치 않은 채 올해 폐교 방침만 세워놓고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공해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성호 기자)

• **공해공단에 둘러싸인 울산시 용연초등학교 내년3월 결국 폐교**

중앙일보 1997-09-05

'공해공단' 에 둘러싸여 공기청정기까지 달고 수업을 해왔던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교장 白承孝.61)가 내년 3월 결국 문을 닫는다. 울산교육청은 4일 "현재 6학급 6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로 폐교한다."고 밝혔다. 63년 5월 12학급으로 문을 연 이 학교는 서쪽 옆에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인 ㈜극동, 동쪽 약 2㎞ 떨어진 곳에는 온산공단, 뒤쪽에는 금속 처리 제조업체인 ㈜재기 등이 자리 잡아 공해가 심했던 것. 공장이 크게 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은 구토와 복통. 두통. 피부병등 공해성 질환에 시달렸고 수업마저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이 학교가 4일 공개한 지난 88년의 '양호일지'에 따르면 연중 출석 일수 2백 30일 중 26%인 60일 정도 대기 공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공해도 연평균 20일 가량 됐다. 白교장은 "공해가 한창 심할 때는 운동장에 희뿌연 연막을 뿌린 것 같았다" 며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공해로 인한 폐교여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황선윤 기자)

• **[부산/경남]울산공단 인근학교 공해로 수업중단 잦아**

동아일보 1997-09-05

울산공단 인근인 울산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교장 백승효·61) 학생들이 평균 4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심한 공해로 구토와 복통 두통 피부병 등 각종 공해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간간이 수업을 중단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용연초등교가 4일 공개한 88년 「공해발생 상황부」에 따르면 연중 출석일 2백 30일 중 26%인 60일 정도 대기 공해가 발생, 20여일 수업을 중단해야만 했다는 것. 이 상황부에는 또 학생들이 구토와 복통으로 진통제와 두통약 등을 상시 복용한 것으로 돼 있으며 인근 선경인더스트리의 소음 공해에 대해 「귀 막고 참을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었다. 이 학교 교사들은 『88년의 공해 발생 상황부와 지금의 상태가 비슷하다』며 『최근에도 극심한 대기 공해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날이 많아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해 상황 일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현재 용연초등교는 울산시와 인근 주민 간의 어업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3월 폐교될 예정이며 63명의 학생

이 재학 중이다. 한편 이 학교 서쪽 담 옆에는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인 ㈜극동이 있으며 동쪽 2㎞ 바다 건너에는 온산공단, 북쪽 담 쪽으로는 금속처리 제조업체인 ㈜재기와 울산화력발전소 등이 있다.(정재락 기자)

• 울산 초등교 교실공기 중금속 오염…울산환경聯 조사

동아일보 1997-09-05

울산 지역 국가공단 주변 초등학교 교실의 공기가 각종 중금속으로 크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환경연합(의장 한기양)이 국제 학계에 보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지역 5개 초등학교 교실의 오염 성분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울산공단 부근인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초등학교는 교실 먼지에서 아연이 3천 6백 57PPM이나 검출돼 오염 규제치(1백PPM)를 무려 36배 초과했으며 창틀 먼지에서도 2천 7백 78PPM이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아연이 최고로 오염된 지역이라고 밝힌 경기 광명시 학온동 가학광산 일대의 6백 83PPM보다 5.4배나 높은 수치다. 또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수은(오염 규제치 없음)이 10.2PPM으로 전국 최고 오염지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3.8PPM보다 3배 높았으며 카드뮴은 12.3PPM(규제치 0.1~0.5PPM)으로 규제치를 1백여 배 초과했다. 구리도 1백 74PPM(규제치 1백PPM)이나 검출돼 전국 최고 오염지인 울주군 온산읍의 1백 42PPM보다 높았다. 울산석유화학공단 부근에 있는 남구 선암동 선암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창틀의 먼지에서 납이 3백 84PPM(규제치 1백PPM)으로 나타났고 수은도 10.4PPM이나 검출됐다. 공단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울주군 구영리 구영초등학교와 울주군 언양읍 언양초등학교에서도 카드뮴이 각각 2.2PPM, 1.3PPM이 검출되는 등 규제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환경연합 허달호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울산 지역 초등학생들이 중금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계 당국은 이곳 어린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빠른 시일 안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재락 기자)

• **울산 초등학교 중금속 비상…아연 기준치 60배 초과**

중앙일보 1997-09-06

울산지역 국가공단 주변 초등학교 교실의 공기가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의장 韓基陽) 이 지난해 1월과 2월 초등학교 교실 바닥과 창가에서 분진(먼지)을 채취해 분석한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실 분진의 금속 성분'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울산국가공단과 인접한 장생포초등학교(남구 장생포동)는 교실 먼지에서 아연(Zn)이 3천 6백 57PPM(오염 규제치 1백PPM)이나 검출돼 전국 최고의 오염치(환경부 96년 자료)인 광명시 학온동 가학광산 일대의 6백 83PPM보다 5. 4배나 높았다. 또 교실 창밖의 창턱 먼지에서 2천 7백 78PPM, 운동장의 토양에서도 6백 46PPM의 아연이 검출됐다. 심한 공해로 내년 3월 폐교 예정인 용연초등학교(남구 용연동)는 카드뮴(Cd)이 교실에서 12.3PPM (규제치 0.1~0.5PPM), 운동장에서 12.5PPM이나 검출됐다. 석유화학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선암초등학교(남구 선암동)는 교실 창턱의 바깥쪽에서 납(Pb)이 3백84PPM(규제치 1백PPM), 수은(Hg)이 10.4PPM이나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공기를 학생들이 마시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선윤 기자)

• **[울산]비공해지역도 초등교 중금속오염 심각**

부산일보 1997-09-06

[울산]속보=울산 공단 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공해 지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교육청과 환경당국의 정밀 역학조사가 시급하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6일 공단 지역에 이어 비공해 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예상 외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카드뮴(Cd)의 경우 공해 지역인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 교실에서 12.3PPM이 검출된데 비해 비공해 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구영초등학교의 교실 계단에서 34.8PPM 검출됐다.

기관지염과 피부암, 폐암 등을 유발하는 비소(As)도 구영초등학교 교실에서 31.7PPM이 측정돼 공해 지역인 용연, 장생포, 선암초등학교 보다 2~3배 이상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또 체내에 축적돼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납(Pb)은 용연초등학교 10.2PPM, 장생포초등학교 2.0PPM, 선암초등학교 10.4PPM으로 측정됐으며 구영초등학교도 9.6PPM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울산시 환경 관계자는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은 공단 인근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와 대기 중 오염 물질 확산에 의해 도로변이나 주택가 학교에서도 높은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성호 기자)

• 울산 초등校교실 중금속 오염

경향신문 1997-09-06

울산 지역 공단 주변 초등학교 교실의 공기가 중금속으로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5일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실 분진이 금속 성분』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단 인근 학교 교실의 먼지에 아연 등 중금속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규제치의 수십 배나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지난해 1월 8,9일 이틀 간 울산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등 공단 인근 5개 초등학교 교실에서 채위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 규제치 100ppm인 아연(Zn)의 경우 장생포초등학교 교실 먼지에서 3,657ppm이나 검출돼 규제치를 무려 36배 초과했다. 또 용연 1,140, 선암 649, 구영초등 647ppm 등으로 모두 규제치를 넘어섰다. 납(pb 규체치 100ppm)은 선암에서 384, 용연 196, 장생포 259, 구영초등 183ppm 등으로 나타났다. 납 카드뮴 등 대기 중 중금속이 체내에 과다 흡수되면 어린이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한태 기자)

• 울산 초등생 1,037명 정밀진단

경향신문 1997-09-24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울산 지역 공단 인근 3개 초등학교(경향신문 6일자 22면 보도) 재학생 1,000명에 대한 정밀진단이 실시된다. 울산시교육청은 23일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학생 수 63명)와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초등학교(240명), 남구 야음동 선암초등학교(734명) 등 3개 교 초등학생 1,037명에 대한 체내 중금속 축적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개 초등학교의 창들과 교실 먼지 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폐교가 결정된 용연초등학교는 내년 2월 말 폐교 조치한 뒤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해 인근 대현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한태 기자)

- **한국전력, 철거민들의 향수 달래주는 리플릿 배포**

중앙일보 1997-10-14

"철거되기 전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처 (처장 송재신)가 철거된 남구용잠. 용연. 남화동의 옛 모습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 철거민들의 향수를 달래 주고 있다. A4 크기에 모두 9장의 사진이 실린 '이 땅의 옛 모습' 이란 이 리플릿은 한전이 최근 2백만 원(1천부)을 들여 만든 것. 사진 중 지난 '69년도의 용잠동'과 '77년의 남화동'은 마을 뒤쪽으로 논이 있고 앞쪽으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적한 어촌 풍경 그대로다. 현재 용잠동은 울산화력발전처 1.2.3호기 및 저유소가, 남화동은 화력발전처의 4.5.6호기 및 복합화력이 들어서 있다. 이 리플릿은 또 지난 39년 개교, 2천 3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난 77년 문을 닫은 용잠초등학교의 전경, 플라타너스 아래서 야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정겨운 모습, 흰 천막 앞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70년대 초의 가을 운동회 모습을 담고 있다. 또 공해 때문에 내년 2월 말 폐교 예정인 용연초등교 학생들이 올 가을 마지막 운동회를 하고 있는 장면과 용연초등교 앞 황암 마을의 제당이 실려 있다. 철거민들의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리플릿 첫 페이지에는 웅장한 화력발전소의 모습과 함께 "용의 전설로 가득한 이들 동네에는 넉넉한 인심과 퍼덕이는 어획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한전 울산화력발전처 기획관리부 이상도(이상도.44) 씨는 "리플릿을 배포한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약 3백 부가 나가는 등 예상 외로 철거민들의 호응이 크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

진을 확보, 사진첩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에는 울산. 온산공단 조성으로 지난 60년대 초부터 이주 대상 7천 4백여 가구 중 지금까지 6천 6백 58가구가 정든 고향을 등졌다.(황선윤 기자)

• **[부산/경남]「그리운 옛울산」 사진으로 만나요**

동아일보 1997-10-27

「울산의 옛 모습을 나눠드립니다」. 한전 울산화력발전처(처장 송재신·宋在信)가 울산공단 조성으로 마을 전체가 공장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울산의 옛 모습을 담은 리플릿을 나눠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두 7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리플릿은 우선 1천 부를 제작했다. 현재 울산화력발전처 1, 2, 3호기 및 저유소가 자리잡은 남구 용잠동의 69년도 모습(사진)과 울산화력발전처 4, 5, 6호기 및 복합화력이 들어선 남화동의 77년도 모습은 남해안의 한적한 마을 모습이다. 이 리플릿에는 또 극심한 공해 때문에 77년 폐교된 뒤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 용잠초등학교 전경과 이 학교 운동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야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역시 공해 때문에 내년 폐교 예정인 용연초등학교의 올 가을 마지막 운동회 모습을 담고 있다. 울산에는 울산 온산공단이 조성된 지난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6천 6백 58가구 2만 4천여 명이 정든 고향을 공장 부지로 내주고 뿔뿔이 흩어져 실향민으로 살고 있다.(정재락 기자)

• **울산공단 초등학생 중금속조사**

조선일보 1997-10-27

울산공단 인접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금속 체내 축적 여부에 대한 정밀검진이 오는 12월 실시된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천 8백여 만 원을 들여 공해지역 학교인 남구 용연, 장생포, 선암초등학교 등 모두 3개 교 3백 62명의 학생들과 이들과 비교하기 위해 울산 언양초등학교 1백 명 등 모두 4백 62명에 대한 중금속 체내 축적 여부

검진을 하기로 했다.

울산대병원이 특별 건강조사팀을 구성해 실시할 이번 검사는 납과 카드뮴, 비소, 수은, 아연 등의 체내 축적 등 모두 18개 항목에 걸쳐 실시되며 내년 2월께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 3,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들 공단 인접 학교의 창틀 먼지와 교실 공기 중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울산환경연합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공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학교의 이주 여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공단 인근 초등교 전국 첫 건강검진

부산일보 1997-12-09



[울산]공단 인근 초등학생들의 중금속 체내 축적 여부 등 공해성 질환을 가리기 위한 건강 검진이 전국 처음으로 울산에서 실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대학병원 건강조사팀은 8일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 22명을 비롯해 장생포초등학교 89명 등 1백 11명의 건강 검진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암초등(2백 51명)과 언양초등(1백 명) 등 4개 학교 4백 62명을 검진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공해 지역 초등생들의 체내 중금속 축적 농도 등 20개 항목을 측정, 초등생들의 건강과 공해와의 역학 관계를 밝히게 된다.

또 공단에서 멀리 떨어진 울주군 언양읍 언양초등학교생들의 건강 상태를 대조군으로 조사해 공해 지역과 비공해 지역의 학생들 간 건강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건강 검진 대상 학생 2천 1백30여 명 중 3학년과 6학년(4백 62명)만 검진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2월 검진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성호 기자)

• [부산/경남]울산공단, 초등생 정밀 건강진단 실시

동아일보 1997-12-09

공단에 인접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금속 체내 축적 여부 등 공해성 질환을 가리기 위한 정밀 건강 진단이 전국 처음으로 울산에서 실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오전 울산대병원에 의뢰해 울산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초등학교 학생 89명과 인근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 학생 22명 등 모두 1백 11명에 대해 중금속에 의한 신장장애 검사를 비롯, 4개 항목의 중금속 체내 축적 여부 검사와 혈액 체격 등 모두 20개 항목에 걸쳐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또 12일까지 공단과 인접한 남구 선암초등학교 학생 2백 51명에 대해 같은 검진을 하며 이들 학교 학생들과 비교하기 위해 비교적 청정 지역인 울산 울주군 언양초등학교 학생 1백 명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한다. 최종 검진 결과는 내년 1월 말 1차적으로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정밀 재검진을 한 뒤 내년 3월 발표한다. 이번 정밀 검진은 지난 9월 용연초등학교에서 공해 피해 일지가 발견된데 이어 이들 학교의 창틀과 교실 내 먼지 속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울산환경연합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정재락 기자)

• 울산 환경운동연합, 올해 10대 환경 뉴스 선정

부산일보 1997-12-17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7일 97년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하고 공단 지역에 위치한 용연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해 상황 일지가 발견돼 충격을 준 공단 지역 학교 중금속 대량 검출과 6월 말 경주 남동쪽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해 양산 단층대가 활성 단층대임을 입증하게 된 소식 등을 올해 가장 중요한 환경뉴스로 뽑았다. 또 울산시가 시비 2억 8천 9백만 원을 들인 울산환경 현황조사가 부실 조사로 밝혀진 것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울산시가 환경 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울산시 환경조례 제정과 (주)SK가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 생태 공원을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 채납하는 울산대공원 조성 등은 모범적 사례로 지목됐다.이밖에 10대 뉴스로는 5백 88억 원을 투입,건설한 온산하수처리장이 감사 결과 2천3백여 곳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 오천. 오대마을 모기피해 대곡댐 추진과 주민반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위천공단 반대운동 등이 선

정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의 대표적 반환경 정책으로 태화강 대숲의 벌채, 재벌업체에 국한된 자연녹지의 대규모 해제, 산지 고층 습원으로 보존돼야 할 무제치늪 주변의 공원묘지 및 골프장 추진, 악취 공해에도 표류하고 있는 대기 총량 규제 등을 지목하고 전국 최악의 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박재근 기자)

• **마지막 졸업식 초등교 2題**

부산일보 1998-02-19



▲ 최근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 속에 각급 학교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해 및 학생 수 감소로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폐교되는 학교도 잇따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교장 백승효)는 20일 6학년생 12명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공해 학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마무리하게 된다. 남은 1~5학년생 45명은 졸업식 다음날인 21일 수업을 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나 남구 야음동 대현초등학교로 전학한다. 이들 초등학생은 지난 85년 울산시의 환경 오염 지역 주민 이주 사업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난 뒤 아직까지 남아 있던 세입자들의 자녀로 극심한 공해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 왔다. 지난해 공해 실상을 매일 기록한 공해일지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 이 학교는 오는 3월1일 폐교된 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 학교 졸업생 이민우씨(38)는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배들이 더 이상 공해의 고통 속에 학업을 받지 않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 **[울산] '공해학교' 용연초등 마지막 졸업식**

학생-교사 중금속중독...이날로 폐교 조치 당해

조선일보 1998-02-20



▲ 20일 울산공단 지역 공해로 폐교되는 용연초등교 마지막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가 답사를 읽고 있다. (조인원 기자)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가 20일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지난 62년 석유화학공단에 둘러싸인 터에 작은 분교로 자리 잡은 지 36년만이다. 사람들은 다들 용연초등학교를 '공해학교'로 부르지만, 이날 졸업장을 받아 쥔 12명의 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학교인데…"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학교 체육실에서 있은 졸업식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진학을 앞둔 설레임도, 커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뿌듯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숙연하다 싶을 만큼 무거운 분위기속에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읽어가던 김종민(12) 군은 끝내 목이 메였다. 작은 교실을 가득 메운 4-5학년 재학생 18명, 백승효 교장을 비롯한 11명의 교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털어내지 못한 무언가의 답답함을 가슴에 간직한 표정이었다.

교실 바로 뒤편엔 키 낮은 벽돌담 너머로 코를 찌르는 각종 산업 폐기물 수천 t이 쌓여 있다. 운동장 바로 옆 알루미늄 가공업체로부터는 정체를 표현하기 어려운 야릇한 유해가스 냄새가 풍겨온다.

어린이들이 원인모를 두통과 피부병에 시달리고 끝내 젊은 교사들마저 수업 중 쓰러지면서 '공해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게 지난 92년. 당시 양호교사가 이런 상황을 매일 기록한 '양호 일지'가 최근 공개되었고, 교실 환경이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며 지난해 말에는 전교생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며칠 전엔 학생들의 몸속 중금속 농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는 이날 용연학교에 폐교 말뚝이 박히게 된 것이다. 재학생 어린이들은 새 학기부터 인근 대현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졸업식에서 6년 개근상을 받은 이승용 군의 어머니 장태옥(43) 씨는 "아들이 학교에서도 늘상 양호실을 드나들고 집에 와서도 두통과 배앓이로 고생해 상비약을 갖추고 살았다"고 말했다.

"현국아, 무종아, 준호야…. 이제 체육 시간에도 마음껏 뛸 수 있는 깨끗하고 맑 은 환경에서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하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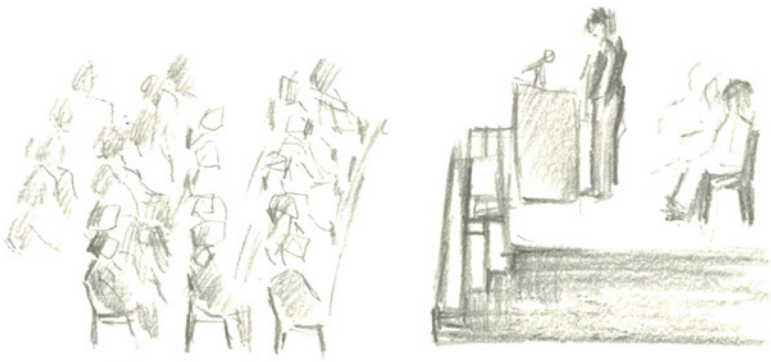
빗속에 우산 들고 교문까지 나와 출석 번호 대로 이름을 불러준 6학년 담임 변경규(31) 교

사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꾸벅 허리를 굽혔다.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인사였다.(박용근 기자)

• **[취재수첩] '공해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부산일보 1998-02-21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 남구 용연동 용연초등학교의 서른한 번째 졸업식은 시종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극심한 공해로 지난 85년부터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이 학교는 이날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12명의 졸업생과 19명의 상급 재학생이 참석한 졸업식장은 떠나는 선배와 보내는 후배가 있는 졸업식이 아닌 모두 떠나야 하는 자리가 됐다. "떠나는 오빠 언니를 붙잡고 싶어요. 용연초등학교는 사라지지만 용연의 전통을 빛내는 오빠 언니들이 되길 빕니다." "우리 모두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용연의 아들딸이 되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자." 후배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가 이어지는 동안 졸업식장은 폐교의 아쉬움을 공감하듯 참석자 모두 고개를 숙였고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다. 졸업생 모두 봉사상 민첩상 달리기상 만들기상 등 재미있게 이름 붙여진 상을 받았다. 백승효 교장은 "여러분들의 졸업을 마지막으로 이 학교는 문을 닫지만 용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발해야 한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1절과 2절을 나눠 부르는 졸업의 노래가 식장에 울려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여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철거촌에 남아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재학생 45명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10km정도 떨어진 대현초등학교로 전학,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길에 나서야 한다.(이성호 기자)



2. 폐교 동안의 신문 자료

• **공해로 잃은 학교 이름만이라도...**

부산일보 1998-04-11



▲ 폐교로 정문이 굳게 닫혀 있는 용연초등학교

[울산]울산시 남구 개운동 용연초등학교 앞 용연천에 강알카리성 폐수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용연 앞바다로 유입, 어장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용연어촌계 박영필 계장(57)을 비롯한 주민들에 따르면 5일 오전부터 용연공단으로 이어지는 용연천을 통해 붉은색의 폐수 수백 t이 강한 초산 냄새를 풍기면서 바다로 흘러들어 길이와 너비 각 1백여 m의 띠를 형성하며 양식장 일대 바다를 크게 오염시켰다는 것. 이날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용연천의 폐수를 채취해 수소 이온 농도를 분석한 결과 9.5의 강알칼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종국 기자)

• **경기 불황 여파로 폐교 매각 부진**

연합뉴스 1998-09-09

울산 시내 폐지 학교 건물이 경기 불황으로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의 세수 증대나 시설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울산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세수 증대를 위해 7곳의 폐교 시설물 가운데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 중인 울주군 서생초등 대송분교와 학생 수 증가로 2001년에 개교할 중구 울산초등 성안분교, 학생 수련장으로 활용할 두서초등 미호분교 등 3곳을 제외, 나머지 4곳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말 폐교된 공해 지역의 남구 용연초등학교(토지 9천 6백 92㎡, 건물**

1천 3백 8㎡)와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울주군 청량초등 신리분교(토지 5천 6백 15㎡, 건물 5백 8㎡)등 2개 교를 매각키로 했다. 또 울주군 청량초등 용암분교(토지 3천 7백 76㎡, 건물 1천 24㎡)와 북구 농서초등 성혜분교(토지 2천 6백 84㎡, 건물 3백 57㎡) 등 2개 교를 청소년 수련장이나 마을회관, 농산물 직판장 등 공공 복리시설로 활용토록 임대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사회적 투자 위축과 폐교 시설물의 외곽 지역 소재, 교육청 홍보 소홀 등으로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대책 마련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지 학교 매각을 통한 세수 증대와 시설물 활용 계획이 매각이 안 되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폐교 재산 매각과 임대 위해 홍보 책자 발간과 임대 조건 완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장은영 기자)

- **'산업폐기물의 공동묘지 울산'**

부산일보 1998-12-16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의 "공해 울산 10대 환경뉴스"와 "푸른 울산 5대 뉴스"를 선정,16일 발표했다. 공해 10대 뉴스는 산업 폐기물의 공동묘지 울산 공해로 인한 용연초등학교 폐교 울산핵발전소 울주군 유치 운동 봉계 활천매립장의 끝없는 분쟁 공해공장 한국티타늄 허가 회야댐 수질 논쟁 구산산업 10개월째 화재 현대중공업 송전탑 피해 위천공단 추진과 정치인의 변신 유조선 사고와 해양 오염 등이다. 환경련은 또 삼산매립장의 안정화 논란,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개발 추진, 환경호로몬 공포, 고리원전의 잇단 사고, 공해속의 선암공원 조성 추진, 대곡댐 건설 논란, 시민 참여가 제한된 환경 행정 등 7개 사안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푸른 울산 5대 뉴스로는 무제치늪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울산의 녹색섬 남산 보존 환경후보 대거 당선 "푸른 울산 21"선언 민간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 등이다.(이성호 기자)

- **'공해지역 폐교는 매각'**

부산일보 1999-04-15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문을 닫은 16개 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했다. 15일 시교육청이 밝힌 폐교 활용 계획에 따르면 향후 인구 유입

이 예상되는 지역의 폐교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 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교는 임대. 대여 등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공해 지역 폐교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생초등학교 대송분교는 학생 야영장으로, 강동초등 신명분교와 주전초등 동해분교는 교육 목적으로 보존키로 했으며 공해 지역인 청량초등 용암분교와 용연초등학교 및 농서초등 성혜분교는 매각키로 했다. 또 울산초등 성안분교의 경우 인근 성안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공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돼 초등학교로 신설할 계획이며 옛 송정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용키로 했고 두서초등 미호분교 등 8개 교는 사회 교육 등의 용도로 임대할 계획이다.(강태봉 기자)

• '사또' 옷 입고 역사교육 30년

부산일보 2003-05-14



▲ 향토사연구가 윤대헌씨가 13일 울산시 중구 동헌에서 사또 복장을 한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사 강의를 하고 있다.(천영철기자)

"어린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울산 지역 향토사연구가 윤대헌(54·울산시 중구 다운동) 씨. 윤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울산시 중구 동헌에서 조선시대 동헌을 관장했던 사또 복장으로 남구 무거동 무거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동헌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윤씨는 비록 정식교사는 아니지만 30여 년 간 동헌과 처용암, 서생포왜성 등 울산 지역 문화재가 자리잡은 산과 들·강·바다 등 '울타리 없는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직접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윤씨의 현재 직업은 울산시 문화유산해설사. 월드컵 개최를 앞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시의 요청에 의해 어린이와 관광객들에게 울산 지역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윤씨는 울산공고를 졸업한 직후 울산시 남구 용연동의 비정규학교인 재건중에서 15년 동안 역사교사로 봉사하면서부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매달려왔다. 이 경력을 인정받아 80년대 초부터 98년까지 남구 용연초등학교에서 무보수 명예직교사로 15년 간 근무하면서 울산 지역 문화재 지도, 방송반 지도 등을 해왔다. 또 민속연을 만들어 어린이들에

게 보급하는 '울산민속연보존회'와 옛 울산문화원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늘 어린이 곁에 머물러왔다. 그는 전국을 돌며 울산 지역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모으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 출신의 국어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전 저서는 물론 울산을 주제로 한 민요 채록 자료, 문화재 사진, 희귀 고서 등 지난 30여 년 간 모은 자료가 1t트럭 3~4대 분량에 달한다. 윤씨는 앞으로 작은 전시관을 건립하거나 자료를 공공기관에 기탁, 울산지역 어린이들이 희귀한 역사 자료를 마음껏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윤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며 "어린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호기심만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사또 복장이 아니라 도깨비 복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천영철 기자)

• **교명선정위원회 열어**

경상일보 2003-09-24

울산 강남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정찬모 교육위원과 강대호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학교장 대표, 구·군청 공보담당관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개교 예정인 5개 학교의 교명 선정을 위한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명선정위원회에서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단지 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2옥현초등학교와 제2옥현중학교는 문수경기장과 월계수 등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월계초등학교'와 문수구장 및 문수로 등의 명칭을 딴 '문수중학교'로 교명을 선정했다. 또 언양읍 서부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 남천초등학교는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에서 유래한 '영화초등학교'로, 남구 야음동 교육단지에 설립하고 있는 '가칭' 제2야음초등학교와 야음중학교는 폐교 교명 승계에 따른 동창회 지원과 발전 강화 차원에서 '용연초등학교'와 지명에서 유래한 '야음중학교'로 각각 선정했다.(박익조 기자)

• **울산 초. 중. 고등학교 3월 11곳 새로 개교**

부산일보 2004-01-08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에 11개 학교를 새로 개교해 울산 지역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새로 개교하는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동구 화정동 양지초등, 남구 무거동 월계초등, 남구 야음동 용연초등, 울주군 언양읍 영화초등 등 4개이며 중학교는 북구 진장·명촌 지구 명촌중과 야음동 야음중, 무거동 문수중 등 3곳이다. 고등학교는 중구 유곡동 함월고, 야음동 대현고와 신선여고, 남구 삼산동 삼산고 등 4곳이다. 이로써 울산지역 전체 학교 수는 기존 179개에서 190개로 증가,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해 36명 선에서 35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천영철 기자)

• '초. 중. 고교를 한 울타리에'

부산일보 2004-01-16



▲ 오는 3월 문을 열 울산시 남구 야음교육단지 전경

울산시교육청이 만성적인 학교 부지 난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4개 초·중·고교를 한 울타리 내에 집중화시킨 남구 야음동 야음교육단지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324억 8천만 원을 들여 야음동 789 일대 4만 8천 140㎡에 용연초등과 야음중, 대현고교, 신선여고 등 4개 학교를 동시에 건립한 야음교육단지를 오는 3월 개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역 최초의 교육단지인 야음교육단지는 학교 건물 4개 동을 기준으로 2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운동장과 다목적강당·조리실 등 부대 시설을 각각 2곳씩 갖추고 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와 예산 절감. 통상 도심지에 1개 학교를 건립할 경우 1만 5천 600여㎡의 땅이 필요하지만 부지 활용 효과를 극대화한 이 단지는 1만 2천㎡에 1개교를 건립, 42억 원 상당인 1만 2천 900여㎡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또 초·중·고교를 한곳에 모은 만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심지에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부족하고 매입 비용도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안으로 교육단지 건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천영철 기자)

3. 현 용연초등학교의 신문 자료

• **용연초등 야음동으로 옮겨 복교식**

경상일보 2004-05-04

용연초등학교(교장 권두호)가 6일 오전 10시 폐교 6년 만에 울산시 남구 야음동으로 자리를 옮겨 복교식을 갖는다. 복교식은 리코더 연주, 합창, 사물놀이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교기 봉정식, 학교장 기념사, 테이프 커팅, 기념 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용연초등은 올해 3월 1일 야음교육단지 내 새로이 문을 열었으나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98년 문을 닫은 남구 용연동 옛 용연초등학교의 역사를 그대로 잇기로 하고 이날 복교식을 갖게 됐다. 용연초등과 옛 용연초등 총동창회는 복교에 앞서 지난달 교명 및 학교 연혁 연계 문제와 학교 상징물, 보존 자료 이관 등에 대한 협의를 갖고 합병을 합의했다. 총동창회 측은 현재 대현초등에 보관중인 옛 용연초등의 보존 자료를 용연초등으로 이관한 뒤 역사관의 자료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이주 등으로 학생 부족으로 지난 98년 문을 닫은 옛 용연초등은 지난 62년 용잠, 용연, 황성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교한 이래 68년 첫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31회에 걸쳐 3천 18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서찬수 기자)

• **"폐교의 아픔을 빛나는 전통으로"**

경상일보 2004-05-06

울산시 남구 야음동 용연초등학교(교장 권두호)는 6일 오전 11시 교내 실내체육관에서 최만규 교육감, 김장배 교육위원회 의장, 이채익 남구청장 등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참석한 복교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권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비록 폐교의 아픔이 있었지만 빛나는 전통과 아름다운 교풍을 이어받아 잘 다듬어진 학교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수 동창회장은 "동문회는 미래의 큰 꿈과 희



망을 잃지 않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규 교육감, 안길원 강남교육장, 김장배 교육위의장, 이채익 남구청장 등은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폐교의 아픔을 이겨내고 좋은 시설을 갖춰 새롭게 복교식을 갖는 만큼 훌륭한 교풍과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이어 테이프 커팅, 기념 식수 행사를 갖고 용연초등의 복교를 축하했다.한편 복교식에서 식전 행사로 학생들의 합창과 사물놀이 공연이 열려 참석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찬수 기자)

- **[부산/경남]울산 용연초교… 7년 만에 되찾은 교명**

  동아일보 2004-05-06

공해 때문에 폐교됐던 초등학교가 7년 만에 교명(校名)을 되찾았다. 울산 남구 야음동 용연초등학교(교장 권두호·權斗鎬)는 6일 오전 11시 교정에서 최만규(崔萬奎) 시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연초등학교 복교(復校) 기념식'을 가졌다.

이 학교의 교명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인근의 남구 용연동에 1962년 3월 개교한 학교. 그러나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공해 때문에 학생들이 집단 피부병을 앓는 등 피해를 입은 데다 공단 주변 주민 집단 이주로 재학생이 줄어들자 1998년 2월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등 총 12명으로 제31회 졸업식을 가진 뒤 폐교됐다. 당시까지의 졸업생은 총 3185명.

그 뒤 졸업생을 중심으로 "전통 깊은 학교의 교명이라도 되살리자"며 신설되는 학교에 '용연초등학교' 이름을 사용해 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등이 "공해 학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2002년부터는 졸업생들이 서명 운동을 벌여 복교를 추진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3월 개교하는 남구 야음동 교육단지 내 초등학교를 용연초등학교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곳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만 4000평의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 고교 등 4개 학교가 들어

서 운동장과 체육관, 급식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시범 교육단지.

3월 학생 900여명으로 용연초등학교를 복교했다. 2회 졸업생인 최해수(崔海守) 총동창회장은 이날 복교 기념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모금한 1,5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최 회장은 "어릴 때 꿈과 희망을 키우던 정든 학교가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폐교된 지 7년 만에 다시 교명을 되찾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 윤종호, 오종경 울산시 초등생 한자경시대회 금상

경상일보 2004-10-25

울산초등한자교과교육연구회(회장 권두호) 주최로 지난 23일 남구 용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울산시 초등학생 한자 경시대회에서 고학년부에서 윤종호(송정초, 5-5), 저학년부에서 오종경(평산초, 3-5) 어린이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1·2·3학년의 저학년부와 4·5·6학년의 고학년부로 나뉘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5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성황을 이뤄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한자 교육의 열기를 반영했다. 울산초등한자교과교육연구회는 초등학생들의 기초 한자 능력을 높이고 한자 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조직된 울산시교육과학연구원 산하 초등교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다. 시상식을 각 학교별로 열릴 예정이다. □입상자 명단(장려상 제외) 〈고학년부〉 △금상 윤종호(송정, 5-5) △은상 강태구(송정, 6-7)·최지원(용연, 5-2, 여) △동상 배영찬(양지, 6-2)·박주현(삼일, 6-1, 여)·김경은(복산, 6-1, 여) 〈저학년부〉 △금상 오종경(평산, 3-5) △은상 이혜빈(무거, 3-8, 여)·최규한(용연, 3-2) △동상 전우빈(동천, 3-1, 여)·김태원(범서, 3-5)·이상헌(동백, 3-5)(박철종 기자)

• 폐교 활용범위 대폭 확대

경상일보 2005-03-26

울산의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문화·체육·여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돼 폐교에 대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주 중 입법 예고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폐교의 경우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시설(농산물 가공·농작물 경작·사료 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향토 음식점), 문화 시설, 체육 시설로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청소년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폐교 이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의 경우 2월 말 현재 문 닫은 학교 13개 교 중 삼광분교(울주문화원), 두북분교(청소년 수련·봉사활동), 내와분교(자연체험학습장), 조일분교(성도청소년수련원), 미호분교(교육용유물전시관), 무룡분교(울산시민문화센타), 동해분교(영상체험관), 옛송정초등교(문화원 및 공공도서실) 등 8개교는 시민·문화·청소년단체 등 공익단체에 임대돼 활용중에 있다. 또 범서 서사분교(들꽃학습원과 울산교육수련원), 두서 두남분교(대안학교), 서생 대송분교(대송학생야영장) 등 3개 교는 교육청 자체시설로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용암분교는 지난달 말까지 민간에 매각한데 이어 옛 용연초등학교 부지와 건물도 조만간 매각 철자를 밟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 따를 수밖에 없어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창식 기자)

- **"창의력, 울산교육의 희망"**

경상일보 2005-08-23

울산에서 전국 학생들의 창의력을 겨루는 대회가 26일과 27일 이틀 간 울산시교육청과 용연초등학교 등에서 펼쳐진다. '2005 울산 창의축전'이 지난해 울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렸다가 올해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돼 530여 명의 학생과 교사, 교수들이 참가해 창의력을 겨루고 세미나를 갖는 등 창의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긴다. 이번 축전

은 창의력 경시대회, 창의력 교육 세미나, 창의 체험 한마당, 울산 문화 탐방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5~6학년생 2명이 1개 팀을 이루는 창의력 경시대회는 울산 시내 90여 개 초등학교 및 타 시·도 17개 학교에서 총 114팀 228명의 학생들이 참가, 경연을 펼친다. 26일 개막식 직후 버스를 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을 직접 탐방하면서 2개의 '현장 해결 문제'를 푸는 것으로 순위를 가린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생 학생들에게 '사전 해결 문제'로 '고래 테마 해양공원 만들기'를 미리 제시, 27일 용연초등학교에서 해결 문제를 전시하고 참가 학생들의 상호 평가로 즉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 해결 문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현장 해결 문제의 점수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창의력 경시대회에서 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장려 15팀 등 34팀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함께 상품이 수여되며, 대상과 금상 팀을 지도한 교사 4명에게도 교육감 표창장이 주어진다. 또 창의력 교육 세미나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참가한 81명의 창의력 회원들을 비롯해 아동과 함께 참가한 인솔 교사와 학부모, 창의력계발교육지원팀 등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동아대 박영태 교수와 교원대 전평국 교수가 '창의력 교육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경기도 부천 솔안초등 임용식 교사, 대구시 태현초등 이옥정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내용을 사례 발표할 예정이다. 창의 체험 한마당 행사는 경시대회 참가학생들이 27일 오전부터 용연초등학교에서 8개의 부스를 돌면서 헤엄치는 종이 물고기, 얼음 낚시, 조노돔시스템 등 창의력 증진을 위한 체험 활동을 갖는다. 인솔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체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코너와 창의 퀴즈 등 학생과 교사·학부모 모두가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 창의 한마당 행사로 마련된다. 부대 행사로 26일 문수축구경기장과 방어진 화암추등대, 울산만 야경 등을 참관한 후 신명동 교육수련원에서 창의 정보마당 시간을 갖고, 27일에는 감은사지와 문무대왕릉, 장생포고래박물관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창의축전에서 울산의 광활하고 힘찬 이미지를 담은 돌고래 모습의 캐릭터인 해울이를 응용, '창의력 교육'과 결합시켜 '창우리' 캐릭터를 개발했다. 울산이 창의력 교육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의 창의력 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과 우리 모두가 창의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행사가 끝난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책자와 CD를 만들어 전 초등학교에 보급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 교육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일산초등학교 미네르바팀(서혜민·백수인·김혜빈)은 (사) 한국영재학회와 KAIST가 공동 주관한 세계 창의성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울산 창의력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김창식 기자)

• 용연초 어린이 울산세관 방문 휴대품 검색 등 세관 업무 체험

경상일보 2007-03-09



울산세관은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9일 지역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세관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다. 세관은 이날 세관 인근에 위치한 용연초등학교 6학생 35명과 선생님을 초청, 세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과 승무원 휴대품 검사 현장 등 세관 업무에 대한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수출·입 통관 절차를 비롯해, 밀수 및 안보 위해 물품 반입 방지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홍보 비디오를 관람했다. 이어 장생포 세관 통선장을 방문, X선 검색기 등 과학기기를 이용해 승무원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과정을 견학하고 직접 금속 제품을 휴대하고 문형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등 검사 현장 체험 행사를 가졌다. 또 세관 고속 감시정에 올라타 울산항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이형중 기자)

• 광역시 10년 53곳 개교·21곳 폐교
23일 시교육청서 축하행사 열려

경상일보 2007-07-23

광역시교육청으로 새 출발한 울산에 지난 10년 간 새로 문을 연 학교는 어느 정도일까. 또 이 기간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얼마나 될까.

울산시교육청은 23일 시교육청에서 지난 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10년 간 일어난 울



산교육의 각종 현황과 변천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울산교육 10년사' 발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간된 '울산교육 10년사'에는 지난 10년 간 울산에 새로 문을 연 학교는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6개 등 모두 53개 학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승격 당시인 지난 97년 95개였으나 지난 4월 기준으로 117개 교(분교 포함)로 늘었으며, 중학교는 41개에서 56개, 고등학교는 31개에서 47개(특수학교 고등부 포함)로 늘었다. 유치원은 173개 557학급에서 180개 808학급으로 늘어 1만 4300여명의 원아가 교육받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10년 간 문을 닫은 학교는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개 등 21개교다.

울산시 남구 용암초등학교는 주민들이 공해를 피해 대규모 이주를 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 광역시 승격 후 처음으로 문을 닫은(1999년) 학교로 기록됐다. 또 지난 99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무룡분교, 신명분교, 서사분교, 조일분교, 내와분교 등 18개 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폐합됐다. 폐교된 후 새 부지에 학교를 세우면서 다시 문을 연 학교는 지난 2003년 울주군 온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지난 2004년 남구 용연초등학교 등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지난 2000년 양정중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대현중학교는 여천공단 편입으로 지난 1989년 문을 닫았다가 이듬해(1990년) 울산시 남구 달동에 다시 문을 열었다. 한편 2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 김장배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 등 45명이 참석해 축하했다.(박정남 기자)

- **〈울산 지난 10년 간 20개 초등학교 폐교〉**

  연합뉴스 2007-07-23

울산 지역에서 지난 10년 간 공단 개발 등으로 초등학교 20개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시교육청이 발간한 '울산교육 10년사'에 따르면 지난 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10년 간 공단 개발에 따른 공해 유발과 학생 수 감소,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치 등으로 모두 20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남구 용암초등학교는 지난 97년 울산공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주민들이 공해를 피해 대규모 이주를 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 자연 폐교했고 공단 근처에 위치한 남구 용연초등학교도 공해일지 발견 등 공해 문제에다 학교가 석유 비축기지 부지로 편입돼 지난 98년 문을 닫았다.

지난 99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무룡분교, 신명분교, 서사분교, 조일분교, 내와분교 등 18개 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폐합됐다. 또 폐교된 후 새 부지에 학교를 세우면서 재개교한 학교는 지난 2003년 울주군 온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지난 2004년 남구 용연초등학교 등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울산의 전체 초등학교 수는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 97년 95개이던 것이 현재 117개교로 10년 사이 22개교가 늘어났다.

한편 '울산교육 10년사'는 1부 울산의 교육 환경, 2부 광역시 승격 이전의 울산 교육, 3부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울산광역시 교육, 4부 울산광역시 교육의 발전 과제와 전망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으며 화보, 통계 자료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울산 교육의 역사를 쉽게 반추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이후 10년 간 울산 교육의 발자취를 정리하기 위해 '울산교육 10년사'를 발간했다"며 "이 책이 향후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 **'타임'지 실렸던 옛 용연초등학교 공해 기사(김진곤 용연초등 8회 칼럼)**

울산매일신문 2008-01- 08

1995년 6월 26일, 『타임』지에 옛 용연초등학교의 공해 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우선 『타임』지는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1923년에 창간하여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에 관해 체계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간 시사 해설지이다. 이 주간지는 세계 각지에 400여 명의 특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 외국어판으로 발행되어 950만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타임』지가 실은 사진부터 살펴보면 당시의 옛 용연초등학교의 전경을 담고 있다. 교실로 이용하는 단층 학교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성벽처럼 산업 쓰레기가 쌓여 건물보다 훨씬 높다. 그 폐기물더미

중간쯤의 굴뚝에서 매연을 거침없이 품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마침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하얀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앞을 학생들이 뛰어가고 있다. 이상의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기사를 굳이 읽지 않더라도 『타임』지의 편집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의 그 뒤에 산업 쓰레기에 묻힌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한국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학교 운동장에 근접한 저 산더미의 공업 폐기물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끔찍한 악몽을 남겼다고 한다. 이처럼 옛 용연초등학교의 공해 기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지에까지 실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88년부터 기록된 당시 이 학교의 〈공해일지〉에 악취,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심해 단축수업을 했으며, 심지어 등교하자마자 귀가 조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 우물을 폐쇄하고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는 등 일 년 중에 삼분의 일 정도의 수업이 가능했다고 하니 공해의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건강조사를 의뢰해 작성한 〈울산 국가공단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조사 보고서〉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납,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혈중과 오줌에서 다량 검출되어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한다. 더구나 그 기준치라는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이 학교는 엄청난 공해 때문에 1998년 2월 28일에 폐교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이 지역 학생들은 이듬해 폐교된 학교 정문 앞에서 대현초등학교로 등교할 임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이 학교는 이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당초의 고정관념을 깨고 6년 동안의 긴 잠을 깨고 2004년 3월 1일 신선산 자락의 교육단지에 화려하게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복교는 고생하신 여러 인사들의 노고가 축적된 것이겠지만, 특히 '용연'이라는 교명(校名)에 동의해 주신 인근 주민들의 용단이 없고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다시 전한다. 이 학교는 원래 용잠초등학교의 분교로 출발하여 개교와 폐교, 휴교와 복교라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 왔다. 이 학교의 역사가 곧 울산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공업화에 떠밀려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

• **용연초등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정 현판식**

경상일보 2009-09-18



울산시 남구 대현동 용연초등학교(교장 심외수)는 17일 이 학교 현관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전국에 19개뿐인 초등 유네스코 협동학교 중 한 학교이며 울산 지역 초등학교로는 처음 선정됐다.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유네스코에서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 협력과 평화 증진을 위해 지난 1963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범지구적 문제와 유엔·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문화 간 학습 등을 주제로 중점 교육한다. 용연초등학교는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과 문화 간 학습을 주요 주제로 삼고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정남 기자)

• **학생회장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 심사**

울산제일일보 2009-10-27

울산남구선관위(위원장 김주호)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을 심사한 결과 '우산 비닐꽂이 설치', '점심 시간에 방송실에서 음악 틀어주기'란 공약을 제출한 월계초등학교 김기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우수상'은 용연초등학교 김예진 학생과 울산중앙초등학교 최수은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들 학생은 28일 오후 2시 남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지도 교사가 같이 참석한 가운데 상을 받는다.

남구선관위는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학생은 공약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공약을 소견 발표회 등을 통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권자인 학생들은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 '참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선거가 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김정주 기자)

• 울산 초·중학생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서 두각

경상일보 2009-11-16



▲ 왼쪽부터 용연초 김용기, 우주소년단 울산본부 사무국장 이찬순, 오른쪽 대현중 장건영

울산 지역 초·중학생이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장관상과 금상을 나란히 차지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용연초등학교 6학년 김용기 군이 모형로켓 초등부 대상인 교육과학교육기술부 장관상을, 대현중학교 1학년 장건영 군이 고무동력기 중등부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한국우주소년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모형로켓, 글라이더, 물로켓, 고무동력기 등 4종목이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됐으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시·도 예선을 거친 대표선수들이 참가했다. 한국우주소년단 울산지방본부 이찬순 사무국장은 "모형로켓 부문 대상을 수상한 용연초등학교 6학년 김용기 군은 우주소년단이 조직돼 있지 않은 용연초등학교에서 출전해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부모님과 함께 울산지방본부를 오가며 연습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로켓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 같다"고 축하했다. 그는 "특히 울산은 산업수도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울산의 과학 실력을 전국에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 **해경 바다사랑 그림그리기대회 용연초 정다인 학생 대상**

울산신문 2010-06-03



지난달 29일 울산해양경찰서가 개최한 바다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용연초등학교 정다인 학생의 작품 '고래를 바다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해양경찰서가 개최한 '제5회 바다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용연초등학교 3학년 정다인 학생의 작품 '고래를 바다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9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결과 출품된 1,786점 중에서 다친 고래를 치료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이 작품을 해양경찰청장상인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상은 대현초등학교 6학년 권순범, 청량초등학교 6학년 김한별, 명지초등학교 2학년 김규원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에 울산남부초등학교 4학년 최민주 등 6명, 동상에 장생포초등학교 1학년 이준범 등 10명, 특별상에 리라 어린이집 김인휘 등 15명이 선정되는 등 총 650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울산광역시교육감상, 강남교육장상, 강북교육장상 등과 메달, 그리고 상금이 수여된다. 해경은 수상 작품을 홈페이지(http://ulsan.kcg.go.kr)를 통해 발표하고 오는 15일 경찰서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그림 대회에 어린이 및 학부모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해양 국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김지혁 기자)

• **울산과학교육원 다음달 13일까지 교사연수**

울산제일일보 2010-07-20

울산시교육과학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 13일까지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이번 연수에는 울산과학교육지원센터, 용연초등학교, 울산들꽃학습원 등에서 지역 초·중등 과학교사 250명이 참여해 '초등 과학교과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선 연수', '초등교사 과학과 실험연수', '중등 과학교사 실험연수' 등을 진행한다.

연수는 초·중등 과학교사들의 과학교과 분야 지식을 확대하고 교수·학습과 평가방법을 개선해 수업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험·실습 지도 능력을 높이고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교수와 교육 전문직, 역량 있는 현직교사를 강사로 위촉해 과학교과 실험·실습, 수업 모형 적용, 수업 사례 분석, 평가 실습, 컴퓨터기반실험(MBL), 현장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김규신 기자)

• "딸 한국생활에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울산제일일보 2011-04-06

울산의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의 수업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미국에서 가족들이 방문했다. 남구 용연초등학교(교장 심외수)는 6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 아만다(25·Amanda Catherine Marvin) 씨의 가족이 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연초를 찾는 아만다 교사의 가족은 어머니(Nancy Marvin)와 아버지(Bill Marvin), 오빠 등 3명이다. 이들 가족은 아만다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용연초에서 심외수 교장을 만나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아만다 교사가 팀을 이뤄 진행하는 5학년과 6학년 영어 수업을 참관했다. 또 학교 측은 아만다 교사의 어머니가 미국 애틀란타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인 점을 들어 1학년 학생의 수업도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아만다 교사의 가족들은 용연초 교직원들과 배구 등 체육경기를 함께 하며 딸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만다 교사는 평소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용연초 교사 16명이 참여하는 영어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다.

용연초는 한국을 떠나게 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가족의 학교 방문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 초등학교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인식 기자)

• **김사빈·이초희 '최우수상'**
입상자 14명 19일 본선 참가

울산신문 2011-06-01


▲ 김사빈(용연초)


▲ 이초희(다운중)

'2011년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예선에서 남구 용연초등학교 6학년 김사빈 학생과 다운중 3학년 이초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25명이 입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울산교육청 자체 글쓰기 예선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의 청렴 의식과 청렴 덕목을 높여 청렴한 사회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선대회에는 초등학교부 107편, 중학교부 69편이 접수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심사 결과 초등학교부에서는 '청렴한 세상은 우리 손으로 쌓는 탑!'이라는 글을 출품한 용연초 6학년 김사빈 학생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청렴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궁근정초 6학년 안민석 학생 등 6명이 우수상을, '자연에게서 배우는 청렴' 옥동초 5학년 허금빈 학생 등 8명이 장려상을 각각 받게 됐다. 또 중학교부에서는 '강물은 순환된다'는 글을 지은 다운중 3학년 이초희 학생이 최우수상, '실생활에서 청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학성여중 2학년 박수연 학생 등 6명이 우수상,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자' 이화중 2학년 권두영 학생 등 3명이 장려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예선 입상자 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초등학교부 7명과 중학교부 7명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1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박송근 기자)

• **[브리핑] 울산 '주5일제 수업제' 시범 운영**

부산일보 2011-07-19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동안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등 모두 9개 학교에서'주 5일 수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운영 학교는 야음초

등학교와 울산중앙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서생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와 이화중학교, 명덕여자중학교, 옥동중학교, 서생중학교 등 4개 중학교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데이 등 다양한 휴업일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적 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운영된다.(강태봉 기자)

- **'학교는 두 개 운동장은 한개' 참 불편하다**

  경상일보 2011-11-17

두 학교가 체육관과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는 일명 '학교복합단지'가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울산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 감사에 따르면 10여 년 전 울산시 남구 야음동 일대에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초·중·고 학교 건립이 필요해져 4개 학교가 'ㅁ자' 형으로 2003년 신선여고·대현고, 2004년 야음중·용연초등학교가 각각 들어섰다. 당시 협소한 부지 탓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학교 건립에 따른 최소 기준인 6만m^2에 못 미치는 4만 9518m^2에 4개 학교를 건립하고 운동장과 체육관, 급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야음중과 대현고는 야음중학교 운동장을 나란히 사용하고, 대현고 체육관 역시 두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고교생 위주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해 학생 자율적 이용이 제한되고 공동 사용에 따른 특기 적성 수업 등 교육 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용연초와 신선여고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학부모는 "인근 학교 수업 종소리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상급학교 학생을 위주로 한 복지 시설(체육관, 운동장) 사용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활동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급식도 공동으로 이뤄지다 보니 연령별 영양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수년 내에 유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종소리 등을 줄이는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형중 기자)

- **울산 남구문화 제9집 발간**

  울산제일일보 2012-02-27

울산 남구문화 제9집이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9집에는 논단과 기획 특집, 자유 기고와 함께 수필, 중편소설 등 문학 작품도 소개됐다. 논단에는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진곤 연구실장의 '조선산악회 회장 석남 송석하 고찰'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이정재 교수의 '울산의 고래잡이와 민속문화',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성수 연구원의 '태화강 삼호대숲에 서식하는 백로 생태조사' 등 3편이 실렸다. 기획 특집에는 김종경 대기자의 '울산공단 50년'과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안미련 연구원의 '울산 금석문 탁본 일기', '남목마을 노거수를 지킨 사람들' 등 자유 기고문 2편도 담았다. 경북문화체험 수필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박순태의 수필 '단나', 온양초 옥재화 교장의 '나의 초임지 용연초등학교' 등 수필 7편과 김진곤 향토사연구소 연구실장의 중편소설 '개운포의 그늘'도 실려 있다.(양희은 기자)

- **고도성장의 '그늘'까지 기록에 남긴다**
  용연초교 동문들의 학교추억 살리기

울산저널 2013-01-30

환경오염 때문에 타임지에 실린 뒤 폐교됐던 초등학교
울산의 아이콘, '성장과 그늘' 모두 간직한 채 '50년사 정리'

1995년 6월 26일자 미국 타임지에 실렸던 용연초등학교. 이 학교 동문들이 '학교 추억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타임지와 용연초등학교의 인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작은 시골학교가 18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지에 등장했다.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 때문이었다. 단층인 학교 건물 뒤에는 거대한 산업쓰레기더미가 한 가득 쌓여 있고, 그 앞 운동장에선 해맑은 시골학교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 당시 외신기자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일궈낸 기적 같은 경제발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시 이 시골학교에 고스란히 담겼다. 악취와 두통, 구토 증세가 심해 단축 수업을 해야 했던 용연초등학교. 수질 오염 때문에 아이들의 목마름을 달래주던 우물마저 없애야 했다. 한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해야 했던 답답함. 교육청 건강 조사 결과 납

과 비소, 아연,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던 충격은 급격한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로부터 3년 뒤 1998년 2월 28일 용연초등학교는 폐교된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이목을 받은 직후 국내에선 거의 처음으로 공해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가 됐지만 인근 지역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 정문 앞에서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가는 임시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누구를 위한 폐교인지를 모호하게 했다.

환경오염으로 이름을 날렸던 용연초교는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동문들은 '복교운동'에 나선다.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졸업생 가운데 성공한 이들을 앞세워 복교를 반대하는 학부모 설득했다. 그러기를 6년, 비록 옛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의 야음교육단지에 용연초교의 역사를 이을 또 하나의 용연초교가 복교한다.

〈50년사 발간 준비하는 용연 동문들〉

용연초교 동문들은 지난해부터 '학교 5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사 발간을 추진하거나 이미 발간했지만 용연초교 50년사 발간이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시련을 겪는 등 울산 지역의 이주민사와 울산 역사의 축소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용연초교 동문들의 소소한 추억 속에 울산의 역사가 있고,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환경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용연초 '학교 50년사' 무엇을 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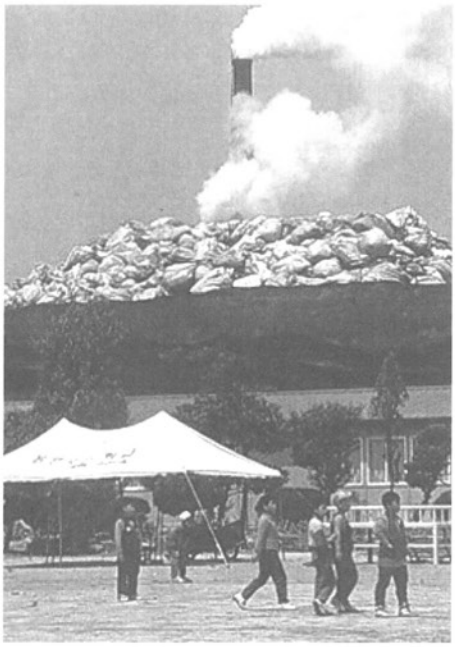
현재 용연초교 50년사의 공정률은 대략 40% 남짓이다. 50년사 발간에 필요한 경비 중 약 40% 정도를 모금했다. 모금에 동참한 이들은 주로 졸업생들이지만 일부는 이 학교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이었다. 50년사를 채울 세부적인 내용은 용연초교 동문회 카페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과 글, 언론 보도, 스승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성암, 세죽, 성외, 천곡, 새미골, 황암마을 등 당시 이 학교를 다녔던 동문들의 고향이야기도 쌓이고 있다.

발간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복교 이후 학교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반면 이전 자료나 폐교가 됐던 6년간의 역사 자료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에게 용연초교의 50년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즐겁기만 하다. 동문이 올리는 추억의 사진 한 장 속엔 또 다른 내가 있다. 학교나 고향을 소재로 한 동문의 글을 읽다 보면 희미해지기만 했던 추억이 어느덧 선명해지고, 때로 잘못 기술된 내용은 댓글을 남겨 바로잡기도 한다. '니 기억이 맞냐, 내 기억이 맞냐' 논쟁하며 서로 만나기도 한다.

8회 졸업생으로 용연초교 50년사 발간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곤 씨(울산남구문화원 연구원)는 "모교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일환으로 50년사 발간을 제안했다. 공해 때문에 폐교됐던 한 시골 학교의 역사는 그 자체로 울산의 역사이다. 추억과 교훈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998년 환경재앙으로 폐교… 6년후 복교, 울산 용연초 '굴곡의 역사' 책으로 낸다

세계일보 2013.02.25



미국 타임지에 실린 울산 용연초등학교 모습

울산 용연초등학교가 공해 등 환경 재앙으로 사라졌다가 복교된 학교 역사를 담은 '50년사'를 발간한다.

1995년 6월 26일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실렸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7명의 남학생 뒤로 1층짜리 학교 건물보다 높게 공장 폐기물더미가 쌓여 있으며 공장 굴뚝은 매연을 뿜어대고 있었다. 타임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운동장 뒤 산업쓰레기 산과 같은 환경재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가 용연초등학교다. 1995년 10월 이 학교 학생 70명이 두통과 호흡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후 수업이 중단됐다. 하루 평균 20~50명의 학생들이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131명의 건강조사를 울산대병원에 의뢰한 결과, 학생들의 혈액 속에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최고 2.9㎍/ℓ 검출됐다. 독일 환경청이 정한 참고치(HBMⅡ) 2.0㎍/ℓ을 초과한 것이다. 납과 비소, 아연 등도 기준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학교는 3년 뒤인 1998년 폐교됐으며 2004년 3월 폐교 부지에서 7㎞ 떨어진 곳에 복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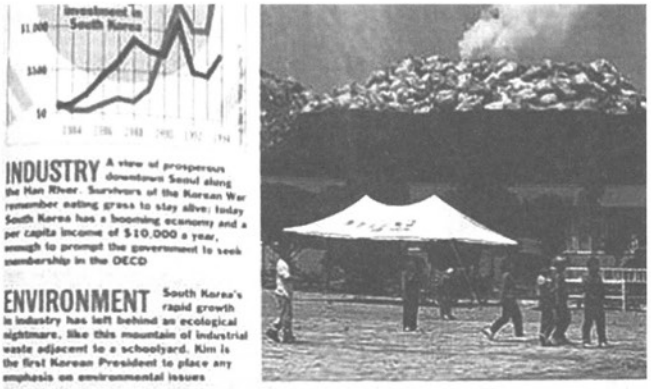
김희나 울산시교육청 학생수용팀 담당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공해가 심각해져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됐고, 학생 수는 점차 줄어 57명이 남았었다"며 '중금속 사건'이 일어

나 폐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폐교 후 학교 부지는 공장에 매각됐다. 50년사 발간을 맡은 졸업생 김진곤(51·울산남구문화원 연구원)씨는 "용연초의 역사는 급격한 공업화로 앓았던 울산의 역사"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2000만원을 들여 올 연말쯤 1000권을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이보람 기자)

• 거대한 산업 쓰레기에 갇힌 아이들… 공해 학교로 악명

울산매일신문 2013-04-15



악취에 두통·구토… 단축수업 다반사1년 중 불과 3분의 1 정도만 수업가능
美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도 소개돼개교와 폐교, 그리고 복교까지 한눈에

공업도시 울산의 현대사를 빼닮은 '용연초등학교 50년사'를 집필하고 있는 김진곤 울산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실장의 글이 국가기록원 계간지 「기록인」에 실려 화제다. 김진곤 실장은 올해 용연초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용연초등학교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다방면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필 내용의 일부분이 국가기록원 「기록인」 봄호 '이슈와 현장'에 수록됐다. 그는 현재 국가기록원 민간기록 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도 실릴 정도로 공해학교로 오명이 높았던 용연초등학교 50년 이야기를 김진곤 실장에게 들어봤다.

〈공해 학교〉

1988년부터 기록된 당시 용연초등학교의 〈공해일지〉에 악취,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심해 단축 수업을 했으며, 심지어 등교하자마자 귀가 조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 우물이 오염되어 폐쇄하고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는 등 일 년 중에 삼분의 일 정도만 수업

이 가능했다고 하니 공해의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울산교육청에서 건강조사를 의뢰해 작성한 〈울산국가공단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조사 보고서〉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납·비소·아연·카드뮴 등 중금속이 혈중과 오줌에서 다량 검출되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한다. 더구나 그 기준치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 타임지에 실린 용연초등학교〉



▲ 1995년 6월 26일 미국 시사지 「타임」지에 실린 용연초등학교 전경

1995년 6월 26일. 미국 시사지 「타임」지에 심각한 옛 용연초등학교의 공해 관련 사진이 실렸다. 「타임」지가 실은 사진부터 살펴보면 당시의 옛 용연초등학교의 전경을 담고 있다. 교실로 이용하는 단층 학교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성벽처럼 산업쓰레기가 쌓여 건물보다 훨씬 높다. 그 폐기물더미 중간쯤에 서 있는 거대한 굴뚝에서 매연을 거침없이 품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마침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하얀 천막이 처져 있고, 그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타임」지는 사진 설명에서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의 그 뒤에 산업 쓰레기에 묻힌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한국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학교 운동장에 근접한 저 산더미처럼 쌓인 공업 폐기물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끔찍한 악몽을 남겼다고 한다.

〈폐교에서 복교까지〉

용연초등학교는 1998년 2월 20일 31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했다.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학생들은 그해 3월부터 폐교된 모교 정문 앞에서 대현초등학교로 등교할 임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옛 용연초등학교는 폐교된 1998년 2월 28일부터 복교 전날인 2004년 2월 28일까지 6년 동안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 학교 동문들은 10년 전인 1988년부터 진행된 울산공단 환경오염 지구 이주 사업에 편입되어 거의 이주(移住)한 상

태에서 모교의 폐교에 대한 상실감과 공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용연초등학교 동문들은 용연초등학교복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복교 추진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복교의 노력 끝에 강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9월 23일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칭 제2야음초등학교를 용연초등학교로 교명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공해로 인해 폐교됐던 용연초등학교가 울산이 공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시기에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자리를 옮겨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다. 용연초등학교는 2004년 3월 1일 야음교육단지에서 27학급을 편성하여 복교했다.





제7부

연표로 보는 용연초등학교50년사

1. 용연초등학교 개교 이전의 연혁
2. 옛 용연초등학교 연혁
3. 용연초등학교 폐교 시기 연혁
4. 현 용연초등학교 연혁

1. 용연초등학교 개교 이전의 연혁

1) 1960대 이전

- 1862년 황암제당 건립
- 1886년 1월 14일 용잠초등학교 기증자 이종만 출생
- 1932년 2월 20일 용연양조장 설립
- 1936년 '조구재뻐등'에서 한시 백일장 개최
- 1939년 4월 22일 황성진흥학원 체육 기념 사진 촬영
  4월 25일 용잠초등학교 개교
- 1942년 5월 30일 월성이종만공덕기념비 건립
- 1950년 용연동 제하(堤下) 마을 철거(본동 이주)
- 1954년 용연 5일장 개설

2) 1960년대

- 1961년 11월 24일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장 2학급 인가

- 1962년 1월 10일 경제인들이 공업센터 후보지로 울산 건의
  1월 27일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 공포
  2월 3일 울산 특정공업지구 기공식(대현면 매암리 납도)

2. 옛 용연초등학교 연혁

- 1962년 3월 5일 용연분교장 2학급 개교(남 70명, 여 55명 계 125명)
  3월 7일 울산특별건설국 설치
  6월 1일 울산시 승격
  6월 1일 황성동, 성암동, 용연동, 남화동, 용잠동을 장생포출장소에서 관할

• 1963년 2월 8일 용연초등학교로 분리 인가
2월 8일 초대 박일호(朴一浩) 교장 부임(63. 2. 8~65. 9. 19)
3월 5일 용연초등학교 2학급 개교
3월 12일 정유공장 건설 공사 착수

• 1964년 3월 1일 입학식

• 1965년 3월 1일 입학식
8월 3일 용연동사무소 및 어업 공동 창고 준공
9월 20일 제2대 이재만(李在萬) 교장 부임(65. 9. 20~68. 11. 15)

• 1966년 3월 1일 입학식

• 1967년 3월 1일 입학식

• 1968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회 졸업
11월 1일 용잠~남화선 가로 착공
12월 11일 제3대 황기상(黃基庠) 교장 부임(68. 12. 11~72. 3. 24)

• 1969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회 졸업
5월 20일 용잠~남화선 가로 준공

3) 1970년대

• 1970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3회 졸업
5월 20일 황암경로당 건립

• 1971년 2월 10일 용잠초등학교 설립자 이종만 사망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4회 졸업
6월 울산특별건설국 철수
10월 1일 용연동과 남화동을 용연동으로, 황성동과 성암동을 황성동으로 행정동을 개편하고 용잠동은 그대로 둠

• 1972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5회 졸업

• 1973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6회 졸업
3월 25일 제4대 박일호(朴一浩) 교장 부임(72. 3. 25~76. 8. 31)
5월 22일 선경합섬(주) 울산 공장 착공

• 1974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7회 졸업

• 1975년 용잠초등학교 폐교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8회 졸업

• 1976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9회 졸업
9월 1일 제5대 이재우(李載雨) 교장 부임(76. 9. 1~81. 8. 31)

• 1977년 1월 17일 이종만공덕기념비 해체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0회 졸업
7월 5일 용잠동(본동) 폐동
9월 14일~10월 15일 성암 간이 급수시설 설치
11월 1일 용잠동 명칭 폐지(주민 수의 희소로 존치 불필요)

• 1978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1회 졸업

• 1979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2회 졸업
6월 15일 성외경로당 건립

4) 1980년대

• 1980년 용연 '새각단' 및 '뻔득마을' 완전 철거(이주)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3회 졸업
3월 27일~5월 7일 용연동 2,3통 간이 급수 시설 설치
5월 대한노인회 울산지회 황암분회로 설립.

• 1981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4회 졸업

9월 1일　제6대 김충경(金忠經) 교장 부임(81. 9. 1~83. 2. 28)

• 1982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5회 졸업
2월 28일　성암동 경로 잔치(마을회관)

• 1983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6회 졸업
3월 1일　제7대 박영석(朴榮碩) 교장 부임(83. 3. 1~85. 2. 28)

• 1984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7회 졸업
9월 28일　울산시 조례 제1022호 제정 공포(이주 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기타 사업비 특별회계)

• 1985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8회 졸업
3월 1일　제8대 김남석 교장 부임(85. 3. 1~86. 8. 31)
7월 15일　구제(區制) 실시 공고(성암동, 황성동, 용연동, 대현동 남구에 속함)
9월 정부　이주 대책 발표
12월 8일　세죽 마을에 처용가비 제막

• 1986년 1월 6일　울산시 이주지원사업소 설치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19회 졸업
4월 25일　기업체 산정 기준 공청회(간접 보상비)
4월 30일　기업체 분담금 산정기준(안) 통지(간접 보상비)
9월 1일　제9대 정우영(鄭禹永) 교장 부임(86. 9. 1~88. 8. 31)
9월 5일　기업체 분담금 확정 시달(간접 보상비)
9월 13일　기업체 분담금 고지서 발송(간접 보상비)
9월 27일　이종만공덕기념비 임시 이전(장생포초등학교)

• 1987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0회 졸업
7월 1일~12월 31일　3단계 이주 지역 보상 물건 기본 조사
7월 27일~31일　이주 희망자 조사

• 1988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1회 졸업
6월　남화향우회 발족

6월 남화향우회 창립총회
7월 4일 3단계 보상 대상 물건 열람 통지
9월 1일 제10대 황종기 교장 부임(88. 9. 1~89. 8. 31)

• 1989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2회 졸업
9월 1일 제11대 황신영 교장 부임 (89. 9. 1~91. 2. 28)

5) 1990년대

• 1990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3회 졸업

• 1991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4회 졸업
3월 1일 제12대 김정호(金正浩) 교장 부임(91. 3. 1~92. 2. 28)
5월 3일 남화향우회 정기총회
9월 용연초등학교 학생 550여 명 특별 건강 진단

• 1992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5회 졸업
3월 1일 제13대 이강기(李康基) 교장 부임(92. 3. 1~93. 2. 28)

• 1993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6회 졸업
3월 1일 제14대 김태현 교장 부임(93. 3. 1~94. 2. 28)
4월 14일~19일 용연 골메기신 천도제 거행

• 1994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7회 졸업
3월 1일 제15대 김창하(金昌河) 교장 부임(94. 3. 1~95. 2. 28)
12월 30일 '龍淵洞 遷度굿 中 내림'(李相道) 발표(향토사보 5집)

• 1995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8회 졸업
3월 1일 제16대 정도근(鄭道根) 교장 부임(95. 3. 1~96. 8. 31)
5월 1일 환경오염 지역을 통폐합하여 부곡동, 황성동, 용연동을 통합하여 개운동 설치

• 1996년 가리(加里)저수지 매립 폐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29회 졸업

9월 1일 제17대 김대홍 교장 부임(96. 9. 1~97. 6. 3)

• 1997년 2월 24일 용연초등학교 제30회 졸업

3월 6일 〔울산〕용연천에 강알카리성 폐수 다량 유입, 어장 황폐화 우려(부산일보)

5월 8일 '성암매립장 침출수 처리 장치 고장 해양 오염 가중 우려' (경상일보)

7월 7일 제18대 백승효 교장 부임(97. 7. 7~98. 2. 28)

9월 4일 [울산 용연초등교] 학교 주변에 공장 많아 끝내 폐교(조선일보)

9월 4일 [울산] 공해에 찌든 초등교 학생 일지로 고발(부산일보)

9월 5일 공해 공단에 둘러싸인 울산 용연초등학교 내년 3월 결국 폐교(중앙일보)

9월 5일 [부산/경남] 울산공단 인근 학교 공해로 수업 중단 잦아(동아일보)

9월 5일 울산 초등교 교실공기 중금속 오염…울산환경聯 조사(동아일보)

9월 6일 울산 초등교 교실 중금속 오염(경향신문)

9월 6일 울산 초등학교 중금속 비상 ... (중앙일보)

9월 6일 환경연합 울산 초등교 중금속 오염 심각(동아일보)

9월 6일 [울산] 비공해 지역도 초등교 중금속 오염 심각(부산일보)

9월 24일 울산 초등생 1,037명 정밀 진단(경향신문)

10월 14일 한국전력, 철거민들의 향수 달래주는 리플릿 배포(중앙일보)

10월 16일 [부산/경남] 『그리운 옛 울산』 사진으로 만나요(동아일보)

10월 27일 울산공단 초등학생 중금속 조사(조선일보)

12월 9일 [울산] 공단 인근 초등교 전국 첫 건강검진(부산일보)

12월 9일 [부산/경남] 울산공단, 초등생 정밀건강진단 실시(동아일보)

12월 17일 울산 환경운동연합, 올해 10대 환경 뉴스 선정(부산일보)

• 1998년 2월 18일 울산 공단 지역 초등생들 치명적 중금속 체내 축적(경향신문)

2월 19일 마지막 졸업식 초등교 2(부산일보)

2월 20일 용연초등학교 제31회 졸업(마지막 회-남 7명, 여 12명)

2월 20일 용연초등학교 학적부 및 학무자료 대현초등학교로 이적

2월 20일 [울산] '공해 학교' 용연초등 마지막 졸업식(조선일보)

2월 21일 [취재수첩] '공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3. 용연초등학교 폐교 시기 연혁

- 1998년 2월 28일 용연초등학교 폐교
  3월 30일 하나 뿐인 지구 〈용연초등학교 폐교 일지〉(한겨레신문)
  4월 11일 공해로 잃은 학교 이름만이라도 ...(부산일보)
  12월 16일 '산업 폐기물의 공동묘지 울산'(부산일보)

- 1999년 3월 용연초등학교 폐교 후 미 졸업자 대현초등학교로 통학 실시
  4월 1일 용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정
  4월 15일 '공해 지역 폐교는 매각'(부산일보)
  5월 30일 이주 10주년 맞이 성암향우회 정기총회
  1999년~2000년 용연 노하(路下) 마을 완전 철거(이주)
  6월 27일~7월 2일 황암 골메기신 천도제 거행
  6월 이후 용연 신항만 공사 부지(제4공구 공단 부지) 편입
  10월 5일 세죽제당 '황죽당' 철거
  12월 4일 울산화력발전처에서 개운포성 표지석 기증
  12월 6일 '개운포성 비석 제막식'(경상일보 기사)
  12월 30일 이수우(용연초등 3회) '흙속에 묻힌 내 고향 돌들을 밝힌다.' 발표 (향토사보 10집)

6) 2000년대

- 2000년 3월 황암향우회 결성
  5월 8일 성암동 이주민 이야기 '마음의 고향 선수' 발간
  6월 24일 울산 미포~온산 연결 도로 개설 부지 내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 자료 발간(성암동 지역)
  11월 9일 성암동패총 등 13건을 기념물로 지정

• 2001년 3월 22일 해안 마을 보조 간선 도로 처용로 등 고시
4월 용연옛터비 비문 씀
4월 용잠옛터비 이상재 고문 발의
4월 용잠옛터비 부지 물색 및 조사
11월 SK가스 측에 용잠옛터비 평면도 제출
12월 '울산 황성동 세죽 유적' 발간

• 2002년 3월 7일~6월 27일 개운포성지 일대 발굴조사
3월 남화향우회에서 남화옛터비 건립 추진 발의
5월 울산화력발전처에 남화옛터비 건립 협조 요청
8월 용잠옛터비 임대차 계약((주)SK)
8월 용잠옛터비 제작 공사 계약(외동석재)
9월 용잠옛터비 토목 공사 및 이종만공덕기념비 이설
9월 14일 개운교 준공
10월 18일 울산시 남구 대현동 야음교육단지 기공(대지개발진흥(주))
10월 27일 이종만공덕기념비를 용잠옛터비 오른쪽에 재건립
11월 용잠옛터비 건립(외동석재)
11월 19일 망향공원 조성 사업 간담회

• 2003년 1월 망향공원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2월 용잠옛터비 왼쪽 돌고래상 설치
3월 6일 망향공원추진위원회 구성
5월 1일 용연초등학교 교명구제 탄원서 및 탄원서 명부1부 제출
(용연초등학교 총동창회장외 1회 졸업생 전원)
5월 11일 용잠 향우회 용잠옛터비 제막식
5월 14일 '사또' 옷 입고 역사 교육 30년(부산일보)
6월 망향공원 조성 대상지 잠정 결정
6월 망향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에서 광역시로 의견 조회
7월 10일 망향공원 조성 매입 대상 토지 선정, 시설 개략적 선정
7월~8월 망향공원 추진에 따른 중기 지방 계획과 투, 융자 심사 대상 사업으

로 시에 제출 및 의뢰

8월 25일 조례 개정안 자료제출 요구(기예 81400-893)

8월 28일 각급 학교 지자체, 시의회, 교육위, 울산향교, 홈페이지 청내 직원에 교명 공모 공문발송

9월 19일 교명선정을 위한 행정자문 위원회 개최

9월 22일 용연초등학교 교명살리기 운동 진정서 요청(최해수 동창회장)

9월 23일 강남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개최함

9월 24일 교명선정위원회 열어(경상일보)

9월 24일 내년 개교 예정 5개 교 문수중 등 교명 확정(경상일보)

9월 25일 조례 개정자료 제출

9월 28일 구 내무위원회 전 의원 망향공원 예정지 답사

10월 9일 용연초등학교 교명살리기 운동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 용연초등학교 교명선정 확정함

10월 울산광역시의회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

10월 30일 망향공원을 성암 공원조성 계획 수립 후 시민 이용도, 적정 시설, 규모 등 재검토 추진

10월 31일 남구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시 망향공원 추진 전반 설명

11월 21일 망향공원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남구청으로부터 남화옛터비 부지 사용에 대한 회신

4. 현 용연초등학교 연혁

• 2004년 1월 8일 울산 초, 중, 고등학교 3월 11곳 새로 개교(부산일보)

1월 16일 '초, 중, 고교를 한 울타리에'(부산일보)

2월 19일 용연초등학교 교사 준공

3월 1일 용연초등학교 복교

3월 1일 용연초등학교 27학급 편성

3월 1일 용연초등학교 권두호 교장 부임

3월 3일 용연초등학교 2004학년도 입학식
5월 4일 용연초등 야음동으로 옮겨 복교식(경상일보)
5월 남화옛터비 완공, 제막식(경상일보)
5월 6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승인 용연초등학교 복교 기념식 거행
5월 6일 용연초등 복교식 기념 행사(경상일보)
5월 6일 "폐교의 아픔을 빚는 전통으로"(경상일보)
5월 6일 [부산/경남] 울산 용연초교...7년 만에 되찾은 교명(동아일보)
5월 31일 '남화동옛터비 제막식'(경상일보)
6월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개운포성지' 발간
7월 18일~2006년 7월 17일(2년) 폐교 용연초등학교 대지와 건물 대부 중
8월 15일 현남회 광복절 체육 대회(한국전력 운동장)
8월 18일 '공업역사박물관 재추진'
(망향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경상일보)
9월 26일 성암청년회 하반기 행사(다운초등학교)
10월 25일 윤종호, 오종경 울산시 초등생 한자 경시대회 금상(경상일보)
12월 13일 야음교육단지 2004 우수 시설 학교 선정

• 2005년 1월 1일 2005년 새해 남구 해맞이 축제(용연공장 조성 지구 부지)
2월 복교 용연초등학교 교지 '용연' 창간호 발간
2월 17일 용연초등학교 제32회(복교1회) 졸업식
3월 10일 남화 부두 내달 초 착공(경상일보 기사)
3월 26일 폐교 활용 범위 대폭 확대(경상일보)
3월 28일 환경 이주지역 일부 주민 이주 거부 생업 활동(용연동 등)(경상일보)
4월 15일 "울산에 방치된 학교 없나요?"(경상일보)
5월 5일 김진곤(용연초등 8회), 울산 남구 해안 마을 주민들의 이주사(移住史) 고찰 발표(울산남구문화 3집)
8월 23일 "창의력, 울산교육의 희망"(경상일보)

• 2006년 2월 16일 제33회(복교 제2회) 졸업식
3월 1일 입학식(33학급 편성)

• 2007년 2월 19일 제34회(복교 제3회) 졸업식
2월 26일 남구 야음2동을 대현동으로 동 명칭 변경
3월 9일 용연초 어린이 울산세관 방문 휴대품 검색 등 세관 업무 체험(경상일보)
7월 23일 광역시 10년 53곳 개교, 21곳 폐교(경상일보)
7월 23일 〈울산 지난 10년 간 20개 초등학교 폐교〉(연합뉴스)
9월 1일 김옥명 교장 부임

• 2008년 1월 8일 김진곤(용연초등 8회) '타임'지에 실렸던 옛 용연초등학교 공해 기사(울산매일신문)
2월 19일 제35회(복교 제4회) 졸업식
3월 1일 입학식(31학급 편성)

• 2009년 2월 20일 제36회(복교 제5회) 졸업식
3월 1일 심외수 교장 부임
3월 1일 입학식(29학급 편성)
3월 1일 울산광역시 지정 교실 수업 방법 개선 정책 연구학교(2009~2010)
9월 18일 용연초등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정 현판식(경상일보)
10월 27일 학생회장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심사(울산제일일보)
11월 15일 용연초 6학년 김용기 군 '교과부장관상'(울산신문)
11월 16일 울산 초, 중학생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서 두각(경상일보)

7) 2010년대

• 2010년 2월 17일 37회(복교 제6회) 졸업식
3월 1일 입학식(30학급 편성)
6월 3일 해경 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용연초 정다인 학생 대상(울산신문)
7월 20일 울산과학교육원 다음달 13일까지 교사 연수(울산제일일보)

• 2011년 2월 19일 제38회(복교 제7회) 졸업식
3월 1일 입학식(29학급 편성)
4월 6일 "딸 한국 생활에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울산제일일보)

6월 1일 김사빈, 이초희 최우수상(울산신문)

7월 19일 [브리핑] 울산 '주 5일제 수업제' 시범 운영(부산일보)

9월 1일 백판덕 교장 부임

11월 17일 '학교는 두 개 운동장은 한 개' 참 불편하다(경상일보)

• 2012년 2월 17일 제39회 (복교 제8회) 졸업식

2월 27일 울산남구문화 제9집 발간(울산제일일보)

3월 1일 입학식(28학급 편성)

• 2013년 1월 23일 김진곤(용연초등 8회), 용연초등학교50년사, 울산 현대사의 축소판(울산매일신문)

2월 1일 아침 8시 30분 MBC 〈굿모닝 새아침입니다.〉 프로그램에 '울산현대사의 축소판 용연초 50년사' 방송

2월 6일 저녁 6시 50분 MBC 〈지금 울산은〉 프로그램에 '울산 현대사 의 축소판 용연초 50년사' 방송

2월 25일 1998년 환경재앙으로 폐교…6년 후 복교, 울산 용연초 '굴곡의 역사' 책으로 낸다(세계일보)

3월 29일 김진곤(용연초등 8회), 울산 현대사를 빼닮은 용연초등학교 50년사(기고), 기록인 2013 SPRING+VOL22,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4월 15일 거대한 산업쓰레기에 갇힌 아이들…공해학교로 악명(울산매일신문)

5월 26일 용연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제8부

사라져 버린 그리운 내 고향

1. 그리운 내 고향 '성암'–김진곤(8회)
2. 그리운 내 고향 '세죽'–정헌태(9회)
3. 그리운 내 고향 '성외'–박윤호(9회)
4. 그리운 내 고향 '황암 1'–이수우(3회)
5. 그리운 내 고향 '황암 2'–신정관(8회)
6. 그리운 내 고향 '용연–김종찬(1회)

이 글은 2008년에 울산남구문화원에서 발행한 『울산남구문화』 6집에 특별기획으로 〈개운포 연안 이주민들의 실향기〉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실었다. 다만 정헌태(9회)의 〈그리운 내 고향 '세죽'〉과 〈신정관(8회)의 그리운 내 고향 '황암 2'〉는 새로 쓴 글이다.

-편집자 주-

1. 그리운 내 고향 '성암'

김진곤(8회)

진실고개를 오르내리며 콩나물을 한 동이씩 이고 부곡동에 팔러 가곤 했는데, 겨울에는 두 손을 호호 불며 다닌 애환이 서린 곳이다.



1991년 성암동 입구(해답)

부곡동 석유화학단지 입구에서 용연 쪽으로 가면 '진실고개'를 만난다. 이 고개는 성암동과 부곡동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성암동을 향해 내려가면 오른쪽에 길게 뻗은 '진실'이라는 골짜기와 왼쪽에 아주 작은 '도둑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이주하기 전에 성암동 아낙네들은 이 고개를 오르내리며 콩나물을 한 동이씩 이고 부곡동에 팔러 가곤 했는데, 겨울에는 두 손을 호호 불며 다닌 애환이 서린 곳이다. 그 후에는 주민들이 '시나나빠'라고 불렀던 겨울초와 '김치거리'라고 일컬었던 열무를 리어카에 싣고 팔러

다니기도 했다. 첫새벽에 출발하여 부곡동에서 팔고 난 후 빈 리어카를 끌고 할머니는 되돌아가고, 나는 버스를 타고 제일중학교에 등교한 적도 많았다. 그렇게 고생한 할머니는 이주를 앞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화장된 후 이 '진실고개'에 묻혔다.

한밤중에 비가 올 때 벼를 거두어들이느라 날밤을 새고 학교에 갈 때도 있었다.

이 고개를 내려오면 왼쪽에 '선수못'이 있었는데, 못둑에는 아래의 '우직골'의 나락을 '발가리'를 치기도 했다. '발가리'는 나락을 한 아름씩 묶어 어슷비슷하게 살짝 뉘어 번갈아 가며 말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은 '한지골'이었다. 성암동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골짜기로 위쪽에 '도치골'에 닿아 있었다. 이 골짜기는 좌우로 '옹당새미골', '한지골', '개와장논골', '황새골'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한지골' 입구와 마을 진입로 일대를 '개불락'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개울 앞'이 와전된 것이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우리 무논이 있었는데, 물에 젖은 나락단을 부엌문에 얹어 끌고 나왔다. 발은 논에 빠지고 물에 젖은 볏단은 한없이 무거워 죽을 지경이었다. 포장되지 않는 신작로 인근에는 벼를 널어 말렸는데, 한밤중에 비가 올 때 벼를 거두어들이느라 날밤을 새고 학교에 갈 때도 있었다.

자식의 묘를 벌초해야 했던 할머니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성암동에는 농한기인 겨울에는 나무하러 많이 다녔다. '한지골'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었던 '다리골'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나무를 이고 '한지골'을 가로질러 '진등대비알'을 올라와 현재 개운포성 북문지에서 내려놓고 쉬었다. 나는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인 이른바 '썩다리'를 자루에 넣어 짊어지고 말라죽은 나무를 새끼에 매어 질질 끌며 따라 왔다. '진등대비알'은 긴 등성이에 있는 비탈길이었다. 맨몸으로 올라도 힘겨운 길이었는데, 짐을 인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단함이야 오죽했으랴.

잠시 쉬고 있는 '북문안개' 아래에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나는 묏등을, 할머니는 그 주위를 벌초했다. 자식의 묘를 벌초해야 했던 할머니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나 서둘러 식은밥과 김장김치, 콩나물 등을 넣어 이른바 '밥국'을 끓여 먹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지금의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이 맛이 있었다. 이때 할머니는 내게만 참기름 한두 방울을 넣어 주신 기억이 난다.

나와 누나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여우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여 일컬어진 캄캄한 '예수비알'을 지나 세죽마을을 지나면 만나게 되었다.

또 고향하면 돼지를 키우던 생각이 난다. 1980년대에 성암동에는 인근의 회사 식당에서 이른바 '짠밥'이라고 불렀던 먹고 남은 음식으로 돼지를 많이 길렀다. 어머니는 그때 선경합섬에 다녔는데, 퇴근할 때 이모가 살았던 황암마을에 가서 뜨물과 등겨 외 돼지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리어카에 싣고 왔는데, 도착하면 저녁 9시경이 되었다. 나와 누나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여우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여 일컬어진 캄캄한 '예수비알'을 지나 세죽마을을 지나면 만나게 되었다.

이처럼 내 고향 성암동을 떠올리면 아련한 슬픔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어른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다. 내 고향은 지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 이른바 '해칠방(海七坊)'이라 부른 다른 남구 해안 마을들은 지형조차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다. 이게 모두 개운포성지 덕분이다. 옛날에 왜적의 침략을 막았듯이 지금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개운포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무인포(無人浦)가 되었지만…개운포성을 복원하고 패총전시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개운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지골'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는데, 신석기인들의 생활 쓰레기매립장인 성암동패총이 발굴되지 않은 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언젠가 개운포성을 복원하고 이 패총 전시관을 건립하여 인근의 처용암 등을 연계하여 비록 외황강 건너의 오대, 오천마을의 마지막 이주로 개운포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무인포(無人浦)가 되었지만 이제부터 전국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개운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다.

〈성암동 찬가〉

뒷섶에서 묵는꼰밥 덜익카도 맛만좋고,
가시끝의 꼬시래기 맛좋기로 댓길이네.
산디먼당 고구메는 서리당해 주인울고,
갈밭속에 누운흔적 말안해도 뻔할뻔자.
깨불락에 미꾸라지 물보다도 더만고요,
동밖안의 감자농사 서리당해 망쳐뿐네.
우직골의 선수못물 물쓰듯이 모여었고,
골묏등대 배나무야 어데가고 사라졌노.
한지골의 선수목장 얼룩젖소 어데가고,
부체골의 시느리대 밭에까지 내려왔네.
북문안개 칡넝쿨로 아는도둑 단디묶고,
짱버등의 화전놀이 니캉내캉 놀아보자.
진등비알 올라올때 젖묵던힘 내야하고,
다리골에 갔다오면 다리아파 못살겠네.
시다골의 생미나리 해칠방에 소문났고,
예수비알 소나무야 선수꺼가 세죽꺼가.
올빼미골 올빼미가 황새골의 황새만나,
염밭둑의 게를잡아 소주묵고 탁주묵네.
점뿐앞에 새우깡은 짜거워서 못묵었고,
비석골의 길을따라 당미기로 넘어가네.
도치골의 아카시아 잘패지고 화력좋고,
망시등의 달집사리 동네우환 없애주네.
사게점의 사게새미 정월보름 정화수요,
개운포성 선수동네 단디단디 지켜주네.

2. 그리운 내 고향 '세죽'

정헌태(9회)

세죽하면 마을 이름부터 이상하다. 소여물을 쇠죽이라고 하는데…다른 마을 친구들과 승강이하던 생각이 난다.



1991년 처용암

세죽마을 앞에는 처용암을 품은 개운포와 문수산에서 발원한 외황강이 만나는 곳으로 조용한 듯하면서도 활기찬 곳이었다.

세죽하면 마을 이름부터 이상하다. 소여물을 쇠죽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발음 때문에 다른 마을 친구들과 승강이하던 생각이 난다. 가늘 세(細) 자(字), 대 죽(竹) 자(字)의 글자처럼 역시 대나무가 많았던 마을이었다.

처용을 데리고 가 급간이라는 벼슬…이불 밑에 다리가 넷이어라.

처용은 어릴 적부터 워낙 유명하여 성인이 된 지금도 처용설화를 외우고 있다.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이곳 개운포에 노닐다가 안개가 자욱하여…용왕의 아들 중 처용을 데리고 가 급간이라는 벼슬…이불 밑에 다리가 넷이어라. 나는 황성호와 세죽호의 밧줄잡이를 하면서 상춘객 중 어여쁜 아가씨를 보면 꼭 처용설화를 애기 한 것 같다.

꼬시래기는 하도 많이 잡아 한꺼번에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행운이 많았는데, 이를 세죽에서는 '쌍달이'라고 일컬었다.

세죽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많다. 꼬시래기, 몰(몰케이), 처용암, 목도, 세죽못, 새마을운동, 고추장, 막걸리, 양식……. 꼬시래기는 하도 많이 잡아 한꺼번에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행운이 많았는데, 이를 세죽에서는 '쌍달이'라고 일컬었다. 꼬시래기를 대나무 가지에 꿰어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이를 우리 동네에서는 이를 '깽대기'라고 불렀다. 이 고기를 많이 잡던 늦가을에는 회를 찍어 먹을 초고추장을 만들려고 고추장을 너무 많이 훔쳐가서 집집마다 장독대를 단속할 정도였다. 세죽에서는 훔쳐가는 것을 '똘마갔다'. 또는 '도대키갔다'라고 했다.

해삼 한 마리를 둘로 잘라 던지면 죽지 않고 두 마리가 되는 것을…….

몰을 미끈하게 잘 다듬어 다발로 묶어 상춘객에게 팔던 지금도 생각이 난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돌담을 허물고 그 돌을 바다에 던져 김, 해삼, 피조개를 양식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을 아시나요? 해삼 한 마리를 둘로 잘라 던지면 죽지 않고 두 마리가 되는 것을…….

'세죽못'에서 성외와 세죽 친구들이 함께 멱을 감다가 작당하여 '배나무지'에 수박서리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는 참 개구쟁이였다.

목도는 울산 인구 15만일 때 절반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전설과 같은 유명한 곳이다.

세죽하면 목도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그때는 다들 '춘도섬', 또는 '춘도공원'이라고 불렀다. 이 섬은 화살용 대나무를 이곳에서 생산하여 공급했다고 하여 죽도(竹島)라고도 하고, 이른 봄에 눈의 흰자에 속하는 벚꽃이 만발하고, 눈동자에 속하는 동백이 붉게 피어 동물의 눈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목도(目島)라고도 불렀다. 목도는 울산 인구 15만일 때 절반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전설과 같은 유명한 곳이다. 지금은 섬의 자연을 보호한다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목도의 싱싱한 해산물과 세죽에 유명한 붕장어를 먹고 술 취한 일부 남녀가 뒷산을 오르면 장난삼아 뒤따라가 몰래 훔쳐보았던 참 활기찬 동네였다.

현대화의 물결로 우리 마을을 관통하는 신작로가 생겨나고, 세죽에는 정유공장에 근무했던 외국인들의 별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전기도 빨리 들어오고 공을 차는데 잔디구장이 있었다. 그 외국인들은 청둥오리 사냥을 하곤 했는데, 빗맞아 날지 못하는 오리를 잡으로 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는 세죽 아이들의 큰 자랑 이였다

못살고 어려웠던 시절에 내 고향 '세죽'.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이 끝내주는 내 마음속의 세죽은 아직도 아름답다.



3. 그리운 내 고향 '성외'

박윤호(9회)

고향바다
누가 몰라줄까 하여 적당한 소금끼로 간을 맞춘다.
고향! 그 맛은
오래 묵은 술과 같다.
은근히 마음 한 켠에서 물 차오르는 한 올의 그리운 친구
그리 거칠지 않게 유유히 흐르는 고향 앞바다 물결
그 따뜻한 그 정의 맛을 혀끝으로 느껴 본다.
어떤 날은 그 맛을 더하고
어떤 날 부족했던 고향 앞바다 그 맛!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수면 위의 가쁜 숨결
살기 위한 일상이 되어 버린
힘겨운 삶의 자맥질에 갈매기보다 더 청량한 소리로


1991년도 성외

휘~이 휘~이
그 아픔을 토해냈던 고향
그래도 정이 넘쳐났고 따뜻한 이웃이 있던 고향
구리빛 얼굴 씩씩한 삶의
물질하는 뒷집 아짐매
하루의 피로함을 막걸리 한 잔에 씻어냈던 옆집 아제
모두들 어딜 갔는가?
이제사 물어보니
야속타! 입 꽉 다문 홍합
도망치듯 외면하는 뻘게
객지의 사람들은 그저 풍경 하나에 감동을 느꼈을 뿐
물의 깊이며 소용돌이치는 물 속
아릿한 속내를 알지 못한다.
그 속에는
그 변화무상한 물속에는
아름다운 옛 집이 있고 고향 신작로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대나무 울타리 집과 돌담 집들이 있다.
그냥!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면
그 옛날 그 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터인데
타협하지 않는 문명의 독선 앞에
채 돌지 못하고 멈춰 버린 버려진 팔 잘린 벽시계의 시간 앞에서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고향이 보이는 마음 언저리에서
한없이 그 이름 불러봅니다.
성외~~
그 이름만으로 날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성외~~
그 사랑만으로 외면해 왔던 마음 한 자락이 아릿한 그리움의 파문을 일군다.
고향바다!
아~~
그래! 너였구나!

4. 그리운 내 고향 '황암 1'

이수우(3회)

마을 이름을 앞 바닷가에 누런 바위가 많다고 하여 황암이라고 전해 온다.

예로부터 유서 깊은 내 고향 울산의 대현면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 좋은 고을이었다. 그 고을의 동남쪽 산자락을 따라 큰 고개를 넘으면, 동해의 바닷가를 마주하는 자그마한 마을들이 어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구역상 대현면은 조선시대에 경상도 수군좌수영이 있던 곳이며, 황성리에는 선수, 세죽, 성외, 새미골, 황암(황바우) 등 다섯 개의 자연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다. 황암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400년 전에 진씨, 김씨, 이씨, 박씨, 이씨 등 다섯 분이 가리못 아래에 살았는데, 인근 바닷가에 풍부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점점 해변으로 내려와 정착했는데, 마을 이름을 앞 바닷가에 누런 바위가 많다고 하여 황암이라고 전해 온다.

한여름 바닷가 뙤약볕에 갯바위 올라 어설픈 간짓대에 낚싯줄 드리우며, 등살이 따갑도록 망중한에 잠기던 노른밖끝…….



황암 제당나무(소나무)

이곳 황암마을의 풍광은 이른 새벽 일어난 산토끼, 장끼, 까투리, 노루가 목축이고 쉬어가는 사구점 샘물……. 겨울 내린 하얀 눈과 우거진 솔숲으로 바람소리 울리며, 아침 햇살에 눈부셔 한 폭의 동양화로 장관을 이루었던 소루골……. 찬 겨울 솔가비와 알차리 찾아 헤진 옷 벙거

지로 찬바람 가르며 등짐을 지고 산마루를 오르내렸던 바지개산……. 칼싸움과 활쏘기에 미쳐 해지는 줄 모르고 허기진 배 움켜쥐며, 새 솔가지로 칡 파서 입술이 파랗도록 배고픔을 달래며 즐겨 놀던 삼거리……. 아늑한 마을 뒤로 넓게 펼쳐진 기름진 땅에 밀, 보리, 나락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가을걷이에 덩더꿍 춤을 추던 하밧댓들……. 한여름 바닷가 뙤약볕에 갯바위 올라 어설픈 간짓대에 낚싯줄 드리우며, 등살이 따갑도록 망중한에 잠기던 노른밖끝 ……. 전복, 해삼, 고둥, 소라에 지천에 깔린 돌미역, 파래, 김, 등 해산물의 보고로 넉넉한 인심으로 맞아주던 넓덕돌, 둥굴바위, 안팎농에……. 푸른 파도 헤치며 뱃고동 울리면서 만선의 꿈을 실어 나르던 고향 앞바다…….

고향도 1962년 울산공업단지 조성으로 비옥한 농토가 산업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더니…창성했던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용연공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천혜의 고향 갯마을도 1962년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공업단지 조성으로 비옥한 농토가 산업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더니, 어느덧 2010년을 앞둔 지금은 남쪽 바닷가에는 신항만 부두가 터를 잡았고, 동쪽에는 조선시대 왜적의 경계를 맡았던 가리봉수대, 아래는 울산화력발전처 시설이 들어섰고, 북쪽에는 마을 입향조가 살았던 가리저수지 아래 SK원유저장 탱크가 즐비하게 있고, 서쪽으로는 산림이 창성했던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SK케미칼을 비롯한 용연공단이 자리 잡고 있다.

물 맑고 인심 좋은 고향 마을은 산업사회의 희생양으로 단숨에 잃어 버렸다.…옛터비를 건립하여 이주민들의 슬픔 마음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조상들의 고향이었고, 100여 가구의 생활 터전이었던 비옥한 하바댓들과 고향 앞바다의 크고 작은 암초들은, 아련한 역사 속에 함께 묻혀 버리는 비운을 맞았다. 또한 어릴 때 웃고 뛰어 놀며, 미래의 꿈과 동심을 키웠던 물 맑고 인심 좋은 고향 마을은 산업사회의 희생양으로 단숨에 잃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터를 훌훌 벗고, 인근 마을로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황바우 마을은 1993년 신항만 부지 조성 사업으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년회를 주관으로,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평온을 지켜준 골매기신을 모시던 푸른 당송 아래, 고향 마을을 잃은 설움을 달래며, 뿔뿔이 흩어진 동민들의 온정과 뜻을 담아 옛터비를 건립하여 이주민들의 슬픔 마음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

5. 그리운 내 고향 '황암 2'- 추억의 황암 사계(四季)

신정관(8회)

(여름)

1972년 여름. 초등 3학년이던 나는 강원도 정선에서 바닷가 용연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할머니와 고모님이 갓 결혼한 큰 삼촌 내외와 함께 사시는 황암에 형과 나 둘이 맡겨진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들 교육을 위해 울산이 정선보다 좋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버스를 타고 황암에 오던 밤에 생전 처음 유공의 증류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기둥을 보며 무척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더위를 참지 못한 개구쟁이들은 팬티를 걸치는 둥 마는 둥 물속으로 내달렸다.…상은아, 그 때 너 참 멋있었어.

더운 날 강원도 정선의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강변에서 햇볕에 달궈진 자갈밭에 등짝을 지지며 젖은 몸을 말리던 기분도 특별했지만 그 기분이 아쉽지 않을 만큼 황암의 여름도 흥미로웠다. 파도에 밀려 불탕에 수북이 쌓인 해초더미가 푹푹 익어가는 냄새는 고약했지만 뜨거운 태양은 금새 그 냄새조차 말려 버렸고, 더위를 참지 못한 개구쟁이들은 팬티를 걸치는 둥 마는 둥 물속으로 내달렸다. 얕은 물속 뻘밭에는 갯지렁이가 집을 짓고 사는 수초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며 앞뒤로 일렁거렸다. 지금 그 이름도 잊어 버렸지만, 수초들 중에는 속 알갱이가 달고도 부드러운 줄기를 감춘 놈도 있었는데 헤엄치며 놀다가 허기진 아이들이 간식삼아 씹어 먹곤 했다. 닻줄에 매어놓은 작은 어선들은 아쉬운 대로 간이 다이빙대가 되어 주었고, 가끔은 자기 집 배를 노 저어 몰고 가는 용감한 어린 뱃사공 덕분에 우리 키 몇 길이나 되는 물속에서 멱을 감는 호사도 누렸다. 상은아, 그 때 너 참 멋있었어.

그 무렵 바위틈 수초 사이로 봤던 양증맞은 해마 한 마리는 지금도 그 신기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배가 없어도, 개구쟁이들이 해안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바위섬에 건너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에겐 개헤엄도 있고 좀 더 폼 나는 평영도 있었으니까. 파도가 달려와 부서지는 암초에는 성게며 고동, 해삼이 아이들 눈을 피해 해초 사이를 숨어 다녔다. 수경도 없이 맨눈으로 바위 주변 물속을 헤집던 어린 눈에는 사선으로 물속을 뚫고 내달리는 햇살이 아름다웠다. 진도바리, 우뭇가사리, 돌미역, 몰, 파래, 청각 등 형형색색의 해초가 총천연색으로 펼쳐진 속에 열대어 못지않게 이쁜 물고기들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 무렵 바위틈 수초 사이로 봤던 앙증맞은 해마 한 마리는 지금도 그 신기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가을)

요즘도 가끔 그 노랫말이 떠오르곤 하는 김상희의 노래가 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무슨 연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의 우리 교장 선생님은 코스모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모양이다. 전교생이 총동원 되어 늦가을에 코스모스 꽃씨를 훑으러 갔던 기억도 나고, 학교 담장이나 화단에 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져 있었던 것도 같다. 코스모스 꽃봉오리가 물기를 가득 머금고 동그랗게 말려 솟아오른 모습이며, 검정고무신 뒤꿈치를 뒤집어 손에 말아 쥐고 코스모스 꽃가루를 모으느라 정신없던 꿀벌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며 놀던 기



1991년 황암 바닷가

억도 새롭다.

또래의 동네 계집애들이 꽃구경을 한다는 말이 뜬소문처럼 조무래기들 귓가를 떠돌았다.…홍자야, 경선아! 그 날의 참사에 너희가 발단이 되었단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

코스모스와 연관 지어 잊히지 않는 기억 한 토막. 시내로 가는 버스가 다니던 아스팔트 길을 따라 유난히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고 이쁜 꽃무리는 밤에 더욱 아름다웠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중딩들에겐 이 꽃길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보다. 밤이면 황암, 용연에 사는 조무래기들이 가로등도 없는 이 길가를 어슬렁거렸다. 그날도 들끓는 호르몬의 충동질을 못 견딘 동네 중딩들은 누가 이끄는지도 모른 채 우루루 무리지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아스팔트길로 몰려갔다. 또래의 동네 계집애들이 꽃구경을 한다는 말이 뜬소문처럼 조무래기들 귓가를 떠돌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계집애들은 흔적도 없었고, 마침 비슷한 기분으로 그 길을 어슬렁거리던 옆 동네 선배들에게 걸리고 말았다. 한 밤에 나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따귀를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조무래기들에게 그 밤의 코스모스 향기는 참으로 잔인했다. 들끓던 호르몬도 그 가을이 다가도록 기운을 잃어버렸다. 홍자야, 경선아! 그 날의 참사에 너희가 발단이 되었단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

(겨울)

너 나 할 것 없이 추위로 갈라 터진 손등을 한 조무래기들은 그 곳에서 겨우내 유리구슬 따먹기로 해지는 줄 몰랐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마을의 풍요와 풍어를 빌던 제당은 아이들에게 늘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사방으로 높게 두른 담장 안으로 수령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노송이 뒷마당을 지키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항상 철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가끔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길 때 속을 들여다 보면 검은 어둠만이 문짝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던 곳. 그런 제당 앞 불탕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작은 간이 부두가 있어 고기 잡고 미역 따는 배들이 하역 작업을 하느라 분주히 사람들이 오가는 바람에 아이들의 두려움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되살아나곤 했다. 남향의 넓은 공터인데다 높은 담이 등 뒤의 북서풍을 막아주는 바람에, 겨울을 견딜 한 조각의 따스한 햇살이 절실한 꼬맹이들에게 제당 앞마당은 그야말로 천

혜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너 나 할 것 없이 추위로 갈라 터진 손등을 한 조무래기들은 그곳에서 겨우내 유리구슬 따먹기로 해지는 줄 몰랐다. 유희의 즐거움이 두려움을 압도한 제당의 추억이라고나 할까.

용연 앞바다 갯벌은 시내 낚시꾼에게 인기 최고의 미끼인 갯지렁이가 무진장이었다.…삽이나 호미로 흙바닥을 뒤집다 보면 붉고 기름진 잔털이 몸통 양옆으로 물결치는, 징그럽고도 아름다운 갯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다.

씀씀이가 크지 않은 꼬마들이지만, 어른들이 주는 용돈이 부족한 녀석들에겐 나름의 작은 돈벌이가 있어 입이 심심하지 않았다. 용연 앞바다 갯벌은 시내 낚시꾼에게 인기 최고의 미끼인 갯지렁이가 무진장이었다. 썰물로 넓게 드러난 갯벌에 들어가 삽이나 호미로 흙바닥을 뒤집다 보면 붉고 기름진 잔털이 몸통 양옆으로 물결치는, 징그럽고도 아름다운 갯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다. 온전한 모습대로 잡으려고 조심스레 손놀림을 하지만 갯벌 속 구멍을 따라 금새 도망치는 녀석을 쫓다 보면 급한 호미날과 삽날에 녀석들의 몸통이 잘려나가기는 예사였다. 어쨌거나, 솜씨 좋은 아이들은 밀물이 들 때까지 양철 바께스 가득히 갯지렁이를 담을 수 있었다. 다 팔아야 기껏 몇 십, 몇 백 원이었지만 한겨울 아이들의 쏠쏠한 용돈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지금도, 시커멓게 뒤집혀진 갯벌의 비릿한 흙냄새가 코끝에 아른거린다.

(봄)

뿌리를 파다가 갑자기 출현한 뱀에 놀라고 흥분한 나는, 저도 놀라 도망가는 풀뱀을 굳이 쫓아가 끝내 피를 보고야 말았다.…풀뱀아 미안하다.

꽃 피면 개나리, 진달래 아름다운 자태나 감상하면 될 일이지. 그땐 왜 그랬던지. 선생님 교탁이나 누구 집 탁자 위에 니스 칠한 나무뿌리가 멋져 보여서였을까. 하여튼, 진달래 뿌리가 특히나 모양이 다양하단 소리를 어디서 주워들은 나는 곡괭이를 들고 마을 뒷산을 헤맸더랬다. 땅 밑 뿌리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 진달래만 보이면 불문곡직 파헤치는 바람에 애꿎은 생명만 내손에 여럿 작살났다. 여러 날을 파고 뒤져도 물개 형상이나 마도로스 파이프 모양의 멋진 뿌리는 좀체 얻기 어려웠다. 소득 없던 그 미친 놀음은 어느 날 겨울잠을 깨고 나온, 초록 바탕에 붉은 반점의 비늘이 점점이 박힌 아름다운 작은 풀뱀을 만나고서야 끝이 났

다. 뿌리를 파다가 갑자기 출현한 뱀에 놀라고 흥분한 나는, 저도 놀라 도망가는 풀뱀을 굳이 쫓아가 끝내 피를 보고야 말았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 과했다는 후회가 들었고, 진달래 뿌리에 대한 열정도 그 감정과 함께 버무려져 흐지부지 사라졌다. 풀뱀아 미안하다. 그 땐 내가 너무 어렸다.

파르르 경련하는 개구리 몸통은 이내 우악스런 손아귀에 허리 위아래가 분리되고 말았다.…아아, 개구리들아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다.

살생의 추억은 뱀으로 끝나지 않았다. 황암에서 천곡으로 가는 길에 넓은 논이 있었는데,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의 그 곳은 물기가 많은 풀밭이었다. 여기에는 유난히 덩치 좋은 참개구리들이 많이 뛰어놀았다. 통실하고 굵은 뒷다리를 가진 개구리가 폴짝거리고 뛰면 뒤를 쫓는 조무래기 아이들도 덩달아 폴짝거렸다. 부드러운 풀줄기 사이로 요리조리 도망가던 녀석들도 조무래기들의 집요한 추적을 끝내 뿌리치기는 어려웠다. 운수 사나운 녀석들이 먼저 아이들 손아귀에 걸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애절한 개골거림도 한 순간. 그대로 논바닥에 패대기쳐졌고, 파르르 경련하는 개구리 몸통은 이내 우악스런 손아귀에 허리 위아래가 분리되고 말았다. 맛있게 구워먹을 굵직한 뒷다리가 열 개 정도 모여야 사냥은 끝이 났다. 그 뒤에 잡힌 개구리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똥구멍에 보릿대가 박혀 배가 부풀리는 수모를 견뎌야 했다. 부풀려진 배로 어기적거리며 도망가는 개구리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아아, 개구리들아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다.

6. 그리운 내 고향 '용연'

김종찬(1회)

수업 중에 '쉬~쉭' 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는데…펌핑 시험을 하던 중, 연약한 부분이 파열되어 생긴 사건이었다.



1991년 용연 바닷가

가리저수지 옆에서 커다란 물줄기가 높이 솟구치던 것을 용연초등학교 교정에서 바라보던 일이 인상 깊게 떠오른다. 독일 뤼브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포스터가 동회관의 게시판에 나붙었던 1968년으로 기억된다. 수업 중에 '쉬~쉭' 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는데, 북쪽 창문 너머로 거대한 물줄기가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정유공장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개통을 하기 위해 기름 대신 물을 넣어 펌핑 시험을 하던 중, 연약한 부분이 파열되어 생긴 사건이었다. 그 후 학교 앞 3㎞ 해상에는 거대한 유조선이 왔다 가곤 했다. 이 배가 일주일가량 머물며 기름을 다 풀어내는 동안 밤이면 바

다 한가운데 수많은 등불을 단 섬이 생겨났다.

어떤 학우는 고래고기를 학교에 가져와 군것질처럼 칼로 베어 먹곤 했다.

나는 용연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다. 용연초등학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은 단층이었다. 교문에는 고래 턱뼈 두 개가 세워졌다. 고래 뼈는 인근의 장생포에서 가져온 것이다. 우리에게 진취적인 해양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세운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래잡이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됐다. 국가의 산업 통계에 중요 항목으로 열거할 정도였다. 용연동에는 고래잡이 선부를 둔 가정이 많았다. 어떤 학우는 고래고기를 학교에 가져와 군것질처럼 칼로 베어 먹곤 했다. 아무튼 우리 학교는 인근 장생포초등학교와 함께 한반도에서 고래뼈로 교문을 대신한 학교였다.

우리는 이제 고향이 없어진 지금에야 세죽 일대가 설화의 고장이란 것을 안다.…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

우리는 우리 고장이 1,000년 전 신라의 왕이 다녀간 뒤 국문학사에 찬연한 설화의 발상지가 된 사실도 몰랐고, 또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사령부의 주둔지 후예임도 모른 채 졸업했다. 선생님이나 마을 어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다. 알았다면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기상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세죽 마을 앞 바위섬은 우리가 어릴 때도 처용암이라 불렀다. 우리는 이제 고향이 없어진 지금에야 세죽 일대가 설화의 고장이란 것을 안다. 게다가 1994년 세죽에서 발굴된 패총을 통해 6,000년 전, 울산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선사인들이 모여 살던 역사의 고장이란 것을 안다. 그 뿐 아니라 선수마을은 지금으로 보면 해군사령부의 주둔지로서 국방의 요새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

창고는 지붕이 함석으로 돼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끄러워 수업이 되지 않았다.…천정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교실 바닥에 툭 떨어진 것이다.

용연초등학교는 1964년 지금은 폐교된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로 시작했다. 분교가 생겨

난 것은 주로 선수마을 학생들이 다니던 대현초등학교가 옮겨갔기 때문이다. 대현초등학교는 본래 지금의 석유화학공단에 있었던 동서화학 자리에 있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 수립되자, 지금의 태광산업 자리로 옮겼다. 그러자 선수마을 학생들이 다닐 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선수에서 태광산업 부지의 학교까지 5㎞, 용잠초등학교까지 6㎞ 가량이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 선수마을과 용잠초등학교 사이에 분교를 세워 가르치기로 한 것이 용연분교이다. 따라서 용연분교는 선수와 용잠 사이인 용연마을에 자리잡았다. 학교는 용연마을 5일 장터에 있던 마을창고 두 곳을 임시로 사용했다. 그 덕택에 나는 우리 집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이 분교는 1학년부터 받았는데, 남녀 각 1반씩이었다. 남학생이 있는 1반은 신작로 북쪽의 창고에서 수업했고, 여학생은 그 반대편이었다. 창고는 지붕이 함석으로 돼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끄러워 수업이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차라리 눈을 감고 책상에 엎드려 빗소리의 리듬에 심취하게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싶다. 그 해 봄 이 교실에 소동이 났다. 천정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교실 바닥에 툭 떨어진 것이다. 얼마나 기겁했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그때 물려 다친 친구는 없었다.

우리는 이듬해 작은 운동장이 있는 분교로 옮겨 갔다. 창고 교실에서 200m 떨어진 바닷가 언덕이었다. 유조선에서 보내온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밀어 보내는 펌프장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작은 교정에서 2년을 더 보낸 뒤 4학년 때부터 황암마을 논을 다져 지은 새 학교에 이사했다. 바닷가 언덕 학교 터는 뒤에 거대한 원유저장탱크가 들어섰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전기 혜택을 받았다. 1967년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온 것이다 이때쯤 세죽마을 입구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생겨 호기심을 끌었다. 정유공장 전문가로 추측되는 이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은 울산에서 자리잡은 첫 외국인 전용 거주지일 것이다. 누가 이곳을 선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 년 전 아랍 상인이 교역을 하기 위해 들렀던 항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막대기 끝에 헝겊을 감고 피치를 묻혀 불을 붙인 뒤 그것을 횃불 삼아 해안에서 낙지를 유인해 잡곤 했는데 이를 주민들은 '훼바리' 라고 불렀다.

이 외국인 사택이 만들어질 즈음 우리는 미국 원조 자금으로 지급되던 큰 빵을 공급받았다. 책에서나 보던 그 빵은 속살의 촉촉함과 겉 부분의 바싹거림이 좋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빵을 실은 픽업트럭이 학교에 들어서면 환호성이 퍼졌다. 이 빵을' 쇼빵'이라 불렀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모른다. 나는 마침 그 때에 푹신한 의자를 뜻하는' 소파' 라는 용어를 익혔는데,' 쇼빵'과' 소파' 사이에 한동안 혼동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외국인, 외래 식품, 외래 용어 사이에서 흥미로운 경험이 오가는 가운데 학교 뒤에 길이 나고 그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여름밤 우리는 아스팔트용 검은 피치를 조금 훔쳤다. 막대기 끝에 헝겊을 감고 피치를 묻혀 불을 붙인 뒤 그것을 횃불 삼아 해안에서 낙지를 유인해 잡곤 했는데, 이를 주민들은'훼바리'라고 불렀다.

6학년 때 우리는 8㎞쯤 되는 먼 길을 걸어 '5비공장'을 견학했다. 이 공장은 지금의 삼성정밀화학이다. 5비는 제5비료공장의 줄인 말이다.

6학년 때 우리는 8㎞쯤 되는 먼 길을 걸어 '5비공장'을 견학했다. 이 공장은 지금의 삼성정밀화학이다. 5비는 제5비료공장의 줄인 말이다. 막 준공된 뒤 견학 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여천동의 어느 배 과수원에 들러 모두가 배 한 개씩을 얻어먹었다. 6학년 1반 담임이었던 홍우곤 선생님의 친척 집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천동 일대는 당시 배 과수원이 많았다. 여천동 가운데 지금 송원산업이 있는 곳은 심완구 전 시장의 집이 있고, 그 웃어른들이 운영하던 배 과수원이 있다. 또 그림을 그리는 홍맹곤 씨 선대를 비롯하여 홍씨 일가도 여천동 일대에서 배 과수원을 경영하며 학교를 설립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 학교 교장을 맡았던 이재만 선생님도 이곳이 고향이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교장선생님 집에도 들러 물 한 모금씩 마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해 용연초등학교는 울산시 교육청 배구시합에서 1등하고, 그 여세를 몰아 경남대회에서 1등을 했다.

우리는 용연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배구'라는 구기 종목에 대해서는 최강의 자부심을 가졌다. 제주도가 고향인 오영택 선생님이 부임한 뒤 5~6학년 가운데 덩치가 좋은 친구들을 선발해 배구를 가르쳤다. 방과 후나 여름방학 내내 땀을 흘리던 오 선생님과 친구들이 생각난다. 그해 용연초등학교는 울산시 교육청 배구시합에서 1등하고, 그 여세를 몰아 경남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경남대표로 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여비와 숙박비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용연초등학교 재학생들은 대부분 배구에 대해 일가견을 갖게 됐다. 용연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학창시절이나 사회에서 배구시합을 할 때 대체로 선수 급에 선발될 수 있을 정도였다. 아울러 1~2회 졸업생 가운데 2명이 체육교사가 됐고, 여러 명이 실업 배구단 등에 선수로 발탁됐다. 배구부 창립 첫 해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요인은 오 선생님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 컸다. 아울러 이 학교 학우들의 자질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들은 해군사령부에 배속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베테랑들의 후예이다. 걸출한 역도이자 씨름선수였던 이민우 씨 역시 이 학교, 이 고장 출신인 것이 그 예가 된다.





부록

〈차례〉

Ⅰ. 옛 용연초등학교 인근 마을의 사진 자료

Ⅱ.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문화유산

Ⅲ.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지명 이야기

Ⅳ. 울산시의회 옛 용연초등학교 관련 본회의 회의록

Ⅴ. 발간비 협찬자 명단

Ⅰ. 옛 용연초등학교 인근 마을의 사진 자료

1. 성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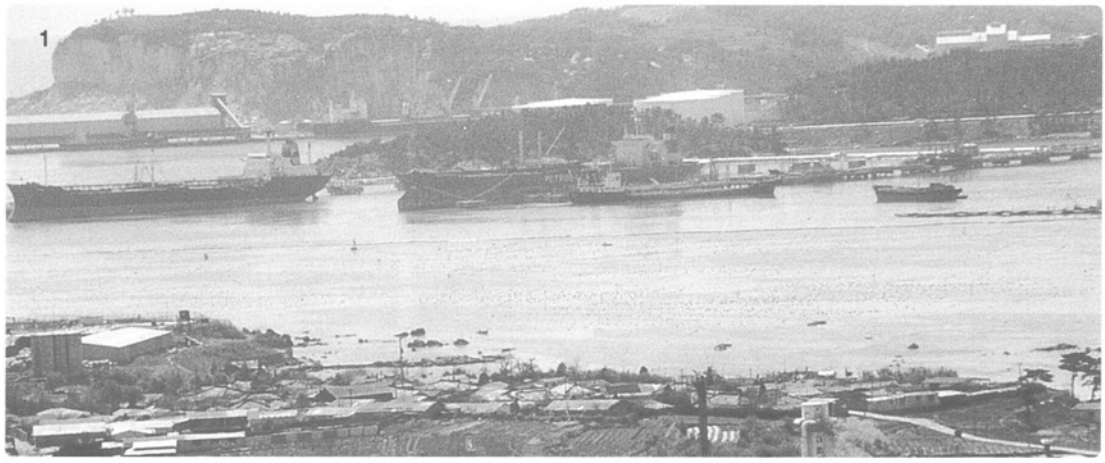








1. 성암동 입구(해답) 2. 개운포성지 표지석 3. 성암마을(점뿐앞에) 4. 성암마을(산디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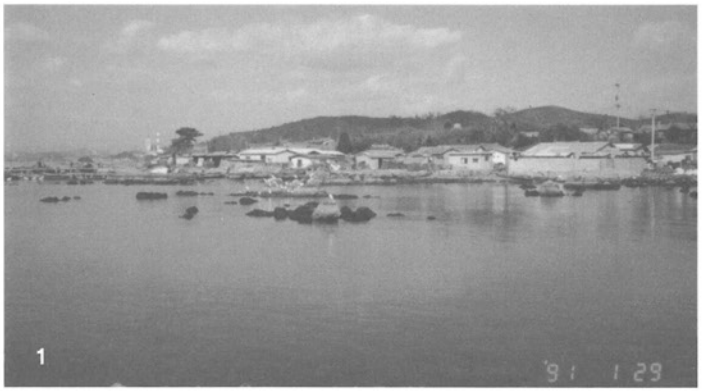
1. 세죽마을 전경
2. 세죽마을 전경
3. 처용암
4. 처용가비
5. 세죽바닷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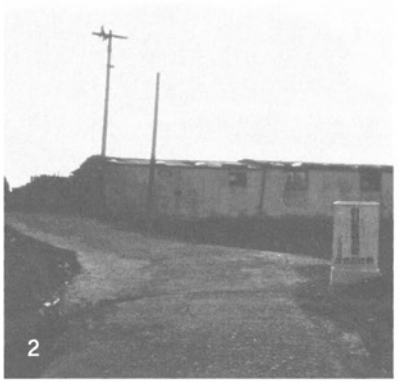






3. 성외마을















1. 큰석대에서 본 성외마을
2. 성외 입구(새마을운동 당시 시범 마을)
3. 큰새미 옆의 바위에서
4. 썰물 때의 성외 앞바다 5. 성외 앞바다
6. 황성동사무소 앞에서
7. 성외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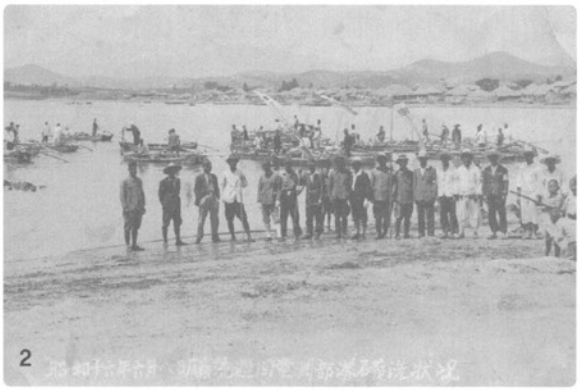


1. 황암 바닷가
2. 황암문화관
3. 황암문화관 옆의 제당나무
4. 황암문화관에서 황암부인회 일동
5. 황암옛터비 전경
6. 1980년대 황암 마을회관(철거 당시)
7. 황암마을 사람들

5. 용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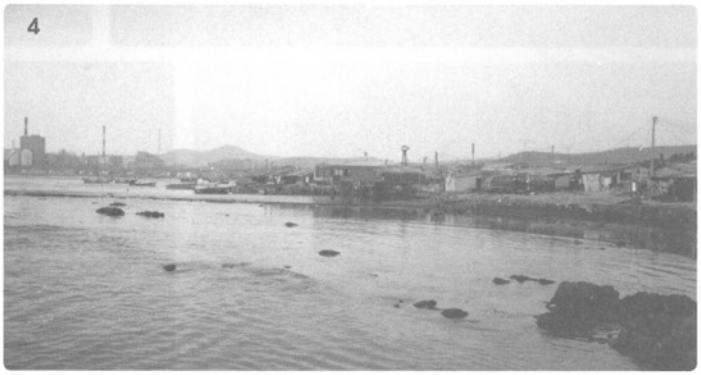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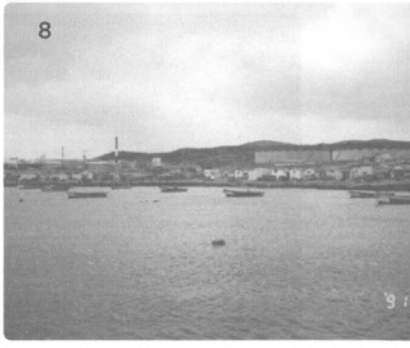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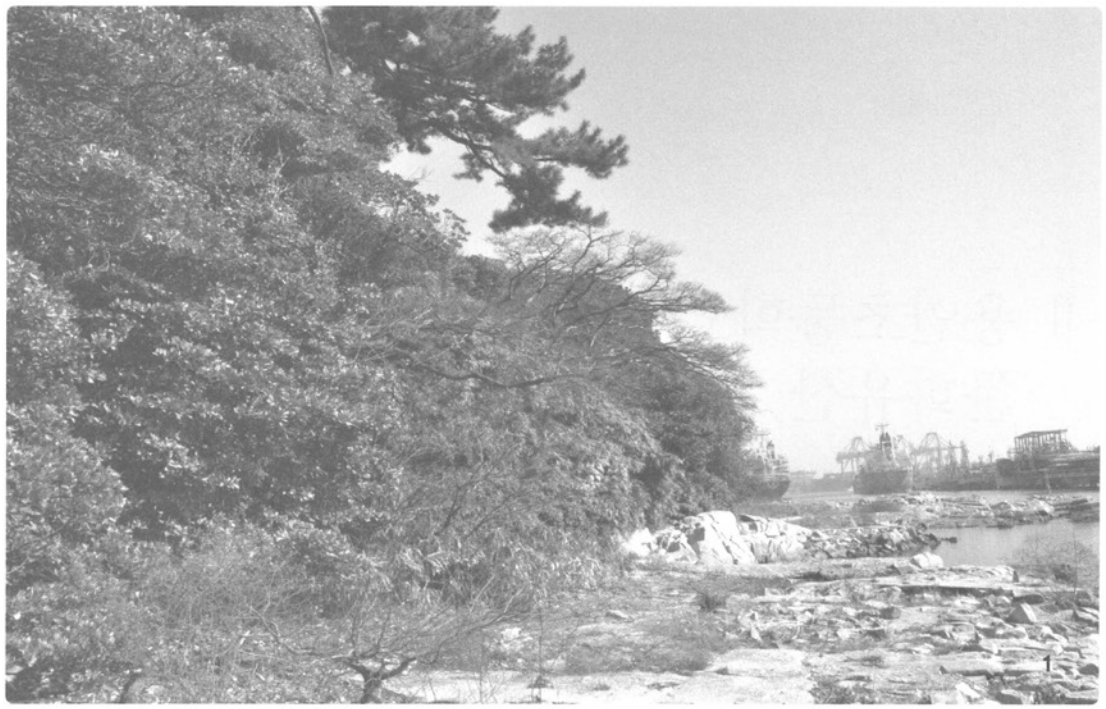
1. 용연옛터비
2. 용연 바닷가에서 돌 매는 모습
3. 용연동의 지명지도
4. 용연 바닷가
5. 물빠진 서망개에서 바라본 용연
6. 용연 큰 축간에서 바라본 봉대산
7. 일명 하와이 동네 앞에 있던 군부대
8. 용연동 1통 바닷가와 거랑채, 황암마을


5


6


7


8









1. 온산읍 쪽의 목도
2. 목도 나들이(8회 이경애, 이미희)
3. 목도의 동백나무
4. 노 저어서 목도로 놀러가던 모습

Ⅱ.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문화유산

1. 신선산(神仙山) · 신선바우(神仙巖)
2. 처용암(處容巖)
3.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
4. 세죽패총(細竹貝塚)
5. 성암동패총(城岩洞貝塚)
6. 가리봉수대(加里烽燧臺)
7. 개운포성지(開雲浦城址)
8. 제승정(制勝亭)
9. 체오정(掣鰲亭)
10. 월성이종만공덕기념비(月城李鍾萬功德記念碑)

1. 신선산(神仙山) · 신선바우(神仙巖)

원래는 이 산을 함월산(含月山)이라고 불렀는데, 공원이 생기면서 신선산체육공원이라 명명하면서 흔히 신선산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수암동 주민들은 함월산 줄기의 봉산(封山)이라 부르며 이 산의 정상을 이루고 있는 바위를 신선바위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 2008년 5월에 농협울산지역본부에서 지어 남구청에 기부한 신선정(神仙亭)이 세워져 있다.

옛날 신선들이 이곳에서 놀았다고 하여 신선산, 또는 신선암산(神仙巖山)이라 한다. 또 이 산 정상의 바위를 신선바우, 또는 신선암이라 한다. 이 지명은 선암동이라는 동 명칭으로, 신선여자고등학교에 고스란히 존재한다. 신선산 정상에는 한자로 '神'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옛날에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이 신선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마침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게를 벗어놓고 바둑을 서너 판 두는 동안 구경을 했다. 해질녘이 되자 나무를 해서 집에 가야지 하고 지게를 짊어지려고 그것을 만지니까 파삭 삭아 있었다. 또 도끼는 있는데, 잡으니까 자루가 팍 썩어 있었다. 그는 문득 자기의 수염을 살펴보니 새까맣던 수염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그가 마을에 내려와 자기 집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다가 차근차근 따져서 계산을 해 보니 결국 본인이 집주인의 고조부였다고 한다.



신선산

한편 중구 성안동에는 이 '신선바우'를 바라보고 의연하게 서 있는 바위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 바위가 장군 같다고 하여 '장군바우'라고 불렀다.

옛날 신선바우가 아름다운 선녀 같았다. 두 바위가 늘 마주 바라보다가 서로 정이 들게 되었다. 혼담이 이루어져 '장군바우'가 '신선바우' 있는 곳으로 장가들게 되었다. '장군바우'가 장가드는 날이 다가와 분주하게 서둘렀다. 이때 한 여인이 빨래를 하다가 주위가 떠들썩하여 귀를 기울여보니, '장군바우'가 '신선바우'에 장가든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그 여인이 무심중에,

"얄궂어라, '장군바우'도 장가가는가 배? "

라고 말해 버렸다.

그 한마디 말이 그만 여름철의 서리가 되어 '장군바우'가 굳어 버렸다. 이때 그 '장군바우'는 그 여인을 끌어당겨 그만 깔고 앉아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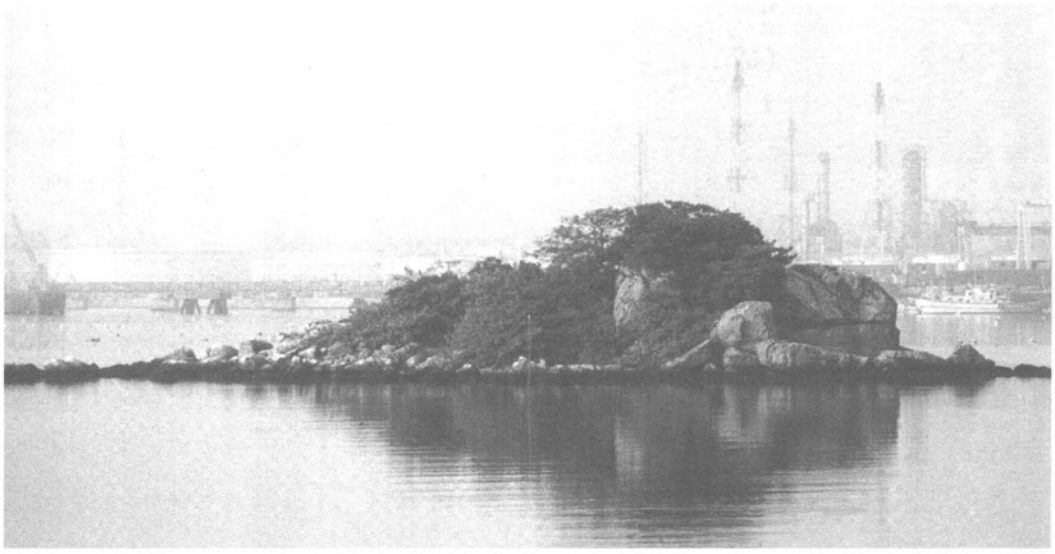
2. 처용암(處容巖)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했다.

윤홍명(尹鴻鳴)의 『화암실기(花岩實記)』에 대룡암(大龍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성동 산 668-1번지인 처용암은 넓이 622㎡로 신라 때 처용설화가 서려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명당자리가 있어 이곳에 묘를 들이면 부자가 되지만 마을은 망한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한국전쟁 때 참전한 이 마을 장정들이 거의 전사하여 수상히 여긴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수색한 결과 몰래 묘를 들인 것이 확인되어 파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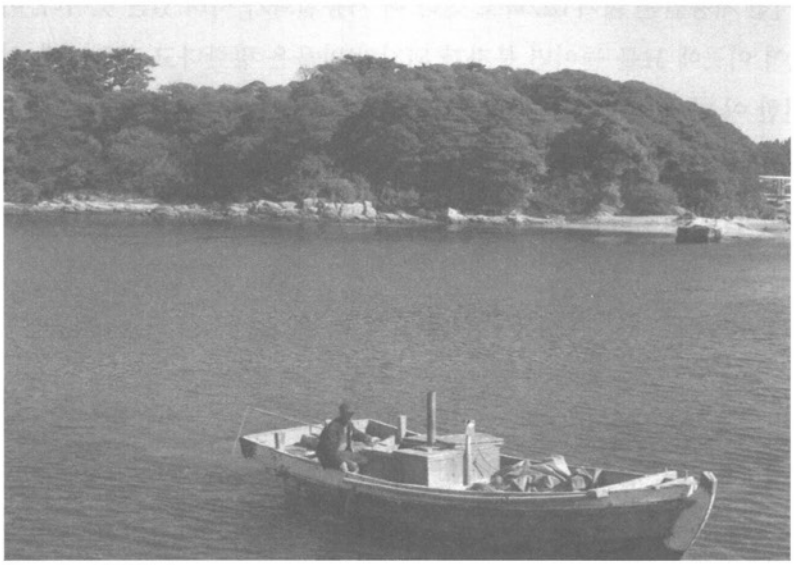
1960년대까지 주변엔 미역, 진저리, 몰 등의 해조류와 해삼 등이 풍부했다.



처용암

3.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번지에 있는 문화유산으로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되었다.


울주 목도 상록수림

모양이 동물의 눈(目)처럼 생겼기 때문에 목도(目島)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섬의 면적은 15,074㎡이고 상록수로 덮여 있는데, 이 상록수들은 울산의 자연과 한반도의 난·온대 기후를 대표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섬에 대나무가 많아서 대섬(竹島)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신라 때에는 이 섬에서 대나무를 길렀다고 하고,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주민들이 대나무 화살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대나무는 점점 줄어들었다. 지금은 동백나무와 후백나무 등 각종 상록수들이 무성하여 천연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동백나무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근처에서는 동백섬 혹은 춘도(椿島)라고 부르기도 한다.[1]

목도와 관련하여 김진곤(용연 제8회)이 2008년 5월 12일에 울산매일신문에 개운포에 빠져죽은 기생들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연재하였다.

『태종실록』에 익사자의 정상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지울주사(知蔚州事) 이복례(李復

1) 2012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2

禮)를 선주(善州. 지금의 경북 선산)로 귀양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경상도 관찰사가 조정에 이렇게 보고했다. 이복례에 의하면 염장관(鹽場官) 강유(强愉)가 전 감무(監務) 김양보(金陽普)를 청하여 기생과 종을 각 5명씩 거느리고 목도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풍파를 만나 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고 했다. 태종은 기생 5명이 함께 탔다면 수령이 알지 못하고 강유만이 잘 놀았겠느냐며 노하여 말했다. 이어 수령도 실제로 참여하고 모르는 체한 것이니 말을 꾸며대고 속인 그 죄는 더할 나위없다고 했다.

좌우에서 이렇게 아뢰었다. 신(臣) 등이 들은 바로는 그 뿐이 아니라 죽은 자가 많은데도 수령이 숨기고 보고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이 내 생각에도 거짓이라 짐작하였다. 이어서 이복례를 붙잡아 목에 칼을 씌우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데려오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윽고 이복례를 국문했는데 이렇게 자백했다. 김양보가 강유와 더불어 만호(萬戶) 정사빈(鄭思賓)을 목도로 불러 놓고 기생과 풍악으로 하루 종일 술을 마셨는데, 이복례는 정사빈과 함께 어선을 타고 돌아오고 김양보와 강유는 기생과 종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죽은 자가 10명이었다고 하였다. 이복례의 죄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과오로 인명을 살상한 죄를 물어 선산으로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그러나 이복례의 귀양지는 선산이 그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3일 만에 '해진(海珍)', 즉 지금의 전남 진도로 바뀌게 된다.

사간원 사헌부에서 만약 울산의 백성들이 그가 고향에서 편안하게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속에 분통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국가의 법령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간언해 임금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부터 약 1년 후에 태종은 이복례를 포함하여 6명을 용서하고 두 달 후에 고신(告身. 직첩)을 주도록 명함으로써 이복례는 명예 회복을 하게 된다. 이로서 조선 태종 때 발생한 개운포의 익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원래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필자가 일부를 생략한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큰 사건인 것은 틀림없다.

김종직의 『점필재집』에는 이 지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목도 안에는 뱀이 많은데, 김양보가 놀이할 때 뱀 한 마리가 나온 것을 죽였다가 이 변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가 지은 '동백도(冬柏島)'라는 한시가 전해오는데, 후반부만 인용하기로 한다.

(상략)해마다 꽃피는 계절이 오면 속절없이 명지(冥紙)를 사라 올려 학성 고을 천년 한을 기생들에게 다 실어 보내네, 이처럼 그는 개운포에 빠져죽은 기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4. 세죽패총(細竹貝塚)

황성동 620번지 일원이다. 세죽나루 터 일원에 위치한다.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형성 기간은 탄화물을 분석한 결과 BC 5,700~5,100년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패총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유적의 층위는 13개로 구분되며 크게 4개의 층으로 통합된다. 패총에서 확인된 유구는 둥근 모양의 구덩이로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낚싯바늘과 석부, 작살,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 등의 유물과 멧돼지, 사슴, 여우, 고래, 꿩, 참돔, 감성돔, 상어, 숭어, 홍합, 가리비, 피조개, 우럭 등의 자연유물이 출토되었다.[2]

5. 성암동패총(城岩洞貝塚)



성암동패총 석기류

성암동 451-4번지 일원이다. 성암동패총은 신석기인들의 생활 폐기물인 조개껍데기와 짐승뼈 물고기뼈, 석기나 토기의 파편 등이 남아 있는 유적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과 당시의 자연 환경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습된 유물로는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돌도끼((石斧), 그물추(漁網錘), 돌고래뼈, 피뿔고둥, 참굴, 떡조개 등이 있다.

이 패총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앞으로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웃에 있는 황성동 세죽패총과 온산공업단지 내에 있는 우봉리유적과 함께 울산 지역의 신석기시대의 문화상과 한·중 ·일 3국의 문화적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될 것이다.[3]

2) 文化遺蹟分布地圖(中·南·東·北區 편), 蔚山廣域市, 2004, 145쪽
3) 文化遺蹟分布地圖(中·南·東·北區 편), 蔚山廣域市, 2004, 144쪽

6. 가리봉수대(加里烽燧臺)


용연동 서망개에서 본 봉대산

봉대산 정상인 남화동 산39-1번지에 있었던 봉수대이다. 현재 이 봉수대는 SK가스 울산기지고압가스 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흙과 돌을 섞어 만든 너비 8m, 높이 7.5m, 지름 25m의 봉수대로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25년에 편찬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부터 조선 전 시대의 각종 울산읍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봉수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봉수대는 남쪽으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의 하산(下山)봉수대에, 동쪽으로 동구 화정동의 천내(川內)봉수대에, 북쪽으로는 관문성 동단에 있는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 대점(大岾)봉수대에 응신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남쪽으로 하산봉수대까지 23리 17보, 동쪽으로 천내봉수대까지 21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봉수대는 왜구의 출몰이 잦은 동해안의 군사정보를 전달하는 첨병 역할을 했던 곳이다.

현재 1960년대 중반부터 1998년도까지 30여 년 동안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 정상에는 육안으로 보아 봉수대의 흔적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하게도 동남쪽에 이 봉수대를 보호했던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름이 약 8m의 토벽(土壁)으로 된 둥근 모양의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유적 한가운데에 지름 약 2m, 높이 약 2m의 둥근 기둥 모양의 흙으로 된 구조물이 있었다고 한다. 한때 옛 용잠초등학교와 용연초등학교의 단골 소풍 장소였던 이곳이 과거에는 군부대에, 지금은 특정 기업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출입을 못하는 곳이 되었다.

7. 개운포성지(開雲浦城址)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이다. 개운포성지는 성암동 610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선소성(船所城)]으로 기록되어 있다.(75쪽)

개운포성은 해발 60m 정도의 구릉과 전면에 펼쳐진 갯벌의 경계 평지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평산성(平山城)이자 포곡성(包谷城)이라고 할 수 있다.[4] 이 성은 체성(體性), 문지(門址), 치성(雉城), 옹성(甕城), 해자(垓字), 건물지(建物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 이곳은 조선 전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의 영성이 있던 해군 성터이다. 비슷한 시기에 수군만호의 진성이 여기에 있었다. 이 성은 돌로 쌓은 내성과 흙으로 만든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성은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성이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 해자(垓字)를 둘렀다.

개운포에는 1656년(효종 7년)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군함을 만들고 정박시켰던 선소가 있었다. 지금도 이곳을 선수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 선수는 선소에서 나온 말이다.[6]

개운포성의 발굴조사는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현재 2차까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02년 3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동문지, 서문지, 남쪽 체성 2개 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조사는 북문지, 남성벽(南城壁), 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로 측량도를 계측한 결과 성의 둘레가 1,264m, 면적 102,919m^2로 확인되었다.

남문지는 지표에서 윤곽을 찾기가 어렵지만 남쪽 체성의 가운데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개운포성지의 정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차 조사 결과 위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개운포성지

못했다.[7] 남문지 근처 성벽 면석(面石)에「南村 乙(?)未四二九」이라고 새겨져 있는 명문(銘文)이 확인되어 북문지 근처 성벽의 면석에 새겨진 명문과 함께 성곽의 축조와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8]

동문지는 동쪽 구릉에 위치하며 바깥에는 반달 모양의 옹성이 협축(夾築) 방법으로 축조되어 있다. 문지의 안쪽에는 확돌 2개가 대칭되어 있으며 확돌 주변에서 기와가 많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기와지붕으로 축조된 누각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9] 이 누각이 동문지 인근의 개운포에 있었던 제승정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동문지 서쪽에 있는 구릉부(일명 : 객사먼디)에는 북문지 남쪽 구릉 일대와 함께 기와, 백자, 석재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성(營城)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지가 위치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북문지는 지표에서 반월형 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문지와 유사하다. 다리골, 도치골, 황새골 등에서 나무와 곡식을 이고 지고 진등대비알을 넘어와 쉬는 곳이었다. 북문지에 편편한 바위가 넓고 높이가 알맞아 머릿짐을 내려놓았다가 혼자 다시 이기가 편했다.

서문지는 개운포성지의 서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성곽보다 3-4m정도 낮게 잔존하고 있다.[10] 이곳은 기존의 자료에서는 문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성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수로 시설과 건물지가 있는 구조로 여겨져 이곳이 동문지와 북문지처럼 성의 안팎으로 드나드는 문지인지 물과 관련한 수구 시설인지 알 수 없어 문지의 위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11]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水」字 銘 磁器와 기와를 비롯하여 백자(白磁) 편 동·식물 유체(遺體), 목기(木器) 등이 수습되었다.[12]

한편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주관으로 201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성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그때 김진곤(용연 제8회)이 개운포성지 둘레길에 33개의 해설판을 집필하여 세워두었는데, 이 글에서는 성암동 지명사와 중복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

4) 蔚山 開雲浦城址 II,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7, 5쪽
5)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2쪽
6)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08년, 148쪽
7) 蔚山 開雲浦城址 II,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7, 8쪽
8)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2쪽
9)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2쪽
10)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47쪽
11)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83쪽
12)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4, 2쪽

8. 제승정(制勝亭)

제승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체오정(掣鰲亭)과는 다르게 개운포(開雲浦)에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학성지(鶴城誌)』에는 제승정이 개운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조 32년(1832)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에는 제승정은 체오정과 함께 지금은 없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제승정의 위치는 개운포성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제승정과 같은 이름을 지닌 정자가 있었는데, 경주읍성과 제주성에 있는 제승정은 성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운포에 있었던 제승정은 최소한 성 안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운포성 동문 안쪽의 평탄 지대에 할석이 확인되고 동문지 발굴조사에서 기와가 많이 출토되어 누각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아 객사(客舍)가 있었던 인근으로 추정된다.[13]

이 제승정을 소재로 지은 한시(漢詩)가 전해오는데 다음과 같다.

제승정(制勝亭)

이곡(李穀)

地勝仙遊密
雲開世路通
依俙羅代兩仙翁
曾見畫圖中
舞月婆娑白
欲尋遺跡杳無窮 半帆風

13) 김진곤,「 울산 개운포에 있었던 체오정(掣鰲亭)과 제승정(制勝亭)」, 『울문연소식』 6호,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년 3월 14일자 1면

경치 뛰어난 땅에 신선들 빽빽이 놀았고
구름이 개고 세상길이 통했네.
어렴풋이 보이는 신라 때의 두 신선
일찍이 보았던 그림 속의 모습이네.
달빛 속에 추는 춤은 흰 옷자락이 너울거리고
머리에 꽂은 흐트러지게 붉은 빛이네.
남은 흔적 찾으러 해도 끝없이 어둡고
바람에 반쯤 부푼 돛단배를 불러 기다리네.[14]

제승정(制勝亭)

정포(鄭誧)

暎島雲光煖
連江水脈通
人言昔日處容翁
生長碧波中
草帶羅裙綠
花留醉面紅佯
狂世意無窮
恒舞度春風

섬에 비치는 구름 빛은 따뜻하고
연이은 강물은 맥처럼 통한다.
사람들 말이 옛날 처용 옹이
푸른 파도 중에 나고 자랐다고 하네.
풀 띠 두른 치마는 푸르렀고
꽃이 머문 것처럼 취한 얼굴은 붉네.
미친 척 세상을 가지고 놀 뜻이 무궁하여
항상 봄바람 타고 춤을 추었네.

14) 다 같이 보는 울산읍지, 역사교사모임, 2002, 78쪽

9. 체오정(掣鰲亭)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체오정은 개운포에 있는데, 천순(天順) 병술년(丙戌年)에 수군절도사 홍익성(洪益誠)이 세웠고, 뒤에 절도사 이소(李昭)가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학성지(鶴城誌·1749)에는 체오정을 세종 병술년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이 모두 정확하지 않지만 종합해 보면 세조 12년에 지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체오정에 대한 기록은 순조 32년(1832)에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기록이 같은데, 다만 체오정이 제승정과 함께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당시 체오정의 위치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홍성민(洪聖民), 전식(全湜), 김상헌(金尙憲) 등의 개운포를 읊은 한시(漢詩)에서 그 위치를 비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홍성민의 한시 중에 '평평한 자라 등에 아직도 백 척 대(臺)가 남았는데'(하략)라는 대목에서 지형의 생김새로 보아 성암동 앞에 홀로 우뚝 서 있었던 산디먼당을 체오정의 위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산디먼당을 동쪽이나 서쪽에서 바라보면 흡사 거대한 자라 한 마리가 방금 뭍에서 바닷물에 앞발을 내민 형국이 개운포 연안에 이곳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5]

현재 이곳은 개운교의 가설로 성암동 쪽 교각 부지에 편입되었다.



15) 김진곤, 「울산 개운포에 있었던 체오정(掣鰲亭)과 제승정(制勝亭)」, 『울문연소식』 6호,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년 3월 14일자 1면

10. 월성이종만공덕기념비(月城李鍾萬功德記念碑)

이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2m이고, 가첨석은 87×44×42㎝이다. 비신은 140×97×19㎝이고 대석은100×80×16㎝이다.[16] 이 비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장생포초등학교로 임시로 이전할 때까지 약 10년간 SK가스공장 부지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비 앞에 공덕비의 내력을 기록한 비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939년 4월 25일 용잠초등학교 개교
- 1942년 5월 30일 학교 건립 공적비 건립
- 1977년 1월 17일 공덕비 해체(폐교)
- 1986년 9월 27일 임시 이전(장생포초등학교 교내)
- 2002년 10월 27일 현지 재건립

이 비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과 번역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종만 공덕기념비

峴崙毓氣 대현의 멧뿌리(加里山)는 기운을 길러내고
龍江儲精 용잠의 앞바다가 정기를 모아
猗歟夫夫 아 아 이 장부(丈夫)를
維此挺生 여기 우뚝 태어나게 했도다.
社會名著 그 이름 세상에 떨치게 됨은
敎壇功成 교육 사업으로 공을 이룩함이요.
所施斯普 베푸는 그 사업 널리 알려져
籍籍令聲 명성이 자자하게 널리 펴졌네.
矧是本面 본면 사람 하물며 존경심이 이렇거늘
孰不艷情 누구인들 그를 사모하지 않으리.
黃金宜鑄 황금으로 주조하여 기림이 마땅커늘
片石猶輕 석비(石碑)가 오히려 그 공적보다는 가벼우리.[17]

昭和 十七年(1942) 五月 日
蔚山郡大峴一面 共立

16) 文化遺蹟分布地圖(中·南·東·北區 편), 蔚山廣域市, 2004, 167쪽
17) 김진곤, 「울산 남구 해안 마을 주민들의 이주사(移住史) 고찰」,『남구문화』 3집, 울산남구문화원, 2005년, 211쪽

Ⅲ.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지명 이야기

1. 대현동
2. 성암동
3. 황성동
4. 용연동

여기에 수록된 지명 이야기는 2010년 12월에 울산남구문화원에서 간행한 「울산남구지명사」 중에서 용연초등학교 인근 지역 4개 동의 연혁 편과 마을 편, 그리고 지형 편과 지명 지도를 발췌하여 실었다. 책의 집필은 박채은 당시 남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과 같은 연구소 김진곤(용연 제8회) 당시 연구실장이 맡았다.

-편집자 주-

〈동별 자료 조사위원〉

○용연동 장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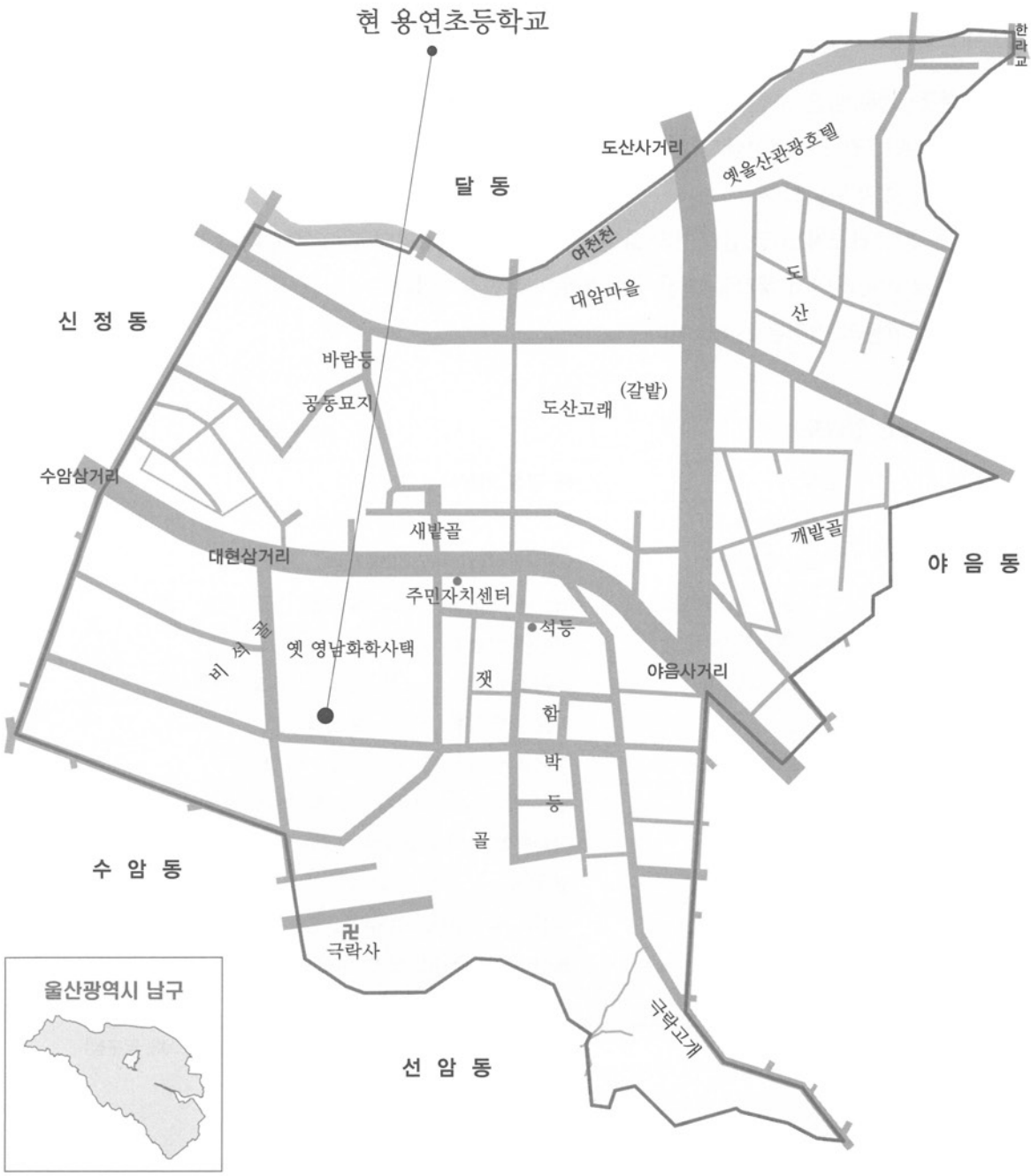
○황성동 성외 박만식

세죽 윤대헌

황암, 천곡 이수우(용연 제3회)

○성암동 김진곤(용연 제8회)

〈대현동 지명 지도〉


현 용연초등학교
한라교
도산사거리
옛울산관광호텔
달 동
어천천
대암마을
도
산
신 정 동
바람등
공동묘지
(갈밭)
도산고래
수암삼거리
새발골
깨발골
대현삼거리
야 음 동
주민자치센터
석등
옛 영남화학사택
야음사거리
잿
함
박
등
골
수 암 동
극락사
울산광역시 남구
극락고개
선 암 동

1. 대현동(大峴洞)

1) 대현동(大峴洞)의 연혁

대현동(大峴洞)은 조선 숙종 46년(1720)에 야음리(也音里)에 속한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79년 5월 1일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시(蔚山市) 조례 제625호에 따라 야음동에서 야음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 후 2007년 2월 26일 남구청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행정동 명칭이 대현동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대현동의 면적은 1.08㎢이다.

〈동 명칭 변천 일람표〉

시대	연도	동 명칭 변천사
조선시대	1720년(숙종 46)	울산군(蔚山郡) 야음리(也音里)
	1765년(영조 41)	야음리(也音), 대암리(臺岩里)
	1777년 –1800년(정조)	야음리(也音里), 대암리(臺岩里), 도산리(道山里)
	1801년(순조 1)	야음리(也音里), 도산리(道山里)
	1874년(고종 31)	야음동(也音洞), 도산동(途山洞), 송호동(松湖洞)
일제시대	1911년	야음동(也音洞), 도산동(途山洞)
	1914년 4월 1일	야음리(也音里)로 통합(행정구역 개편)[1]
현대	1962년 6월 1일	울산시(蔚山市) 야음동(也音洞)(시(市) 승격)
	1979년 5월 1일	야음동에서 야음2동(也音二洞)으로
		분동(울산시 조례 제625호)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남구(南區) 야음2동(일반 구제(區制) 실시)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남구 야음2동(광역시 승격)
	2007년 2월 26일	대현동(행정동 명칭 변경)

(자료 : 구정백서, 2008, 남구청)

1)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22쪽

2) 지명

(1) 마을

[깨밭골]

대현동 470번지에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야음사거리]에서 [신화로] 남쪽 지역을 일컫는다. 이곳은 서쪽을 제외하고 동, 남,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짜기였다. 야음동과 나눌 때 남쪽 일부 지역이 야음동에 잇대어 있다. 이 골짜기의 위쪽 밭에 깨를 많이 재배했다고 하여 일컫던 지명이다.

예로부터 옥동댁, 옥산댁 등 3가구가 거주하며 밭에는 깨, 논에는 벼농사를 지어 다소 부유한 생활을 했다. 현재 택지 개발로 일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상태이며, [수암로] 주변에는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옛 마을은 사라졌으나 예전의 3가구는 그대로 살고 있다.

[대암마을(大岩—)]

대현동 577번지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옛 [울산관광호텔] 서남쪽에서 [야음사거리] 부근까지이다. 이 마을 북쪽인 달동의 [마단들]에 있었던 [독산(獨山)]·[禿山(민둥산))] 또는 [서당산(書堂山)]의 생긴 모양이 마치 큰 바윗덩이로 보이므로 야음동 쪽에서는 [대암산(大岩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대암산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암]이라고 일컬었다.

현재 옛 마을은 사라졌으나 예전에는 이곳에 6,7가구가 살았다.

[도산(途山)]

대현동 560번지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옛 [울산관광호텔] 남쪽 일대의 전역을 말한다.

[도산마을]이란 [대암], [도산], [깨밭골]과 현재 야음동 관할 지역인 [새각단], 현재 수암동 관할인 [수암] 등 5개의 마을로 형성된 자연 마을을 일컫는다. 일부 간행물에 [도산(島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산(島山)은 정유재란 때 격전지였던 중구 학성동의 [학성공원(鶴城公園)]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곳을 도산(島山)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옛 마을은 사라졌으나 예전에는 이곳에 20가구가 살았던 큰 마을이다.



도산마을

[새각단]

지금의 야음동 509번지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예전에 [도산마을]을 형성했던 자연 마을이다. 현재 옛 마을은 사라졌으나 예전에는 이곳에 김해배씨 등 7가구가 살았다.

[수암(秀岩)]

지금은 행정동인 수암동으로 분동되었지만, 예전에 [도산마을]을 형성했던 하나의 자연 마을이었다.

현재 옛 마을이 사라졌으나 도시화되기 전에는 12가구가 살았다.

(2) 지형

① 강(江) · 천(川) · 구(溝)

[여천천(呂川川)·뒷거랑]

[대암마을]의 주민들은 [여천천]을 [뒷거랑]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② 거목(巨木)

[당산나무]

대현동 577-6번지의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동쪽인 [번영로]의 신호등이 있는 곳에 있었던 당산나무이다. 수종은 포구나무이며 벌목했던 당시의 수령은 당시 700년 가량 되었다고 한다. 1942년경에 일본인들이 [장생포항]으로 가는 철로를 내기 위해 벌목했다고 한다. 그때 참여했던 인부가 한 달 후에 원인을 알 수 없이 급사했다고 전해 오고 있다.

③ 고개

[극락고개(極樂—)]

대현동 산255번지부터 북쪽으로 대현동 402번지 일대에 있었던 고개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④ 골짜기(坪 · 野)

[도산고래(途山—)]

대현동 633번지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로 [울산세관] 동쪽 부근의 주상복합건물인 야음두산위브 건설 현장 부근이다. 예전에 이곳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었다. 평소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일컫던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비석골(碑石谷)]

옛 [영남화학사택]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묘소 몇 기가 있었고 보기 드문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여 일컫던 지명이다. 사택 부지 조성을 위해 묘소 이장 때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하 2m 깊이로 일반 다른 묘 보다는 깊이가 더 깊었으며 그 안에는 서기가 서려 있었다고 한다.

이 골짜기의 좌우에는 1960년대 제3비료공장인 [영남화학사택]에 편입된 야산이 있었는데, 큰 나무는 없었지만 키 작은 잡목들과 잡초들이 무성한 곳이었다. 토양이 척박해서 농지로는 활용되지 못한 곳으로 학성이씨 문중의 임야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한약계명이 교삼인 '넉삼대'라는 약초의 군락지였다고 하는데 한여름에 소가 더위를 먹었을 때 이 풀을 삶은 물을 먹이면 특효였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새밭골]

대현동 677번지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로 현재의 [울산세관] 남쪽에 해당된다. 억새가 많았다고 하여 일컫던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재안골·쟁골]

대현동 810번지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로 지금의 [대현동주민자치센터] 뒤부터 [극락사] 입구까지를 일컫는다. 이곳은 [함박등]의 서북쪽에 인접해 있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⑤ 등성이

[동산만디]

대현동 564-4번지 일대에 있었던 등성이로 옛 [울산관광호텔]의 동남쪽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정초에 해맞이 행사를 하고 삼월 삼짇날에는 화전놀이를 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우방유화맨션과 태양한신아파트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바람등·대풍등(大風嶝)]

[대현초등학교]의 북쪽에서 서남쪽에 있는 [수암로]까지 길게 뻗어 있었던 등성이로 남쪽에 있었던 [함박등] 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주는 산이 주위에 없어서 이곳이 세찬 바람이 불어 대는 등성이라고 하여 일컫던 지명이다. 이곳은 현 대흠타운2단지아파트가 들어서서 정확한 지번은 알 수 없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함박등]

대현동 694번지 일대에 있었던 등성이이다. 대현동 863-52번지에 있는 진주아파트부터 852-18번지까지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던 곳이다. 지금의 [울산감리교회]가 이 등성이의 한가운데에 있고 [대현동주민자치센터]가 서북쪽에 있다. 일설에 따르면 이 등성이의 위치를 [영남화학공장사택]이 있었던 곳을 [한박등]이라고 하지만[2] 이곳은 [한박등]이 아닌 [비석골]의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예부터 묘소 주위에 함박꽃이 피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길지(吉地), 즉 명당으로 여겼다고 한다.

현재 도로명 주소 표기에 '한박등○길' 등으로 표기되고 입간판에도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함박꽃'에서 유래한 지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박꽃○길' 등으로 모두 고쳐야 마땅하다. 또한 [대현동주민자치센터] 뒤쪽, 즉 남쪽의 골짜기인 [재안골] 지역의 길 이름을 '한박등○길'로 표기한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⑥ 산(山) · 봉(峰)

[안산(案山)]

야음동 산22-1번지 일대에 있는 산으로 지금은 야음동에 속하지만 야음동이 대현동과 수

2)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25쪽

암동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현재 대현동의 [대암마을] 주민들이 이 산을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안산이라 일컬었다.

현재 이곳의 옛 지형이 남아 있다.

⑦ 샘(우물)

[갓너머새미]

[울산세관]의 남쪽 입구에 있었던 우물이다.

현재 이 우물은 사라졌다.

[대암새미(大岩--)]

[대현동주민자치센터]에서 [야음사거리] 쪽 50m 지점의 도로 왼쪽에 있었던 우물이다. 마을 주민들의 공용 우물로 사용했으며 깊이가 약 2m 50㎝로 수질이 양호했다.

현재 이 우물은 사라졌다.

⑧ 터

[극락절터(極樂寺-)]

대현동 864-21번지에 있었던 절터로 [한국석유공업(주)야음사택]과 북쪽으로 잇대어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 기와 조각들이 지표에서 수습될 뿐 별다른 절터의 흔적은 없고 다만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성암동 지명 지도〉


부곡동
고사동
선암동
청량면
외황강
온산읍
황성동
용연동
성암삼거리
성암저수지
등잔골
황새골
진등대비알
부채골
개운포성지
동박
점뿐앞에
해답
영시끝
성암동패총
석대
산디멘당
염밭둑
가시끝
갈밭
삼밭골
망향탑
성암동세다골유적
갓골
골뫼등대
성암동한지골유적
작은세다골
큰세다골
구영골
비석골
사구정
뒷각
맨안골
큰동지골
우작은동지골
예수비알


울산광역시 남구

2. 성암동(城岩洞)

1) 성암동(城岩洞)의 연혁

성암동(城岩洞)은 조선 숙종 46년(1720) 때 성내리(城內里)와 외성황당리(外城隍堂里)로, 영조 때는 성내리(城內里)와 성황당리(城隍堂里)로 나누어져 있었다. 정조(1777-1800) 때와 순조 1년(1801) 때까지 성내리(城內里)와 외황리(外隍里)라고 했다. 고종 31년(1894)에는 성내동(城內洞)이라 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암리(城岩里)로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대현면(大峴面)에 편입되었다.[3] 그 후 1962년 울산시(蔚山市) 승격 때 시(市)에 편입되어 동(洞)이 되었다.

성암동에는 조선 초기에 개운포수군만호진(開雲浦水軍萬戶鎭)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며, 세조 5년(1459) 정월에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을 동래(東來)에서 옮겨와 중종 39년(1544) 때까지 80여 년 동안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경상좌수영의 존치 기간에 약간의 이론(異論)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여러 문헌과 사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조 5년~중종 39년으로 비정(比定)한다. 이처럼 이곳에 개운포영성(開雲浦營城)이 있었기 때문에 성내(城內) 또는 성암(城岩)이라고 한다. 그 후 효종 7년(1656) 때 여천동(呂川洞)의 도산(途山)에 있었던 선소(船所)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고종 32년(1895) 수군만호진의 혁파 때까지 존속하였다. 오늘날 성암동을 '선수'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선소(船所)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울산 공단의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 대 중반 마을 전체가 철거하고 주민들은 중구 다운동 등지로 이주했다. 지금은 행정동인 선암동에 편입되어 있다.



성암동 전경

3)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7-148쪽

현재 성암동의 면적은 3.56km²이다.

〈동 명칭 변천 일람표〉

시대	연도	동 명칭 변천사
조선시대	1720년(숙종 46)	성내리(城內里), 외성황당리(外城隍堂里)
	1765년(영조 41)	성내리(城內里), 성황당리(城隍堂里)
	1777년–1800년(정조)	성내리(城內里), 외황리(外隍里)
	1801년(순조 1)	성내리(城內里), 외황리(外隍里)
	1894년(고종 31)	성내동(城內洞)
일제시대	1911년	현남면(峴南面) 성암리(城岩里)
	1914년 4월 1일	울산군(蔚山郡) 대현면(大峴面) 성암리(城岩里)
현대	1962년 6월 1일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시(蔚山市) 성암동(城岩洞)(시(市) 승격)
	1980년대 중반	마을 철거
	현재	행정동인 선암동(仙岩洞)에 편입

(자료 : 구정백서. 2008. 남구청)

2) 지명

(1) 마을

[나무나각단(南門——)]

[본동네]의 남쪽에 있었던 마을로 [본동네]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개운포성(開雲浦城)]의 남문 앞에 있었던 마을이라고 하여 '남문(南門)'에 마을의 울산 방언인 '각단'이 합쳐진 지명이다. 이 마을의 남쪽에 잇대어 있었던 [산디먼당]의 북쪽 자락에 많은 시너리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의 이주와 [개운교(開雲橋)]의 가설로 옛 지형이 사라졌다.

[본동네(本洞–)]

[시다골]을 제외한 [개운포성]의 인근에 형성되어 있었던 [큰동네]를 [본동네]라고도 했다.

[선수(船所)]

[개운포성지]가 있는 [큰동네]와 [큰동네] 동쪽에 있었던 [시다골]을 통칭하여 부르는 마

을의 명칭으로 성암동을 주민들은 [선수]라고 불렀다. 조선 효종 때 [도산(途山)]에 있던 [선소(船所)]를 옮겨왔는데, [선소(船所)]가 와전되어 지금의 [선수]가 되었다.

이 마을은 [우직골]과 [한지골]이라는 큰 골짜기가 각각 좌우에 여러 골짜기를 거느리고 동쪽에 [구영골], [비석골], [사기점] 등의 넓은 골짜기가 많이 형성되어 벼농사와 [부채골]과 [북문안개] 등의 밭농사로 생계를 이어 왔다. 이 마을이 [개운포]에 인접해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개운포성]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 많은데, 현존하는 순수한 지명 중 대략 20%가 된다. 예를 들면 [부문안(北門)], [동밖(東門)], [나무나각단(南門)], 수구넘(西門), [영시끝(營始-)], [망시등(望視嶝)], [객사먼디(客舍--)] 등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세다골(細茶谷)·세다골(細竹谷)·시다골]

[큰시다골]과 [작은시다골]을 통틀어 일컫는 지명이다. [시다골]은 [큰동네]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인데, 마을을 지나가는 [처용로]의 동쪽인 [뒤갓]의 산자락에 많이 살았고 도로 아래 서쪽에도 몇 가구가 살았다. 이 마을에는 경주이씨와 경주최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각성바지도 섞여 살았다.

옛날 이 마을 이근우 씨 집에 서당이 있어서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이 한학을 배웠다고 한다. 이곳 양반의 권세가 심하여 [해칠방(海七坊)]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함부로 떠들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지나다녔다고 한다.

[웃각단]

[본동네]의 북쪽, 즉 [개운포성지] 안쪽의 서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본동네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개운포성지 남쪽 성벽의 위쪽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에 [웃각단새미]가 훼손된 채 남아 있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폐허가 되어 있다.

[큰동네(-洞-)]

[시다골]이 규모가 작은 마을이고 상대적으로 [본동네]가 컸기 때문에 [큰동네]라고 일컬었다.

(2) 지형

① 강(江) · 천(川) · 구(溝)

[외황강(外隍江)]

[외황강]은 울주군 청량면 [율현]에서 발원한 [율천]이 주류인 [청량천]에 합류하고, [문죽천]과 [삼정천]이 이에 합류한다. 또한 두왕동 쪽에서 흐르는 [운천]과 청량면 [용암리]에서 발원한 [용암천]이 [외황강] 본류에 합류한다. 총 길이 약 23㎞인 [외황강]에 옛날에는 9군데의 나루가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죽나루터]와 온산읍 [처용리]를 왕래하는 나룻배가 있었다.

이 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중구 반구동의 [내황(內隍)]의 대칭으로 성암동의 외황(外隍)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외황'이 성벽 밖에 판 참호라는 뜻이 있고, 지금도 [개운포성지]의 서북쪽에 해자(垓字)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유래를 찾기도 한다.

이 강의 가운데에 [상치미]에서 성암동의 북쪽 끝까지 이른바 [한골]이라 부르는 깊은 뱃길이 나 있어 배가 통행할 때 편리했다. 온산읍 [처용리]의 [도가골]에서 보면 이 [한골]이 육안으로 보인다.

성암동 {시설물〉교통시설〉뱃길〉한골} 참조

② 갯펄

[갈문개·깔문개]

[사평]의 북쪽에 개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웃한 성암동에 걸쳐 있었다.

이곳에는 갈대가 많았으며 바다 게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논들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먼 성암동 주민들도 이곳에서 경작을 했다.

현재 이곳은 동부한농화학과 금호석유화학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③ 거목(巨木)

[제당나무(祭堂—)]

성암동 306-3번지에 있었던 소나무이다. 이 나무는 성암동의 제당인 [오황사(五黃社)]의 당산나무로 신성시했다. 1987년 기준으로 수령은 약 230년, 수고(樹高)는 10m이고, 둘레는

4) 울산시사, 울산시, 1987, 832쪽

2m였다.[4] 이 나무는 주민들이 이주하기 직전에 말라 죽어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옆에 심어 대체했다.

④ 고개

[진실고개]

[사평]의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석유화학단지] 정문 앞에서 용연동 쪽으로 가다가 만난다. 이 고개마루에서 성암동과 경계를 이룬다. '진'은 '길다'의 울산 방언이고 '실'은 '골짜기(谷)'의 뜻이므로 '긴 고개'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⑤ 골짜기(谷)

[가망등(可望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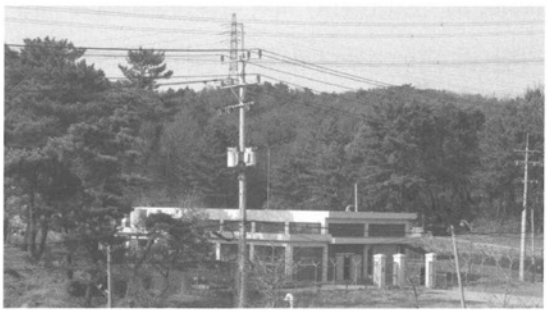
[구룡골]의 남쪽에 있는 등성이로 조사되어 있다.[5] 이 지명은 현재의 [망시등(望視嶝)]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물곡(加勿谷)]

성내완문(城內完文)[6]에 사부(射夫) 이기영(李基永)과 노군(櫓軍) 이정원(李正元)에게 개운원(開雲員) 재자답(再字畓) 3두락(斗落), 상자전(顙字田) 4두락, [가물곡(加勿谷)] 송전(松田) 한 등(嶝)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기록에 [우지곡]과 [다리곡], [해답]은 현재 남아 있는 지명과 같은데, 이 [가물곡]은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갓골]

성암동 137-1번지 일대에 있는 아주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우지골]의 가(邊)에 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우지골]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서쪽에 처음으로 거느리는 골짜기이다. 이주 후에도 김영육 씨의



갓골

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9 • 경상남도 편 II), 337쪽

6) 성내동 수군들의 토지 소유 증명서. 울산문화연구 창간호, 286쪽 참조

배 과수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배막도 있었다.

현재 이곳은 남쪽에 잇대어 있는 [골묏등대]와 함께 벌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곳 옛 지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와장논골]

[돋치골]의 위쪽에서 북쪽을 향해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의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이 골짜기에 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아래쪽이 환경지원사업소 부지에 닿아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구영골]

성암동 189번지부터 211번지까지 뻗어 있었던 큰 골짜기를 말한다. [구영골]은 [시다골]의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비석골]이, 남쪽을 향해 [사게점]이 뻗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었던 골짜기가 [구영골]이다. 구영은 구멍의 경상도 사투리로 골짜기가 마치 큰 구멍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서영 회사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다릿골(多里谷)]

성암동 123번지부터 133번지까지에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은 [한지골]을 아래쪽을 기준으로 북쪽을 향해 있는 [옹당새미골]의 다음 골짜기이다.

성내완문(城內完文)에 포수(砲手) 김복삼(金卜三)에게 [다리곡(多里谷)]에 있는 솔밭 한 등(嶝)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록에 주사포수(舟師砲手) 박대인(朴大仁), 박순이(朴淳伊), 노군(櫓軍) 박흥이(朴興伊)에게 개운원(開雲員)) 배자답(拜字畓) 3두락(斗落), 재자답(再字畓) 4두락과 함께 [다리곡]의 솔밭(松田) 한 등(嶝)을 주었다고 한다. 두 기록의 [다리곡]은 현재의 [다릿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둑골

현재 이곳은 아래쪽이 환경지원사업소 부지에 닿아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도둑골]

성암동 37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실 중간 지점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이곳은 예전에 [진실고개]를 오가던 행인들을 상대로 도둑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논이 묵혀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돋치골]


돋치골

성암동 111번지에서 117번지까지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이다.

위쪽의 [돋치골]과 아래쪽의 [한지골]이 길고 넓은 면적의 한 골짜기를 이루는데, 한 골짜기의 지명이 위쪽과 아래쪽을 다른 지명이 형성된 특이한 형태이다. 여기서 '돋'은 해가 돋아남을 뜻하는 말이고, '치'는 '디'의 변한 말이다. '只·知'로 차자되는 국어 '디'는 '지·치'와 통음되므로 '디'가 변한 것이 '치'가 되었다.[7]

이 골짜기의 위쪽이 부곡동의 [깔문개]와 닿아 있는데, 이곳에도 극소수의 성암동 주민들이 논농사를 지었다.

현재 이곳은 환경지원사업소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등잔골]

[등잔골]의 위치를 [황새골]의 위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었던 작은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곳은 현재 금호케미칼 회사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한편 [황새골]의 초입에서 [진등대비알]의 서쪽에 잇대어 남쪽으로 뻗어 있었던 작은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현재 생활폐기물매립장인 환경지원사업소에 닿아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이 골짜기는 대다수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극소수의 주민들만 알고 있다.

[맨안골·맨낭골)]

성암동 23-1번지에서 25-3번지까지 뻗어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곳은 [선수못]의 북쪽에 형성되어 있었던 골짜기로 이 못이 형성되기 전에는 아래의 [우직골]과 함께 한 골짜기를 이

7)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38쪽

루었다. 맨 안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성진지오텍 회사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부문안게(北門–)]

[개운포성]의 북문 안쪽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위쪽에는 밭농사를 지었고 아래쪽에는 극히 적은 논농사도 지었다. 개운포성의 북문 안에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부분안게

[부채골]

성암동 416-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곳은 [개운포성]의 한가운데에 해당된다. 지형의 생김새가 골짜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좌우 대칭으로 펼쳐져 부채 모양 같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그러나 부처를 모시던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부처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밭 곳곳에 기와와 토기 조각이 매우 많아 [부처골]일 가능성도 많다. 이곳의 초입 동쪽 밭둑에 시너리대가 숲을 이루어 자생하는데, 묵혀 둔 밭까지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논농사는 전혀 없고 밭농사만 지었다.



부채골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비석골]

성암동 224번지에서 191-2번지까지 뻗어 있었던 골짜기이다.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굣길은 주로 찻길을 다녔는데, 간혹 바닷가 길과 산길도 다녔다. [황암마을]의 뒷산을 출발하여 [비석골]로 넘어오는 산길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서영 회사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사게점]

성암동 221-2번지부터 253번지까지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사게점새미가 있어서 주민들의 동제의 정화수로 이용해 왔다.

현재 이곳은 서영 회사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삼박골]

[사게점]의 중간 지점에서 [시다골]이 있었던 서쪽으로 뻗어 있었던 작은 골짜기이다.

현재 이곳은 서영 회사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세다골(細茶谷)·세다골(細竹谷)·시다골]

[큰시다골]과 [작은시다골]을 통칭하는 지명이다. [세다골]은 가는 대나무, 즉 시너리대가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세대(細竹)'가 '세다' 또는 '시다'로 변화되었다. 이는 이웃한 [세죽(細竹)마을]의 지명의 유래도 이와 같다.

[큰동네] 동쪽에 있었던 마을인데, 남쪽을 [큰시다골], 북쪽을 [작은시다골]이라 한다. [큰시다골]은 위쪽에 논과 아래쪽에 미나리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농사를 짓거나 인근 회사에 다니면서 살던 곳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일부 남아 있다.



세다골

[올빼미골·올빼미골짝]

[중섬]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올빼미가 서식하여 울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라고 한다. '올'은 오지다의 뜻이고 '배미'는 지명의 후부 요소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옹당새미골]

140번지와 141번지에 있었던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쪽이 환경지원사업소에 닿아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우지골(牛地谷)]

성암동 158-3번지에서 172-1번지까지 뻗은 골짜기이다. 「완문(完文)」에 수군(水軍) 신수득(辛守得)에게 [우지곡(牛地谷)] 솔밭(松田) 두 등(嶝)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지곡]이 지금의 [우직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우지골]을 [우지골(上只谷)]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8]

[우지골]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갓골], [해심골], 오른쪽에 [작은보지골], [큰보지골], [작은동지골]을 거느린 간선(幹線) 골짜기이다. [성암저수지] 아래 골짜기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여 벼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하였다. 이주 당시까지 논농사만 지었다.

현재 이곳은 신한종합비료, 퍼스트엠씨에이, 한익스프레스, 대성산업가스 등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작은동지골]

성암동 179번지에서 180-1번지까지의 골짜기를 가리킨다. 우직골 아래쪽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동쪽으로 뻗어 있었던 골짜기이다. [큰시다골]과 [작은시다골]을 통칭하여 [시다골]이라고 일컬었지만, 이 [작은동지골]과 [큰동지골]을 통칭하여 [동지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기서 '동지'란 몸의 부피란 뜻의 '덩지'가 와전된 듯하다. 이주 당시까지 논농사만 지었다.

[작은세다골(一細茶谷)]

세다골의 북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이곳은 서영 회사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진새이골]

성암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사되어 있다.[9] 진(長)과 새이(間)가 합쳐진 지명으로, 이

8)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9쪽

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9 • 경상남도 편 II), 337쪽

는 [개운포성] 서북쪽 체성과 해자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長谷)]

성암동 26-1번지부터 산97-2번지까지 골짜기이다. [처용로]의 서쪽을 따라 [성암삼거리]부터 부곡동 경계, 즉 [진실고개]의 꼭대기까지 있는 골짜기로 이주 당시에는 논농사만 지었다. 진은 질다(長)의 방언이며 실은 [골(谷)]의 다른 말이다.


진실

현재 이곳에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매립 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13mm 이하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다.

[큰동지골]

성암동 1-3번지에서 12번지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골짜기로 이주 당시까지 논농사만 지었다. 현재 이곳은 성진지오텍 회사 등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큰댓골]

성암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사되어 있다.[10] 이 지명은 현재의 [한지골(大地谷)]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큰세다골(一細茶谷)]

세다골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쪽에 [큰시다골새미]가 있었고 아래쪽에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였다. 이 골짜기 남쪽의 산중턱에 오○○ 씨 한 가구가 살았는데, 산에 산다고 하여 성(姓)을 바꿔 '산○○'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큰세다골

1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9 • 경상남도 편 II), 337쪽

현재 이곳은 주민들이 이주한 후 폐허 상태로 옛 지형의 일부가 남아 있고 시너리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한지골]


한지골

성암동 110부터 155까지의 골짜기를 가리킨다.

'한'은 크다는 뜻의 고어(古語)이고 '지'는 땅의 의미를 지녀 큰 골짜기란 뜻이다. 실제로 성암동의 많은 골짜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던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해친골], [황새골]과 오른쪽에 [웅당새미골], [다릿골]을 거느린 간선(幹線) 골짜기이다. 이 [한지골]은 위쪽의 [돋치골]과 함께 같은 지형의 한 골짜기인데도 위쪽 지역은 [돋치골]이라는 골짜기 지명이 따로 존재했던 특이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는 무거동에 있는 아래쪽의 [전골]과 위쪽의 [대밭골]이 한 골짜기인데, 위쪽에 [대밭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현재 이곳은 울산광역시 [환경미화관리소]의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해심골]


해심골

성암동 134번지 일대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고운 찰흙이 나서 초등학교들의 공작 시간에 공작품 만드는 재료로 이용하였다.

현재 이곳은 고물 수집업체인 성우상사에 편입되어 골짜기 자체의 면적은 지형이 사라졌지만 양쪽 산의 지형은 남아 있다.

[해친골]

[한지골]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던 첫 번째의 작은 골짜기로 밭농사만 지었다.

현재 이곳은 환경미화관리소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황새골]

성암동 107번지부터 142-1번지까지 있는 골짜기로 당시 논농사를 지었다.

현재 아래쪽은 환경미화관리소에 닿아 있고 위쪽은 공장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대다수 지형은 남아 있다.

[후릿골]

성암동 299-4번지 남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논이 4,5필지가 있었고 삿갓처럼 생긴 큰 바위가 바닷가에 홀로 있었다.

⑥ 곶(串)

[가시끝]

461-2번지 일대에 있었던 곶이다. 여러 기록에는 [간선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지의 주민들은 [가시끝]이라고 부른다. [개운포성] 앞에 우뚝 솟은 등성이를 통칭하여 [산디먼당]이라 하는데, [산디먼당] 남쪽에 [개운포]를 향해 뻗은 곶을 일컫는다.



가시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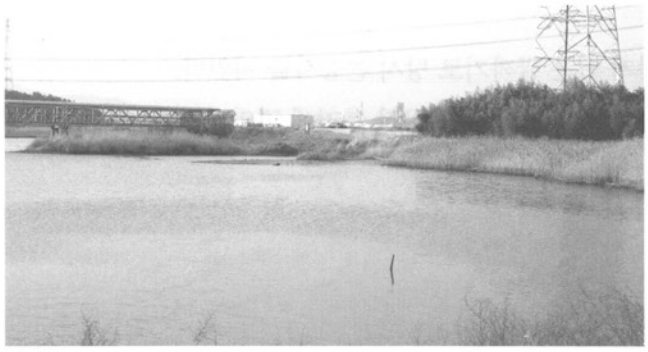
[가시끝]은 [개운포]가 훤히 보여 군사적으로 특별하게 감시(監視)를 해야 할 곳이란 뜻에서 감시가 'ㅁ'이 탈락하여 가시로 와전되었다고 한다. 한편 [개운포] 연안 중에서 바다를 향해 지나치게 뾰족하게 뻗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시처럼 뾰족하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으로 사료된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이주하기 직전까지 김기석 씨와 홍성순 씨가 살았다. 이곳은 [개운포]가 한눈에 보여 군인들의 초소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개운교]의 교각이 들어서 옛 지형이 사라졌다.

[영시끝(營西)]

[개운포성지]의 서쪽인 [외황강]을 향해 뻗은 451-5번지 일대를 가리킨다.


영시끝

여러 기록에는 [영서끝]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현지의 주민들은 [영시끝]이라고 부른다. [영시끝]의 뜻으로 영서말(營西末)[11], 즉 [개운포영성]의 서쪽 끝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된다. [영시끝]도 [가시끝]과 마찬가지로 [개운포]가 한눈에 보여 군인들의 초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곳의 남쪽에 [외황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모여 형성된 길고 낮은 섬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썰물 때는 섬이 들어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겼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갯지렁이를 잡아 생계에 보태기도 했다. 이곳의 바로 동쪽에 [성암동패총]이 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치끝]

성암동과 황성동의 경계 지점인 787-3번지 일대로 [개운포] 건너 온산읍 [처용리] 쪽을 향해 뻗은 곶이다. '치'는 '치미'의 준말로 지형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을 말한다. 이 끝(곶)에 올라가면 남으로 [목도]와 그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바로 아래쪽은 유서 깊은 [처용암]이 떠 있고 건너편에는 [처용마을]의 [자갈채]가 바로 보이는 곳이다.

현재 이곳은 창성테크의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⑦ 논(畓)

[질너메도가리]

성암동 156-2번지에 있었던 545㎡(165평)의 논을 말하는데, 길 너머의 한 뙈기라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 옛 신작로가 생길 때 논이 분할되었으나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나중에는 밭으로 이용했다. 이주 직전에 주민 김진곤의 증조부 김치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현재 이곳은 울산광역시 [환경미화관리소]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11)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9쪽

[해답(海畓)]

[선수마을] 진입로와 [개운포] 바닷가 사이의 315-7번지 일대에 있었던 논들을 가리킨다.

「완문(完文)」에 노군(櫓軍) 장야무(張也舞)에게 가물원(加勿員) [송자해답(悚字海畓)] 3두락을 주었다고 한다. 같은 기록에 주사사부(舟師射夫) 이필춘(李必春), 노군 이백천(李百千), 이경춘(李景春)에게 개운원(開雲員) [배자답(拜字畓)] 2두락, [상자전(顙字田)] 8두락, [증자답(烝字畓)] 3두락과 함께 [계자해답(稽字海畓]) 2두락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두 기록의 [해답(海畓)]은 이주 직전에 마을 앞에 있었던 해답을 가리킨다고 추정한다.

[큰동네]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염밭둑] 사이에 있었던 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바다에 인접한 논이라는 뜻이므로 한자로 [해답(海畓)]이다. [염밭둑]에 접한 논들은 바닷물이 유입되어 간혹 농사를 망칠 때도 있었다.

현재 이곳은 [개운교]를 가설할 때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⑧ 둑

[못둑]

[선수못]을 막은 둑을 일컫는다.

[못둑]이 넓어 인근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벼를 말리거나 이른바 '발가리'를 치기도 했던 곳이다. 또 소를 먹이러 온 청소년들이 [선수못]에서 수영하기 위해 이곳에 옷을 벗어 두던 곳이기도 했다.

현재 이곳은 철조망으로 막아져 있지만 옛 지형이 남아 있다.

⑨ 들

[깨불락]



깨불락



깨불락

성암동 377-1번지 일대에 있었던 들이다. 이곳은 [한지골] 아래에서 [큰동네]의 진입로에 걸쳐 있었던 [새다리] 일대까지를 말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던 개울의 양쪽에 있었던 논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깨불락]은 개울의 양쪽 일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울 앞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주 직전까지 김상중 씨와 이정한 씨의 집이 있었는데, 뒤쪽에 산중턱과 산자락에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 서쪽에 [개불락새미]가 있었다.

이 개울은 [진실], [맨안골], [큰동지골], [작은동지골], [보지골], [해심골], [갓골]의 물이 모인 [우직골]의 물과 [황새골], [도치골], [기와장논골], [다리골], [웅당새미골]의 물이 모인 [한지골]의 물이 한데 모여 흘렀다. 이 개울에는 붕어, 미꾸라지, 가물치, 뱀장어들이 서식했다. [염밭둑]의 동쪽에는 개구쟁이들의 물놀이하는 단골 장소였다. 이곳은 현재 환경미화관리소 부지와 [개운교]의 가설로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지금은 [개운포성지]의 남쪽에 지형이 훼손된 채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⑩ 등성이

[객사먼디(客舍--)]

[개운포성]의 [동문지(東門址)] 안쪽 일대를 이르는 지명이다.

[수군절도사영]의 객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지로 이곳의 평탄지대에서 할석(割石)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행정적인 업무가 이루어진 중요한 장소임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일대에서 수습된 객사의 지붕을 이은 것으로 추정되는 숫막새 한 점이 [남구문화원] 향토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골묏등대(-墓嶝-)]


골묏등대

성암동 산12번지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한자로 [화결산(花結山)]으로, 언문으로 [ᄉᆞᆺᄆᆡ등]으로 기록되어 있다.(72쪽) '골짜기(谷)의 묏등(墓嶝)'으로 보아 골짜기에 있

었던 묏등의 뜻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에 북쪽에 잇대어 있는 [갓골]과 함께 벌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곳 옛 지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밖(東外)]

[개운포성]의 [동문지(東門址)] 동남쪽 일대를 일컫는다. [개운포성]의 '동문밖(東門外)'이 줄어 [동밖]이 된 지명이다. 이곳에 산소가 있었는데 주위가 넓고 지대가 높아 [개운포]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개구쟁이들이 놀던 단골 장소였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동밖

[망시등(望視嶝)]

[세다골]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던 길고 높은 등성이이다.

동쪽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라 옛날 [개운포성]의 수군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이곳은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청년들이 달집을 태우는 단골 장소였다.

현재 이곳은 공장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산디먼당(山嶝—)]


산디먼당

[큰동네]와 [개운포성] 남쪽에 홀로 우뚝 솟아 있었던 등성이이다.

'산디'는 '산등(山嶝)'이고 '먼당'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동쪽에 [뒤섶]이라는 지명과 서쪽에 [석대]라는 지명과 남쪽에 [가시끝]이라는 지명과 동북쪽에 [나무나각단]이라는 지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여가 마을의 한

가운데에 난 길로 가지 않고 꼭 [산디먼당]을 넘어 나갔다. 조선 세조 때 홍익성(洪益誠)이 세우고 뒤에 이소(李昭)가 중건한 [체오정(掣鰲亭)]의 위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까지 이 [산디먼당]과 [나무나각단] 일대에 대해 [개운교] 가설을 위해 시굴조사[12]를 했지만, 주민들의 경작과 자연환경의 훼손 때문인지 [체오정]의 추정하는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사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성암동 Ⅱ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채집된 유물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거나, 민가의 철거와 경작 과정에서 유구가 전부 유실되어 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13]

현재 이곳은 [개운교]의 가설로 성암동 쪽 교각이 세워져 옛 지형이 사라졌다.

[수구넘(水口ㅡ, 西口ㅡ)]

[개운포성]의 [서문지]로 추정하는 남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부문안개] 골짜기의 물이 모두 [수구넘]에서 합류하여 [외황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물구멍(水口)의 뜻이다. 그러나 [개운포성]의 [서문(西門)]을 뜻하는 서구(西口)가 수구(水口)로 와전된 것으로 보아 [서문]의 별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수구넘

⑪ 밭(田)

[갈밭]

성암동 320-5번지 일대에 많은 면적을 차지했던 갈대밭이었다. 이주 당시에 [큰동네]에 거주했던 이종욱 씨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갈대밭 안에는 이종욱 씨 소유의 채소밭이 있었다. '밀게'라는 작은 게가 갈밭과 개펄에 구멍을 뚫고 살았는데, 밤에 횃불을 들고 나오면 구멍으

12) 울산 미포-온산간 연결도로 개설부지 내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신라대학교박물관, 2000년 6월 24일, 2쪽
13) 울산 미포-온산간 연결도로 개설부지 내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신라대학교박물관, 2000년 6월 24일, 2쪽

로 숨지 않아 쓸어 담아 볶아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다. 이를 주민들은 '홰바리'라 불렀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⑫ 버덩

[짱버등]

[개운포성]의 [북문지]에서 서북쪽 산에 있는 버덩이다. '짱'은 '장(長)'의 된소리이며 긴 버덩이란 뜻이다. 삼월삼짇날 마을의 주민들이 화전놀이를 했던 장소였다. [용연초등학교] 소풍은 주로 남화동의 [봉대산(燧臺山)]에 갔지만 간혹 이곳에 갈 때도 있었다.

⑬ 불탕

[뒤섶]

[산디먼당] 동쪽 기슭 일대를 일컫는다.

[산디먼당]의 서쪽에서 보면 이곳은 뒤쪽에 해당된다. 더구나 [가시끝]과 [나무나각단]을 오갈 수는 있지만 한적한 길이기에 '뒤'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섶'은 '길섶'처럼 가장자리란 뜻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깡통에 쌀과 바닷물을 넣어 끓인 이른바 '꼰밥'을 자주 해 먹던 단골 장소였다.

현재 이곳은 [개운교]의 교각 부지에 들어가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⑭ 비탈

[예수비알]

성암과 세죽 사이에 있는 비탈이다. 여우가 종종 출몰한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다. '비얄'은 '비탈'의 울산 방언이다. 이곳은 [용연오일장]과 [용연초등학교]에 오갈 때 자주 이용하던 길이다. 또한 성암동의 아낙네들이 [해칠방]에 미역을 부치러 다니던 길이었다.



예수비알

현재 이곳은 한창 산을 깎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옛 지형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등대비알(–嶝––)]

성암동{길>진등대비얄길} 참조

⑮ 산(山) · 봉(峰)

[뒷갓]

대체로 [사게점]과 [세다골] 사이의 산을 통틀어 일컫는다. [세다골]의 뒷산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북봉산(北峰山)]

[개운포성] 안에 있는 산을 말한다. 마을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개운포성 안에 옛 지형이 남아 있다

⑯ 샘(우물)

[객사새미(客舍–)]

[객사먼디]의 아래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우물이다. [수군절도사영]이 있을 당시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빨리 대접하기 위해 팠다고 전한다.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익사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묻어 버렸다고 한다.[14]

[깨불락새미]

성암동 376번지 일대에 있었던 우물이다. 식수로 적합했으나 수량이 많지 않았다. 주로 [나무나각단]의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매립하여 없다.

[사게점새미]

[사게점골짜기]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샘이다.

동제를 지낼 때 정화수로 이용하던 우물로 미리 왼새끼로 샘의 둘레를 쳐서 잡귀를 막았다. 성암동의 많은 우물 중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어서 신령스런 물로 여긴 것이다.

14) 개운회, 내 마음의 선수, 경상일보사, 2000, 167쪽

현재 이곳은 공장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으나 도로 옆에 같은 수원의 약수터가 있다.

[새새미]

성암동 426-5번지에 있었던 우물인데, 새로 팠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바닷가에 가까운데다 깊이 파서 바닷물이 배어들어 식수로 이용할 수 없고 빨래도 잘 되지 않아 허드렛물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매립하여 사라졌다.

[시다골새미]

지대가 높아서 바닷물이 배어들지 않아 물맛이 좋고 수량도 풍부했다. 가뭄이 들어 [큰동네]의 우물들이 마르면 이 우물을 이용했다.

현재 이 우물은 매립하여 사라졌다.

[웃각단새미]

성암동 432-2번지에 있는 우물로 지금은 윗부분이 훼손된 채 남아있다.



웃각단새미

[큰동지골새미]

이주 당시에 김수룡 씨 소유의 8번지 논에 있었던 샘이다. [큰동지골]의 중간쯤에 있어서 마실 다른 물이 없을 때 식수로 이용했고 개울물이 말라 농약을 칠 물이 없을 때도 이 샘을 이용했다.

현재 이곳은 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큰새미]

이주 당시의 최창영 씨 집 앞에 있는데 주로 [영시끝]의 주민들이 이용했다. 우물의 면적이 넓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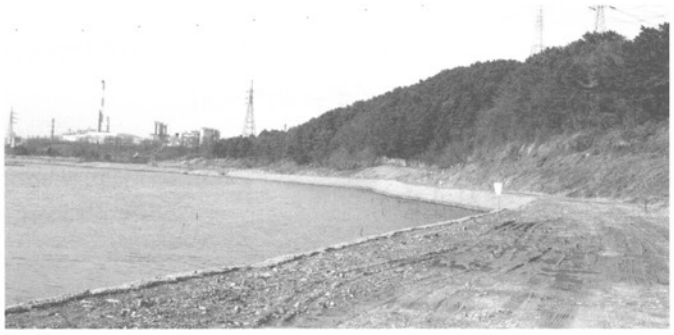
현재 이곳은 옛 모습이 남아 있다.



큰새미

⑰ 섬

[중섬(中-)]


중섬

[성암마을] 서쪽 [외황강]에 있었던 섬이라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없다. 일부 주민들은 이 섬에 있는 바위를 모두 가져와 [개운포성]을 쌓았기 때문에 섬이 사라졌다고 전한다. 이 지명의 후부 요소가 '-섬'이지만, 현재의 주민들은 [개운포성] 서쪽의 [외황강]과 이 강의 동쪽 산기슭의 논과 밭 일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⑱ 약수터

[새다골약수터]

새다골에 있는 약수터로 효성용연공단과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 약수는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사게점새미]와 수원(水源)이 같다고 한다.



새다골약수터

⑲ 염전(鹽田)

[염밭둑(鹽田-)]


염밭둑

성암동 302-1번지 일대에 옛날 [염전]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다. 이 지명의 후부 요소가 '-둑'이지만 주민들은 지대가 높아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아 지질이 단단하고 넓은 개펄을 가리킨다. 마을의 청년들이 축구와 족구를 자주했던 곳이다. 동쪽 개울의 하류에는 깊지 않아 어린이들의 물놀이 단골 장소였고 민물장어를 잡던 곳이다.

현재 이곳은 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⑳ 옛길

[비석골산길(——山—)]

[비석골]에서 [당미기]와[황암마을] 뒷산을 거쳐 현재의 [제하로]와 연결되는 산길이었다. 이 길은 옛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하굣길에 가끔씩 놀기 삼아 다녔다. '밀사리'와 '콩사리'를 해 먹거나 '무서리'와 '고구마서리'를 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현재 이곳은 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옛신작로(—新作路)]

[깨불락] 일대에 남아 있었던 비포장 상태의 신작로 구간이다. 이 신작로는 현재 중구 성남동과 남구 용잠동을 오가는 길이다. 이 길 중간 지점에 [한지골]로 올라가는 길과 만난다.

70년대 말에 퇴비증산운동이 활발할 때 이곳에 풀을 산더미처럼 쌓아 퇴비를 만들던 곳이었다. 또 볏단을 말리거나 타작을 하던 단골 장소이기도 했다. 남북 방향으로 신작로가 남아 있었는데, 북쪽은 울산광역시 [환경미화관리소]의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은 사라졌고, 남쪽에 논 가운데 남아 있던 신작로 부지는 지대가 높아 밭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논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가 결국 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그러나 [시다골]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처용로] 서쪽 아래에 옛 지형의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진등대비알길(—嶝———)]

[한지골]과 [황새골]이 만나는 지점부터 [개운포성] [북문지]까지 산에 난 가파른 비탈길을 말한다. '진'은 '길다'의 울산 방언이고, '등'은 한자 '고개 등(嶝)'이고 '비알'은 '비탈'의 울산 방언이다. 이 비탈길은 주로 [다릿골], [황새골], [돋치골]에서 나무를 해 오거나 논일을 하기 위해 오갔던 산길이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이 이주하여 이용하지 않은 채 옛 지형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은 잡목으로 막혀 있다.

㉑ 터

[세다골빨래터(細茶谷———)]

[큰시다골] 가장 아래쪽에 [처용로]와 잇대어 만든 콘크리트 빨래터였다. 수량이 많아 [시다골]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나 상수도의 보급으로 이용객들이 격감하여 사라졌다.

[신작로다리터(新作路――)]

예전에 신작로를 개설할 때 [우직골]에서 내려오던 도랑을 건너지른 다리였다. 국립지리원이 1978년에 발행한 지형도에 마을 앞에 있었던 [새다리] 이전의 다리를 [성암제이교(城岩第二橋)]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곳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성암제일교(城岩第一橋)]로 추정된다.

〈황성동 지명 지도〉
외황강 치끝
상치미
처용암
성암동
동해
마을 북쪽 큰길
쓰촉촉동
샛갓들①
서망
악정개
개곡
청
외
마
을
큰바위
성흥사 (윗절당)
용달샘
새못
당미기
삼거리
사구점
개
직
항
골
소리골
하
마
댓
들
개장터
샛갓들②
모른방골
분초
천
축
마
을
황
암
마
을
옛터비
섬
안
개
거랑제
옛터비
용연다리
방앗간
용연동
우물
용신제당
왜학교
어선통제소
강터
방앗간
우물
섬끝
옛 용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3. 황성동(黃城洞)

1) 황성동(黃城洞)의 연혁

황성동(黃城洞)은 조선 숙종 46년(1720)에는 성외리(城外里)와 황암외리(黃岩外里)라 하던 마을이다. 영조 41년(1765)에 성외(城外)와 황암(黃岩)으로, 정조 때는 성외, 황암, 세죽(細竹), 장암(獐巖), 지동(池洞)으로, 순조 때도 정조 때와 같았으나, 다만 지동리(池洞里)가 없어졌다. 고종 31년(1894)에는 성외, 세죽, 개곡(開谷)으로 나누어 있었으나 1911년에는 다시 성외, 천곡(泉谷), 세죽, 계곡(溪谷), 황암으로 세분되어 있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를 합하여 황암의 황(黃) 자(字)와 성외의 성(城) 자를 따서 황성리(黃城里)라 하여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대현면(大峴面)에 편입되었다.[15]

1962년 울산시(蔚山市)에 편입되어 동(洞)이 되었으며 시(市) 승격 때 신설된 장생포출장소의 관할이었다가 1976년 4월 출장소가 폐지되면서 울산시(蔚山市)의 직할이 되었다. 1995년 5월 부곡동, 용연동과 함께 통합되어 개운동이 되었으며 1998년 10월 행정동인 선암동에 통합되었다.

현재 황성동의 면적은 2.15㎢이다.

〈동 명칭 변천 일람표〉

시대	연도	동 명칭 변천사
조선시대	1720년(숙종 46)	성외리(城外里), 황암외리(黃岩外里)
	1765년(영조 41)	성외리(城外里), 황암리(黃岩里)
	1777년–1800년(정조)	성외리(城外里), 황암리(黃岩里), 세죽리(細竹里), 장암리((獐巖里), 지동리(池洞里)
	1801년(순조 1)	성외리(城外里), 황암리(黃岩里), 세죽리(細竹里), 장암리(獐岩里)
	1894년(고종 31)	성외리(城外里), 세죽리(細竹里), 개곡리(開谷里)
일제시대	1911년	성외동(城外洞), 황암동(黃岩洞), 세죽동(細竹洞), 계곡동(溪谷洞), 천곡동(泉谷洞)

15)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3쪽

	1914년 4월 1일	경상남도(慶商南道) 울산군(蔚山郡) 대현면(大峴面) 황성리(黃城里)
현대	1962년 6월 1일	울산시(蔚山市) 황성동(黃城洞) (시(市) 승격, 장생포출장소 관할)
	1976년 4월 20일	장생포출장소 폐지
	1995년 5월 1일	부곡동(夫谷洞), 용연동(龍淵洞)과 함께 통합되어 개운동(開雲洞)으로 되다
	1998년 10월 17일	행정동인 선암동(仙岩洞)에 통합

(자료 : 구정백서. 2008. 남구청)

2) 지명

가. 성외(城外)

(1) 마을

[성외(城外)·밖성바대]

이유수의 「울산지명사」에는 선수마을(성암동)을 [성내동(城內洞)]이라 한데 대한 대칭으로 성밖에 있기 때문에 [성외동(城外洞)]이라 하였다.[16] 즉 [성외]는 현재의 [개운포성]의 바깥이란 뜻이다. 그러나 [성외]와 [개운포성]은 거리가 멀어 설득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옥련이 경상일보에 제보한 바 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191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지형도에 [성외마을] 북쪽에 성곽이 그려져 있다.[17] 또 현지 주민



성외마을 전경

16)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4쪽

17) 전옥련, 개운포에서 건진 이야기, 남구문화 8집, 울산남구문화원, 2010, 88쪽
전상헌 기자,' 조선총독부 발행 지형도에 개운포성지 옆 또 다른 성곽 1개소', 경상일보, 2000년 9월 15일

들의 제보에 의하면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둑에 성돌로 추정되는 돌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외]의 '성(城)'은 [개운포성]이 아니라 이 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1918년 개운포 일대 지형도
(축적 1/50,000 지도/大正 7년 발행)
(남구문화 8집 89쪽)

[해칠방(海七坊)]

[해칠방]은 남구의 해안 마을 일대에서 자주 쓰는 포괄적인 지명인데, 활자화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래잡이 기지가 [장생포]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고래를 잡아와 해체를 하던 곳은 놀랍게도 용잠동 동북 방향 끝자락에 있는 자연 부락 [대추끝]과 [유안부락]이라는 사실은 [해칠방] 사람들이나 장생포동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18]

(상략)어떤 이들은 [해칠방]([성외], [용연], [황암] 등지)과 온산읍([배진], [달포], [우봉] 등지)에서 미역과 참몰을 받아와 말려서 내다파는 장사를 했고, 어떤 이들은 [장생포], [유안]에서 나오는 고래고기를 사서 내다파는 장사를 했다.[19](하략)

[해칠방]은 바닷가의 일곱 마을을 뜻하는 한자어 '[해칠방(海七坊)]'으로 추정한다. 이 일곱 마을이란 [세죽], [성외], [황암], [용연], [남화], [용잠], [내해]를 가리키는데, 극소수의 주민들은 [내해]를 [용잠]에 포함하고 [성암]을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어쨌든 [외황강(外隍江)] 하류에서 [장생포항(長生浦港)] 초입까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었던 여러 마을을 포괄하는 지명인 것은 틀림없다.[20]또 다른 의미로는 천역(賤役)으로서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 하여 칠천(七賤)으로 약칭하는데, 조선 시대에 일곱 가지 천한 역할로

18) 용잠동향우회 옛터비 제막식 팜플릿
19) 개운회, 내 마음의 선수, 경상일보사, 2000, 194쪽
20) 김진곤, 「해칠방(海七坊)」, 울산매일, 2008년 3월 24일자

서 조례·나장(羅將)·일수(日守)·조군(漕軍)·수군(水軍)·봉군(烽軍)·역졸(驛卒)의 구실을 이른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으나 당시로선 천대를 받았다. 이 중 조군, 수군, 봉군, 역졸 등은 가장 고역(苦役)이라 해서 이 역에 차정되는 것을 매우 꺼렸으며, 도망한 자도 있었다. 개운포구에 속한 마을은 개운포수군만호진성을 비롯하여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과 관련된 지역으로서 이 관아와 관계한 군속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이해되며, 당시 이 군속은 좌수영이 있는 해안에 위치한 칠반(좌수영에 소속된 수군, 봉군, 역졸 등을 일컫음)이라 하여 '海七般'이라 했으나 발음을 할 때 돌아올 般은, 막을 坊으로 변경되면서 '해칠방'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해 본다.[21]

(2) 지형

① 거목(巨木)

[장솔나무]

[아랫제당]에 있었던 당산나무로 일제시대에 비행기의 목탄 연료용으로 베었다고 한다.

[장수나무(長壽—)]

[성외마을]의 [윗제당]에 있었던 당산나무로 수령이 700년이 넘었던 소나무이다.

현재 선경합섬 공장에 편입되어 이 나무가 사라졌다.

② 고개

[당미기(堂—)]

황성동 산33-1번지에 있었던 고개이다.

'미기'는 곧 '목(項)'의 뜻으로 당(堂)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나무꾼들과 행인들이 오가며 공을 들인다는 뜻에서 돌을 한두 개를 쌓아 탑을 만들면 재수가 있고 오래 산다는 고개이다. [불산디]로 가는 산길을 따라 가면 길목 오른쪽에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당집으로 오가며 던진 것이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의 도로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

21) 전옥련, 장생포에서 건진 이야기, 울산 남구문화 8집, 울산 남구문화원, 2010, 127~128쪽

③ 골짜기(谷)

[개지랑골]

긴 골짜기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이랑처럼 좁은 골짜기 어귀에 있는 마을의 의미인 '갓(邊) + 이랑 + 골'이 [개지랑골]로 변음되었다는 견해도 있다.[22]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사구점]

[삼거리]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곳은 지형이 마치 사기그릇같이 오목하게 생겼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다.

[삼거리]

[개지랑골]의 북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세 갈래로 된 길이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소리골]

[성외]와 [천곡]의 주민들이 나무하러 갈 때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다. 동네에서 노래를 하면 어른들이 꾸중을 하기 때문에 약 1,000m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 소리를 했다고 한다.

④ 곶(串)

[노른방끝·넘바끝]

[성외마을]과 [천곡마을] 사이에 남쪽 바다로 향해 뻗어 있었던 곶이다. 이 [노른방끝]은 '노란(黃) 바위 곶'이란 뜻이다. [황바우(黃岩)마을]이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황암이라고 적어오다가 정조와 순조 때는 장암(獐岩 : 노루바위)이라고 기록했는데, '노른방', 혹은 '노룬방'으로 발음하는 것을 보고 '노루'에서 따온 말인 줄 잘못 알고 '장(獐)'의 훈(訓)을 빌려 장암이라고 쓰게 된 것이다.

---

22) 김송태,『 蔚山, 지난날의 얼굴』, 처용, 1997, 42-43쪽

이곳에는 큼직한 바윗돌이 널려 있고 그 바위의 아랫자락을 바닷물이 핥아 가곤하여 일대에는 고운 빤댓돌이 무수히 깔려 있다. 뿐만 아니라 앞바다에는 물이 맑고 깊어서 농어, 게르치, 노래미, 새치 등 돌새고기가 많다. 밤에 조내기(작은 후리)를 하면 농어가 잘 잡히기 때문에 [농어개안]이라고도 했다.[23] 한편 바다가 넓어 보인다고 하여 '넓다'의 경상도 방언 '너르다'에서 어원을 찾기도 한다.

현재 이곳은 SK인더스트리 회사에서 매립하여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⑤ 등성이

[망시등(望視嶝)]

성암동 {지형〉등성이〉망시등} 참조

[불산디·망제산(望帝山)]

[당미기]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산을 가리킨다.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망제산(望帝山)]으로, 언문으로 [불등]으로 기록되어 있다.(72쪽)

이 산 정상에 올라서면 동해가 한눈에 보이며 일출까지 보이는 곳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한편 이곳은 [성외], [황암], [세다골], [새미골]의 어린 학생들이 소 먹이러 와서 소 뿔싸움을 시켰는데, 뿔싸움을 시킨 등성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 안에 있는 대암산업 공장 정문 맞은편이다.

⑥ 바위(岩)

[둥근바우·등거방]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김대진 씨 집 앞에 있는 나루터 앞에 위치하는 바위로 [서망]에서 왼쪽으로 150m쯤에 해당된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밭덤]

200평이 이상 되는 아주 넓은 바위로 형성되어 있었다. 밀물 때는 이 바위가 완전히 바닷

23) 장세동,「 현곡 이유수의 지명관에 대한 소고(-유작『 울산지명사』를 중심으로-)」, 남구문화 5집, 남구문화원, 2007, 123쪽

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까맣게 보였다. 이 바위 주위에는 성게, 전복, 멍게, 해삼과 미역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이 서식했다. 주민들은 육지의 밭이나 논처럼 생각했던 바위였다.

[삿갓돌 1]

[서망]의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이 바위가 삿갓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썰물 때는 삿갓 모양으로 많이 보이고 밀물 때는 돌의 끝만 보인다. 이 돌 주위에는 고기들이 많이 서식한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삿갓돌 2]

밭덤 근처에 있었던 바위로 [삿갓돌 1] 보다 덩치가 컸다. 이 돌은 밀물 때도 우뚝 솟아 있어서 이곳에 많은 갈매기들이 앉아 놀았다.

현재 이곳의 바위는 SK 인더스트리 회사에 매립되어 사라졌다.

[서망·섬안]

황성동 388번지 일대에 있는 바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바위섬이다.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의 이종문, 박종진, 유수영, 차근출 씨의 집 앞에서 400~500m 앞에 위치한다. 썰물 때는 바다가 갈라져서 주민들이 조개를 많이 캤다.

이곳의 면적이 대략 200평 정도인데, 현재 개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다.

[쪽닥섬]

세죽마을과 성외마을 사이에 있었던 바위들 중에 가장 큰 바위를 가리킨다.

⑦ 불탕

[노른방끝불탕]

[황암]의 남쪽에 있었던 모래벌이다.

[악찡개·악진개]

황성동 662-2번지 앞에 있는 불탕으로 세죽과 성외 사이의 해안가 일대를 일컫는다.

겨울에 매서운 북풍이 불어서 이곳을 지날 갈 때에는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리며 서둘

러 지나갔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또는 조선시대 [외황강] 하류를 감시하던 앞쪽에 진(鎭·陣營)이 있어서 '앞진에'가 [악찡개]로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겨울에는 이곳에 주민들이 이른바 '개씨개'라 부르는 것이 내려 마치 눈이 많이 내린 것처럼 온통 해변을 뒤덮었다. 또 겨울에 오징어가 한류를 따라 이곳에 내치기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죽은 것은 주워가고 산 것은 잡아가기도 했다. 여기에 큰 바위들이 군집하고 있는데, 제일 큰 바위를 [쪽닥섬]이라 불렀다. 이곳을 이 마을 출신의 오익조와 김상호 씨의 어장터로 사용했다.

현재 이곳은 대림산업 옆에 공터로 남아 있다.

⑧ 샘(우물)

[옹달샘]

[성외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웃한 [세죽마을]과 [천곡마을] 주민들도 이용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수량이 줄지 않고 가뭄에도 물이 풍부했다.

현재 이곳은 SK 인더스트리 회사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나. 세죽(細竹)

(1) 마을

[개곡(開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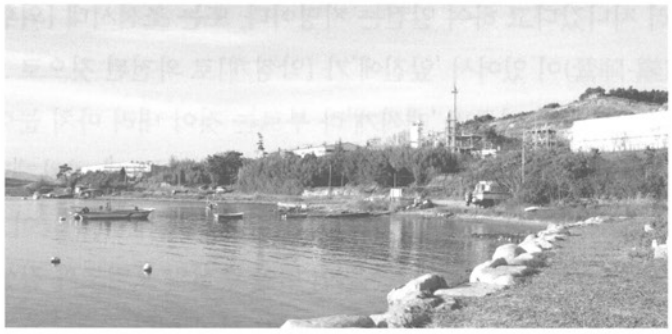
황성동 394-2번지 일대인 [성외마을]과 [세죽마을]의 중간에 있었던 마을이다. 고종 31년에 [개곡(開谷)]이라 하다가 1911년에는 [계곡(溪谷)]이라 불렀는데, 1914년에 [황성리]에 합하였다.[24] 바다로 향하여 열려 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라고도 하고, [새못]에서 시작되는 내(川)가 지금의 한국흄관 공장의 뒤를 돌아 황성동 321번지 인근까지 흘러 [외황강]에 합류했는데, 이 내(川)로 인하여 [계곡(溪谷)]이란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이곳에는 1980년대까지 한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철거하여 사라지고 현재 공장부지로 조성 중이다.

[상치미(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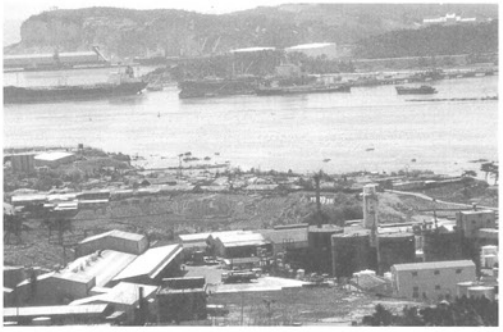
[세죽마을] 북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24)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5쪽

'상(上)'이란 위치를 말함이고, '치미'는 '치, 치미, 곶'으로도 나타나는데, 튀어나온 지형을 말한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철거된 채로 남아 있다. 인근 바닷가인 787-3번지에는 [치끝]이 있었는데, 이곳은 창성테크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상치미

[세죽(細竹)]


세죽

세죽이라는 명칭은 대나무의 한 종류인 시너리대가 산야에 많이 자라 인근 [성암마을]에 주둔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에 화살용으로 쓰였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온산읍 [방도리]와 [처용리]로 건너가는 나루터가 마을에 있었다. 특히 봄이면 일명 [동백섬]이라고도 했던 [목도(目島)]에 가려는 상춘객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13곳의 횟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조선 정조 연간이며 2000년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황성동 620번지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다량 발굴되어 울산 최초의 원류민이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에는 어업전진기지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곳에 당시 선구용품(船具用品)을 판매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상회도 여럿 있었다.

[해칠방(海七坊)]

황성동(성외) {마을>해칠방(海七坊)} 참조

(2) 지형

① 거목(巨木)

[제당나무]

제당 안에는 당산나무로 소나무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주를 앞두고 말라죽었다.

② 고개

[당미기(堂—)]

황성동 산33-1번지에 있었던 고개이다.

미기는 곧 목(項)의 뜻이므로 이곳은 당(堂)으로 가는 길목이 된다. [불산디]로 가는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길목 오른쪽에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당(堂)으로 오가며 던진 돌이 쌓인 것이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의 도로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분다고개]

지금의 한국흄관 앞 313-59번지 일대인 [세죽마을] 뒤 동쪽에 있었던 야트막한 고개이다. 이 길은 논과 밭에 가거나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또는 소 먹이러 갈 때 이용한 좁은 산길이었는데, [개지랑골], [소리골]로 연결되어 용연동 [가리제] 제방이 나온다.

현재 이곳은 한국흄관 회사와 도로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③ 골짜기(谷)

[방디골]

황성동 답 210-6번지 일대인 [새못]의 위쪽에서 [당미기고개] 아래에 걸쳐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는 '길짐승의 엉덩이'라는 뜻인 방둥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방디'는 방둥이의 사투리다. 1973년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 9권에는 [광대골시]로 조사하여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 내 효성1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새못안]

[새못]의 안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예수골·여시골]

황성동 산73-1번지와 산74-1번지 사이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여우를 경상도 방언으로 예수 혹은 여시라하는데, 이 골짜기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공장부지 정지 작업 중에 있다.

[햇대배미]

황성동 317번지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논들이 좁고 그 해에 난 대나무의 뜻인 '햇대'처럼 길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이때 '배미'는 명사 '바(所)' 의 이형태로 우리 지방에서는 상북면 지내리의 '상천배미(鄕廳夜味)'처럼 차자되어 '夜味'로 표기되거나 또는 '夜'로 나타나기도 한다.[25]

현재 이곳은 대흥정밀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④ 곶(串)

[치끝]

성암동 {지형〉곶〉치끝} 참조

⑤ 들(坪 · 野)

[새못밑]

황성동 218-1번지 일대에 있었던 들로 이곳에는 넓은 논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새못] 밑에 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EG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⑥ 등성이

[망대(望臺)·망시등(望視嶝)]

황성동 산207-4번지 일대인 등성이의 정상 일대를 말한다.

해발 93m인 이 산 남쪽에 [성외마을]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산 정상에서는 [외황강]의 하류가 한눈에 조망되며 북서쪽으로 [개운포영성]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영성이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외황강] 하류를 감시하던 망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근 논에서

25) 고정의,「 울산지역 지명의 연구」,『 인문논총』 12집,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185쪽

는 질그릇 파편이 많이 나와 모를 심던 인부들이 손을 베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를 미루어 망대에 부속된 관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은 1960년대 초까지 달집을 태우는 단골 장소였다. 산에는 고인돌 2,3 기(基)가 있다. 정상에는 해안 이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망향의동산] 부지로 지정되어 최근에 [망향탑]을 준공했다.

[불산디]

황성동(성외) {등성이〉불산디} 참조



속등

[속등(一嶝)]

황성동 산66번지 일대에 있었던 등성이이다. 산속 골짜기에 들어 앉아 있었던 등성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여기서 '디'는 '등(嶝)'의 방언이다

현재 이곳은 동희산업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⑦ 바위(岩)

[쪽닥섬]

황성동(성외) {지형〉바위〉쪽닥섬} 참조

⑧ 불탕

[세죽불탕(細竹一)]

[세죽마을]의 남쪽에 있는 모래벌을 일컫는다.

[악찡개·악진개]

황성동(성외) {지형〉불탕〉악찡개} 참조

⑨ 산(山)·봉(峰)

[안갓]

황성동 산72번지와 73-1번지 일대에 있는 산이다. 안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동쪽으로 [세죽마을]의 공동묘지가 있었고, 서쪽으로 [여시골]이 있으며 이웃한 성암동과 경계를 이룬다.

⑩ 샘(우물)

[빨래새미]

황성동 산45번지와 답 714-2번지 경계에 있었던 우물이다. [세죽마을]은 집에 우물이 있어도 염분 성분이 많아 세탁이 잘 되지 않아 아낙들은 [새못]이나 이 우물에서 빨래했다.

현재 이곳은 동희산업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큰새미]

황성동 답 728번지에 있었던 우물이다. 물맛이 좋아 이웃 마을의 식수까지 담당하였는데,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가고 빨래도 했고 길손과 행락객들의 갈증을 해소하던 곳이다. 1980년대에 SK케미칼에서 마을에 공동 수도를 설치한 후에 사용이 뜸해졌다.

현재 이 우물은 동희산업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다. 천곡(泉谷)

(1) 마을

[새미골·천곡(泉谷)·산골(山谷)]

현재의 SK인더스트리 공장의 동쪽 바닷가에 있었던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옛날 두 형제가 천하의 마르지 않은 샘이 물이 맑고 차며 또한 단맛이 있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샘 천(泉) 자(字)에 골짜기 곡(谷) 자를 합성해서 [천곡(泉谷·새미골)]으로 불러 오고 있다. 이 천곡의 샘은 몇 년 동안 가물어 대현면의 여러 해안 마을의 우물이 말라도 이 샘은 안 말랐다고 한다. 그래서 인근 [성외마을]에서도 이곳의 물을 길러 가기도 했다. 또한 이곳에 높지 않은 산에 큰 노송들이 많았다고 하여 [산골]이라고도 했다. 후에 선경합섬이 마을 뒷들에 공장 터를 잡으면서, 폐수관로가 마을로 관통하여 물맛이 변질되었고, 물의 양도 점점 줄게 되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맑고 얼음물같이 차가웠던 샘이 말랐고, 그 자리에 선경합섬에서 제공한 음용수의 집수조(集水槽)를 설치하여 공동우물로 대신했다.

현재 이곳은 SK인더스트리 섬유공장과 용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해칠방(海七坊)]

황성동(성외) {마을>해칠방(海七坊)} 참조

(2) 지형

① 거목(巨木)

[당산나무]

마을 제당에 심은 창성한 당산나무로 수령이 약 120-130년 된 2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마을이 철거될 무렵에 이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 마을에 두 형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 오며 이곳 당산나무 2그루도 그 형제가 함께 심었다고 한다.

② 골짜기(谷)

[행상골]

[새못]과 [개지랑골] 사이의 언덕길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행상은 사람이 죽으면 장지(葬地)까지 운구(運柩)하는 상여를 말한다. 마을에서는 행상의 방틀은 인적이 없는 산을 택하여 보관했다가 초상을 당하면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빌려 쓰기도 했다.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아예 방틀을 없애 버리고 초상을 당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이용했다.

현재 이곳은 일진기계공업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③ 곶(串)

[노른방끝·넘바끝·농어개안]

황성동(성외) {지형>곶>노른방끝·넘바끝·농어개안} 참조

④ 들(坪 · 野)

[과수밖들]

[천곡마을]에서 [성외마을]의 바닷가로 이어져 있었던 깊숙한 골짜기이다.

과수밖들의 정확한 유래와 어원은 알 수 없다. 과수원과 관련 있는 지명이면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곳은 예로부터 아름드리 해송이 자랐던 곳인데, 인근 [용잠초등학교] 학생들이 파란 바다와 송림이 어우러진 [노른방끝]에 봄과 가을에 소풍을 자주 갔다. 오래전에는 [임간학교]를 설립하여, 여름철에 더위를 피한 임시학교가 설치되기도 했다.

현재 이곳은 SK인더스트리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⑤ 바위(岩)

[곽암바위(藿巖—)·미역바위)

[천곡마을]의 앞바다에 있었던 바위이다. 이 앞바다에 [형제바위], [넙덕돌], [쪼침에돌], [성주덤] 등의 곽암들이 있었다. [천곡마을]은 처음에는 약 30여 명이 수산업에 종사했다. [천곡]은 울산수협 방어진 관내에 있을 때에는 [황암]과 분리되었다가 1976년도에는 1개 읍 4개 면으로 울산수협이 통합되면서 합해졌다.

현재 이곳은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꼬부랑돌]

돌의 모양이 꼬부랑 할머니, 또는 꼬부라진 소의 형상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돌은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넙덕돌]

바위가 편편하고 널따랗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인데, 썰물이면 암초가 들어났다가 밀물 때면 가까스로 바닷물에 잠기는 바위였다.

현재 이 돌은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누룩돌]

돌의 모양이 네모반듯한 누룩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돌은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바깥섬안개]

[선경방파제]를 따라 바다로 약 2백m쯤에서, [황암마을]과 [천곡마을] 쪽으로 내다보면

앞뒤로 마주한 수중바위가 두 곳이 있었다. 뭍에서 보면 먼 곳에 있었던 수중바위를 일컬었다. 가까이 보였던 바위가 [큰섬안개]였다.

현재 이 돌은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성게덤·성주덤·성주돌]

예로부터 성게가 많다고 하여 [성게덤]이라 했는데, 그 후에 제당에 성주신을 모시면서 [성주덤]이라 불렀다. [성주덤]은 [곽암]으로 인근 [황암마을]과 같이 일 년 동안 동제를 지내던 제주가 이곳의 미역을 채취하여 제수 비용으로 충당했다.

현재 이 돌은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송아지돌]

돌의 모양이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돌은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양계돌]

[넓덕돌]의 서쪽에 있었던 바위이다.

[쪼침에돌]

밀물과 썰물 때 쭉 내밀었다 들이밀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돌은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큰섬안개·큰섬안]

[선경방파제]를 따라 바다로 약 2백m쯤에서, [황암마을]과 [천곡마을] 쪽으로 내다보면 앞뒤로 마주한 수중바위가 두 곳이 있었는데, 뭍에서 보면 가까이에 있었던 수중바위를 일컬었다. 멀리 보이는 바위가 [바깥섬안개]였다.

현재 이 바위는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형제바위(兄弟—)]

[큰섬안]과 [바깥섬안개]가 앞뒤로 마주보고 있어서 마치 형제와 같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바위는 울산 신항만 방파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고 없다.

⑥ 옛길

[돌담오거리길]

[천곡마을]의 [뒷마을]에 있었던 오거리였다. [돌담오거리]는 동쪽으로 [황암]으로 통하는 이씨 집, 북쪽으로 천곡버스정류장, 남쪽으로 바닷가, 남서쪽으로 박씨 상점, 서쪽으로 인근 [성외마을]로 갈라지는 오거리였다. 이 오거리에 큰 돌이 하나 있어서 [돌담오거리]라 불렀다.

현재 이곳은 성진지오텍 제4공장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라. 황암(黃岩)

(1) 마을

[황암(黃巖)·황바우)]

[황암마을]은 인근의 주민들은 [황바우], 또는 이를 줄여서 [황바]라고 일컬은 지명이다. 바닷가를 낀 어촌이면서 동네 뒤의 넓은 농토를 보유한 [하바대들]을 가진 농촌이기도 했다.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네 신인이 마을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황암마을]은 오른쪽으로 용연동을 두고 있고, 왼쪽으로 [천곡마을]을 끼고 있다. 마을 뒷들에는 비옥한 농토에 해마다 풍년 농사를 지어 왔다. 그리고 앞바다에는 [안농], [밖농] 등 풍부한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해산물을 채취해 수백 년 동안 삶터를 지켜 왔다.

약 350년 전에 용연동 가리지의 동쪽 산에 [조구재]라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서쪽 마을을 제하(堤下)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터를 잡아 살다가 점점 [황암마을]로 옮겨왔다고 전한다. 그 후 이곳 [황암마을] 사람들이 풍부한 어족과 해산물 채취로 수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자연히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황암마을]의 입향조들은 동네 제당에 진씨·김씨·이씨·박씨·이씨의 다섯 분으로 마을의 골맥이 신으로 받들면서 수백 년을 살아 왔다.

황암의 앞바다에는 풍부한 어족과 해산물로 부촌을 형성하였다. 특히 바다에서는 미역돌(곽암)이 즐비하였다. 그 바위 가운데 [작은농], [바깥농], [샛농] 등 해저의 넓은 부분까지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를 황(黃) 자(字)를 옮겨서 [황바우]라 전해진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입향한 성씨들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아 있었던 성씨 가운데

는 함안조씨, 경주최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등이 가장 오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골맥이 오위 분들과는 차이가 많다.

현재 이곳은 울산 신항만 부두 매립지로 현대중공업 용연공장에 편입되었다.

[해칠방(海七坊)]

황성동(성외) {마을>해칠방(海七坊)} 참조

(2) 지형

① 강(江) · 천(川) · 구(溝)

[샛거랑]

[샛거랑]의 물길은 [황암마을] 뒤의 [신답골짜기]와 용연동의 [가리지]의 앞산인 [돼지산] 아래의 [하바댓들]의 빗물이 모여서, [가리지] 농수로를 따라 [황암마을] 가운데로 흘러내렸다. 이 지명은 이 거랑이 마을의 한가운데를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이(間)'라는 표준어가 사투리인 '새', '샛'으로 굳어진 것 같다.

② 거목(巨木)

[제당나무(祭堂—)]


제당나무

이 당산나무는 언제 심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제당을 짓고 난 뒤에, 인근 산에서 옮겨와 심었으리라 짐작된다. 아마도 30년 수령의 당산나무를 채취해 와 심었다면, 지금 현재의 수령은 200여 년을 그 자리에서 동민의 안녕과 기복을 위해 있었던 셈이 된다. 1999년 6월 용연 신항만 부지 조성 사업으로 이주할 때, 이 당산나무를 [울산대공원] 조성수로 약 800여만 원을 들여 보상을 하고 옮길 예정이었으나, 동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인근의 마을인 용잠, 남화, 용연, 천곡, 성외, 세죽, 성암 등 철거한 마을마다, 이미 철거 전에 당산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었는데, 오직 이 마을의 당산나무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③ 고개

[걸뚝고개]

[황암마을]에서 [세죽마을]로 넘어가는 걸뚝(다리)으로, 신작로를 따라 정정상 씨 방앗간을 지나 200여m 지점에 있었던 고개이다. 이때 '걸-'은 '거랑'이 축약된 말로 거랑의 양안(兩岸), 즉 둑을 일컫는다. 이 [걸뚝]은 [가리지] 농수로를 따라 [하바댓들]을 통과하는데, 특히 천곡의 뒷들을 향하여 농수로가 흘렀다. 이 [걸뚝]은 조금 비탈졌는데 소달구지를 끌고 가면, 뒤에서 몇 사람이 밀어야만 넘어 갈 수 있었다. 그 길을 곧장 가면 인근 마을인 [세죽마을]이 나온다. 이 농수로는 그 당시 읍내나 상급학교를 가기 위한 유일한 [천곡마을] 사람들의 길이었다.

그 후 각종 공장들이 생기면서 황성동의 산업도로가 마을 뒤로 개설되었을 때 농로 대신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

[시집고개]

[용연못] 뒤를 돌아 [너븐등]을 따라 깊숙한 골짜기에 있었다.

[양산고개(兩山—)]

[신답골]과 [돼지산] 사이를 오르면, 왼쪽으로는 [행상골]이 깊고, 오른쪽은 고래 등 같은 산이 길게 가로 놓여 있다. 그 산등성이를 넘으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 [양산고개]를 넘으면 바로 [사구점골]이 나온다. 두 개의 자그만 산이라고 하여 [양산(兩山)고개]라고 일컫는다.

[언양고개]

[황암]에서 [세죽나리]로 가는 곳에 있었던 고개이다.

④ 골짜기(谷)

[개지랑골]

SK인더스트리 공장의 기숙사가 자리 잡은 골짜기를 말한다. 이 지명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자말인 골짜기 계(溪)와 시내 거랑(渠浪)의 합성어로 '계거랑골'이 '개지랑골'로 변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의 일부가 남아 있다.

[광대골(廣大谷)·관대골(觀大谷)]

[소리골]과 [개지랑골] 사이에 있었던 골짜기였다. 즉 [소리골]을 따라 [개지랑골]을 지나면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황암]의 이씨 산이 있고, [천곡]의 김씨 논이 있었다. 광대의 이마 같은 골짜기라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옛 선경합섬 공장 기숙사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밀밭골]

[황암]의 서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밀밭이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사구점골]

[양산고개] 아래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이곳의 우물은 대현면의 우물이 다 말라도 맑은 샘물이 솟았다고 전했으며, 갈수기 때 주민들이 마을에서 약 5km 정도의 거리에서도 이 물을 길러 먹었다고 한다. 이곳의 수원(水源)은 성암동의 [시다골]의 약수터와, [천곡마을]의 약수터와 같다고 한다. 이곳의 우물이 이른바 '사구'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사구는 대야 모양으로 만든 오지그릇이다. 여기서 오지란 붉은 진흙을 밑감으로 해서 구워 만드는 그릇, 벽돌, 내와 따위의 재료를 말한다.

현재 이곳은 보조간선도로인 [황성로]에 잇대인 고합제2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소리골·소루골]

[개지랑골]의 동쪽에 있었던 길고 좁은 골짜기로, 지금의 SK인더스트리 공장의 정구장 북쪽이다. 간혹 집밖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리골]에 도깨비, 허깨비가 나타났다 하면서 오금이 저리도록 질책했는데, 행여 귀신이나 혼불과 연관을 짓기도 한다.

[소리골]은 아마 협소한 골짜기라는 뜻인 듯 하며, 옛날 천지가 개벽하여 해일이 있었을

때, 이 골짜기는 소 한 마리가 앉을 정도를 남겨두고 다 물속으로 잠겼다고 한다.[26] 그러나 [소리골]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골, 즉 '솔골'이 변화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골짜기가 길고 좁은 골짜기이므로 '좁다'의 울산 방언 '솔다'의 '솔'과 '골'이 합쳐진 것으로도 짐작된다.

현재 이곳은 SK인더스트리 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행상골]

[신답]에서 [양산고개]를 오르기 전에 왼쪽 깊숙한 곳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는 행상 방틀도 돈을 주고 빌렸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아예 방틀을 없애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초상이 나면 이웃들이 다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⑤ 들(坪 · 野)

[신답들(新畓-)]

[돼지산]과 [바지개산] 사이의 들을 말한다. 새롭게 만든 논이란 뜻으로 새로울 신(新) 자(字)와 논 답(畓) 자의 합성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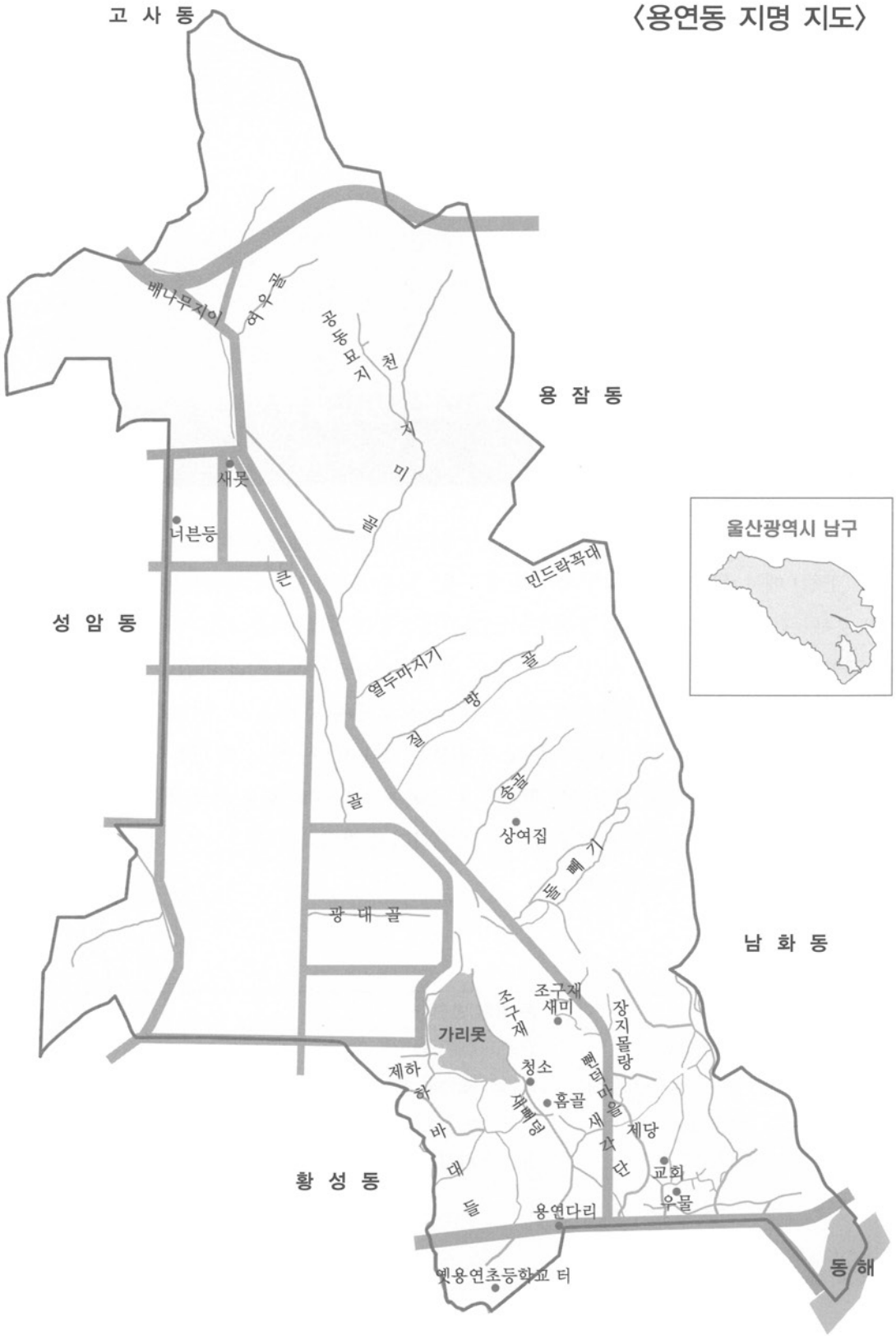
해마다 농번기에 논에 모내기를 마치고,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삼월 삼짇날이나, 오월 단오, 그리고 칠월 칠석에 마을 부녀자들과 청장년들이 이곳에서 어우러져 징, 장고, 꽹과리를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한마당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잊고서 즐겁게 놀곤 했다. 그리고 오뉴월에 모심기를 마치면, 일명 '농심 묵는다'라는 놀이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신답에 모여서 술과 가무를 즐겼는데, 특히 곱새놀이는 장씨, 포수는 이씨, 대감은 김씨가 각각 역할을 맡아 여흥을 더했다고 한다.

[제하(堤下)]

[가리지못] 아래에 있었던 들로 이곳은 용연동의 [말계(末溪)]484)와 황성동 [하바댓들] 농수

26)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46쪽

〈용연동 지명 지도〉


고 사 동
배나무지이
여우골
공동묘지
천
지
미
말
용 잠 동
새못
너븐등
큰
성 암 동
민드락꼭대
울산광역시 남구
열두마지기
골
방
질
골
송골
상여집
돌
삐
기
광 대 골
남 화 동
조구재
조구재새미
장지몰랑
가리못
제하
하
청소
뻔덕마을
바
꼭불떰
홈골
새
길
제당
대
들
황 성 동
교회
우물
용연다리
옛용연초등학교 터
동 해

4. 용연동(龍淵洞)

1) 용연동(龍淵洞)의 연혁



용연동 전경

용연동(龍淵洞)은 영조(英祖) 41년(1765)에는 용소리(龍所里)라 했던 마을이다.

정조(正祖) 때는 용연리(龍淵里)·제하리(堤下里), 고종(高宗) 31년(1894)에는 용연동(用淵洞)·용해동(用海洞), 1911년은 용연동(用連洞)·반호동(半湖洞)이라 하였다가 1914년의 행정 구역개편 때 이를 합하여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용연리(龍淵里)라 하였다.[27]

1971년 10월 1일 이웃한 남화동(南化洞)을 행정동으로 흡수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1980년경 새각단, 뻔덕마을, 조구재(또는 조구제) 등 도로 위 마을이 (주)유공의 원유저장시설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고 1990년 - 1999년 도로 아래 마을(용시내)이 공해 지역 이주 정책과 신항만 배후 부지로 지정되면서 철거되었다.

현재 용연동의 면적은 2.9km²이다.

〈동 명칭 변천 일람표〉

시대	연도	동 명칭 변천사
조선시대	1765년(영조 41)	용소리(龍所里)
	1777년–1800년(정조)	용연리(龍淵里), 제하리(堤下里)
	1801년(순조 1)	제하리(堤下里)
	1894년(고종 31)	용연동(用淵洞), 용해동(用海洞)

27)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52쪽

일제시대	1911년	용연동(用連洞), 반호동(半湖洞)
	1914년 4월 1일	대현면(大峴面) 용연리(龍淵里)
현대	1962년 6월 1일	울산시(蔚山市) 용연동(龍淵洞) (시(市) 승격 : 장생포출장소 관내)
	1971년 10월 1일	남화동(南化洞)을 흡수
	1980년대	폐동(법정동은 존속)
	1995년 5월 1일	행정동 개운동(開雲洞)에 편입
	1998년 10월 17일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인 선암동(仙岩洞)에 편입됨

(자료 : 구정백서. 2008. 남구청)

2) 지명

1) 마을

[반호동(半湖洞)·조구제(鳥口啼)·조구재(釣鉤嶺)]

용연 북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1894년에는 [용해(用海)]라 하다가 1911년에는 [반호(半湖)]로 불렀으나 뒤에 [조구제(鳥口啼)]라 하였다. 이는 깊은 숲이 있어 새들이 많이 울었으므로 [조구제]라 한 것이라고 전해온다.[28]


조구재

[용소]의 동쪽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다. 민가가 두 세 가구가 있었는데, 동쪽 산비탈에 고개에서부터 남쪽으로 길게 뻗은 뻐덩이 있다. 이 재를 [조구재(釣鉤嶺)]라 하고 마을 이름도 따라 [조구재]라 부른다. 이 [조구재뻐덩]은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곳이었다. 짐작컨대 예전에 이 재와 뻐덩에는 조구등(釣鉤藤)나무가 많았던 것 같다.

조구등(釣鉤藤)은 꼭두서니과의 목질 만초이다. 잎은 대생난형이며 엽액마다 가시가 둘 있고 다른 물건에 붙어 감긴다. 여름에 깔대기 모양의 작은 꽃이 피고 응달에 말린 가시는 약으로 쓴다.

이 등(藤)은 목질의 만초로 잎겨드랑이마다 2개의 낚시 바늘 같은 가시가 있어서 다른 나

28)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52쪽

무를 감고 살아가는 덩굴식물이다. 그래서 이곳을 처음엔 조구등재(釣鉤藤嶺)라 불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던 이 [조구재뻐덩]에서 일제시대에 1936년에 한시 백일장을 연 적이 있다. 솔문(松門)을 세우고 임시 정자를 만들어 이름난 시관(試官)을 모셨다. 그때의 시제(詩題)가 '과용연한잠용,(過龍淵恨潛龍)'이었다. 이 시제는 '용소를 지나다가 용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한스럽다'라는 뜻이다. 이를 보아도 용이 살고 있었다는 용소의 전설이 예부터 널리 전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9] 이처럼 두 학자가 [조구제(鳥口啼)]와 [조구재(釣鉤嶺)]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조구재(釣鉤嶺)]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이로 통일했다.

현재 이 마을은 [조구재뻐덩]과 동쪽의 전답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고 옛 집터와 [가리저수지] 쪽의 산은 옛 지형이 남아 있다. [조구재새미]은 형체는 없으나 논밭 사이에 습지로 형성된 채 남아 있다.

[뻔덕마을·뻔덕말·송계마을(松溪—)]

용연의 북쪽, 즉 [조구재]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마을이다. 솔밭이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그러나 송계는 '좁은 내'의 뜻으로 송(松)은 소나무의 뜻이 아니라 '솔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30] 뻔덕이라 하는 것은 높고 평평하고 나무가 없이 풀만 난 땅을 일컫는다.

1980년 철거 당시에는 18가구가 살았으나 1930년경에는 약 25가구가 살았다.

현재 이 마을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새각단·신리]

용신 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새마을'의 뜻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1980년부터 철거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용신(龍新)·용시내]

용연의 남쪽인 [처용로]와 바다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다. 1990년과 1999년 사이에 이주하

29) 김송태,『蔚山, 지난날의 얼굴』, 처용, 1997, 147쪽

30) 장세동,「현곡 이유수의 지명관에 대한 소고(–유작『울산지명사』를 중심으로–)」, 남구문화 5집,남구문화원, 2007, 123쪽

였다.

현재 이 마을은 신항만 배후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1980년 중반 용신마을 철거 전 모습

[용연(龍淵)]

1894년부터 [제하마을], [조구재마을], [뻔덕마을], [새각단], [용신마을]을 통틀어 용연(用淵)이라 하다가 1911년에 용연(用連)으로 고쳐 불렀고 1914년부터 용연(龍淵)이라 하였다.

[제하(堤下)·지하(池下)]

[가리못] 아래에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이곳에는 조선 정조(1777-1800) 때부터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1950년 외진 마을 이주 정책에 따라 2가구가 [새각단]으로 이주했다. 1950년 철거 당시에는 2가구가 살았으나 그 후에 인근의 논밭을 경작할 때 많은 구들장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꽤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 마을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해칠방(海七坊)]

황성동(성외) {마을>해칠방(海七坊)} 참조

(2) 지형

① 강(江) · 천(川) · 구(溝)

[거랑채]

용연동과 [황암마을] 사이를 흐르는 바다에 인접한 내(川)를 말하는데, 하천의 가장 아래에 자갈이 밀려와 쌓인 곳을 일컫는다. '거랑'은 '시내', '채'는 '치'에서 나온 말이다. '치'는 육지가 반도형으로 튀어 나온 곳을 이르는 말로 '채', '치미', '퇴미', '터미'라는 말로도 표현된다.[31]

31) 장세동,「 현곡 이유수의 지명관에 대한 소고(-유작" 울산지명사」를 중심으로-)」, 남구문화 5집, 남구문화원, 2007, 106쪽

현재 이곳의 동쪽은 신항만 배후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는데, 매립된 곳에 [용연옛터비]가 세워져 있다.

② 거목(巨木)

[곰솔(해송)]

[송계마을]에 있었던 [뻔덕마을] 당산나무로 수종은 곰솔(해송)이었다. 수령 약 180년, 수고 12m, 둘레 2.5m였다.[32]

③ 골짜기(谷)

[공동묘지골·천지미골]

[큰골]의 오른쪽 다섯 번째에 있었던 골짜기로 [질방골]의 다음에 위치했다. 이곳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곳에 묘들이 많았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2007년에 SK New Fcc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광대골(廣臺谷)·광대곡(廣大谷)]

[가리저수지]의 북서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넓고 긴 골짜기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그러나 광대가 살았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돌벽골·돌빼기골]

[조구재] 바로 뒤 [큰골]의 동쪽 첫 골짜기였다. 석벽(石壁)이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남쪽 일부의 지형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고 북쪽은 지형이 변했지만 남아 있다.

[매라골(梅羅谷)]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매라골(梅羅谷)]로 기록되어 있으나(72쪽)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32) 울산시사, 울산시, 1987, 832쪽

[묵밭골]

[가리못]의 서북쪽 뒤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묵혀 놓은 밭이 있었다고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배나무지이골]

용연동의 북쪽 끝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배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당시 홍기표 씨가 운영했던 배나무 과수원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가옥이나 논밭이 폐허가 되어 있으나 옛 지형의 일부가 남아 있다.

[뽕나무지이골]

[배나무지이골]과 마찬가지로 용연 서북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뽕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삼시미골]

남화동의 서남쪽에 있었던 골짜기로 [용연동]과 잇대어 있었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송골]

[큰골] 동쪽에 있었던 [가리못]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있었던 골짜기로 [돌벽골] 다음 에 위치했다.

이곳에 일부 주민들이 가건물에 살면서 경작을 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대부분의 옛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흔아흔골]

용연에서 [가리못]을 지나 고사동의 경계까지에 있는 수많은 골짜기를 일컫는다. 실수(實數)의 아흔 아홉이 아닌 골짜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 것 같다.[33]

33) 李有壽,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155쪽

[돌벽골], [송골새], [열두마지골], [질방골, [천지미골], [광대골] 등으로 흘러 들어오는 골짜기를 모두 합한 수의 표현이다.

현재 동쪽 지형은 SK공장에, 서쪽 지형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여우골]

공동묘지 서북쪽의 [배나무지이] 동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여우가 많이 서식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2007년에 SK New Fcc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열두마지기골]

[큰골]의 동쪽에 있었던 [가리저수지]를 기준으로 세 번째에 있는 골짜기로 [송골]의 북쪽에 위치한다. 12마지기의 논이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SK New Fcc공장에 편입되고 남쪽 일부의 지형은 남아 있다.

[조구재골]

[조구재]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현재 동쪽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고 집터와 서쪽의 지형은 남아 있다.

[질방골·질배골]

[큰골]의 동쪽에 있었던 [가리저수지]를 기준으로 네 번째에 있었던 골짜기로 [열두마지골] 다음에 위치했다. 길거리에 있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SK New Fcc공장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천지밋골]

용연의 북쪽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큰골]

[가리저수지]의 북쪽에 [아흔아흔골]이 합류된 가운데 있었던 골짜기로 [배나무지이]까지 뻗어 있다.

현재 가운데 개천을 중심으로 서쪽은 용연공단에, 동쪽은 SK New Fcc공장에 일부가 편입

되고 일부의 지형이 남아 있다.

[홈골]

[새뻐덩]의 동쪽 냇물에 홈이 파인 나무가 걸쳐 있었고, 바로 그 주위의 있었던 깊은 골짜기들을 일컫는다.

현재 이곳은 SK에너지 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④ 곶(串)

[서므끝·섬끝]

용연동과 남화동과의 경계가 될 만한 어간삼세에 모래벌(모래사장)이 있는 곳을 [삼섬] 또는 [삼시메]라 부른다. 이 [삼섬]의 서남쪽 해안에는 바위가 돌출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서므끝]이라고 부른다. 확실한 돌섬은 아니지만 밀물 때에는 섬이 된다. 그래서 섬의 곶(串)이 [셈이끝(串)]이 된 것 같다. 이 일대에는 많은 주민들이 낚시를 즐겼으며 각종 해산물이 풍부했기에 간조 때가 되면 해산물 채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도 했다.

현재 일부의 지형은 신항만 부지에 편입되었고 바다 쪽 끝부분의 지형은 일부가 남아 있다.

⑤ 들(坪 · 野)

[삼거리들(三拒里坪)]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삼거리평(三拒里坪)]으로 기록되어 있다.(73)

'拒' 자(字)는 '距' 자의 잘못으로 보인다.

[삼시미들]

남화동의 서남쪽에 있는 [삼시미불탕]의 위쪽과 [남화저수지] 아래쪽 사이에 있었던 들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한자로 [삼서평(三嶼坪)]으로 기록되어 있다.[34](73쪽) 이 곳이 [삼시미불탕]과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일컫던 지명이다. [남화저수지]에서 흐르는 농업용수의 혜택을 누렸던 들이다.

---

34) 필사본〈朝鮮地誌資料〉 속 蔚山의 옛 땅이름,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07. 73쪽.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는 본문에 페이지만 기재한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하바대·하바댓들·하밭들·대야(大野)]

[가리못] 아래에서 황성동까지 넓게 펼쳐 있었던 들이다.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대야(大野)]로 기록되어 있다.(73) 넓은 들이라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⑥ 등성이

[너븐등·광등산(廣嶝山)]

[배나무지이]의 남서쪽에 있었던 황성동 공동묘지 옆 등성이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로 [광등산(廣嶝山)]으로, 언문으로 [느븐등]으로 기록되어 있다.(72쪽)

현재 이곳은 용연공단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민드라꼭대등]

[열두마지기골]의 동쪽 능선에 넓은 잔디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성이이다.

현재 이곳은 옛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붉은등]

[배나무지이]의 북쪽에 있었던 붉은 등성이이다.

[장지몰라·장자등]

[뻔덕마을]과 [봉대산] 사이에 있었던 등성이이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⑦ 바위(岩)

[농어덤(鱸魚-)]

농어(鱸魚)가 지나가는 물목에 있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안농암]과 [바깥농암]이 있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마당덤]

용연동 앞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이다. 마당 같이 넓다고 하여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삼시미]

용연동 동쪽의 삼시미불탕 앞에 섬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이곳은 용연동과 남화동의 경계 지점이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새짝덤]

용연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서므포]

용연동의 동쪽 끝 [삼시미] 앞에 있는 [서므끝]의 바위로 물이 들면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어 섬처럼 우뚝 솟아 있다.

현재 이 바위의 일부가 남아 있다.

[섬안개]

용연동 앞 바다에 있었던 바위이다.

현재 이 바위는 신항만 건설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지경바우(地境—)]

동쪽에 이웃한 남화동과의 경계 지점에서 용연동의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현재 이 바위는 남아 있다.

⑧ 버덩

[새뻐덩]

[홈골]의 서쪽 위에 있었던 버덩으로 몇 기의 묘들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제하뻐덩(堤下—)]

[제하]의 서쪽에 있었던 버덩을 말한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조구재뻐덩]

[조구재]의 북동쪽에 잔디로 형성되어 있었던 버덩이다. 이곳에 3,4기의 묘들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SK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⑨ 불탕

[삼시미불탕]

남화동의 남쪽에 있는 모래벌로 용연동과의 경계가 될 만한 어간삼세에 텅빈 모래벌이 있는 곳을 [삼섬] 또는 [삼심에], [삼시미] 등으로 일컬었다. 여기에서 '어간삼세'란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위치에놓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 특히 바닷가에 있는 두 마을 사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곳은 인가나 구조물도 없고 텅 빈 모래사장(沙濱) 뿐이다. 다시 말해 어쩌면 예부터 내려오는 어설픈 경계이며 그것도 선을 그은 확연한 지점이 아닌 이른바 완충지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유휴지인 것이다.[35]

현재 이곳은 부분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옛 지형은 남아 있다.

[집앞불탕]

용연동 앞바다에 있었던 모래벌이다.

현재 이곳은 신항만 건설 부지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⑩ 비탈

[청수비알·청소비알]

[가리못] 밑에 있는 [용소] 부근의 석벽 비탈을 일컫는다. '비알'은 '비탈'의 방언이다.

현재 이곳은 SK에너지 원유저장 시설에, 수원(水源)인 [가리저수지]는 대도산업이 시공한 폐기물매립장에 편입되고 동쪽에 지형의 일부가 남아 있다.

35) 김송태,『蔚山, 지난날의 얼굴』, 처용, 1997, 44쪽

⑪ 샘(우물)

[공동우물]

[뻔덕마을]에 1곳, [새각단]에 2곳, [용신마을]에 3곳이 있었다.

[조구재새미]

[조구재]에 있었던 샘이다.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하여 해안에서는 이름난 샘이었으나 [조구재]와 [뻔덕마을]이 철거된 뒤 주위에 논밭을 경작하면서 매립되었다.

현재 이곳은 습지 형태로 흔적만 남아 있다.

⑫ 소

[용소(龍沼)·청소·청룡소(靑龍沼)]

[가리못] 밑에 있었던 맑은 소(沼)를 일컫는다. [큰골]에서 흘러온 물이 폭포를 이루어 이곳에 떨어졌다. 이곳에서 용이 등천(登天)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SK에너지 원유저장 시설에 편입되어 옛 지형이 사라졌다.



현재의 청수비알 및 청소(용소)

Ⅳ. 울산시의회 옛 용연초등학교 관련 본회의 회의록

1. 환경 대책(1991년 06월 27일(목) 오후 2시)
2. 이주민 대책(1991년 07월 26일(금) 오전 11시)
3. 어업권 보상(1992년 02월 21일(금) 오후 2시)
4. 신화유화 폐수 대책(1992년 07월 22일(수) 오전 10시)
5. 쌀 수입 반대 및 이주 대책(1992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6. 가로수 수종 선정(1993년 10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7. 용연지구 개발 대책(1994년 12월 12일(월) 오후 2시)

이 원고는 당시 이상종(용연 제2회) 울산시의회 의원이 옛 용연초등학교 인근의 환경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환경 대책(1991년 06월 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이주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 (15시 0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의장 김팔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종 의원 나오셔서 환경문제 등 전반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종 의원** : 이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70만 시민이 다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푼 기대와 매서운 눈으로 울산시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서도 방청석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기에 재삼 본의원은 울산시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 울산 시민을 위한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2년 1월 27일 당시 박정희 장군의 혁명정부 아래 자주경제의 터전을 마련키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공업센터의 적지를 선택하여 풍부한 공업용수, 수심 깊은 항만 등 공업입지 요건을 두루 갖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의 그 당시 공해라는 개념이나 환경보전 주민공해 피해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대규모 공장들이 속속 들어섬과 동시에 각 공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유독성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울산이 공해를 평하는 데는 아마추어나 전문가가 따로 없으며, 미세한 실험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의 오염도 발표를 듣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을 방문한 환경전문 교수는 울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오염된 지역으로서 옥시던트, 산성비 등 대기 중 복합오염으로 인한 공해는 물론, 토양과 해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제일을 나타내는 울산이 세계 제일의 오염 지역이라는 주장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해병은 울산과 같이 대규모 공장이나 대도시 등에서 발생할 비율이 높고 대기수질, 토양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각종 괴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인 아황산가스, 미세분진 오존 등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흡입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켜 호흡기에 심한 영향을 미

치게 되며 수질오염은 폐수와 같이 방류되는 중금속이 원인이며 이러한 인체에 누적되어 결국 만성 축적성 질환을 유발케 된다는 학계의 보고와 특히 수은의 중금속 중독은 호흡기 또는 소화기 장애를 일으켜 청력, 시력, 언어장애와 최악의 경우 경련과 함께 혼수에 빠져 사망까지 한다는 사실과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모체에 흡수된 수은이 배설되지 않고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선천성 뇌성마비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름끼치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85년 온산공단 주민에게 발생되었던 괴질이 충격을 주었을 때 조사 나온 모 교수는 주민들이 대접한 생선회는 전혀 먹지 않으면서 조사 결과는 공해병이 아니다. 공해는 심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70만 울산 시민들이 2개 공단 89개 소의 악취 상습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창문도 제대로 못 열 지경에 있음에도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악취에 대한 측정 장비가 없어 관능법에 따라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울산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온산의 괴질 피부병이 울산의 용연국민학교에서도 나타나다"라는 각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창 티 없이 깨끗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얼굴과 온 전신에 보기조차 흉한 반점의 이름모를 피부병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각 언론에서는 연일 화학물질 접촉 피부염으로 판명되었다는 보도와는 달리 남구보건소에서는, 단순 피부염이라 해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진상규명을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특별검사 실시를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민 대책(1991년 07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사무국장 보고
2.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이상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종 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전자에 김순규 의원님과 허남면 의원의 질의와 유사한 유형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문명의 발달과 국가산업 발전의 처참한 희생양으로 조상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헐값으로 정부에 바치고 낯설고 물 설은 곳에서 집단 이주 지역 불쌍한 이주민에게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은 가슴 아픈 심정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분명히 이 4단계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다운동 택지 조성 구역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4개 동 4단계 6개 동 전주민들과 천명에 하였습니다만 6개월 동안 온갖 이유와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제서야 겨우 부분적인 건축 가능한 곳을 토지 사전 승락을 해주고 있지만 습지대인 곳으로부터 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여야만이 원만한 택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울산군 온산면 덕신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대단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신력과 법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약속 이행을 분명히 지켜야 하기에 지난해 연말까지 건축을 가능치 못하게 된 책임을 택지 조성 시행처인 울산시에서 책임을 짐은 물론 택지 조성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금액도 보상되어야 함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지난해 12월 말경 주거용 건축비 평당 가격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는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현재 주거용 건축 평당 가격은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건축 가능하기에 평당 30만 원의 건축비 상승 부담 금액을 한 세대당 최소한의 건물 평수인 60평 기준으로 한다면은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상승 부담 금액을 울산시에서는 책임과 함께 보상을 해야만이 원활한 이주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 세대당 1,800만 원의 건축비 상승 부담금을 4단계 택지 분양을 받는 1,024세대의 금액을 합산한다면은 의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총 148억 3천 2백만 원을 이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요, 문제점입니다. 184억 3천 2백만 원이라는 가중한 부담을 하면서까지 건축을 과연 할 이주민들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러우며 앞으로 울산시에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대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성의 있는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지 분양 잔금을 완납한 날짜로부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울산시의 방침으로 제4단계 이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말경 건축을 예정으로 건축비에 소요될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은행에 예치한 결과 6개월 후 지금에야 건축이 가능하기에 6개월

동안에 보통예금 이자는 겨우 39만 4천 5백 20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치밀한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말경은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올해 7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최소한에 8천만 원 금액을 6개월의 정기예탁을 했을 것입니다. 6개월의 정기예금 이자는 2백 36만 7천 원으로서 한 세대 당 197만 2천 4백 80원의 불이익을 4단계 1,024세대 전체 불이익금은 이것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24억 3천 8십만 원입니다.

전자의 건축 상승 부담금액 184억 3천 2백만 원과 후자의 주식에 대한 이자 24억 2천 3백 80만 원은 결코 영세적이고 불쌍한 이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으며 울산시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책임 있는 행정태도를 취할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관련부서의 책임소지를 가릴 필요와 대수술이 있어야만이 제2, 제3의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부시장의 대결단과 전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영세적인 이주민 일부는 택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 이주민들에게 연 19%라는 연체 이자를 택지 대금으로 완납해도 건축을 못하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모순에 문제점도 있음을 여러 의원들께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팔용** 김순규 의원, 허남면 의원, 이상종 의원 보충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실무 관계관은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고 다음에 이상종 의원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일괄 견해를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어업권 보상(1992년 02월 2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 **의장 김팔용** 이상종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종 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신준철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관행 어업 보상에 따른 보충 질문과 울산시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업무보고를 시의원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4단계 환경오염지구인 황성동과 용연동은 1967년 제1종 공동어장으로 지정되어서 당시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울산정류공장의 돌핀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 수중폭파 등에 따른 어업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써 어촌계와 유공 간에 합의 약정서에 따라 정류공장 돌핀공사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란 명분으로 1,700만원을 수령하여 보상금 중 용연동 40만 원 황성동 80만원을 비롯해 내해, 용잠, 남화 등 어촌계별로 수령 후 각기 어촌진흥에 투자하고 개별보상이 아닌 단체보상으로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과 비어촌계 어민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획 및 해초 등의 채취, 관행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969년부터 현재까지 어촌계가 존속하고 어민 소득 증대에 해 오고 있는 바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을 어촌계에 가입된 어민에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공특법에 의한 수산업 어업권과 실업보상비는 그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드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 대한석유공사 울산정류공장에서 보상금 1,700만 원은 관행 어업 보상이 아니며 수산어업권과 실업보상비 명목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보상의 명목은 정류공장에서 돌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에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전남 광양만 어민들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한 관행어업 보상 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입어 등의 제한) 제1항은 공동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공동어업권이 면허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온 자는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보호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행어업에 따른 어업권자를 보호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62다 882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철에서 광양만 어민에게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처인 무지한 행정폭력에 대하여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은 분명히 공해에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잃은 서러움에도 울었습니다. 울산시의 행정폭력에도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이름 없는 주민들로부터 여론만 듣고 부당한 택지분양권을 환수한 바 있는 억울한 주민은 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한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사약의 사발을 내놓는 극단의 행동으로 항소를 또 다시 하겠다는 억측의 실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종합건설사무소의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와 권위주의에 본의원은 정말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이주민들에게 항소라는 빌미로 또다시 괴롭히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팔용** 민봉령 의원님, 이상종 의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많이 아는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워낙 답변을 많이 들었고 또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의원이라고 해서 동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주지구의 많은 문제점들을 울산의 소위 시끄럽다고들 합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시달림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신화유화 폐수 대책(1992년 07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5. 공해로 인한 용연동 농어민 피해보상 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의 건(이상종 의원 외 17인 발의)

● **부의장 김성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해로 인한 용연동 농어민 피해 보상 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종 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수차례 언급을 하여 왔습니다만, 공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마치 환경에 대하여 자포자기한 듯한 행정부의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련의 환경오염의 사례를 보면 울산의 젖줄 태하강변의 고기 떼죽음, 황성동 처용암 주변의 원인 모를 폐수로 인하여 바다고기 떼죽음 사태 등 각 공장에서 지도단속권 이원화의 공백 기간을 틈타 울산의 환경을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돈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울산의 기업주이며 또 한 사람은 이러한 악질

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을 수수방관만하고 안일한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상만 지키고 있는 정말 한심한 행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이 울산의 환경을 악화 시키는데 확실한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80만 울산 시민들을 실망시킴은 물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용연동 산10-1번지 소재 저수지는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로 용연 황성농민들의 유일한 공업용수로 긴요하게 이용된 저수지이며 깨끗한 수질과 주위 경관도 좋아 울산 시민들의 유일한 낚시터로 각광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올 연초부터 저수지 윗편에 신화유화의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저수지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어 저수지 내 잉어 양식장의 잉어 떼죽음을 발생케 했으며 신화유화 측에서는 급기야 잉어 떼죽음 사건을 축소화 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잉어 양식 업주들의 요구 사항인 5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선례를 남기고 저수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식수를 공장용 식수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용연저수지 잉어 떼죽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신화유화 측에서는 설득력 없는 핑계로 아직까지 식수 문제를 미뤄오고 동시에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신화유화의 폐수 방류로 인하여 전 저수지가 폐수로 변하여 마치 신화유화 폐수 저장소로 변하고만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은 식수가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저수지물로 수도작, 축산, 시설채소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농업직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바 신화유화 측에서는 대책 강구는커녕 계속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저수지가 오염되고 부패된 물로 인하여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동반한 구토 증세를 보이며 어린 학생들은 식욕과 학습 부진까지 나타내는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반면에 회사 측은 무성의와 방관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빈축을 사고 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조상 대대로 어업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오는 어민들은 신화유화 측에서 내보내는 유독성 폐수로 인하여 계절 휘귀성 어종인 멸치, 숭어, 정어리 등의 고기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빚고 있으며 해산물, 해조류의 증식을 억제, 소멸시키는 작용도 하여 인근 해녀들과 어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발생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신화유화의 일일 공업용수 사용량이 1300t이며 일일 폐수량은 무려 400t에 이르고 있음에도 신화유화에서는 절대로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400t의 폐수는 과연 어디로 내보내고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올 3월 중순경 잉어 떼죽음 사건으로 5,0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폐수를 내보냈다는 명백한 사실이며 잉어 떼죽음이 신화유화 측의 폐수가 원인이 아니라면 왜 5,000만 원의 거금을 잉어 양식

업주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연동 농어민들의 순박한 요구는 마음 놓고 마시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수, 농업용수 해결과 심한 악취로 인한 두통, 구토 증세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 및 지금까지 오염된 저수지 물로 인하여 수도작, 축산, 시설채소 농사를 짓지 못한 보상과 어민들의 요구는 오염된 폐수 방류 즉각 중지, 폐수 방류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 해산물, 해조류 오염으로 해녀들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의 당연한 요구 조건을 충분히 헤아려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과 울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박탈당하고 소외되어 정든 고향을 떠날 날만을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조사코져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서 살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의 의무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귀중함을 박탈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과 법을 파괴하는 기업주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본 의원 조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해로 인한 용연동 농어민 피해 보상 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성렬 이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해로 인한 용연동 농어민 피해 보상 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이상종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 쌀 수입 반대 및 이주 대책(1992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92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 쌀수입 개방 반대 정부 건의안

(●**이상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종 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상종 의원입니다. 열악한 한국농업의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일이며 암담하기까지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울산시·군 면적만한 논들이 군데군데 펼쳐져 있는 모든 농사를 비행기와 기계화를 통하여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외국형태의 수도작 농업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외국의 쌀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입 개방화 되었을 경우 우리 한국의 농업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며 농민들의 고통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쌀 수입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울산시 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세론이나,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쌀 수입 개방 반대 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팔용** 김성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 지연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민봉령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만 묻고자 합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 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 약6,7년이 흘렀습니다만, 이주 문제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는 집행부의 무소신과 그리고 책임성 없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재발생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환경오염 이주민들에게 더욱더 아픔과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경이주 업무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택지 구제자와 그리고 광고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여행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집세가 싸고 근로자들이 생활하기는 더 없이 좋은 곳이라 하여 서민들이 오히려 더욱더 환경오염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이주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성의는 정말 역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이주사업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지

확실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황성동 성암부락에 보면 울산시 80만 시민들의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 매립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용연 공업단지에는 각종 유해공장인 중화학 공장들이 들어와서 많은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양나이론과 그리고 신화유화가 많은 공해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황성동 천곡에는 울산 전체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업쓰레기 소각장도 용연동에 생긴다는 일부 언론을 접하면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공장들을 유시키고 있는 울산시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운동에는 용연, 황성 이주민들이 가서 지금 많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재산세를 일괄해서 택지를 받은 이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은 아직까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 민봉령 의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울산시장은 경상남도에서 분명히 택지 누락자들을 공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전원 구제해 주라는 구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주 미온적이고 사업소장 얘기 다르고 말단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공무원 얘기 다르고 계장 얘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공무원이 택지구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런지 부시장께서도 오늘 택지 누락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 가로수 수종 선정(1993년 10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

1. 제3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

3. 시정에 관한 질문

– 울산시 환경행정 및 농어촌, 이주대책, 가로수 정비 계획 등에 관한질문–(14시38분)

●의장 안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상종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시 환경행정 및 농어촌, 이주대책, 가로수 정비 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 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신선한 정책구현에 환영을 보내면서 우리 울산에서도 과감한 행정의 혁신과 구시대의 산물인 안일무사와 구습을 탈피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일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자세가 절실히 요구될 때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로 삼아 신한국 창조와 신울산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정한 밀알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상을 기대해 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의 환경오염 형태는 대기업체의 발생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와 호텔, 병원, 목욕탕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날로 극심하여 울산의 새로운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울산시에서는 인력 및 장비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는 인상이 짙은바 울산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의 방안으로 각 구청별로 관내에서 제일 높은 고층건물에 대기환경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울산의 대기오염 발생 업소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속 공무원들의 야간 공해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 지연문제와 단속공무원들의 불규칙한 야간현장 출동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불만, 근무의욕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종래의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여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 및 실질적인 야간단속과 시민들의 야간 공해 민원 신고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할시 승격은 울산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계층이 있다면 분명 울산시의 농어민들일 것입니다. 직할시가 되어도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행여나 혐오시설 유치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농어촌은 더욱더 소외되고 피폐화될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직할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과 대전직할시를 방문하여 농어업 관련자들을 만나본 결과 한결같은 이야기가 직할시가 되기 전

이 더 좋았다는 것은 직할시 승격을 앞둔 울산시가 큰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왜 농어민들이 직할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울산시의 농어촌 발전계획이 추상적이고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정보고 등 큰 행사시 시장께서는 농어촌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자체는 울산시의 농어촌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부족이며, 울산의 농어업은 공업화 추세에서 소외되고 밀려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반문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건국 이래 울산이 생기면서 과연 언제부터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었단 말인지, 한국의 농업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면, 울산의 농업은 환경 보전적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농업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얼마나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두들 잘 알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직할시를 대비한 울산시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보다 농어민들이 환영하며 원하는 도시근교농업, 농수산물 유통, 관광농업의 개발 등으로 울산의 농어촌 현대화에 적극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울산시의 신농정 정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이주대책 사업의 업무관서가 울산시인지 경상남도인지, 서로가 발뺌을 하면서 고질적인 이주대책 민원을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오늘도 무사히' 라는 구태의연한 행정부의 태도는 문민정부 탄생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며, 한 맺힌 이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고 찾아가 해결해 줄려는 노력의 참모습이 행정부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 내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알선관계는 임시방편의 해결 방법으로 임기응변식 시장과의 약속이었는지 세입자들의 이주문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어야만이 가옥 철거 등 본 이주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막연한 답변과 의지부족으로 알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세입자들 스스로가 개인의 이주계획을 세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지난 91년 말 환경오염 이주민들에게 매각한 다운지구 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일 행정으로 2년 가까이나 미뤄 1,100여 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과연 부합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다운택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31명의 원 지주분인 1,400여 평에 대한 보상

미완결로 인하여 용연동을 비롯한 1,133가구가 양도, 매매는 물론 주택건축을 위한 담보대출에 길이 막혀 다운지구로 이주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해를 마시며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재결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극히 소극적인 안일한 행정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의 가로수는 어떠한 입안자에 의해서 심어졌는지 한심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울산의 전 지역의 가로수 형태가 은행나무와 수양버들, 플라타너스의 수종으로 심어져 있어 타 도시에 비교,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가로수로 부적합하여 변경하는 수종으로서 가로수로는 부적당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수양버들과 플라타너스는 꽃가루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울산시에서는 울산지역에 적당한 수종을 선택하여 시민들은 푸르름을 보면서 정서순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로수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남구청에서는 올 봄 울산의 공해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며, 시민들이 좋아하며 즐겨 찾는 벚꽃나무 밑에서 벤치가 놓여진 벚꽃공원 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벚꽃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는 시기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울산시에서도 환경오염 도시이며 삭막한 도시, 울산을 정화하여 아늑한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울산을 위하여 공해에도 강하며 봄과 가을에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나무그늘과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수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중장기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해마다 봄철을 맞이하여 울산 시민들의 인파가 가까운 경주를 찾아 울산, 경주 간 국도가 주차장화된 광경을 보면서 왜 울산 시민들이 경주를 즐겨 찾는지는 화사한 꽃망울의 벚꽃나무와 시민들이 쉴수 있는 숲속과 계곡이 많아서라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산시에서 돈을 벌어서 경주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울산에도 벚꽃공원 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숲속공원 및 휴양림 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산림이 울창했던 옛 울산의 명성을 되살리며 푸르름과 숲속으로 둘러싸인 전원도시 울산의 그날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로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표 이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용연지구 개발 대책(1994년 12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안
2. 울산시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3. 시정에 관한 질문

3. 시정에 관한 질문

– 용연공업단지 개발계획 방안 등에 관한 질문 – (14시15분)

●**의장 안성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용연공업단지 개발계획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연공업단지 개발계획 방안 등에 관한 질문 -

●**이상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시정 질문 요지서를 배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난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94년도에 문제점에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기에 95년도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각종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의 행정시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거나 방송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어떤 연유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고쳐지고 개선이 되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비포장도로의 포장문제라든지 가로수의 보식관계라든지 하천의 복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의회에서 걸러지고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누차 이것이 주민의 대단한 숙원사업이라고들 강조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차례 말을 하면 그것은 한낱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곧바로 담당 공무원들은 어떠한 예산을 끌여들여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울산시의회를 대단히 위축시키는 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울산시장을 보필하는 여러 참모진들이 모였기에 94년도 12월 10일 이후부터 그리고 95년도에는 절대로 이러한 전시행정을 위한, 그리고 언론에 주도한 울산시의 행정이 펼쳐져서

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1월1일이면 WTO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UR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UR과 WTO가 출범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 울산시의 농어민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울산의 농업은 식량증산의 목적이 아닌 환경보존적인 차원,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공간의 재활용과 도시계획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농업이 절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를 예를들어보면 울산시의 일조권이 공업화가 되고부터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이 짧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울산에서는 뱀과 개구리 기타 박쥐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풍일수가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이런 것이 농업을 위한, 농업을 중시 여기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울산의 농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은 예로부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였습니다. 함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과 송정의 벌판에는 가을이면 황금들판으로써 벼가 출렁이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태화의 벌판은 집단 주거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삼산동은 신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송정벌판은 비행장의 확장공사로써 울산의 농업 요충지는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이제는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시는 급속도로 인구팽창과 교통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업은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정책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농업은 중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전에 많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그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국이 새롭게 울산시에 신설된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정국의 신설로 인해서 울산시의 농업이 거듭 태어날 수 있고 UR과 WTO 출범 이후에 경쟁력 있는 울산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농업은 이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태양으로부터 대기오염으로부터 가리

워지지 않는 농업은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노지의 농작물은 거의 재배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울산의 농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시에 비해서 하우스의 재배나 수경재배나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농어민들이 공업의 물결 속에서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항상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에 알맞는 농업의 정책을 재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울산시의 근교농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는 어떠한 농작물이 공해 피해로부터 충분한 강화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울산시의 농업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보면 거의 임기응변식입니다. 그때 그때의 예산으로써 거의 농어민들에게 흡족하지 않은 예산으로써 생색 내기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부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울산시에서 엄청난 공해를 내면서 2차, 3차 산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와 선경, 효성, 삼성 대기업체들이 울산의 문전옥답을 훼손하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시민들 내지는 울산의 농민들에게 과연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인근 포항시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농민들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의 농업시설을 공장 자체에서 만들어서 농민들의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시설을 농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울산시 대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피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대기업체가 울산의 농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신농업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울산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농수산물의 유통은 한마디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분명히 법조항으로써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수입되어서 거기에서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수입 농수산물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농업은 앞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식량증산의 자원보다는 울산의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울산

농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 예로써 일본 동경에서는 동경 한 가운데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는 과연 도심지 가운데 농업을 왜 장려하고 유도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도시의 환경보존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울산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농업의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 농민들의 연령은 평균 56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농어민들의 숫자는 겨우 41명에 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0년대로 볼 때에 41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울산시의 농어업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울산시의 젊은 농업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는지, 젊은 농민들이 울산의 농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체와 대기업체에 획기적인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 농어민 차세대 후계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마음 놓고 농업에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어민들이 대단히 불안감과 농업에 대한 영농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총소득액에 순이익이 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울산의 농업기반이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인력들이 공사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과연 지금의 고임금 시대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될 수 있는 농업이 지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농정 정책은 새로 짜여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한, 그리고 대폭적인 신농정의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용연공업역구 제4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연지구는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로서 이미 이주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민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23% 내지는 30% 이상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주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에는 약 300~400명의 학생들이 아직도 그대로 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알루미늄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측 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울산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태우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 소가 있습니다. 또 초산이 배출되어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했던

선경도 있습니다. 100m를 넘지 않은 곳에서는 유공의 전국적인 규모의 기름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용연화암지구에 아직도 이주업무 계획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점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점들도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해 경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하다가 운동장 체육시간에는 공해가 많이 나오면 학교에서 경보사이렌을 울립니다. 교실로 들어가십시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여선생님들이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학습부진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제일 수준 낮은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주 업무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안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과 더불어 용연공업단지가 들어서면 울산의 항만 적체현상과 공업용지 부족난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제4공구 용연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줄다리기를 하던 차에 이제는 울산시에서 독자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용연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확보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지구에 이주민들이, 그리고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해야 되는 사안을, 그리고 공업용지난의 부족현상 때문에 중소기업체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시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1단계 행위로써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그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사안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능력이 과연 부족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경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산시의 농업정책과 울산시의 환경오염 이주대책은 울산시에서 어느 것 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역담당국장의 소신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간 약 300t의 산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과 산림에서 방출되는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 1ha에 연간 12t의 산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면적으로 보면 연간 약 7,800만t의 산소를 공급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소 공급가격으로 치면 4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을 산림과 농작물로부터 우리가 손쉽게 얻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의 농업을 다시 한 번 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표 이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재규 노정실장이 지역경제국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의원님께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항상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울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지역의 농어업 여건부터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상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WTO체제 출범 후에 대비한 울산의 농업정책과 시·군 통합 후의 울산의 농업정책,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 방안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어 지역 총생산액에 대비해 볼 때 시 승격 당시인 62년도에는 60%에서 현재는 1% 수준에 불과하며 농어민의 수도 62년 시 전체 인구의 66.2%에서 70년도에는 32.3%, 80년에는 6.2% 그리고 현재는 1.6%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도 60년에는 5,611ha에서 현재 1,504ha로 감소되었으며 농지 전체가 농민의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농어민들은 생산의욕이나 농어업 시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개발에 대한 지가상승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울산의 도시발전 추세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주도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을 위주로 한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 현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이 많은 우리 지역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식생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마음의 고향으로서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업이 결코 소외되거나 천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체제 하에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영농 규모나 기술면에서

취약한 우리 농업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우리의 농어업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총 42조 원의 재원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과 영농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개선 등 87개 단위사업에 685억 원 규모의 농어촌발전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시설의 현대화 및 생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 위주에서 질과 소득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인력절감대책으로 벼 직파 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영농의 기계화에 주력할 것이며 영농 규모화를 위한 위탁영농회사 육성과 품질개선을 위한 우량품종 보급,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과수, 원예작물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가 인구 80만의 대규모 소비도시로서 농산물의 시장성이 양호한 이 점을 최대한 살려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 수요충족을 위한 우수 농산물 공급과 직판장 등 유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 지역이 통합되면 농경지 면적이 현재의 11배인 1만 6,792ha로 늘어나고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또한 3,413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농경지 면적과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동부, 중부, 남부, 서부, 북부, 서생권의 6개 권역을 구분하고 동부권 지역인 동구, 농소, 강동 지역은 화훼, 채소 중심의 근교농업 육성과 어업기반 확충, 관광농어촌개발에 주력하고 중구권인 중구, 남구 웅촌, 범서 지역은 근교농업 육성과 소비자 유통시설을 확충하며 남부권인 온산, 온양, 청량 지역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전원관광지 개발, 지역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소득기반 구축,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삼동 지역의 서부, 북부권역은 시설채소 및 과수, 축산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정주권 개발 등 울산농업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고, 서생권은 배 특산단지와 관광농업, 축양장, 해안유원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한 읍·면 한 명품사업, 정예농어민육성, 기계화전업농,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을 추진하며 특히 과수, 화훼 채소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하여 39억6,000만 원 지원계획 추진 등 근교농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살펴보면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획일적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 간혹 무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업인 스스로가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찾고 투자계획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착안하고 울산시·군의 도농 통합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는 시 자체적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 간 타 지역에 없는 농어촌 육성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군 농어민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기업영농회사 등 영농법인체와 품목별 작목반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지역단위조합 산림계,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그리고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시설의 자동화와 기계화, 현대화 및 유통, 가공판매를 위한 사업장 등에 부족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 원의 장기융자금을 연간 50억 원씩 4년 간 융자지원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의 이자로 농어가융자금 이자를 보전(7%)토록 조치하므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농어민 자신의 자구노력 없이는 결코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농정은 농어민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보조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어업이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활개선과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자구 노력과 적절한 행정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수입농수산물이 사실 상당한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9개 품목이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요한 65개 품목에 대해 95년 1월 1일부터 생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는 대기업에서 직접 영농에 참여하시는 회사는 없고 단, 현대에서 주전동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다른 기업체는 없습니다. 여타 시·군 통합 후는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계획을 통합한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울산군 쪽에 지역 특성 같은 것을 파악하기는 시기가 이르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시에 농정국이 생기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지도소와 합쳐서 기술진단과 발전가능성, 시장 타당성 같은 것을 잘 조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가 다짐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안성표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문형섭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문형섭** 종합건설사업소장 문형섭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환경오염지구에 대한 이주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용연국민학교에 300, 400명되는 어린 학생들의 고충과 그로 인한 앞으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용연공단 개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의원님과 여러 의원들께서도 용연공단 개발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용연공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62년 1월 27일 처음으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여, 석유·화학, 조선 등 중공업 제조공장이 입지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기간 산업체로서 그 동안 공단 내 적지를 개발하여 400여 개 공장이 입주하여, 종업원 14만 명에 제조 생산액 약 25조원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11%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국가 공업 단지입니다.

용연4공구 개발 계획은 공단 내 잔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건설부로부터 92년 12월 1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져 하였으나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94년 2월 24일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라는 경상남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가 울산 국가공업단지 내 잔여지를 기 공영개발하고 있는 1, 2, 3공구와 연계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계획 지구 내 토지소유가, 경상남도의 땅이 약 45%가 도 소유로 되어 있고, 환경오염지구 이주 계획 보상과, 공단개발 보상에 대한 시점상의 이주대책과 지장물 보상에 대한 거주민들에게 혼란성을 예상해서 기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 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시계획구역 내 공단 잔여지 개발은 울산시가 도시 정비 차원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서 94년 3월 17일 울산시에서 시행하라는 재차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입주 계획 업종에 대한 희망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입주가 가능한 인접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과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고 지금부터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공장 규모에 따른 면적과 업종에 대한 입주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유치업종에 적합한 입주 희망업체 신청을 접수 완료하여 내년 3월까지는 입주업체가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는 선수협약이 체결되면, 토지 보상과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24억 원 중에서 95년도 예산에 53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되면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하시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도 곁들여서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 간의 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른 의견 상충되는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용연공단의 개발은 당초 경상남도가 1, 2, 3공구를 87년 4월부터 94년 12월 말까지 2,773만 3,000평을 개발 중에 있고, 4공구도 이와 연계한 사업 계획으로 경상남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울산이 직할시로 승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면 울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국가공단 잔여지 개발은 당연히 울산시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94년 6월 30일자로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 경유 건설부에 제출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한 최종 검토 결과 94년 9월 9일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지정 변경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4일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통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11월 17일자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한 공람공고를 일간신문과 시 및 구청 게시판에 게재하여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용연공단을 개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개발코자 하는 용연4공구는 총부지 면적이 85만8,264㎡(256,625평)로서, 육지부가 26만3,988㎡(79,856평)로 약 31%이고 해안 매립부가 59만4,276㎡(179,769평)로서 약 69%입니다. 공단 조성이 완료된 토지 이용 계획은 공장 분양 용지는 67만7,340㎡(204,895평, 79%)이며, 공공 시설 용지는 18만924㎡(54,730평, 21%)로서 도로가 11만2,897㎡(34,152평, 13%)이고, 공원 용지가 1만7,231㎡(5,212평, 2%)이며, 녹지 시설이 4만2,738㎡(12,928평, 5%), 지원 시설 용지가 8,058㎡(2,438평, 1%) 조성되겠습니다.

용연4공구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약 15개 업체로서 그 중 대기업이 5개 업체이고, 중소기업이 10개 업체가 되겠으며 유치되는 업종은 대기업으로는 중화학의 기존 공장 계열화와 중소기업은 석유화학, 기계, 금속조립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연공단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24억 원 정도이며 사업 기간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이주 대책을 완료한 후 공사 기간은 앞으로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7월 15일 실시계획 승인 받았고, 93년 7월 15일에는 용연공단 조성 실시 설계 중앙기술심의를 마쳤으며 마지막 행정절차로 94년 1월 26일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94년 11월 4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울산시가 받음으로서 법적 구비 절차는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 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95년 3월경 입주 희망 업체가 결정되면 실시계획 변경에

반영된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이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95년 하반기경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조금 전 이상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잘 설명되었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삭감되었다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일부 의원들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95년도에 공단 개발 사업을 위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반영에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선수금 533억 원의 세입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호안 및 부지 조성비로 계상된 세출 예산 533억 원이 삭감된다면 지금까지 공단 내 잔여지 개발도시환경정비 목적과 기업체의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과 공단개발 기본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제반행정 절차와 이행 사항이 무산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 개발 예정지 안에 사유토지 20만 7,871m^2에 약 111명의 개인 토지 사용 규제를 오랫동안 제한하여 왔고 참고 기다려온 데 대한 강한 반발 민원 예상과 환경오염 이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83세대 가구주와 116세대의 세입자 등 총 199세대의 이주대책 수립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투자하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 시설지에 편입 용지 5만 2,291평에 가격을 환산하면 약 130억 원이 됩니다. 또 도로 포장과 하수관로 연결, 조경 시설에 약 118억 원 됩니다. 총 248억 원이 시비 투자의 절감 효과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에게 환경오염 이주 대책비 86억 원을 저희들에게 재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남도 땅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하면 약 160억 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도 예산회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95년도 예산에서 꼭 반영이 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 추진 경위와 앞으로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미흡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Ⅴ. 발간비 협찬자 명단

용연초등학교50년사 발간비 협찬자 명단

번호	성 명	날 짜	기 수	동 네	금 액
1	8회 다운동모임	12. 9. 28	8회	전 체	100,000
2	성암 향우회	12. 10. 15		성 암	200,000
3	성친회	12. 10. 20	8회	성 암	200,000
4	(8회)동기회	12. 11. 3	8회	전 체	500,000
5	이안윤	〃	8회	천 곡	100,000
6	윤해상	〃	8회	세 죽	100,000
7	김종향	〃	8회	세 죽	50,000
8	김법수	12. 11. 12	8회	성 암	100,000
9	서찬수	〃	8회	용 연	50,000
10	김명숙	〃	8회	성 암	50,000
11	(15회)동기회	12. 11. 11	15회	전 체	300,000
12	박혜선	〃	15회	세 죽	50,000
13	이순녀	〃	15회	성 암	50,000
14	박성문	〃	15회	용 연	50,000
15	동창 이사회	12. 11. 14		전 체	600,000
16	김석하	12. 11. 21	4회	용 연	1,000,000
17	유옥희	12. 12. 5	8회	성 암	50,000
18	이상종	12. 12. 6	2회	용 연	1,000,000
19	윤정칠	12. 12. 7	8회	세 죽	100,000
20	용연 향우회	〃		용 연	500,000
21	정영기	12. 12. 8	15회	성 암	50,000
22	김용석	〃	15회	성 암	200,000
23	김동한	12. 12. 10	남구문화원		200,000
24	이석호	〃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100,000
25	황광조	12. 12. 11	4회	성 외	100,000
26	오학철	12. 12. 18	4회	세 죽	100,000
27	이완석	〃	4회	용 연	100,000
28	손영석	〃	4회	세 죽	100,000
29	황광식	〃	8회	성 암	100,000
30	정경숙	12. 12. 21	8회	용 연	50,000

번호	성 명	날 짜	기 수	동 네	금 액
31	박신복	〃	8회	세 죽	50,000
32	이명국	〃	8회	황 암	100,000
33	이태수	〃	4회	황 암	100,000
34	이상율	12. 12. 24	4회	황 암	100,000
35	김득권	〃	4회	용 연	100,000
36	김귀순	〃	4회	용 연	100,000
37	조혁우	〃	4회	황 암	70,000
38	윤선희	〃	4회	천 곡	50,000
39	박미희	〃	4회	성 외	50,000
40	박정미	〃	4회	용 연	50,000
41	이성태	〃	4회	용 연	50,000
42	김진곤	12. 12. 25	8회	성 암	300,000
43	이지우	13. 1. 3	6회	용 연	50,000
44	김용필	〃	10회	성 암	50,000
45	신정관	13. 1. 4	8회	황 암	200,000
46	김용옥	13. 1. 6	8회	성 암	50,000
47	김금태	13. 1. 10	4회	용 연	50,000
48	김경명	〃	15회	성 암	50,000
49	조원일	〃	8회	황 암	100,000
50	황정득	〃	8회	용 연	50,000
51	심민교	13. 1. 20	23회	용 연	50,000
52	심희경	〃	27회	용 연	50,000
53	이미정	13. 1. 24	15회	용 연	50,000
54	강옥선	〃	15회	용 연	50,000
55	김용수	〃	12회	성 암	50,000
56	이말철	〃	4회	성 외	200,000
57	김종찬	13. 1. 25	1회	용 연	1,000,000
58	(1회)동기회	13. 1. 26	1회	전 체	1,000,000
59	김현분	〃	3회	성 암	100,000
60	(6회)동기회	〃	6회	전 체	1,000,000
61	한성은	13. 1. 14	15회	황 암	50,000

번호	성 명	날 짜	기 수	동 네	금 액
62	최경원	13. 1. 15	15회	용 연	50,000
63	황민규	〃	15회	용 연	50,000
64	유종을	13. 2. 22	8회	성 암	100,000
65	이동훈	13. 2. 23	12회	용 연	100,000
66	박창식	〃	12회	용 연	100,000
67	윤 희	〃	12회	용 연	100,000
68	이상애	〃	12회	성 외	100,000
69	이윤옥	〃	12회	성 외	100,000
70	박종일	〃	12회	용 연	50,000
71	이수경	〃	12회	용 연	50,000
72	박소영	〃	12회	성 암	50,000
73	장숙희	〃	12회	성 암	50,000
74	최동희	〃	12회	성 암	50,000
75	김해숙	〃	12회	성 암	50,000
76	이미영	〃	12회	황 암	50,000
77	김난아	〃	12회	용 연	50,000
78	이미정	〃	12회	성 외	50,000
79	박일관	〃	12회	성 암	50,000
80	장이진	〃	12회	황 암	50,000
81	손경미	〃	12회	용 연	50,000
82	김귀종	〃	12회	세 죽	50,000
83	최해열	〃	12회	성 암	50,000
84	박진술	〃	12회	용 연	100,000
85	정관호	13. 3. 12	8회	용 연	100,000
86	최순희	13. 3. 12	4회	황 암	100,000
87	박막숙	〃	10회	용 연	50,000
88	(2회)동기회	13. 3. 13	2회	전 체	1,000,000
89	조경남	〃	9회	황 암	100,000
90	(4회)동기회	13. 3. 14	4회	전 체	1,000,000
91	박금례	13. 3. 18	5회	성 외	50,000
92	박성재	〃	5회	용 연	50,000

번호	성 명	날 짜	기 수	동 네	금 액
93	이양희	〃	5회	성 암	50,000
94	이제근	〃	5회	성 암	200,000
95	김태균	〃	5회	용 연	200,000
96	최상칠	〃	5회	성 암	50,000
97	임성문	〃	5회	성 암	50,000
98	김일태	〃	5회	성 외	100,000
99	신성애	〃	5회	성 외	50,000
100	이성실	〃	5회	성 암	50,000
101	장경희	〃	5회	용 연	50,000
102	최인숙	〃	5회	용 연	100,000
103	이영옥	〃	5회	용 연	50,000
104	박월금	〃	5회	성 외	50,000
105	박정례	〃	5회	용 연	50,000
106	박성준	〃	5회	용 연	50,000
107	박만애	〃	5회	황 암	50,000
108	최해우	〃	5회	성 암	100,000
109	김수배	〃	5회	용 연	50,000
110	이상일	〃	5회	용 연	50,000
111	김성회	〃	5회	용 연	50,000
112	김창금	〃	5회	용 연	50,000
113	황호식	〃	5회	황 암	50,000
114	박의정	〃	5회	성 암	50,000
115	이상구	〃	5회	용 연	100,000
116	이미향	〃	5회	세 죽	50,000
117	허화열	13. 3. 19	7회	용 연	100,000
118	(7회)동기회	〃	7회	전 체	1,000,000
119	조 희	13. 3. 22	10회	황 암	50,000
120	(10회)동기회	〃	10회	전 체	1,000,000
121	최동웅	13. 3. 26	15회	성 암	100,000
122	(9회)동기회	13. 3. 29	9회	전 체	600,000
123	최병헌	〃	9회	황 암	200,000

번호	성 명	날 짜	기 수	동 네	금 액
124	김영이	13. 3. 29	9회	용 연	200,000
125	정헌태	〃	9회	세 죽	300,000
126	김홍자	〃	1회	용 연	100,000
127	(3회)동기회	13. 4. 1	3회	전 체	1,000,000
128	김일철	13. 4. 17	3회	용 연	200,000
129	김미성	13. 4. 24	8회	용 연	100,000
130	홍설만	〃	8회	용 연	50,000
131	(13회)동기회	13. 5. 6	13회	전 체	1,000,000
132	이경애	13. 6. 1	8회	성 외	200,000
133	박형보	〃	8회	용 연	200,000
134	이상은	〃	8회	용 연	50,000
135	박선연	〃	8회	용 연	100,000
136	박미정	〃	8회	용 연	300,000
137	허애경	13. 6. 24	15회	세 죽	200,000
138	권두기	〃	15회	용 연	100,000
139	(11회)동기회	13. 8. 28	11회	전 체	1,000,000
140	장일권	13. 9. 2	15회	성 외	100,000
141	이민우	13. 11. 25	8회	용 연	100,000
142	강경숙	〃	8회	성 외	50,000
143	김소옥	〃	8회	성 외	50,000
144	이미희	〃	8회	성 외	50,000
145	김상국	〃	12회	세 죽	100,000
146	이상민	〃	16회	성 외	100,000
147	이상혁	〃	19회	성 외	100,000
148	이상화	〃	8회	성 암	50,000
149	최막필	〃	8회	성 암	50,000
150	오향희	〃	8회	성 외	50,000
151	(14회)동기회	〃	14회	전 체	1,000,000
152	최해수	13. 12. 9	2회	황 암	1,000,000
153	장성권	13. 12. 10	3회	성 외	200,000
154	이수우	13. 12. 27	3회	황 암	500,000
155	전정도	14. 1. 2	5회	성 암	1,000,000
합계					29,870,000

참고문헌

1. 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지리지』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읍지』
『대동지지』
『동국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지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찬팔도지리지』
『언양읍지』
『여도비지』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
『울산울주지』
『울산읍지』
『조선환여승람(울산군)』
『증보문헌비고』
『택리지』
『팔도도』
『팔도지리지』
『팔도지지』
『흥려승람』
『학성지』

2. 신문

울산매일신문
경상일보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저널
부산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3. 단행본

용연초등학교 졸업대장
언양초등학교총동창회, 언양초등학교100년사. 정기획 인쇄, 2006
남목초등학교총동창회, 남목초등학교100년사. 남일 인쇄 기획, 2008
병영초등학교총동창회, 병영초등학교일백년사, 대한종합인쇄사, 2009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사, 울산 · 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1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10년사, 대일인쇄(주), 2007
울산남구문화원, 울산남구지명사, 애드비젼, 2010
文化遺蹟分布地圖(中 · 南 · 東 · 北區 편), 蔚山廣域市, 2004
다 같이 보는 울산읍지, 역사교사모임, 2002
2012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2
울산문화원, 울산문화원30년사, 처용기획, 1995
울산시, 울산시사, 1987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4. 보고서

蔚山 開雲浦城址,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4
蔚山 開雲浦城址 II,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7

5. 정기 간행물

울문연소식 6호,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남구문화원, 울산남구문화 3집, 현대 기획 인쇄, 2005
울산남구문화원, 울산남구문화 6집, 애드비젼, 2008
용연 창간호(첫 번째 이야기), 용연초등학교, 2005
용연 2호(두 번째 이야기), 용연초등학교, 2006
용연 3호(세 번째 이야기), 용연초등학교, 2008

〈편찬에 협조해 주신 기관과 개인〉

울산용연초등학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울산남구문화원
박채은 향토사학자
윤대헌 향토사학자
김숙례 한글서예가(표지 글씨)
하미경 한국미술협회 회원(삽화)
이석호 울산 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김동한 울산 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편집 후기

우리 용연초등학교는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1962년에 용잠초등학교 용연분교로 개교했다. 공교롭게도 울산 공업 도시 출발과 함께 함으로써 용연초등학교의 50년사는 울산의 현대사와 빼닮은 데가 많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는 곧 이어서 공업센터 기공식, 특별건설국 설치, 울산시 승격 등을 그해 상반기 동안에 군사정부답게 속전속결로 공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현재 공업탑에 새겨 놓은 당시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에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한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는 훗날 울산에서 공해 문제가 심각해 우리 학교의 폐교를 예고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시사지인 『타임』지에까지 공해 기사가 실리고, 1998년 2월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기에 이른다. 그해 우리 후배들은 문 닫은 우리 학교 앞에서 대현초등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2004년 3월 야음교육단지에 용연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는 동창회에서 학교 이름 살리기 사업을 여러 차례 도전하고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다. 복교가 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복교라는 경사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 책은 기획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50년사의 자료 수집은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학교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았다. 왜냐하면 학교가 문을 닫았다가 복교하고, 옛 학교 주위의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버렸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편집 회의

단언컨대 다른 학교는 몰라도 우리 학교는 '50년사' 없는 '100년사'는 결코 편찬할 수 없다. 비록 이 책이 다소 부족하고 혹시 작은 실수가 있다면 먼 훗날 우리 훌륭한 후배들이 이 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용연초등학교 100년사』를 꼭 출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50년사'를 간행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분들을 이 글에서 모두 밝히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백판덕 용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윤대헌 향토사학자의 헌신적인 자료 제공과 이수우 전임 동창회장의 수많은 자료 제공과 집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무엇보다 열악한 편찬 작업에 온갖 수고를 한 이경애(8회), 김용석(15회), 박혜선(15회) 편집위원들의 노고는 편집위원장으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죽어도 뼈에 새기고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석하 편찬위원장의 편집위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이 사업에 가장 큰 공임을 밝혀 둔다.

2013년 12월

편집위원장 김진곤

편찬위원회 명단

편찬위원장 동창회장 제4회 김석하

편찬자문위원 제1회 김종찬
제2회 최해수, 이상종, 김종헌, 김계숙
제3회 이수우, 김일철, 장성권
제4회 이완석, 김득권
제8회 이민우, 박미정

편찬위원 제1회 김성일, 박철우, 박복선
제2회 양보성, 김계숙
제3회 임성호, 김명혜
제4회 이상율, 김춘옥
제5회 최해우, 박정례, 김태균(수석부회장)
제6회 박중렬, 황태준, 김영례
제7회 박의환, 임성인, 허화열(사무국장)
제8회 이안윤, 이미희, 김진곤, 이경애, 정관호(재무차장)
제9회 최해정, 최해종, 조경남(재무차장)
제10회 장대권, 조 희, 박막숙(사무차장)
제11회 한상갑, 이영이
제12회 이동훈, 이미영
제13회 이영우, 김소라, 심기동(사무차장)
제14회 박상현, 허동욱, 이인옥
제15회 김용석, 이미정, 박혜선

집필위원 제3회 이수우
제8회 김진곤

편집위원장 제8회 김진곤

편집위원 정남순(용연초등학교 교감)
제8회 이경애
제15회 김용석, 박혜선

교정·교열 제8회 김진곤

사진 촬영 이석호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감수 제3회 이수우

울산
용연초등학교 50년사

발행인 울산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장 **김석하**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울산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

편집·인쇄 애드비젼
052-274-9007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울산용연초등학교총동창회에 있으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